

제18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옥중별곡(獄中別曲)>외 59편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충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2015 제18회

공공 문화기 대전

2015년 5월 인쇄

2015년 5월 발행

발 행 인사혁신처

발행처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Tel : 02) 2100-6892 / Fax : 02) 2100-6879

펴낸곳 디자인크레파스 / 02)2267-0663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8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옥중별곡(獄中別曲)>외 59편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창작활동의 맛과 멋을 기르고 닦아서 윤택한 삶을 누리시기를.....

올해로 열여덟번째를 맞이한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한분 한분의 정성과 노력이 깃든 소중한 작품들을 한권의 책으로 엮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문학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온 공무원문예대전에는 금년에도 3,419편에 달하는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업무와 병행하여 창작활동을 이어온 그 열정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바쁜 업무 와중에도 취미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또, 잠시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시, 소설, 수필과 같은 문예창작은 이를 접하는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 영감을 준다는 점에서 분명 값진 취미활동입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멋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창조적인 창작활동의 맛과 멋을 기르고 닦아서 윤택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도 보다 창의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집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문학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반짝이는 맑은 영혼들

제18회 공무원 문예대전에 응모한 작품은 시, 수필, 동시, 시조, 단편소설, 동화, 희곡 등 모두 3,419편에 달한다. 작년의 2,864편에 비해 20%정도 더 많은 작품이 응모해 왔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현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문학에 이렇게 관심과 사랑, 나아가 창작에 마음을 쏟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학이야말로 거칠어진 우리의 심성을 어루만져 주고 인간성을 고양시켜 주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작품을 가지고 분야별로 총 17명의 중량급 문인들이 1차, 2차에 걸쳐 정독하고 선별하면서 심사에 임했다.

그 결과 단편소설 〈옥중별곡〉을 대상으로 뽑았고, 〈어느 저녁 반찬〉(시), 〈봄날은 간다〉(수필), 〈반구대 암각화〉(동시), 〈아름다운 접점〉(시조), 〈칸 이야기〉(동화), 〈WHO여? Me랑께! 누구여? 나랑께!〉(희곡)를



금상으로 뽑았다. 그 외에도 은상 13명, 동상 30명, 입선 10명 등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많은 작품 가운데 우열을 가려 입상작을 선발해 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수준급의 작품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었다. 문학에 대한 이해와 소양이 높은 공무원들이 우리 가까이에 많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은 크게 위로받고 고무되기도 했다.

가족이나 직장 등 일상적 소재로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으나 독특한 주제, 참신한 소재, 개성적 기법, 실험적 모색 등 앞으로 시인이나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작품들도 상당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작품 속에 흐르고 있는 따뜻함,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옹호, 그리고 맑은 영혼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문학이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어 삭막하게 경직된 마음을 포근하게 적셔주는 것이 그 책무라고 한다면, 이번 응모작품들은 그 문학의 책무를 상당부분 해내고 있다는 감회를 갖게 되었다. 참 즐겁고 반가운 일이다.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문효치

CONTENTS

- 004 발간사 인사혁신처 | 이근면
006 심사총평 심사위원장 | 문효치



- 수상작 014 대상 수상작 심사평 심사위원 | 이광복, 황충상, 이상문
015 대상 옥중별곡(獄中別曲) 전)경상북도 김천시 | 신유복



- 시 058 금상 어느 저녁 반찬 경기도 김포시 | 이효조
- 064 은상 창 강원대학교 | 김태인
067 춤추는 남녀무늬 향아리 경상북도 울진소방서 | 김일하
070 어미의 돌절구 법무부 대전교도소 | 김기범
- 072 동상 대화 화성동화중학교 | 김진대
074 석쇠 강원도 춘천시 | 고순용
076 일상 경상남도 교육청 | 문기훈
078 양파 부산광역시 | 윤명호
080 온기를 좇아 뒷걸음치는 지우개의 순애보 경상남도 통영시 | 서영호
083 Her 솔개초등학교 | 이동백
086 뽕짝의 바다 전)전라북도 익산시 | 김미숙
088 편지 — 늙은 느티나무 경상남도 거창군 | 이병두
090 어머니와 트로트를 서변중학교 | 심영호
- 092 입선 귀의 위치 전)경기도 부천시 | 정수경
095 나를 찾아서 법무부 서울구치소 | 박현준
098 난청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 고경자



소 설 102 은상 **치매 시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임문호

136 동상 **빈 배** 전)강원영동 병무지청 | 이상성

169 **새가 앉은 동안**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 | 서행련

194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 김철구

220 **젊음이 없는 도시** 의정부 민락중학교 | 김영완

240 입선 **숨사탕** 교육부 | 박은지



수 필 278 금상 **봄날은 간다** 삼천포 중앙여자중학교 | 김도숙

286 은상 **회초리** 법무부 서울남부교도소 | 채규보

293 **옥탑방의 겨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최경숙

301 **꽃** 서라벌 여자중학교 | 서형숙

307 동상 **내 유년의 여름** 전)울산광역시 | 김갑주

316 **달행이 술가락** 전)전주송북초등학교 | 정성수

321 **첫사랑** 미래창조과학부 경주우체국 | 조정임

326 **겨우살이** 강원도 태백시 | 남궁중

333 **일상예찬** 수륜초등학교 | 서동숙

339 **절망이 찾아준 또 다른 이름, 희망**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 신인교

351 **두근두근 심장소리는 희망입니다** 심창초등학교 | 진병국

358 입선 **큰 형님** 강원도 인제군 | 손미정

364 **아가, 넌 누구다냐?**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 이영표

CONTENTS



-
- 시 조 374 금상 **아름다운 접점(接點)** 충청북도 | 이승우
- 376 은상 **중년, 페달을 밟다**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 홍순열
- 378 동상 **글자에 색을 입히며 - 형광 펜** 전)경주초등학교 | 윤상근
- 380 **심해(深海) 새우** 경기도 고양시 | 정광우
- 382 **지구촌 삽화1 - 우간다 오누이** 경북고등학교 | 고윤석
- 384 입선 **연필을 깎다가** 전)강원도 평창군 | 이우식



-
- 동 시 388 금상 **반구대 암각화** 전)옥현초등학교 | 송명숙
- 391 은상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채나연
- 394 **항아리** 대전체육고등학교 | 김계석
- 396 **3월 4일** 진성초등학교 | 김애영
- 398 동상 **꼬마와 우체통** 미래창조과학부 순천우체국 | 김수미
- 401 **강아지도 공부가 하고 싶을까?** 전라북도 장수군 | 김현호
- 404 **외할머니의 계산법** 전라남도 신안군 | 이병언
- 406 입선 **암탉은 괴로워** 수락고등학교 | 이용호



동 화 412 금상 **칸 이야기** 완도여자중학교 | 정재학

430 은상 **바위의 창(窓)** 전)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 권재록

442 동상 **얼토당토 있는 토요일** 옥동초등학교 | 심진규

460 **파보는 내 친구**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이정희

474 **돌아온 망구아저씨** 통영두룡초등학교 | 강우성

491 입선 **기특이** 미래창조과학부 천안우체국 | 박지희

500 **숨은 별자리 찾기** 국세청 익산세무서 | 최현선



희 곡 510 금상 **WHO여? Me랑께! 누구여? 나랑께!** 서울남명초등학교 | 류호선

537 은상 **담장 밖 인성교육** 법무부 목포교도소 | 김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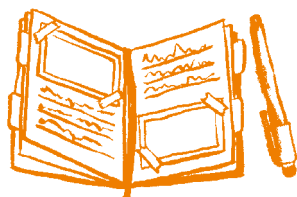
580 동상 **성공남녀**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관리위원회 | 이진선

610 부문별 심사평

제18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옥중별곡(獄中別曲)>외 59편

공무원
문예
대전

수상작품집



제 1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대상 수상작 심사평

옥중별곡(獄中別曲)

전)경상북도 김천시 신유복

심사평

주제가 뚜렷하고 소재가 신선한 작품이다. 살인을 저지른 에이즈 환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죽어가는 동안 성불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노련한 솜씨로 전개해 나간다. 주제의 중량감과 더불어 현대판 '등신불'로 읽히는 시사성이 있다. 더욱이 안정된 문장과 탄탄한 구성으로 서사구조를 잘 엮어냄으로써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역량이 단연 뛰어나 보인다.

날이 갈수록 메말라 가는 인성에 대한 성찰 또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에이즈, 치정으로 인한 살인 등 이런저런 담론이야말로 인성 부재의 실존일 수도 있다. 소설이 요구하는 여러 덕목을 골고루 잘 갖춘 역작이다.

심사위원: 이광복, 황충상, 이상문

수상 소감

전경상북도 김천시

신유복



오래전, 신춘문에 당선이 꿈이라고 했더니 직장 동료가 비웃으며 ‘꿈 깨라’고 한 적이 있었다. 무시하는 듯한 그 말이 가슴에 와 박혔다. 분노같은 것이 치밀었지만 잠시후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때 느낀 건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기가 생겼다. 이를 악물고 언젠가 실현될 때가 있으리라고 다짐하였다. 그게 수십년전이었다. 동료의 말이 옳았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나 공무원 문예대전 대상으로 그 꿈을 대체했다고 보면 될 것인가. 동료의 말이 약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육십 중반의 나이에 찾아온 뜻밖의 행운이 가슴을 떨게 한다. 아침 나절 밝은 햇살을 받으며 벅찬 감정을 추슬러 본다.

줄작을 뽑아 주신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옥중별곡(獄中別曲)

Y가 이곳 병동에 온 것은 며칠전이었다.

병동 끝방 10호실을 혼자 쓰게 되었는데 가부좌를 틀고 앉은 모양이 특이하였다. 독방 수용자는 주요 감시 대상이었지만 사고를 칠만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Y의 명적부에는 죄명이 살인, 선고 확정형은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었다. 수형생활은 5년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서른 여섯의 젊은 나이, 흰칠한 키에 영화배우 못지않은 준수한 얼굴이었다. 타교도소에서 이감해 온 그가 곧장 병동으로 온 이유는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접촉으로 균이 전염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방 차원에서 독방에 격리한 것이었다. Y는 자신이 기피 인물로 분류된 것에 개의치 않고 여유롭게 방한칸을 차지하였다.

병동이 생긴 이래 에이즈 환자가 수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인지 누구나 Y를 보면 꺼림칙하게 생각하였다. 직원들은 그와 접촉하기를 꺼렸고 같은 수형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운동시간에 Y가 나오면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였고 배식 시간에도 밥만 얼른 넣어주고 가버렸다. Y는 철저하게 외면당하였고, 병동 끝방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다. 자연스럽게 그는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아니 그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독서량이 많았던 것 같았다. 그가 보는 책은 주로 불교에 관한 것이었다.

Y의 동태는 수시로 관찰되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Y는 거의 가부좌를 하고 있었다. 식후에 잠시 소화를 시킬 요량으로 방안을 서성거리거나 책을 보는 것 말고는 대부분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와 얘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를 찾는 면회자도 없었다. 다른 방에서는 가끔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방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라곤 하루 한 번 주어지는 운동시간이 유일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당에서 시간대별로 갖는 종교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몇번 나가다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

Y의 가부좌는 남쪽 창문을 향하여 앉는 것이었는데 감시 창구를 통해 보면 늘 그의 뒷모습만 보였다. 머리를 깎고 푸른 수의를 입고 앉은 모양은 승려와 흡사하였다. 그가 가부좌를 하고 벽을 향해 응시하는 눈빛은 날카롭다 못해 뜨거운 기운을 발산하였다. 두꺼운 벽마저 뚫을 것 같은 그 열기는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담당 교도관이 Y와 가까이 접촉하는 일이라곤 이따금 불시에 실시하는 검방 시간이었다. 혹시나 모를 자해 도구나 소내 수칙에 어긋나는 물건을 숨기고 있거나 앓는지 검사하는 일이지만 그에게는 실상 해당되지 않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검방이 시작되면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송두리째 철저히 드러내 보이며 교도관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의심되는 부분을 들추어 보려 하면 앞장서서 의문을 해소시켜 주었다.

Y는 자신의 현 상황을 묵묵히 그대로 받아들였다. 얼굴은 무표정하였고 간혹 얼핏 미소같은 것이 어렸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어떤 연극속의 개성있는 역할을 맡아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처럼.

Y의 범죄 기록을 보면, 아내의 불륜을 참을 수 없어 아내와 내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내도 에이즈 환자였는데 아내의 무분별한 외도가 원인이었다. 처음 만난 아내가 에이즈 보균자임을 모르고 사귀었다가 어느 날 아내의 고백에 충격을 받고 한동안 방황하였다. 그 자신도 이미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었다. Y의 가족은 그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연을 끊었다. Y는 방황 끝에 아내를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 같이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으나 아내의 외도는 계속되었다. 한두 번은 용서했지만 그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내연남과 투숙하고 있는 여관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두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되어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Y의 고향은 경남 K군 H면 M리. 산간 오지마을이었다.

Y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농사일을 배우면서 자랐다. 어릴적 인근에 작은 암자가 있어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그의 부모가 일년에 한두 번 불공을 드리러 찾던 곳이었다. 삭발한 승려의 머리가 보석처럼 빛났다. 승려는 어린 그를 반가이 맞으며 온화한 미소를 띄웠다.

—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Y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한마디였다. 승려의 알 수 없는 읊조림이 그의 뇌리 속에 박혀 가물거렸다.

Y의 부모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가세가 기울어 어린 그를 데리고 도시로 나와 변변치 못한 생활을 하였다. 집안의 외동인 그는 다행히 공부가 뛰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의 꿈을 굽히지 않았다. 알바를 하면서 학업에 몰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갈등의 연속이었다. 몇차례 낙방을 거듭하고 절간 한구석에 처박혀 실의에

빠져있던 그에게 어느날 다가왔던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의 아내가 된 여자였다. 여자는 불공을 드리러 왔다가 우연히 그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듣고 흥미를 갖고 접근해 온 것이었다.

여자의 이력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소문에 의하면 여자는 대학을 다니다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중퇴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소개업소의 피임에 빠져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라고 하였다. 여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택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절을 전전하던 중 Y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Y와 여자는 바둑을 매개체로 하여 더욱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여자는 대학에 다닐때 바둑동아리에 들어가 바둑을 배웠고 Y도 대학교에 입문하자마자 입학 동기들이 두는 것을 보고 바둑을 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루트로 바둑을 알게 된 것이었지만 다같이 한때 바둑에 매료되었던 것 같다. 절에서 만난 두 사람이 불교보다는 바둑과 관련된 대화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바둑과 인생과 종교를 넘나들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어쨌거나 Y는 절에 기거하면서 여자를 자주 만났고 바둑을 두었으며 또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 바둑을 두는 여자의 모습은 고상하기 이를 데 없었고 Y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과거 여자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묻거나 따져볼 필요가 없었다. 호젓한 절간을 찾는다는 것, 더구나 바둑을 둘 줄 안다는 것은 여자로서 갖출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순박하고 참하게 생긴 얼굴은 Y가 찾던 이상형이 아닐 수 없었다. 우연히 찾아온 Y에게 넉쿨째 굴러온 운명의 여신처럼 느껴졌다.

Y는 식사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었고 밥과 반찬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는 식사량을 줄이려는 생각으로 밥을 적게 주문하였는데 그의 요청대로

적은 양의 배식을 받았다.

Y는 식사를 하고 난 뒤 절에서 익힌 불무도(佛武道)로 운동을 하는 일이 많았다. 실내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기공, 요가, 무술을 겸한 것으로 그는 운동을 할 때에도 참선을 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Y가 운동을 하고 나면 무표정하고 침울했던 얼굴이 다소 밝아지곤 했다.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흘렀다. 식사를 옹게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몸에 익힌 불무도의 기운인 듯했다.

Y는 식사 후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창틈으로 담당 직원에게 말을 거는 여유까지 부리기도 하였다.

- 담당님.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담당님도 비만형으로 보이는데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죠.

Y가 독방에서 보내는 하루 일과 시간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아침 여섯 시 기상, 일곱 시 인원점검, 일곱 시 반에서 여덟 시 사이 식사, 열두 시에 점심, 오후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 사이 인원점검 후 저녁 식사, 휴식 후 아홉 시 취침. 교도소 규칙에 따른 매일 반복되는 시간표였다.

Y가 식사량을 줄이고부터는 참선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

Y는 점심을 거르고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끼 식사를 하였다. 일일 시간표에서 점심이 생략된 것이었다. 그는 두 끼 식사도 하루 한 끼로 줄이려고 생각하였다. 별다른 노역을 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

다는 것과 참선하는 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식사 제공은 소내 규칙상 중단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식사 배달담당과는 목계적으로 처리하였다.

Y의 건강이 염려되어 담당 직원이 소내 의무실의 의사에게 그의 건강 검진을 부탁하였다. 소내의 열악한 의료환경이었지만 의사는 명문 의과 대학을 나온 우수한 인재였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체중 감소는 에이즈 발병과는 무관하고 단지 영양결핍이 우려되니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에이즈 발병의 초기증상인 감기,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Y가 에이즈에 걸린 것은 벌써 십 년 전이었는데 아직 발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에이즈의 잠복기가 긴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었다. Y의 의학에 대한 지식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자신의 병에 대한 대비도 해 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에이즈와 싸워오는 동안 조금씩 힘이 부치는 것 같았다.

하루 두 끼의 식사는 그 나름대로의 계산 하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인간의 모든 화근은 욕심과 고정관념 때문이다.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한다는 것,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욕망. 이 족쇄같은 멍에에 얽매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자유를 찾는 길이다. 질병의 치료도 가능하다. 병을 치료하기에만 급급하여 정작 더 근원적인 마음의 치료에는 안중에도 없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 병동에 수용된 사람들은 육신과 마음의 병에 이중으로 갇혀 있었다. 밖에서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삼중, 사중의 포위망에 갇혀 있는

꼴이었다. 그 껍질을 아무리 벗겨도 속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곳 병동이 조금은 편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잔피를 부려 환자로 둔갑하여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실외 운동시간은 하루 한 번씩 병동 앞의 간이 마당에 나와 십여 분간 바깥 공기를 마시고 들어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삼십 분의 규정시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실외 운동시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라는 교도소장의 방침이었다.

Y가 십여 분간의 실외 운동시간에 움직이는 모습은 흥미로웠다. 감방문이 열리자마자 날렵하게 복도를 걸어나와 마당쪽으로 나간다. 자기만의 독특한 맨손체조를 한 뒤 불무도 동작으로 들어간다. 양팔과 발을 자유재로 움직이며 하늘을 날 듯이 몸을 날려 공중회전을 하고 땅을 기어가는 시늉을 한다. 사냥감을 낚아채는 맹금류의 모양새가 되는가 하면 돌발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 자세도 보인다. 쓰러질 듯 하다가 일어서고 일어섰다면 넘어지면서 다시 되살아나기도 한다. 파도가 물결치듯 일렁이는 그의 몸은 상당히 유연하여 빠가 없는 연체동물을 연상시켰다.

간이 마당의 좁은 공간은 활개치는 Y의 동작으로 더욱 비좁아 보였다. 동료 수인들은 그의 날렵한 동작을 보고 놀라는 듯했지만 에이즈환자라는 선입관 때문인지 비아냥 섞인 투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분초를 다투는 운동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호흡을 빠르고 깊게 하여 바깥 공기를 최대한 흡입하였다. 마당 주위에 둘러선 나무에서 나오는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을 맡으려고 나무 주변을 맴돌기도 하였다.

Y는 여자를 알고부터 공부를 자연히 동한시하였다.

책을 펴놓고 있노라면 머릿속은 온통 여자 생각 뿐이었다. 두사람의 만남은 처음엔 여자가 적극적이었지만 나중엔 Y가 안달이었다. 혹여 여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공부는 뒷전이고 절간 입구를 주시하는 게 다 반사였다. 절간에서는 두 사람의 인연을 예사롭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부처를 섬기는 마음이 열성적이었고 신심이 깊어 부부의 연을 맺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였다. 절간은 두 사람의 만남의 장소였고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서로에 대한 정보는 잘 알지 못했으나 모르면 모르는대로 좋았다. Y가 주변 신도들을 통해 여자에 대해 안 것이라곤 결혼 가정에서 자라나 어렵게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중퇴하였으며 집안의 생계를 돕다가 홀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풍문 정도였다.

식사량을 줄인 탓인지 Y의 얼굴은 전보다 수척해 보였는데 눈망울은 더욱 초롱하였다.

운동이 끝나면 Y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명상을 하였다. 물론 가부좌를 한 자세였고 그것은 곧 참선이였다. 일정 시간의 참선이 끝나면 책을 보며 머리를 식혔다.

Y는 한때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었다. 세례도 받고 열심히 성당에 다녔으며 활동단체에도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절대자(하느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였다. 전교 사업에도 참가하여 각지를 돌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천주교를 홍보하고 예수와 하느님의 존재를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자들이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의를 느꼈다. 인격의 이중성도 그를 실망시켰다. 인간이기에 그런 결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내면

도 마찬가지였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성당에 나가는 것이 싫어졌고 발길이 뜸해졌다. 몇 년 동안 성당을 다니지 않다가 결국 성당과 멀어졌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다. 신은 과연 있는 것인가, 사후세계와 천국도 의문이었다. 절대자에 대한 자신의 맹목적인 믿음이 흔들렸다. 스티브 호킹의 말 때문이었다. 성벽처럼 단단하게 다져왔던 믿음의 성곽에 금이 간 것에 자신도 놀랐다. 호킹의 말은 단순하였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만들어 낸 동화일 뿐이다, 죽기 직전 뇌가 깜박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다름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간단명료한 말이었지만 그것이 Y를 여지없이 강타하였다. 그가 당초 천주교를 택했던 이유도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만물 창조론에 대한 복잡한 논쟁 따위는 절대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논리만 수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없었다. 절대자에 순응하면 만사형통이었다. 거칠 것이 없었고 종교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한 그가 호킹의 간단한 설명에 너무나 쉽게 흔들렸다. 너무 쉽게 절대자를 신봉한 탓이었을까. 신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머리의 뇌 파가 멈추면 바로 죽음이다, 그것으로 끝이며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바로 컴퓨터와 같다는 말을 곹씹으며 Y는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면 되듯이 인간도 수리해서 쓰면 될 것 아닌가, 그렇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몇 번 고쳐 쓰다가 안되면 용도폐기될 것을. 간단할 수밖

에 없는 것을 인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단지 신을 믿고 안믿고 그 차이뿐이다. 불가사의한 우주를 신이 만들었다고 또 그것을 믿는 것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Y가 불교 쪽에 관심을 가진 것은 꼭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느낀 것은 인간은 자신의 감옥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교도소는 범죄자를 격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범망 안으로 몰고기처럼 뛰어 들어오는 것은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다. 실정법뿐 아니라 마음의 법을 순간순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것을 제어하고 넘어설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대자에 의해 주어진 계명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불교였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을 열어젖히는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은 한껏 조용해지고 살만한 곳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았다. 교도소 안도 마찬가지였다. 교도소 밖이 자유 속의 감옥이라면 교도소 안은 제재속의 감옥이었다. 법이라는 철망을 가운데 두고 넘나드는 인간들을 속아 내고 있는 곳이 교도소였다. 하지만 몸은 묶어 놓을 수 있어도 마음만은 그럴수 없었다. 마음의 자유,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것이었다. 교도소도 높은 담벽이 둘러쳐져 있을 뿐 한정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바깥에서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 일어나듯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도 예민한 사건이 벌어졌다.

Y가 속해 있는 병동은 교도소의 한구석 외진 터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이발소가 붙어 있었다. 갇힌 공간에서 신체의 모발은 잘도 자랐다. 그는 오랫동안 이발을 하러 갔다.

이발소에는 가위, 면도기 등 위험 도구가 있어 특별한 관리와 경계를 요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Y의 바로 옆에서 이발을 하고 있던 S가 의자에 누워 면도를 할 즈음 순간적으로 면도칼을 탈취하였다. S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면도를 하려던 이발사가 당황하였다. 급작스런 사고로 이발소 안은 긴장에 휩싸였다. 이발 대기자와 이발사가 한 발짝 물러섰다. Y도 한구석으로 물러났다. 출입구에서 이 광경을 본 담당 교도관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들어왔다.

- 야, 1548(S의 수인번호)! 무슨 짓이야? 칼 내려놔!

S는 일개 말단 교도관 따위의 만류에는 별 관심도 없다는 태도였다. 당연히 책임있는 상급자와 말하겠다는 것이었다.

S는 이십대 초반의 젊은이로 강도상해죄로 들어와 복역 중이었다. S가 난동을 부린 이유는 수형자 분류평가에 대한 불만과 다른 불평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돌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수형자 분류 평가는 수형자의 활동 상황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소내 처우가 달랐고 모범수로 선정되면 가석방과 형기 감형, 사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재소자들은 분류 등급을 잘 받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담당 교도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S의 난동으로 소내는 즉각 비상이 걸렸다.

이발소 주변에 교도관들이 에워쌌다. 병동 주변에도 교도관들이 만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S와 교도소 측과의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담

당 실무자 선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A보안과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 칼부터 치우고 얘기하자, 창영이.

보안과장은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수인번호 대신 이름을 불렀다. S의 반응은 냉담했다.

- 제 요구부터 들어줘야지요. 안그러면 칼 안놓을 겁니다. 분류 등급 올려주고 방 배치 새로 해 주지요.

보안과장은 무조건 다 들어주겠으니 칼부터 우선 놓으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순순히 들어줄 S가 아니었다. S는 사실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을 벌인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이런 난동의 후유증은 자신에게 얼마나 더 가혹한 댓가가 있다는 것을 모를 S가 아니었다. S는 자신의 행동이 소내의 다른 재소자에게 영웅처럼 우러러보이기를 바랐고 교도관들이 함부로 자신을 대하지 말 것을 은연중 기대하고 있었다. 이미 빼든 칼을 그대로 주저앉힐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노련한 보안과장의 눈치 작전에 따라 교도관들이 S를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교도관들이 조금씩 그를 압박해 들어왔다. S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순간 S는 들고 있던 면도칼로 자신의 복부를 그었다. S는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려 했던 것이었는데 칼날은 그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 깊이 들어가고 말았다. S의 복부에서 피가 솟구쳤다. S는 이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배를 잡고 버티었다. 피는 멈출 줄을 몰랐고 급기야 복부의 내장까지 드러나고 있었다. S는 자신도 놀랐는지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손으로 복부의 내장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그 순간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S를 붙잡았다. S의 저항은 별수 없었고 교도관들의 포로가 되었다. S는 외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S의 난동으로 소내 계호는 더욱 강화되었다.

S의 사건은 Y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언젠가 종교시간에 강당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천진난만하게 보였던 그가 자해할 만큼 독할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S의 범죄 경력도 강도상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것처럼 착하고 순수하게 생긴 해맑은 얼굴의 소유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야누스의 얼굴을 타고난 것일까. 모든 범죄자는 야누스처럼 이중적인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며칠 뒤에는 미결수 감방에서 자살 사건이 터졌다. 고위 공직자 한사람이 뇌물죄로 들어와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비닐 노끈을 만들어 새벽에 목을 맨 것이었다. 자살 사건은 감시 소홀이라는 문책성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지만 어차피 가족들이 알게 되므로 별 도리없이 밖에서도 알게 마련이었다.

연쇄반응이 일어난 것일까.

Y가 있는 병동에서도 한 사람이 병으로 죽어 나갔다. 다른 감방보다는 죽어나갈 확률이 더 많은 곳이었지만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죽은 사람은 4호실에 있던 P였다. P는 열일곱 살의 미성년자로 소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었으나 급성 신장염으로 병동에 임시 수용되어 있었다. 나이에 비해 키가 작았으며 별 말이 없고 창백한 얼굴에 병색이 완연하였었다. P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컸다고 했다. 열두 살 때 고추 두근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로 절도죄로 전과를 쌓아 오다가 신장염이 깊어져 병동에 수감된 것이었다. P는 연고자가 없어 의사의 사망 확인 후 별다른 절차없이 교도소 뒤 공동묘지에 묻혔다.

연이어 터지는 사건 때문에 소내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였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상사. 그때마다 Y의 머릿속에서 하얀 거품같은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죽음의 벽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나약한 인간.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쓰러지는 파도의 포말같은 것이었다. 끊임없이 부딪혀 부서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죽음도 하나의 일상처럼 느껴졌다. 일상의 가벼움. 죽음을 그 가벼움에 포함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인간의 끝, 그 마지막이 죽음이었다.

병사와 자연사, 사고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자살이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를 능가한다는 통계도 있고 교도소 내의 자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다. 자살하는 사람의 용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자신을 스스로 단죄할 수 있다는 그 용기만은 가상하다고 할 수 있었다. 자신을 물리적으로 자해하고 목숨까지 단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남다른 비범함이랄까. 보통과 비범함의 차이는 용기인지 모른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행위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산 목숨으로는 해답을 얻지 못해 죽음으로써 그 답을 찾으려고 말이다. 생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모든 자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답을 얻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자살하는 순간 그 자신은 이미 저쪽 세상으로 건너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답을 얻기 전에 그의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했던 답은 영원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다. 답을 얻었다면 저승에서 얻었을 것이므로 죽음의 벽에 차단 당하여 이승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해답을 얻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 고통스런 이승을 등지고 싶어 택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자살행위 자체가 해답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소내의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서 Y의 마음도 더욱 쓸쓸해졌다. 그러나 자신에게 정해진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아침 기상과 점검, 운동, 하루 두 끼의 식사, 독서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참선으로 이어졌다. 소내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Y의 귀에 들어왔지만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곤 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Y를 좀 더 자극할 따름이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충격의 강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다른 재소자의 죽음은 그에겐 한낱 부질없는 사물의 소멸에 불과하였다. 그 자신도 죽음의 병마를 안고 있었고 그곳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 뿐이지 누구나 죽음의 가방을 옆에 끼고 있는 것이다. 언제 죽음의 저쪽으로 건너갈 지 모른다. 다만 Y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까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느낄 뿐이다. 갇힌 공간, 자신이 저지른 죄의 업보, 몸 속에서 그를 갇아 먹고 있는 에이즈균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Y는 그런 것을 떨쳐 버리기라도 할 듯이 참선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참선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게 아니었다. 매번 가부좌를 틀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간혀진 공간과 마음의 틀을 벗어나고자 무념무상을 지향해 보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불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배운 참선의 방법도 하나의 뜬구름 같은 말로만 들렸다. 눈을 감으면 암흑으로 변하는 동공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건져야 할 것인지 막막하였다. 마음을 집중하면 할수록 더 짙은 암흑이 몰려와 Y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마음을 하나의 경지에 정지시켜 흐트러짐이 없게 한다는 것, 그것은 사격 선수가 과

녀의 정점을 맞추기 위해 한순간 호흡을 정지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과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 정점을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었다. Y가 정점의 순간에 진입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오래
 지속시킨 경우는 별로 없었다. 호흡을 정지시켜 정점을 유지하려고 하
 면 가슴이 아려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 찰나의 순
 간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쾌감을 느꼈다. Y는 그 영역을 엿본 뒤로 그
 곳을 찾기 위해 참선의 시간을 늘렸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다.
 두 끼의 식사도 하루 한 번으로 줄였다. 잠도 최대한 줄였다. 과거 큰 스
 님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장좌불와를 했다는 것을 듣고 경이롭게 받
 아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Y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 법에 의해 강제로
 갇힌 방이었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참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였다. 불
 경이 그랬고 예전에 배웠던 바둑이 그랬다. 불경이 부처의 가르침을 담
 은 거라면 바둑은 참선을 구현하는 동반자같은 역할을 하였다. 독방에
 갇힌 그는 바로 바둑의 한 칸 방에 갇힌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미로를
 헤매다가 감방이라는 싱크홀에 빠진 형국이었다. 참선이 제대로 되지 않
 을 때엔 바둑을 통해 그 길을 찾았다. 선과 선으로 이어진 길을 통과하여
 또다른 선으로 연결되는 끝도 모를 선상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머릿속에
 바둑판을 그려 놓고 맹기(盲其)를 두듯이 수를 놓으며 참선의 세계로 빠
 저 들어갔다.

Y가 신우회원들과 여자를 문병갔을 때 여자는 허름한 골방에서
 홀로 몸져 누워 있었다.

여자는 좁은 단칸방에 기거하고 있었고 살림살이 도구도 단출하기 그

지 없었다. 어두운 조명 밑에서 병마에 시달려 온 흔적이 역력하였다. 간이 책꽂이엔 불교와 바둑관련 서적이 눈에 띄었다. Y의 호감을 갖게 한 것은 당연하였다. 자신과 같은 분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았다. 병문안 후 Y와 여자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공부를 벗어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침터에서 바둑을 두기도 하였다. 불교와 바둑을 오가며 인생을 논하였다. 여자가 불교를 얘기할 때에는 신심 깊은 비구니를 보는 듯했고 바둑돌을 놓을 때에는 어느 여류 프로기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소내의 규칙상 참선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했다.

Y는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하였다. 참선의 핵심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도를 높이느냐 하는 것이었다. 집중의 강도를 높이되 중간의 끊어짐은 두뇌의 휴식으로 간주하였다. 휴식 시간동안 다음 참선으로 들어가기 위한 충전의 기회로 삼았다. 한 단계씩 좀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정념의 주춧돌을 놓듯 마음의 집중도를 높여 나갔다. 그런 훈련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머리의 뇌파가 불규칙적인 파동을 일으켰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현기증을 유발할 때도 있었다. 참선이 시작될 때 맨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의 정신상태의 끈을 잡아야 하므로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마치 연줄을 팽팽히 잡아 당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또다시 참선의 화두는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화두를 잡기 위해서 몇날 며칠 해매이고 다녀야 했다.

Y의 화두는 ‘죽음’이었다. ‘죽음’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나 뚫고 나가야 할 거대한 장벽이었다. 죽음 뒤의 세계는 차후의 문제였다. 어떻

게 죽느냐가 그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어디에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죽음의 관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죽음의 관문도 여러 갈래일텐데 어느 쪽을 택하여 갈 것인가. 관문을 잘 선택해야 사후 세계의 길도 달라질 것이었다. 그는 참선을 할 때마다 그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자살과 타살, 그리고 자연사. 죽음의 열차를 타는 경우는 각기 다를 것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신이 자연사를 하기에 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혼자 있는 감방 안에서 타살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고 자살은 더욱 맘이 내키지 않았다. 참선의 와중에서 죽음과 관련된 말들이 머릿속에서 무수히 난무하였다.

참선하는 시간대가 가장 좋은 것은 취침시간 이후였다.

아홉 시가 되면 모두가 취침토록 되어 있었지만 Y는 담당 직원의 특별한 배려로 앉아서 취침하는 것을 허락받고 있었다. 그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낸 그의 모범적인 소내 생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일정 시간의 취침을 강요하는 것은 소내 규칙이긴 했지만 재소자에게 정신적인 휴식을 주는 것이어서 비난할 일은 아니었다. 잠을 자는 것은 누워서 자도록 되어 있지만 앉아서 잘 수만 있다면 그것도 취침의 한 방법이었다. 잔다는 취지에서는 누워서 자나 앉아서 자나 차이가 없다. 누워서 자면 계호하는 측에서는 편하게 보이는 반면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그만큼 불안해 보이기 마련이다. 그는 앉아서 자는 것으로 담당 직원을 설득한 것이었다.

취침 시간을 일찍 정해 놓은 것은 여섯 시라는 기상시간이 이른 탓도 있지만 잠생각하지 말고 일찍 자라는 취지였다. 소내에서는 그저 아무런 탈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최상의 길이었다. 아무런

사고없이 지나가기만 한다면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사건사고가 없으면 교정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교도소장은 인사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든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또 될 수 있으면 늦게 일어나는 것이 좋으려면 죄지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죄과를 치르기 위해서는, 나태하고 황폐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갇힌 공간에서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야 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잠자는 일이었다. 잠만 제대로 잘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눈만 감으면 금새 잠 속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잠에서 죽음으로 연결되는 터널은 없는 것일까. Y는 그것이 궁금하였다. 상하수가 흘러가는 관이 다르듯이 서로 엮일 수 없는 것임에도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갇힌 감방에서 비상식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돌출되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상식적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할 것도 같았다. 눈으로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초인적인 일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상하수도관을 따로 만들었지만 부작용을 감수하고 그것을 연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잠과 죽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결될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찾아보면 어디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었다. Y가 그 매개체로 생각한 것이 참선이었다. 참선은 잠과 죽음을 연결하는 도구라고 여겼다. 참선을 통해서 잠을 자고 잠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Y가 참선에 매달리다시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Y는 참선을 하면서 잠에 빠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큰스님들의 장좌불와를 따르려는 욕심에 천방지축으로 나대는 꼴이었다. 화두에 매달려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곤 하였다. 참선과 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가 쫓던 화두는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실종된 어린 아이를 찾듯 그는 정신없이 헤매이고 다녀야 했다. 머릿속의 질척거리는 높은 엉망이었다.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기진맥진하기 일쑤였다. 겨우 정신을 추슬러 의식을 찾으려면 자신이 허튼 자세로 감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Y가 식사를 하루 한 끼로 줄인 이후로 눈에 띄게 몸무게가 줄기 시작했다.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시간에 몸을 풀었고 한 끼 식사로도 몸의 작동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담당 직원의 걱정을 뒤로 하고 그는 식사와 운동시간 외에는 여전히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독서는 최근에 와서 거의 하지 않았다. 불교의 교리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설법도 자신을 극복하고 깨우침을 위한 보조자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완성시키는 최소한의 도구.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었다. 오직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면서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요구되었다.

Y가 이곳 병동에 온지도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참선에 임하면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하얀 종이 위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예전에는 볼 수 없는 진전된 현상이었다.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점령하여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정화

되어 갔는데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혼돈으로 빠져들곤 하였다. 머릿속의 세계는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통제 기능이 잘 입력된 자동세탁기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발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집중된 마음의 과녁을 놓치면 순식간에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버렸다. 고도의 집중력과 한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정밀하고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Y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다음 단계로 옮겨 갔다.

Y의 몸이 너무 수척해져 가자 담당 직원이 소내 의사에게 다시 건강 검진을 의뢰하였다.

Y의 몸무게는 오십 킬로그램에도 훨씬 못 미쳤지만 그 외의 다른 곳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이긴 했으나 몸무게가 더 줄지 않도록 식사를 늘일 것을 의사는 권유하였다. Y는 의사의 권유를 고맙게 생각했지만 식사는 하루 한 끼 그대로 유지하였다.

Y의 정신상태는 더욱 맑아지고 또렷해져 갔다. 하루 한 끼 공급되는 영양분이 격렬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그에게는 그다지 부족한 것은 아닌 듯했다. 그는 하루 십여 분간 주어지는 운동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더욱 가벼워진 몸매로 날렵하게 병동 입구로 나가 병동 앞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불무도를 연습하였다. 다른 수인들 중에는 그의 동작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흥내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마당 가운데 있는 느티나무를 상대로 맨손으로 대적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하였다. 느티나무는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나 감방에 갇혀 있는 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느티나무 옆은 6·25사변 전까지는 우물터였다고 하는데 전쟁 때 부역자와 좌익수들을 끌어내어 죽인 사건으로 우물을

폐쇄해 버렸다고 한다. 당시 병동에는 북한군의 점령지에서 부역을 한 사람들과 해방후의 간첩, 좌익수들을 한곳에 모아 놓았는데 서른 명은 죽히 넘었다고 했다. 우물 안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빠진 채로 매장되었다는 소문만 나돌 뿐 아무도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대로 지워져 버린 모양이었다.

Y의 운동은 심여 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적지 아니하였다. 적은 시간이지만 거의 매일 꾸준히 하여 몸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심적으로도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 참선에도 도움이 되었다. 참선은 참선하기 전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참선에 들어가기 전의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참선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시간만 낭비한다. 참선 후의 마무리하는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올바른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 중에 화두를 들고 들어가 머릿속의 광맥을 깨내듯이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Y는 참선 중에 잠에 빠져드는 일이 많았지만 꿈은 좀처럼 꾸어지지 않았다. 간혹 알 수 없는 몽롱한 세계를 헤매다가 빠져나왔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우지끈거리기만 하였다. 그런 Y가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바로 병동 앞마당에 엮힌 것이었다.

총성이 몇 번 울리더니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느티나무 옆 우물가에서 한가롭게 서성이던 수인들이 화들짝 놀라 한쪽으로 물러섰다. 지휘자인듯한 군인 한명이 권총을 들고 소리쳤다. “이 반역자들! 조국을 배반하고 빨갱이 앞잡이 노릇을 하다니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조국의 이름으로 너희를 처단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한사람이 폴짝 거꾸러졌다. 나머지 군인들도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우물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달아나려는 수인들은 한

쪽 구석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한순간에 죽음의 도가니로 변했다. 지휘자의 말에 따라 군인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우물 안으로 던져 넣었다. 아직 숨이 채 끊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신들을 다 해치운 뒤 우물 뚜껑을 덮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잠시 후 군인들은 유유히 그곳을 떠났다. 교도소측은 전쟁의 와중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특수 임무를 띤 군인들이 저지른 일로 치부하고 일체의 해명을 하지 않은채 세월이 흘렀다. 잠들지 못한 영혼들마저 겁에 질린 채 우물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다. 그런 그들이 Y의 꿈속에 나타나 울음을 토해 낸 것이었다. 머리칼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렸다. 검은 수포를 보는 것 같았다. 우물 안에서 아우성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 저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부역을 한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부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쟁통에 내 한목숨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핍박하긴 했으나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있었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 당신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정말 죽을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정당한 절차도 없이 불시에 쳐들어와 총부리를 겨누어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 어두운 우물 속에서 수십 년을 떨고 지냈어요. 어서 저희들의 억울함을 달래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의 유골을 발굴해서 묘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한 생을 살고 갔다는 표시라도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Y는 불현듯 눈을 떴다. 식은 땀이 배어 나왔다. 시간을 짐작하기 어려운 짙은 어둠이 창밖을 채우고 있었다. 참선 자세로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몸을 추스렸다. 가부좌를 튼 무르팍에 가벼운 통증이 느껴

졌다. 꿈속의 영혼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영혼들은 Y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매달렸었다.

Y는 참선의 와중에서 엉뚱한 숙제를 떠안은 셈이었다. 그가 담당교도 관에게 꿈 얘기를 하자 피식 웃으며 자네 걱정이냐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뭔가 해야만 했다. 꿈속의 원혼들을 달래주기 위해 백방으로 글을 써서 보냈다. 감방에 갇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여겼다. 교도소의 달갑잖은 눈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국가인권을 다루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였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병동 앞마당에 중기가 동원되어 우물터를 파헤쳤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중기의 요란한 소리에 참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야간 작업은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는 것이라면 참선을 방해받는 것 쯤이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다. 그의 참선은 중기의 핑음마저도 흡수하였다.

며칠 뒤 땅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업하던 인부들의 손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부드럽고도 바쁘게 움직이던 그들의 손에서 꿈속의 영혼들이 말한대로 수십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유골은 수거되어 연고가 있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인계되었고 무연고 유골은 교도소 뒤 야산의 공동묘지에 묻혀졌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석달만에 이루어졌는데 Y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큰 짐을 내려놓은 듯이 홀가분하였다. 자신의 죄과를 조금이나마 갚은 심정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소내에서 Y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경계의 시선을 넘어 함부로 범접치 못할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았다. 국가 인권을 다루는 사람과 교류를 한 탓인지 교도소측에서도 전보다 다른 시각으로 대하였다.

Y가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된 것은 절에서 만난 뒤 일 년이 지나서였다.

방은 Y가 구하였고 여자는 Y의 공부를 뒷바라지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자의 말은 진정성이 없어 보였는데 Y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여자에게 이끌렸다. 사랑에 눈이 먼다고 하였던가. 여자의 어떤 흠결도 조용히 묻혀 버렸다.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밥 먹는 것 외에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육체적 교감을 하였다. 여자는 남자에게 굶주린 것처럼 Y에게 달려들었다.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Y를 정말로 좋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다. Y는 육적 교감이 사랑인 줄 알았다.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만큼 순진했다고나 할까, 육적 쾌락에 눈이 어두워分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하지만 경제적 궁핍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먹을거리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우기도 했다.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사랑은 식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랑을 식히지 않기 위해서 여자는 소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Y의 애정이 풋사랑이 아닌 순수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고 여자는 그 순진무구한 점이 마음에 들어 Y와 같이 살기로 했던 터였다. 하지만 여자가 일거리를 찾아낸 것이라곤 고작 과거에 한때 경험했던 술집 접대부에 지나지 않았다. 식당이나 공장의 생산직은 아예 안중에 없었다. 힘든 노동보다 일순간 목돈을 버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탓도 있었다. Y를 위해 일을 택한 것이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술집에서 만난 술한 남자들이 여자를 넘보았는데 옛날 한때 만났었던 사내가 다시 여자와 교우하게 되면서 여자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자의 외도를 안 Y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나선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진 것을 탓하기엔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기약 없는 사법고시의 꿈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이었다. 당장 밥을 해결하기도 힘든 판에 공부는 사치나 다름없었다. Y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빠졌다.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농락당한 심정이었다. 자신은 한낱 노리개에 불과했던가. 여자의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이용되었던 것인가. 송두리째 뒤틀린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란 어려웠다.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극을 치달아 올랐다.

Y는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일관하면서 먹는 음식에 대해 흥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식단은 매일 조금씩 달랐지만 보리와 콩이 섞인 밥과 국, 김치와 기타 반찬류 등 모두 네 가지 안팎이었다. 죄인에게 주는 식사치고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저 감응하고 먹어야 했다. 사회에서 외면 당하여 벌어 먹기 힘들어 갈 데가 없어 교도소로 들어오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짓는 자들의 심사도 이해할 만했다. Y는 자신같은 중죄인에게 주는 음식은 더욱 고마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도 분에 넘치는 것이었다. 자신의 육체를 지탱시켜 주는 음식,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 귀한 손님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다.

음식을 보면 Y는 먼저 예를 표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눈물겹도록 고마운 맘으로 숟가락을 든다. 음식을 입안에 넣어 꼭꼭 씹는다. 씹는 소리는 마치 음식과 대화하는 것처럼 들린다. 음식과 이빨, 턱뼈가 마주쳐

3박자가 되어 사각거리는 소리가 감방 안을 울린다. 적적한 방안의 공기를 가르며 음식의 향기가 맴돈다. 될 수 있는 한 오래 꼭꼭 씹는다. 달착지근한 맛이 혀에 감돈다. 잘 씹힌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긴다. 꿀꺽. 목줄기를 타고 넘어간 음식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몸 속으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직감한다. 수돗물이 관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듯이 입속에서 씹힌 음식물의 잔해가 위속으로 들어가 각 장기를 통해 몸의 각 부위에 전달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했다. Y는 매일 한 끼의 식사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하였고 더 이상의 공급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몸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며 정신을 집중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지 않았다.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도 했다. 공중부양된 듯이 허공에 뜬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다. 마술에서 보는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참선이 고도의 경지에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리라.

Y가 참선의 문을 열면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었다.

빛과 어둠.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하는 명암의 그늘에서 그의 손에 피를 묻힌 두 영혼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 의식의 심연 한구석에 사라지지 않는 양금같이 도사리고 있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머릿속 어항을 헤집고 다녔다. 두 사람의 환영이 흐느적거렸다. 여관을 찾았을 때 두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였었다. 서로가 좋아서 만났는데 뭐가 나쁘냐는 식이었다. 아내도 Y를 빈정대는 표정이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갔던 Y는 한치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두 사람에게 여지없이 분노가 폭발하였다. 극에 달한 감정은 자제력을 잃고 있었다. 품고 있던 흥기를 꺼내 들었다. 흥기를 보고서도 두 사람은 비웃었다. 네까짓게 찌를 수 있을건가. 찌를

테면 찢러 보라고. 오히려 여자가 코웃음쳤다. Y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한때 장래를 약속했던, 그의 영혼마저 잠재우며 사랑을 불태웠던 여자가 외간 남자의 품에서 Y를 가소롭게 여기고 있었다. 일순간 Y의 손이 떨리는 듯하더니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남자가 먼저 고꾸라졌다. 사색이 된 여자는 뒤로 물러서며 도망가려 했다. 시위를 떠난 Y의 화살은 멈출 줄 몰랐다. 곧바로 뒤쫓아가 여자의 등허리를 찔렀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사람 살리라고 외쳤다. 여자는 몇 발짝 더 못가 쓰러졌다. 외마디 소리가 터져 나왔다. Y의 손과 옷이 검붉은 색으로 범벅이 되었다. Y는 쓰러진 두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듯이 다시 칼로 짓이겼다. 방바닥이 피로 물들고 신음소리는 잦아들었다. 주검으로 변한 시신은 고깃 덩어리처럼 난도질 당하였다. Y의 눈은 분노의 불길을 끄지 못하는 듯 이글거렸다. 인간의 증오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더 이상 갈 데 없는 막바지에서 Y는 악의 수괴처럼 피를 묻힌 채 증오심을 발산하고 있었다.

Y는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Y는 피의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이 온몸이 피로 덮여져 있었고 방안은 검붉은 피바다로 변해있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광경에 경찰도 처음엔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Y는 경찰 앞에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Y의 얼굴은 담담했으며 살인할 때의 살벌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목적을 달성한 승자의 기운이 엿보였고 무표정한 얼굴은 어떤 여유로움까지 내비치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방 안에서 두 영혼이 양탈을 부리듯 한동안 떠나가지 않았다. Y는 눈을 부릅뜨고 죽은 두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 늘어붙어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결같이 눈을 뜨고 있었는데

Y를 향해 화살을 겨냥하는 듯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직도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을 거두려면 Y 자신이 나서야 했다. 레이저 광선처럼 붉게 드리워진 증오의 시선을 걷어 올려야 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간 원혼들을 달래려면, 부릅뜬 눈을 감기려면 Y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었다. 아직 영원히 잠들지 못한 두 사람의 영혼을 이제는 편히 쉬게 해 줘야 할 것 같았다. 남의 영혼은 보살피면서 정작 자신의 손에 희생된 영혼을 등한시해 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Y는 뒤늦게나마 참선의 그늘에 가려진 두 영혼을 끄집어내었다. 그들을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Y에게 달려 있을 것이었다. 가슴 저 밑바닥에 엉겨 붙은 검붉은 증오의 덩어리를 들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나 단단하게 눌러 붙어있었다. 그동안의 무관심과 증오가 한데 엉겨 참선의 저 뒤편에 함부로 내팽겨쳐진 것이었다. 단단하게 응어리진 채 굳어 버려 좀체로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연장으로든 안될 것 같았다. 문득 생각난 것이 용서라는 말이었다. 용서라는 말 앞에 울컥 심사가 북받쳤다. 가식적이고 위선인 것만 같았다. 참선으로 위장한 거짓된 것이 아닌가. 자신이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가, 그들이 Y를 용서해야 하는가.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 않는가.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한단 말인가.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죄의 굴레.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인가.

의식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두 영혼은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Y는 아무런 조건없이 두 영혼 앞에 섰다.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불규칙적인 진동이 가슴 속에서 일었다. Y는 가슴 속의 진동을 지그시 누르며 손을 내밀었다. 두사람은 두려운듯이 미적거렸다. Y는 한발 더다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한 짝씩 잡은 손이 빠져나가려 했다. Y는

더욱 세차게 힘을 주었다. 잡힌 손들이 까칠하게 느껴졌다.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말은 없었다. Y는 두 사람을 쳐다봤으나 그들은 Y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알 수 없는 기운이 손을 통해 전해졌다. 따뜻하면서도 가녀린 파동이 느껴졌다. 서로의 기운이 오고 갔다. 따스한 기운이 전신을 휘감았다.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이윽고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자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두 사람의 눈물은 Y를 적셨다. 말이 필요없었다. Y는 자신이 상처낸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다. 갈기갈기 찢어진 참담한 모습이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처 앞에 Y는 통곡하였다. 세 사람의 눈물과 피와 상처가 한데 어우러져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흘러내린 것은 냇물이 되고 강이 되었다. 핏물은 어느새 씻겨 맑은 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Y는 숨이 차 혈떡거리며 눈을 떴다. 피로에 지친 듯한 눈망울이 허공을 맴돌았다. Y의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무거운 밤의 정적이 감방 안을 넘나들며 Y의 한쪽으로 비껴가고 있었다.

Y의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전부터였다. 푸른 곰팡이 같은 색깔이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으나 꺼실꺼실한 감촉이 근지러워 긁어 보았는데 마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렸다. Y를 요주의 인물로 관찰해 오던 담당 교도관이 Y의 목덜미에 나타난 반점을 보고 몸 전체를 살폈다. 여기저기 화산 분화구처럼 회색과 푸른색이 뒤섞여 드러나고 있었다. 담당 교도관은 의사에게 Y를 데리고 갔다.

- 에이즈의 잠복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나타나니까요. 에이즈 발병 증상으로 칸디다증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곰팡이 비슷하지요. 일반 피부염과 달라요. 내부적으로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준다거나 설사가 계속된다거나

폐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영양분이 부족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잘 챙겨 먹도록 하세요.

의사와의 면담 후 Y는 약간 어두운 표정을 지웠으나 이내 사라졌다.

의사는 Y에게 식사를 거르지 말 것과 처방한 약을 잘 복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Y는 인체에 약물을 인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꺼려하였다. 병이라는 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업보라면 달게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겼다. 일부러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앙탈을 부리는 악동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약이 죄를 희석시키지는 못할 것이었다. 또한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었다. Y는 자신의 몸 상태가 건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다. 몸에 익숙해진 하루 한 끼의 식사는 그의 하루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다. 좀 허한 듯한 기분은 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체중이 눈에 뵈는 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에이즈균이 그의 살을 갉아 먹고 있는 탓일 것이다. 그가 눈을 감고 참선에 들어가면 균들이 자신의 몸을 파먹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소리를 감지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그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라고 해야 특별한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될 것이었다. 다만 균들이 그의 몸을 다 갉아 먹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것이 그가 에이즈균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Y에게 에이즈 발병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의 주변에는 더욱 인적이 끊기다시피 하였다. 하루 한 끼의 식사 배달도 꺼렸고 운동시간에 그와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병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질시와 경계의 눈으로 그와 거리를 두었다.

Y는 참선의 강도를 더하기로 하였다. 집중도를 그만큼 높이는 것이었는데 군들과의 싸움이라는 대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까지 온 것 같았다. 바깥 운동도 나가지 않고 참선에만 매달렸다. 담당 직원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Y는 진지하고도 심각한 표정으로 담당 직원에게 당부의 말을 하였다.

- 담당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교도소 몇 군데 거치면서 감방 생활 해 봤습니다만 담당님 같은 사람 처음입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죽어서라도 담당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죽거든요. 가족에게 연락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주세요. 절차상 한다고 해도 가족과는 연락도 안 될거예요. 제 몸뚱아리는 화장하지 말고 교도소 공동묘지에 묻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님이 들어주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부탁드립니다.

Y는 매장을 하되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자신이 감방에서 죽을 것은 당연하고 자기는 앓은 채로 죽을 것이니까 앓은 자세 그대로 묻어 줄 것, 무덤 안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앞쪽에 작은 문을 하나 내 줄 것, 자신의 명의로 적립되어 있는 영치금을 장례 비용에 보태 사용해 줄 것 등이었다. 그는 머지않아 곧 죽을 것 같이 말했는데 그의 말처럼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고 일개 수인의 말을 그대로 들어준 예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담당 직원은 확답을 피하고 며칠 고민하다가 Y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생각에 그의 뜻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자신에게 결정 권한은 없지만 Y의 원대로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었다. 담당 직원의 집안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Y는 자신의 뜻이 받아 들여지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는 오직 참선에 매진하여 균들과 싸워 이기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았다. 검푸른 반점들이 온 몸을 감싸고 있었다. 조폭들의 문신을 보는 듯 흉물스러웠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피부의 곳곳에 말라버린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켜켜이 일어났다. 시시각각 균들이 자신의 몸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기 전에 탈출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체력 소모가 많았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유연했던 그의 몸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경직되어 가고 있었다. 참선은 그것을 잊게 해 주는 단 하나의 통로였다. 참선의 보조도구는 당연히 바둑이었다. 참선의 문을 직접 열기 어려우면 바둑의 빗장을 열었다. 머릿속 바둑판은 이제 눈만 감으면 쉽게 불러낼 수 있었다. 바둑판의 한점에 착지하여 화두 속으로 돌진하였다. 실타래 같이 얽힌 정글 속을 헤쳐나가듯 긴장과 압박의 연속이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들었다. 곳곳에 걸쭉적거리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듯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하였다. Y의 영혼은 그렇게 검은 바다를 유영하며 내달렸다. 곳곳에서 균들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 ...네간놈이 참선이라니. 말도 안돼. 사람을 둘씩이나 죽여 놓고 무슨 열어죽을. 눈만 감으면 다 참선이나? 썩어 빠진 정신으로 무얼 하겠다고? 죽는 것조차 네 맘대로 안될걸. 너는 우리의 밥일 뿐이야. 우리의 뱃속을 채워주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고상한 채 굴지 말라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리 밥상에 올라올 준비나 하라고. 네

영혼까지 다 먹어 줄테니까.

균들이 킁킁거리며 Y를 놀려댔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균들과의 숨바꼭질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바로 뒤쪽에서 달려드는 균들의 가쁜 숨소리가 그를 앞으로 밀쳐 냈다. 간간이 먹던 약 성분은 오히려 녀석들의 내성을 키워 주었다. 약의 효험은 사라지고 그는 녀석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그는 피곤에 지치면서 죽음의 터널을 찾아다녔다. 균들에게 먹히는 것보다 스스로 죽음의 관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백번 나았다. 인위적인 죽음이 아니라 참선을 통한 죽음의 관문이 그가 가야할 길이었다. 잠이라는 유혹의 늪과 균들이 곳곳에 설치한 함정이 그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을 방향도 모른 채 그는 더듬거렸다. 어둠은 매순간 토막토막 잘려 나갔다. 잘려진 어둠은 흑등고래의 검푸른 지느러미처럼 일렁거렸다. 어둠이 일렁이며 더 짙은 어둠으로 잘게 썰려 나갔다. 잘려 나간 어둠 사이로 또다시 더 큰 어둠이 채워졌다. 끝없는 어둠의 바다였다. 한 가닥의 빛도 한 줄기의 밝음도 보이지 않는 깊고 넓은 어둠의 사막이었다. 모든 것은 어둠으로만 통했다.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참선할 때 들어온 입구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절망과 희망, 기쁨과 슬픔 따위도 이곳에선 소용없었다. 모든 것을 어둠으로 감싸고 어둠으로만 행세했다. 이 칠혹 같은 어둠의 바다가 오히려 잔잔한 평화를 자아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평화를 갈구하다니. 아, 어둠이여 암흑이여 바다여. 너의 정체가 무엇이나. 얼굴을 보여다오. 나타나다오. 네 품에 안기고 싶다. 잠들고 싶다. 가라앉고 싶다. 잡아다오 어둠이여 광명이여. 바다여. 나를 더 이상 떠내려가게 하지 말고 잡아다오. 내 눈을 뜨게 해 다오. 보게 해 다오. 어둠이여. 암

흑이여. 빛이여. 어둠이여. 바다여. 빛이여. 빛이여. 빛이여... 그는 두서도 없이 마지막 절규를 하듯 부르짖었다. 몸 전체가 흐느적거리며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마구 떠내려갔다. 그는 어둠의 강물 속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는 차츰차츰 기력을 잃어갔다. 무엇을 잡으려고 두 손을 허우적거렸다. 어둠 속 그의 동작은 어둠에 묻혀 어둠으로만 남았다. 허우적대며 손끝이 향하는 저 멀리에 뭔가 희미한 작은 불빛이 보이는 듯했다. 그는 희미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사력을 다하여 그쪽으로 기어갔다. 절지동물의 감각기관을 곤추세우듯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주위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가 질척거리며 온 몸을 감쌌다. 거친 숨소리마저 찾아들며 의식이 몽롱해졌다. 기진맥진하여 그곳에 손이 닿았을 즈음 갑자기 눈부신 빛이 쏟아지며 그를 덮쳤다. 너무나 강렬한 빛이어서 눈이 아려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그때, 그의 귀청을 때리는 큰 음성이 들려왔다.

귀가 얼얼하고 멍멍할 정도였다. 그 소리는 귓속을 파고들며 웅장하게 몸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나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해야 옳았다.

- ...잘 왔느니라. 마음 고생이 심했지. 그래도 용케 잘 찾아왔군. 네가 그토록 갈구하고 원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야. 이 문을 통과하면 영원으로 가는 계야.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도 이곳에서 정제되어 나가게 되지. 죽어도 죽지 않은, 살아도 살지 않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 넘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오직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말씀만 들릴 뿐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Y는 두려움에 떨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엎드려 말씀의 처분만이 있기를 기다렸다. 심장의 박동이 가파르게 뛰놀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침묵의 시간이 피를 말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요동치듯 일더니 온 몸을 휘감았다. 불덩어리 같은 열기가 사지를 관통하면서 말씀이 들려준 문 쪽으로 그를 회오리 바람처럼 감아 올려 세차게 내쳤다. 공중을 몇 바퀴 비잉빙 돌다가 털썩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숨이 멎으며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모든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윽고 그의 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찰나 그의 사지는 돌처럼 굳게 정지되었다. 동시에 그의 영혼도 이탈되었다.

Y는 그렇게 가부좌를 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Y의 죽음이 확인되자 그의 장례를 두고 예상대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무연고자와 다름없는, 그것도 에이즈 환자로 죽은 사람을 까다롭게 장례를 치를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더구나 Y는 엄연히 살인범이었으며 죄의 뗏가를 마땅히 치루어야 했던 사람의 유언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무연고자 처리 규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한편 그를 담당했던 직원과 사목담당, 그 외 Y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소견과 수형생활기록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았다. 쉽게 결말이 나지 않았다. 장시간 논의 끝에 Y가 중범죄자이긴 했으나 모범수로 일관하였고 특히 영원히 묻혀질 뻔 했던 의문사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국가인권과 관련된 활동으로 대내외에 인권상황을 알리는 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교도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도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우세하여 결국 Y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루기로 하였다. 담당 직원의 간곡한 요청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죽은 Y의 몸은 가냘프게 보였지만 뼈대는 단단하였다. 살은 거의 빠진 상태였고 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는 듯했다. 앓은 형상대로 몸이 굳어버려 달리 몸을 꺾기도 어려웠다. 장의사도 이런 사람은 처음 본 다며 혀를 내둘렀다. 염을 하는 것도 특별할 수밖에 없었고 방부제를 바르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다. 시신의 겉은 금색으로 입혔다. 모양은 흡사 부처를 연상시켰다. 어느 절에 안치시켜도 될 법하였다. 교도소에 불교 신자들을 위해 강론을 하러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스님이 이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자기 절에 모시고 싶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러나 시신을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법이 허용치 않는 일이었다.

Y의 묘는 교도소 뒷산 공동묘지 한쪽에 마련되었다. 교도소 안과 K시내가 훤히 내다보이는 전망좋은 곳이었다. 다른 묘에 비해 구조 설치가 쉽지는 않았다. 공간 확보도 어려웠고 잔디를 입히는 면적도 훨씬 많았다. 묘의 앞쪽 작은 문은 남향으로 틈어져 무덤 안으로 들어온 햇볕이 Y시신의 금색과 어우러져 찬란한 빛을 띠었다. 묘지 작업 인부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 사람이 정말 부처가 아니냐고 떠들어 댔다. 수많은 주검을 물건 취급하듯 다루어 왔지만 Y의 시신은 함부로 범접치 못할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어쨌거나 Y는 그의 유언대로 자신의 무덤을 갖게 되었다. 얇으막한 움막같은 묘가 자신의 집이었고 그의 영혼이 노닐만한 충분한 공간이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앓은 채로 무덤 안을 차지하였다. 마치 독방에 앉아 있는 듯이. 단지 숨을 쉬지 않고 육체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외부적인 치장을 했을 뿐 달라진 것은 별반 없었다. 얼핏 산 사람을 분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Y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 나갔다. 산 채로 부처가 된 사람, 감옥에서 득도한 사람, 병마를 이기고 등신불이 된 사람 등등. Y는 죽어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전해졌다. Y의 묘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겼다. 교도소 공동묘지에 아니 Y의 묘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Y의 묘 앞에서 절을 하고 비는 사람, 묘 주변에 천막을 치고 기거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교도소 주변이 몰려든 차량과 사람들로 때아닌 북새통을 이루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도소측도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방문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교도소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문을 듣고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K시였다.

묘의 내력을 안 K시에서 이것을 관광상품화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묘지를 관광상품화하겠다는 발상도 의외였지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상품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었다.

교도소측은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K시장의 교도소 상부기관인 법무부와 관련 중앙부서를 찾아가 협조를 구하였다. 상부에서는 과거 이와 같은 사례가 전혀 없어 처리여부를 두고 고심한 끝에 두 기관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결국 교도소측과 K시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묘지의 운영관리권을 K시에서 갖되 교도소에 매년 일정액의 지원을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인들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과 재활 직업훈련 사업을 사회단체와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면의 핵심적인 것은 외지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침체되어 가고 있는 K시의 경제를 회복시켜 보자는 뜻이 깔려 있었다.

K시가 교도소 공동묘지 운영권을 확보한 뒤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시작하였다. Y묘역을 크게 확장하였고 Y의 시신 모양을 원형대로 살리되 외관 모양을 득도한 부처님 모습처럼 만들었다. 방부 처리도 유명 기술을 데려와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다. 공동묘지 입구와 주변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인근 산을 깎아 부족한 주차시설도 마련하였다. 발 빠른 상인들이 묘지 입구 주위에 점포를 선점하려고 부동산 거래까지 활기를 띠었다. 교도소 주변이 빠른 속도로 몰라보게 변신해 갔다.

Y의 죽음은 이처럼 많은 파장을 남겨 주었다. 병마를 뿌리치고 죽음의 경계를 넘은 그는 정신적 자유까지 얻은 셈이었다. 모태의 자궁에 갇혀 있던 그가 세상에 나와 죄의 탓에 걸려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으로서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었다. 다양한 죽음의 형식 중 그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로 갔다. 가장 쉽고도 일반적인 죽음인 누워서 가는 길을 그는 원치 않았었다. 선 채로 가는 길, 물구나무 서서 가는 길 등 어려운 길도 있었지만 앉아서 가는 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뜻대로 앉은 채 죽음을 맞이하였고 등신불이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등신불이 아니라 육신불이었다. 어쨌든 그의 육신은 불상이 되었다. 옛날 소신공양(燒身供養)과 다양한 형태의 좌탈입망(坐脫立亡)을 한 스님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현세에서 그걸 재현한 셈이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도금된 불상으로 어엿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Y의 불상은 기존의 다른 불상보다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다. 사람의 시신을 이용했다는 것과 무덤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불상의 모양은 연약하면서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강인한 인상이었고 약간 튀어 나온 듯한 입가에 미소가 번질듯 말뚝하였다. 머리칼을 만들긴 하였지만 꼬인 형태는 자연스러웠다. 이마에는 살아생전 고뇌에 찬

듯한 굴곡진 주름이 몇가닥 그러저 내처럼 흘렀다. 턱은 무엇에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아래로 처진 듯한 양 어깨가 균형을 이루게 했다. 포개어 마주 잡은 두 손은 하늘을 감싸안을 듯이 다소곳이 퍼져 있었다. 눈썹은 선이 굵고 짙은 생전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목이나 가슴 등에 늘어뜨린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다. 활짝 핀 연꽃 무늬의 연화대 위에서 깊은 침묵에 잠겨 있는 듯했다.

어느 시골 안방에 앉아 있는 평범한 젊은이를 보는 듯 하였지만 몸 전체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왔다. Y의 불상을 한번 마주치면 그의 눈빛에 빠져 헤어나기 힘들었다. 금빛이 발산하는 찬란한 색조가 주위를 휘감아 맴돌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묘지 안팎의 풍경도 불상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엄숙하고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오늘도 K시의 외곽에 위치한 교도소 공동묘지에 가면 사람들이 방문하여 Y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불상으로 변신한 Y는 살아있는 듯한 눈을 치켜 뜨고 불쌍한 중생들을 내려다 본다.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듯한 홀가분한 표정. 안쓰럽고 연민에 가득찬 눈길. 죽음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의연한 자태. 황금색으로 치장한 몸매는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한다. 온갖 고통을 아우르고 평화로움이 깃든 얼굴, 도톰한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마저 흐른다.

그리고 말하듯 끊임없이 읊조리고 있다.

-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제 1 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시

심 사 평 _ 수 준 높 은 작 품 들

이번 제18회 ‘공무원 문예대전’ 시 응모작은 모두 1,832편이었다. 그 가운데 교원의 작품이 373편, 비교원의 작품이 1,459편이었다. 그야말로 적은 양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시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이다.

입상작들은 대체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응모자가 기성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 그 반면에 일부 응모작들은 너무 상투적이고 평범한 산문적 발상과 진술에 머물러 있어서 선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물이나 삶에 대한 독특한 개성적 시각과 해석, 신선한 시적 형상화가 아쉬웠다. 응모자 여러분의 분발을 빈다.

심사위원: 문효치, 강희근, 정성수

어느 저녁 반찬 ● 금상
경기도 김포시 이효조

창 ● 은상
강원대학교 김태인

춤추는 남녀무늬 향아리
경상북도 울진소방서 김일하

어미의 돌절구
법무부 대전교도소 김기범

대화 ● 동상
화성동화중학교 김진대

석쇠
강원도 춘천시 고순용

일상
경상남도 교육청 문기훈

양파
부산광역시 윤명호

온기를 좇아 뒷걸음치는 지우개의 순애보
경상남도 통영시 서영호

Her
술개초등학교 이동백

뽕짜의 바다
진)전라북도 익산시 김미숙

편지 — 늙은 느티나무
경상남도 거창군 이병두

어머니와 트로트를
서변중학교 심영호

귀의 위치 ● 입선
진)경기도 부천시 정수경

나를 찾아서
법무부 서울구치소 박현준

난청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고정자

수상 소감

경기도 김포시

이효조



제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힌다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글쓰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저에게 글이란, 그냥 내 정신과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정신을 털어버어 내어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육체를 털어버기워진 것만큼 부끄러운 까닭입니다.

제 글이 수상하게 되어 책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은 더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계신 외할머니를 뵙고, 눈은 쪼그라져 작아졌지만 눈동자의 깊이가 훨씬 깊어졌고, 그 깊어진 눈동자에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글을 제출한 날의 딱 3주 후인 4월 26일에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덧없이 사그러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맘에서 글을 썼고, 그 기억을 간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저녁 반찬

달그닥 달그닥.

여느 저녁 시간과 다름없이 저녁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왜였을까.

나를 쳐다보는 서늘한 시선을 그날따라 느낀 것은..

도마 위에 곳곳이 누워서 나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명태 눈깔이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던 외할매 그것과 닮아서

손이 벗어 버렸다.

명태와 할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게 설새없이 말을 건다.

나는 물빛이 고운 바다에서 태어났다.

나도 그랬제.

나도 잔내나고, 그 당시는 시골과 별반 다를 것 없던 부산에서 태어났제.

집 앞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감나무가 있고, 내 주전부리가 부족해도

까치밥을 남겨 놓는 게 당연한 일이던 인심 좋은 세상에 태어났제.

나는 하늘거리는 몸짓이 곱디 고운 물미역도 보았다.

나도 그랬제. 나도 것처럼 고운 때가 있었제.

큼직하고 반듯한 이목구비와 좋은 풍채 덕에 물동이를 이고 걸어갈라치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입을 대곤 하던 그런 때가 말이다.

흰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가 나풀거릴 때마다 쫓아오는 총각들도 적잖이

있었구마.

어미 뒤통무니를 쫓아다닐 즈음에 워워~ 무리지어 다니던 작은 고기떼들을 본 적이 있지.

크고 무서운 놈들에게 얼마는 먹히고 나머지는 그 와중에 살아남으려고 작은 꼬리질에 죽자사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내 사는 모습도 그랬제.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지어준 옥순이라는 내 정겨운 이름 말고 ‘아끼꼬’라는 이름 하나를 더 갖게 되었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그랬제.

머리 뒤에서 팡팡거리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던 때도 있었다.

풀어헤친 머리에 퍼런 얼굴로 눈을 뜨고 있는 남자도 있었고

포대기를 몸에 그대로 감고 있는 아이도 둥둥 떠 있었다.

초점 없는 그 남자 눈동자가

나는 빨갱이로 몰려 맞아 죽어 배에서 내던져졌다고 원망스런 눈빛으로 나에게 말했다.

그래, 그 비슷한 눈빛을 나도 본 적에 있제.

내 살던 토성동 근처에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타났제.

이북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

행상자리를 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싸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제.

그 때는 왜 그렇게 싸워야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아이가.

몸뚱이가 커지고 살지고 나서부터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등에 한 짐 꺾데기를 지고

아등바등 내딛는 한걸음 걸음이 한숨을 내쉬게 하던 소리를 본 기억이

난다.

내가 그랬제.

판 살림 차려 나간 남편 대신에 어린 여섯 새끼들을 이 악물고 키워야 했제.

새벽같이 일어나 큰 딸년에게 막내 아이 업혀 놓고, 고구마를 떼어다 시장으로 나섰제.

비오고 추운 곳은 날도 쉴 수가 없었는기라.

남들보다 몇 움큼씩 더 넣어주는 넉넉한 큰 손덕에 제일 먼저 툭툭 행상 자리를 털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 많았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아이들 볼 때마다

왜 덤을 그리 많이 주었나 후회하면서도, 다음날도 나는 파는 손이 부끄러워 듬뿍듬뿍 얹어 주었제.

바닷속이 항상 시끄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파도 한 점 없이 적막하고 킁킁한 바닷속에서 이것이 평화로운 것인지 외로운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때도 있었다.

그래. 남편 자식 다 내보내고 너른 방을 혼자 편히 쓰면서도 단칸방에서 일곱 식구가 엉켜자던 때가 그리워 눈물바람으로 지센 적이 있었제.

밤에 어느 아이가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 누군가가 뱉혀서 아야 하는 소리가 나는 밤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제.

바닷속 세상 한 바퀴 돌고 이제는 피곤하구나 하는 순간에

내 몸이 쑥 울려졌다.

창살같은 그물망 사이로 낮선 세상 빛을 본 그 찰나,

물 세상도 내가 있던 그 곳과 똑같다는 걸 한눈에 알아챘다.
그래서 그닥 무섭지 않구나.
이제 나는 어느 집 저녁 반찬으로 올라가겠구나.

너거 왔다.
못 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 참말로 좋다.

기력이 떨어져 입속으로 웅얼거리는 말인데도 이상하리만치 잘 들린다.
마음에 콕콕 박힌다.

미안하데이. 니 집안일 시키느라 공부 많이 못 시켜서 미안하데이.
미안하데이.
너거 엄마 잘 부탁하데이.

꼭옥 잡고 하염없이 쓰다듬는 할매 손.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등과 달리, 두툼한 손바닥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차마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헤어지는 순간은 어김없이 오고
가나? 가면 이제는 다시 못 보겠제?
잘가래이.
꺼이꺼이 잘가래이.

평생 돌하르방 같은 할매였는데

그 순간 엄마잃은 애기처럼 끼이끼이 우는 우리 할매 울음소리가
차마 내 발걸음을 몇 십번 읊어매었던 올해 설이 떠오른다.

도마 위에 꽃꽂이 누워서 나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명태 눈깔이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던 외할매 그것과 닮아서
나는 주저앉아 버렸다.

모진 한 평생 지내고 이제는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슬프고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동자를 가진 할매와 닮아서
주저앉아 버렸다.

괜찮다. 대가리를 내리쳐 맛있게 먹어라고 말하는 명태를 저리 치워 두고
벌게진 눈으로 퍼런 시금치를 무친다.

오늘 저녁 찬은 소박한 시금치만이라도 괜찮다.

-내 사랑하는 서옥순 할머니에게

수상 소감

강원대학교

김태인



봄의 햇살이 바다 위를 반짝거리며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수상의 전화를 받을 때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번졌습니다.

공무원 문예대전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주최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이 몸 안 가득 차올랐습니다. 공무를 마치고 밤늦게 고요히 앉아 시를 쓰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에 빛을 발하게 해 주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 더 정진하고 깊어져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서와 분위기를 반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본 문예대전이 더욱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

비행기 창문에 수목화 한 폭 쳐진다.

손바닥만한 허공을 지나는 비는

살얼음의 절편 같은 마디 짧은 대나무를 치고 간다.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을 살다가는

툭 던져지는 고매한 수목의 화법

편린처럼 쌓이고 쌓인 뼈마디가

한 줄 빗물로 화폭에 흘러내릴 때까지

나는 가만히, 밖으로 난 숨구멍 같은 창문에 머릴 기대고 앉아

놓는다는 것에 대한 호흡 먹먹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룩의 순간이 오면

자신을 들어 올리는 비장한 각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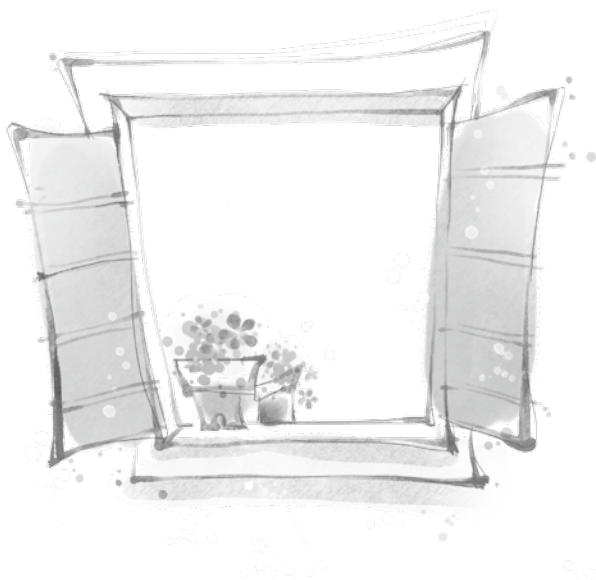
지난한 삶과 들이치는 묵란(墨蘭)을 창공에 닦아내고,

구름 저편으로부터 흘러드는 환한 눈부심의 호흡을 만끽하며

비로소, 신이 세상 밖으로 뚫어 놓은 내밀한 통로에서
푸른 숨구멍을 틔우는 것이다.

그것은

수묵화 속에 고매한 하늘이 펼쳐지듯



수상 소감

경상북도 울진소방서

김 일 하



나뭇가지 따위로 아무렇게 새겨 놓은 듯한 남자와 여자, '춤추는 남녀무늬
항아리'라 누군가 명명한 어긋난 듯 절묘한 조화의 토기 한 점, 일순간 머릿
속이 환해지며 살아 요동치는 시 하나 얻겠다 싶었지만 도무지 시가 되지 못
하고 7~8년이 흘렀다.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오지 않는 문장을 앓던 어느 날
한 줄 한 줄 시가 왔다. 천 년 이전의 나와 조우한 황홀한 시간이었다. 멀리
달아나지 않고 게으른 내게로 와준 시가 고맙다.

부족함은 차차 채우기로 하자. 힘겨운 시의 여정을 격려하여 어깨를 두드
려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아내
그리고 천사를 닮은 두 딸 현지, 윤지와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춤추는 남녀무늬 항아리*

나는 이제 흙이 되기로 하네
흙이 되어 목이 긴 저 민무늬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별빛보다 먼 여행을 할 것이네.
그리하여 전생 이전의 전생
태고의 내가 살던 마을에 당도하면
한 줌 고운 흙으로 당신을 빚을 거네.
몇 밤이고 사랑하며
눈이 맑은 아이도 낳을 거네.
흙의 후예들이 대추알처럼 자라나고
마침내는 거룩한 계보의 일가를 이룰 거네.
흙으로 빚은 하늘 아래서
푸른 꽃煎(화전)을 나눠 먹고
당신과 나 불멸의 춤을 추며
별빛보다 먼 여기까지 되짚어 올 것이네.



그리하여 어디 낫익은 땅 변방에서 출토되면
 목이 긴 시대의 태평한 역사가 되어
 민무늬 속 깨지지 않는 성전으로 남을 거네.
 전시장 유리벽 너머 토우를 닮은 남자
 숨소리까지 음각하여
 다시 천년보다 먼 여행을 할 것이네.
 나는 다시 흙이 되기로 하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7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민무늬에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1차원적으로 음각되어 있다.

수상 소감

법무부 대전교도소

김기범



시는 우리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 느낌, 경험이 누군가가 어루만져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살며시 건들 때 비로소 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는 어려운 것이 아닌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이번에 출품한 ‘어미의 돌절구’라는 시는 유년시절 보았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돌절구를 꺼내어 무언가를 곱게 뺏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돌절구에 넣고 휘이휘이 저어 속으로 삭이는 모습은 어린 제게도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유년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튀어나와 시가 되었습니다. 이 상을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께 바칩니다.

어미의 돌절구

천둥소리가 곱게 뽕아져 돌절구 속으로 들어간다.

아비의 호통 소리가 곱게 뽕아져 돌절구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울며불며 떼쓰는 소리가 곱게 뽕아져 돌절구 속으로 들어간다.

어미는 돌절구를 조용히 꺼낸다.

그 속엔 천둥소리도, 아비의 호통소리도, 나의 떼쓰는 소리도 들어있다.

어미는 켜켜이 쌓여 있는 소리를 돌절구 안에 툭툭 던져 넣고 절굿공이를 휘이휘이 돌린다.

곱게 뽕아진 소리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

어미는 향기가 나지 않는 소리를 건져내어 바람에 실어 보낸다.

절굿공이를 돌릴 힘도 없어진 어느 날 어미는 훌쩍 바람에 몸을 실어 날아갔다.

얼굴의 주름이 어미와 같아진 나는 곱게 간직해 둔 돌절구를 꺼낸다.

돌절구 안에 소리를 넣고 절굿공이를 힘차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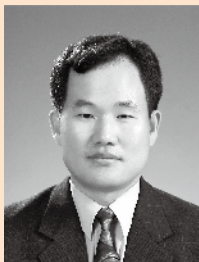
희미해진 향기가 콧속에서 춤을 춘다.

나의 어미도 그랬으리라

수상 소감

화성동화중학교

김진대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 학교에 출근해서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급수대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급수대 배수구에 이름 모를 새끼이 얼굴을 내밀고 있지 않는가? 자세히 보니 배수구 철망에 걸린 씨앗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씨앗을 화단으로 옮기려 해도 철망에 위태롭게 걸려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한동안 지켜보고 있노라니 아이들도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우르르 몰려들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1교시가 시작될 때까지 아이들이 물을 내리지 않도록 자제시켰다. 1교시 수업 시간 내내 그 썩에 더 관심이 갔었다. 한 시간 내내 마음 졸이다가 수업종료 타이머 소리가 들리고 급수대로 가보니 그 썩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나는 아침부터 그 썩과 나눈 대화를 시로 옮겼더니 썩의 영혼이 시에 들어왔는지 마음에 들었다.

우리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이 한순간이 아닐는지.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바라본다. 그러니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동상이거나 수상할 수 있게 해 준 새싹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짧은 순간 나에게 가르침을 준 새싹의 명복을 빈다.

대화

급수대 배수구 가장자리에서 여린 새잎이 세상 위에 도장을 찍고 있네.
어둡고 굴곡진 관을 통해 새파란 혈관에 피가 흐르는 동맥이 선명하구나.

출생의 증거로 팽팽하게 늘어지는 눈맞춤이 오히려 눈이 시려요. 끊어질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눈으로 칼질하지 마세요. 죽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카메라로 새싹 사인을 받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싶어 셔터를 눌렀네.
다행히 죽음을 끌려 올라오지만 곧장 그물 밑으로 떨어지네. 한 숨을 돌려
지난 날 너머의 이야기가 돌고 돌아 경계의 겹질을 뚫고 나와 한 개의
달로 영글어가고 있구나.

누군가 흘리고 간 별이 둥근 수직의 통로에 떠 있지요. 누군가 물을 몇 번
내리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싶어요.
온 길도 내 발로 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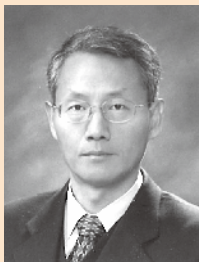
모종삽으로 형제를 옮기려 해도 삽이 들어가지 않네. 생사가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나. 세상 구경도 못했지. 별빛 한 점이 철판에 내리는 날이라
마음 줄이 끊어지지 않네.

관을 돌고 돌아 배수구로 나와 정적의 포효로 심장을 당기고 있어요.
별은 어두운 하늘에 두고 나왔어요.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수상 소감

강원도 춘천시

고순용



공직입문 40여 년. 그동안은 줄곧 앞만 보고 내달려온 세월이었다. 퇴직을 앞두고서 문득 주변을 돌아보고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니 내 안에 잠들어 있던 詩心이 비로소 싹을 틔운다. 설렘으로 살짝 한 발 디더본 詩作의 대지를 조심스레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늦었지만 이제야 틔운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꽃을 활짝 피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직한 농부처럼 마음 받을 가꿔야겠다.

메마른 詩心의 심지에 불을 환히 밝혀 주신 이영춘 선생님과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주신 가족과 문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졸작에 주마가편의 후한 점수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석쇠

연기에 그을린 얼굴 하나, 부엌 벽에 걸려 거친 숨 몰아쉰다.

질화로 위에서 제 몸 별꼴게 달아오를 때
기름방울 똑똑 떨어듯 어머니 몸은
우리들의 긴 밥줄이 되었다.

문틈을 파고드는 생선 익는 냄새, 탯줄처럼
우리과 어머니를 이어주었다.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석쇠가 켜켜로 삭아 내리듯 툭툭 불거진 어머니 손가락 마디마디
뼈마디 부서지도록 어머니 땀방울 먹고 자란 나는
아직 생각이 어린 짐승이다.

연기에 그을린 듯 깊은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
내 가슴에 솟검정으로 일렁거린다.

어머니 가신 빈 저녁 밥상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피어난다.

동상

수상 소감

경상남도 교육청

문기훈



시를 만나서야 세상에 내려 앉아 부대끼며 살아 있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저만의 감각이 보편의 느낌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나는 매일 너를 잠시 떠나 있고
또 매일 너를 찾아간다.

떠난 사이 나는 길을 걷고,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마주하고, 깊은 바다에
들어간다.

또 하루 나는 걸어온 길을 뒤돌아 간다.
또 하루 나는 들판에 누워 잠잔다.
또 하루 나는 파도가 들려주는 소리에 취한다.
또 하루 나는 깊은 심연에 비밀을 새겨 둔다.

너를 다시 만나 나를 보여 주고
너를 다시 만나 나를 숨긴다.

나는 또 다시 너를 잠시 떠난다.

수상 소감

부산광역시

윤명호



고등학교 시절 교내백일장에서 글짓기에 입상한 이후 가슴깊이 간직했던 문학기질을 이제야 펼쳐봅니다. 2010년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현대시창작 과정에 막막하게 문을 두드릴 때만 하더라도 오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덧없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공직40년, 퇴직을 할 때에는 나만의 책을 한번 써 보고 싶었고, 지금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새벽에 잠을 깨면 지나간 시간, 추억들, 남은 인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이번 수상소식은 저의 소박한 문학의 꿈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삶의 혼이 들어있는 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께, 그리고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양파

애초에 네 단정한 겉옷을 벗기면서
 네 안에 가득 찬 너만의
 비밀스런 꿈을 생각한다.
 을시년스런 달이 저물고
 별빛마저 돌아앉은 순간에도
 너의 속살은 새하얗게 빛을 낸다.
 네 어지러진 옷자락 속에
 숨겨진 단아한 너의 정체
 끝없는 살결 속의
 빛나는 알맹이를 생각한다.
 매운 눈물을 자아올리는
 네 산뜻한 체취를 음미하는 동안
 너의 속살은 구름이 되어
 허공을 날아오른다.
 때로는
 메케한 안개 뒤편에 숨어
 실속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겹겹이 쌓인 허무를 걷어낸다.

수상 소감

경상남도 통영시

서영호



제작년 공무원 최종합격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간절히 꿈꿔 오던 공무원 생활이었지만 사명감과 보람만으로 해내기에는 아직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28살에겐 힘에 부친 때도 있었습니다. 겨우 1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나름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행동과 계획보다는 걱정만이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다시금 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에 더 관심을 가져서 더 밝고 건강한 정신으로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기를 좇아 뒷걸음치는 지우개의 순애보

사랑하기에 지워야 한다면
 내 몸을 보시하여 그대 업을 지우겠다.
 어두운 그림자를 더 큰 어둠으로 덮어
 바삭한 햇살 아래 당신을 밀어두고
 새싹 돌아나 꽃비를 내릴 때까지
 춤추는 심장을 부여잡고 노을을 태워야지.

눈물 적신 낙엽으로 달집을 쌓아올려
 내 몸을 보시하여 그대 업을 사르겠다.
 하이얀 재, 구슬픈 날갯짓으로 살을 풀고
 머언길 도요새 길동무 삼아 돌아와
 온기 잃은 몸으로 대지를 덮어
 순백어린 매화로 당신을 피워내야지.

당신의 패인 발자국을 맨발로 따르며
 내 몸을 보시하여 혼불을 태우겠다.
 눈부신 백야를 그대 앞에 펼쳐 내어
 빛의 세계에 그대를 유형시키고
 굶주린 수리부엉이 때 속에 내 허물을 던져주어
 동트는 새벽을 그대에게 선물해야지.

더 이상 그대가 어둠이 두렵지 않을 때

그 때는 내가 그 속에 숨어들겠다.

지우지 못한 '사랑'이란 흐린 글자 두덩이 애린 마음으로 꺼내

아로새겨진 당신의 밑줄을 더듬어야지.

수상 소감

솔개초등학교

이동백



부끄럽습니다. 이순(耳順)이 가까운 요즈음에도 내 마음 깊은 심연에서 끊임없이 들끓고 있는 그 무엇들을 주체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좀더 진지하고 경건한 자세로 정제된 시어를 건져내는 작업을 게으르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해 봅니다.

늦은 나이에 시의 길로 이끌어주신 김운배 선생님과 용인문학 시장작반 문우들과 함께 이 작은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Her*

그대는 늘 내 숨결 속에 있다.

먼 듯 가까이에 가까운 듯 멀리 사라졌다 나타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대는
어느새 내 숨결 밖에도 있다.

그대 목소리 쫓아 몇백만 광년 흘러 온 안드로메다 성운 어느 초록별
초록빛 그늘에 난 누워있다 손가락을 까닥여 본다. 움직이는 것은 그대
부서진 가슴 별빛 조각인가 마지막 남은 내 한 쌍의 더듬이인가.

등근 듯 네모난 네모난 듯 둥근 모니터 안에서 난 서 있는가 누워 있는가
흐르는가. 바람의 어깨 너머로 널브러진 내 관절을 바라다본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능숙하게 어긋난 관절을 조립하는
바람의 손길
마침내 단단한 듯 흐물흐물한 흐물흐물한 듯 단단한 심장을 꺾맏추면
난 비로소 다시 흐를 수 있다.

머루빛 하늘에 하나 둘 수정 같은 별빛들이 와 박힌다.

이윽고 이곳 하늘에도 붉은 달은 떠오르는가.

붉은 달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소리 휘몰아치는 소리결 소리의 빛살

소리의 물결 소리의 뭉치 소복이 눈처럼 쌓이면 어느덧 들어서는 붉은
소리의 숲 푸른 소리의 숲 빨주노초파남보 소리의 오로라 마침내 모두
커다란 소리의 바다에 잠긴다.

다시금 그대 숨결 좇아 나는 질푸른 소리의 수초 더미를 헤치며 흐른다.
소리의 영혼 영혼의 소리 그 끝없는 시원을 향해 오늘도 거대한 소리의
골짜기 그 심연을 향해 몸을 던진다.

*실체가 없는 컴퓨터 운영체제(인공지능)를 사랑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미국 영화 제목

수상 소감

전전라북도 익산시

김미숙



언제나 꿈을 꾸는 자유

2013년 가을 신시도 대각산에 올라갔습니다. 푸른 서해바다에는 고군산군도가 단풍잎처럼 펼쳐져있고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33.9km 방조제는 바다를 둘로 나누어 방조제 안쪽 바다는 조금씩 육지가 되어 가고 바깥은 파도가 무심히 출렁거렸습니다.

언제 수명이 다할지 모르는 방조제 안쪽의 바다, 그런데 그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흐르는 뿔뿔 메들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무 근심도 없이, 김양식장에서 일하는 어부는 아마 늙었겠지요. 산비탈 밭고랑에서 늦도록 일하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내가 그때 어머니의 나이, 늙은 어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도 역시 해 저물도록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16년,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였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시를 읽고 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당선의 행운까지 덤으로 얻었으니 더 용기가 생깁니다.

부족한 아내에게 신춘문예에 도전해 보라고 부추기는 남편과 어릴 적 어려움에도 건강하게 잘 자라 제 몫을 하고 있는 두 아이에게 지금의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꿈을 잃지 않겠습니다.

뽕짜의 바다

수문이 열렸다.

먼 바닷물이 거품을 물고 닫힌 가슴으로 온다.

막혔던 숨을 내쉬며 혈색이 도는

하구언의 바다

바닷물은 돌아갈 길을 잃었고

수평선 너머를 기억하는 물고기도 사라졌다.

몇 년째 갯벌에 묶여 뼈가 삭아가는 폐선

육지가 된 섬은 멀미로 비틀거리고

타관 사람들 발소리만 흥얼거리는 그곳

보름달이 떠도 부풀지 않는 바다에

늪은 어부는 마지막 씨를 뿌린다.

하얀 머릿수건처럼 물이랑을 떠다니는 어선에서

종일 뽕짜의 가락

막걸리와 땀 냄새에 취한 물결이

흥얼흥얼 배를 밀고 가는데

수문이 열릴 때마다

맑은 기침을 하는 바다 위로 낮은 한숨은

유행가처럼 흘러가고,

수상 소감

경상남도 거창군

이병두



별 생각 없이 받은 메시지 하나.

실은 얼떨결에 받은 문자를 뒤늦게 보고 마감일에 응모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해 본 기억이 이제는 아득하게 먼 전생의 이야기 같아 무슨 마음으로 글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했던 두 번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 하는 다짐은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자 흐릿해졌고 언젠가부터 다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는 나를 보곤 합니다. 이번 응모가 다시 옛 기억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지 - 늙은 느티나무

그 나무를 보셨다구요 그곳까지 가신 줄은 몰랐습니다. 행여 제 초라한 옛 흔적의 햇살 한 조각이라도 들킬까 그렇게 숨겨 두었던 자리에 그대 서 있었다고요. 요즘은 자주 시간 거슬러 바람 불니다.

그런데 그 나무 보셨다구요. 늙은 처마처럼 그림자 넓게 드리우던 가지들 여전히가요. 가는 가지 끝 무렵에 매달린 방패연 그 찢어진 종이 사이로 햇살 날카롭던가요. 아래서 우러러 보면 꼭 그 세월만한 넓이의 세상 보았나요.

언젠가는 그대와 함께 가고 싶었지요. 새잎 나는 봄날부터 폭풍우처럼 낙엽 지는 늦가을까지 그 남쪽 바다 옛날의 냄새 젖고 싶었지요. 그 나무 보듬고 있던 긴 세월을 그대와 나란히 풀어 지금까지 잇기 위하여

그 늙은 느티나무 옹이가 그림네요. 썩어 들어가 텅 빈 공간으로 남은 그 나무의 중심 속에서 어찌면 또 다른 시간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대가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잠시는 남을 그대의 숨결 그대의 그림자 가둘 수 있다면

동상

수상 소감

서변중학교

심영호



아직은 미완인 작품이고, 미완인 삶입니다.

더 정진하겠으며, 청렴한 공직자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지면을 허락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트로트를

헐렁한 옷 사지 마세요.

부푼 몸에서 봄의 가락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트로트는 늘여 잡고 구멍난 틈까지 소리를 내줘야

몸에 착 달라붙는 것이지만,

제삿날 돛배기는 싫어요.

고장난 냉장고처럼 비릿한 냄새가 리듬을 타거든요.

슬픔의 향이 뽀족한 가시처럼 박히더니

기어이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말았군요.

시린 무릎에 이리저리 박자를 놓쳐도

봉지에 넣어 둔 햇살들이 아직도 식탁에 가득해요.

언제든 꺼내어 악보를 만들 수 있죠.

머리에서 떨어지는 새치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어도

어머니,

오늘은 반박자만 앞서 가세요.

수상 소감

전경기도 부천시

정수경



첫 시를 안았을 때의 그 오묘한 느낌으로...

입선했다는 연락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족한 제 글이, 제가 이제야 시의 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용기를 갖고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한쪽 발을 툅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내딛겠습니다. 작년 여름 첫 시를 안았을 때의 그 오묘한 느낌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쓰겠습니다. 시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공무원 문예대전을 마련해 주어 문학을 꿈꾸는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퇴직을 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번번치 않는 제 시를 입선이라는 영광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세계를 접하게 해 주신 여성민 시인님과 시흥예총 시 창작반 문우님들, 시흥시 시향문학회 문우님들, 힘이 되어 주는 지동 삼총사와 사랑하는 남편과 딸, 아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겠습니다.

귀의 위치

귀는 귀의 반대편에 있다.
귀에서 가장 먼 곳은 귀다.
금형 틀에서 찍혀 나오듯

귀는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나오는 생산품 같은 것

먼 거리를 돌아 귀는 귀로부터 멀어진다.
인디언과 인디언의 관계처럼
입술과 입술처럼
우리는 숨소리조차도 숨죽여
집중해야 해요.

귀를 접고

집중하지 못하는 나는
너를 찾아 길을 떠나지
귀는 귀의 반대편에 있으므로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습성은
고무줄의 속성 같은 것 불가능한 관성 같은 것
귀가 귀와 가까워지기 위해 귀로부터 멀어질 때

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멀어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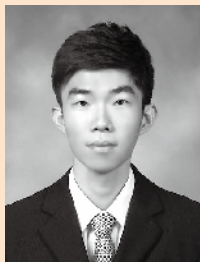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수상 소감

법무부 서울구치소

박현준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교도관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는 시와 같이 교도관은 수용자를 계호하면서 그들의 교정교화에도 힘쓰는 직업입니다.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100명의 사람 중에 1명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시작이고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직업의 한 단면만을 보지 않도록 도와준 '시'라는 장르에 무척 고맙게 느끼고, 이번 상은 더 열심히 제 직업에 충실하고 더 노력해서 시를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서

어둠과 빛이
서로 손을 잡는 시간에
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 갔네.

내 잃어버린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날 감싸 주는 바다가 있네.

갈매기들은 바다에서
그 날의 마지막 비행을 하고
파도는 바다에서
밤의 연주회를 위해 준비하고
배들은 바다에서
저 어둠을 향한 여행을 준비하네.

나는 바다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네.

갈매기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파도가 밤의 연주를 시작하고

배들이 어둠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면

내 곁으로 잃어버렸던 내가 와서

나와 함께 그들을 바라보네.



수상 소감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고 경 자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를 잘 쓰고 싶은 것이다. 시는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자 안식처이다.

시를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시를 쓸 생각이다.

난청

소리들이 방향을 잃고 사라진다.

어떤 소리들은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기도 한다.

소리굽쇠 끝에서 내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툭 튀어나와 소리와 눈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님을 밝힌다.

그래도 눈은 소리를 떠나지 못한다.

떠나갔다 돌아온 바람은 소리를 배신할 것이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소리는 자신이 만든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소리를 가뒤흔드는 귀의 고전적 습성 때문에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들을 억지로 감옥에 가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언젠가 이것이 음모라고 밝혀질 거예요.

소리들이 떠난 그곳에 가면 진실이 있을 거라고요.

의사는 보청기를 권하고

나는 소리를 놓아주기로 한다.

제 1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소설

심사평

교원 부문, 비교원 부문을 통틀어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응모작의 대부분은 주제, 구성, 문장 등 소설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들을 두루 잘 갖추고 있었다. 그 반면, 아직은 설익은 작품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수기 형식의 짤막한 이야기는 심사 과정에서 일찍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입상작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만큼 우수한 작품이 더 많았다. 더구나 최종심까지 오른 작품들은 그 나름의 일장일단을 갖추고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무척 힘들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최종심에 오른 작품들을 놓고 장시간 고심한 끝에 만장일치로 입상 등위를 결정하였다. 입상하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비록 입상권에 들지는 못했을지라도 응모하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심사위원: 이광복, 황충상, 이상문

치매 시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문호

● 은상

빈 배

전)강원영동 병무지청 이상성

● 동상

새가 앓은 동안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 서행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김철구

젊음이 없는 도시

의정부 민락중학교 김영환

숨사탕

교육부 박은지

● 입선

수상 소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 문 호



생각하기도 싫은 2001년 8월, 그토록 원하던 전직시험 발표가 있었고 그 해 처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심의위원회가 생겨 그 뒤치다꺼리로 남들보다 늦게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눈에 들어온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모 중앙지에서 8월 말까지 소설공모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에 썩었는지 고대하던 전직시험 준비 대신 그때나 지금이나 짧은 실력이지만, 소설을 썼습니다. 이것만 당선되면 그동안의 고통은 상쇄되리라 하고, 그러나 힘겹게 쓴 소설은 예선에서 탈락하고 전직시험에도 떨어졌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그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소설은 제게, 너무 사랑했지만 나를 버리고 떠난 옛 애인 같습니다.

몇 해 전 우리 곁을 떠난 고 김대홍 주무관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사춘기로 몸살을 앓는 동준, 동희 두 아들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나머지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 올립니다. 훗날 넓은 지면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치매 시대

“봄 도다리쑥국, 진해 벚꽃, 제비, 개나리 ……”

여기까지 말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관심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1주일 마다 찾아오는 나를 봐서라도 집중할 만도 하지만 치매 환자에게 집중력이나 관심이란 조루증과 같다. 그렇다고 인상적인 단어나 이야기에 발기(勃起)하듯 귀를 세운다거나 사정(射精)을 하듯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는다. 봄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기다리다 내가 스스로 한 대답에도 아버지는 멍한 표정이었다.

내가 어릴 때,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옛날 기억은 선명한 편이고 최근의 기억은 희미했다. 같은 치매라도 아버지는 달랐다.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두서없는 일상적인 일들만, 그것도 일부만 기억했다. 기억을 잠깐 했다가 잊어버리기를 반복했다. 기억을 끌어내기 위해 던지는 미끼에 낚이지 않았다. 백태 낀 눈을 보면 지겨운 세상을 벗어나고 싶지만 가보지 못한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듯하다가, 이런 생각조차 귀찮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다. 아버지가 들었던 친목계의 계원 한 명이 문병을 왔다. 친목계란 우리 가족이 부산에 이사 와서 살았던 동네의 이웃 사람들 모임을 말한다. 그 계원은 나도 알고 있는 일테면

같은 동네의 이웃집 아저씨였고 이제는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다. 계에 나오지 않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면 아버지를 위로하자 아버지는 보통 때와 다르게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했다. 내용도 거의 정확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소설 ‘감자’를 읽는 기분이었다. 복녀가 시집와서 살았던 칠성문 밖 빈민촌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우리가 살았던 동네와 비슷해서였다. 시대 차이가 나서 실제 마을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느낀 정서는 그랬다.

철도와 공작창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담벼락에서 공작창의 담벼락이 사선으로 갈라지면서 생긴 삼각형 땅에 들어선 동네였다. 철로변 마을이 그렇듯 골목마다 아이들이 넘쳐났다. 칠성문 대신 철로 위로 놓인 육교가 있었고 낮을 빼앗아 들고 활극을 벌인 왕 서방 대신 화교 출신답지 않게 조용하고 새색시 같은 몸매의 또 다른 왕 서방이 있었다. 그는 중국집 사장이었다. 맑은 날도 많았겠지만 내 기억 속에는 거의 회색빛 하늘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사진첩에서 빛바랜 옛 사진 한 장을 찾은 느낌이었다.

1주일에 한 번 가는 병문안이지만 아버지와 말동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물통을 집어 달라, 휴지를 달라, 손잡이를 돌려 침대 상반신을 올려 달라는 주문을 계속해댔다. 몸이 멀쩡했던 젊은 날에도 끊임없이 심부름을 시키던 버릇 그대로다. 내가 오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 운동을 시킨다. 주로 자전거 페달 돌리기와 보조기구를 잡고 걷는 연습이었다.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아버지보다는 자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다리가 멀쩡해지고 걸어서 화장실에 갈 정도면 퇴원시켜서 집으로 모셔 가겠다는 어머니의 고집이다. 돌아가신 할머니 똥오줌을 몇 년씩 받아 내던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치매는 다

시 날아온 날벼락이다. 치매 걸린 배우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를 몰아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어떤 노인의 사연을 듣고 감동하는 어머니다.

어머니의 희망과 다르게 아버지는 운동을 등한시했다. 누워서 지내는 병원생활이 그나마 좋은 모양이다. 누워서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밥이 나오는, 젊어서 누려보지 못한 호사다. 그래서 어머니는 진작 죽어야 할 영감이 살아서 자식들 고생시킨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1년에 들어가는 병원비를 계산해 보더니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는 형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내게 남편 반, 아들 반 노릇을 했어. 너희 형만 믿고 살았다. 내겐 첫사랑이었다고나 할까.”

민망스럽게 형에 대해 칭찬을 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다가 미안한지 이런 말을 덧붙였다.

“너희 태어나기 전 이야기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고 소외감만 생긴다. 말단 공무원이라서 병원비 한 푼 보태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게다가 연금까지 깎는다니 늙어서 아이들 학비 갚고 나면, 아버지처럼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노릇이다.

1주일이 넘게 아침마다 정문 한쪽 옆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금지’ 팸말을 들고 서 있는 노조간부들을 보았다. 출근길에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불안한 노후가 걱정되면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아버지가 부럽기까지 했다. 며칠 전 출근길에 서 주무관이 팸말을 들고 있어서 인사를 했다.

“수고 많으시네요. 잘 지내시죠.”

“다른 과로 가니까 보기 어렵네. 자주 좀 내려와.”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서로 얼굴을 보니 편하지만은 않았다. 서 주무관은 20년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연금을 남겨주지 못하고 고인이 된 장 주무관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와 같은 과에 근무한 적이 있어 선배로 대우한다.

장 주무관이 고인이 되고 몇 달 후였다. 노조사무국의 직원이 사직해서 신규로 상근직원을 뽑은 일이 있었다.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서 주무관이 장 주무관의 부인을 뽑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 상근직원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운영규정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유가족을 돕자는 제안에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보여준 싸늘한 반응에 당황했다는 이야기에 나까지 우울해졌다. 직원들의 권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고인이 된 직원의 가족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런 일에 관심조차 없는 현실이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의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병실에 같이 입원해있던 환자가 죽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환자가 그 침대에 누워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일상과 같아서다.

일요일에는 병원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만나는 날이 종종 있다. 아버지가 운동하자는 내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기 때문이다. 귀찮아하는 아버지를 달래기도 하고 구박을 하기도 하면서 어머니는

“나는 다리에 힘을 붙일 테니, 너는 꺼져가는 기억을 붙잡아라.”

라며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뜻하지 않게 옛날 살던 동네를 찾은 것은 이런 어머니의 당부 때문이기도 했다.

직원이 부친상을 당해서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던 몇 달 전 어느 토요일이었다. 교통사고로 졸지에 상을 당해 어이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상주를

위로한답시고 낮부터 한 두 잔 들이킨 소주가 두 병을 넘어섰고 오후가 되자 문상객들이 줄을 이어 들어서자 장례식장을 나왔다. 술도 깰 겸 나 에게도 곧 닥칠지 모를 부친상에 대한 걱정으로, 걷기 시작해서 닳은 게 장례식장과 멀지 않은 옛 동네였다.

옛 동네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마침 폴더폰에서 바꾼 스마트폰이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바꾼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다. 미국에 있는 형과 아버지 문제로 통화하기가 부담스러워서다. 통화료가 비싼 것도 있지만 막상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게 맞다. 만화책에 나오는 풍선 모양의 글 주머니 같은 카톡으로 간단하게 소식만 전하면 구구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아버지는’

‘똑같이 뭐’

‘기억력은’

‘전보다 안 좋지 뭐’

‘고생이 많구나’

‘뭐, 별로’

떡가래 썰 듯 짧게 잘리는 문장은 형제의 정이 미국과 한국의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6살이나 차이 나는 형에게 반말하는 것은 영어에 익숙해서 높임말이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다는 형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습관이다. 카톡에 ‘뭐’란 말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일종의 반발심이다. 뭐 어찌라고, 뭐가 어때서, 뭐냐고 하는.

형은 태평양 너머에서, 그것도 대서양과 가까운 뉴욕에서 대륙 하나, 바다 하나 건너를 불구경한다. 지구가 둥글기에 불이 안 보여서 불이 꺼

졌다 불씨가 남았나 카톡으로 확인하는 것이냐는 깊은 섭섭함이다.

떠나온 지 20여 년이 지나 다시 찾은 동네는 가뭄으로 댐에 물이 빠지자 수몰된 마을이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는 신문기사의 내용과 흡사했다. 방수용 도로로 지붕을 둘러싸온 몇 집 말고는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변하지 않은 동네의 모습 때문에 옛 기억이 또렷해져서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배우자와 변태적인 잠자리를 하면서 첫사랑 애인은 청순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게 보통 남자의 마음이라면 나는 첫사랑 애인의 변태 남편이 되는 상상을 하는 쪽 이어서 그랬다.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도 방범대원 아저씨 가족이 세들어 살았던 옆집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옆집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전국을 떠돌던 우스갯소리가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줄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당시에는 생계형 도둑이 많았고 우리 동네 같은 빈민촌에도 밥이 든 전기밥통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는 사건 같은 게 종종 있었다. 이웃에도 아버지같이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가장은 전국을 떠돌며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없는 날이 많았다. 늦은 밤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 부엌을 아무리 뒤져도 훔쳐갈 게 없었다고 한다. 기가 찬 도둑이 부뚜막에 잠시 앉아있자 자는 줄 알았던 큰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부엌에서 큰방으로 들어가는 여닫이문이 있는 집이 많은 시절이었다. 놀란 도둑이 가만히 들어보니 모자(母子)의 대화가 들렸다. 도둑은 자기가 부엌에서 낸 소리를 방에서 들은 것인지 그래서 도망가야 할지 계속 있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숨죽이고 방 안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어머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야지”

대화를 듣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도둑질하려던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도둑은 가만히 문틈으로 방안의 동정을 살핀 후 매우 놀랐다는 이야기이다. 똥을 먹으려는 모자(母子)를 말리고 댄 집에서 훔쳐온 것을 나누어 주면서 용서를 빌 생각이었다. 황당하게도 방안의 모자(母子)는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허탈한 마음에 경계심이 풀어진 도둑이 집 앞을 나서는 순간 순찰 중인 방법대원에게 잡혔고 옆집에 세들어 살던 방법대원 아저씨의 입을 통해 동네에 소문이 돌았다.

보지 않고는 믿지 말라거나,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복수의 감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진실을 안다는 게 다른 동네에서의 교훈이라면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 우스갯소리에 빚댄 빈민촌에서의 교훈이다.

섬이지만 산촌이라고 불릴만한 산골에서 살았던 어머니는 이농향도 현상으로 주변에 남자가 없어 아버지와 결혼한 것을 똥을 먹었다는 말로 표현하곤 했다. 요즘은 아버지를 보고 머리와 몸을 동시에 아껴서 치매가 생겼다며 아껴서 똥똥했다는 말을 한다. 그 동네에서 살았던 아버지의 인생 역시 똥이었다.

아버지는 노가다 중에서도 데모도로 늙었다. 노가다의 기본인 목수나 쓰미(벽돌쌓기), 미장일을 배우지 않아서 단순한 보조 일꾼에 불과했고 그래서 일당도 적었다. 몇 해 전 치매 증상이 나타났던 초기에 엠알아이를 찍어서야 이유를 알았다. 분식점 아들이 출세해서 의사가 되었나 하는 호기심이 들만 한 담당 의사는

“보통 뇌를 보면 그릇에 금방 끓여 낸 라면을 부어 놓은 모습입니다. 근

데 화면에 보이는 환자분의 뇌 사진은 그 반대로 주름이 퍼져 있지요. 이 주름은 시간이 지나면 라면이 불어서 꼬불꼬불한 면발이 늘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 나이가 들어서 퍼진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 의사의 말은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생각을 깊게 하거나 집중해서 무엇을 배운다거나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걸 싫어하는 스타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에 간 일이 있었다. 겨울철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지만 얼굴에 귀찮은 표정이 가득한 아버지가 첫날 같이 가더니 신경치료에 며칠 걸린다는 치과의사의 말을 듣고 다음 날부터는 혼자 가라고 했다. 치아의 썩은 부분을 기계로 파내는 걸 참아가며 겁에 질린 채 병원에 다녔다. 치료가 끝나는 날이었다. 치아의 구멍 난 부분을 때우고 덮어씌워야 한다며 부모님을 모셔오라던 치과의사가 테이블 위에 있는 샘플을 보여주면서 어떤 재질로 덮을 거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별 고민도 없이

“서민이 뭘 돈이 있겠소. 제일 싼 걸로 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삼류 싸구려 인생이란 걸 확인한 셈이다. 인근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2본 동시 영화관이 있었고 그 옆에 있던 노천 인력시장에서 청춘을 보낸 아버지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날은 바로 옆의 극장에 들어가서 온종일 시간만 죽이다 오는 게 일과였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일자리가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극장에서 모여진 노가다 멤버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 온 날도 많았다.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은 날은 누런색 종이봉투에 담은 보리쌀과 숙주나물과 두부를 사 넣은 하늘색 비닐봉지를 들고 오다 골목 어귀에서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

고 넘어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보리쌀이 사방에 흩어지고 으깨진 두부와 널브러진 숙주나물을 보면서 똥을 밟은 것처럼 신발 바닥이 이물감으로 물경거린다는 이상한 느낌으로 사춘기를 근근이 넘어섰다.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아버지는 그런 일은 모두 잊고 속 편하게 요양 병원에 누워 있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일여 년 전이다.

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몸살에 걸렸는지 누워만 있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지냈다. 죽을 썬서 먹이고 욕창이 올라 싫어 몸을 모로 누이려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몸살 때문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혼자 방안을 걷다 엉덩방아를 찢어서 뼈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였다.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뿐이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119를 불러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시켰더니 허리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갑옷처럼 생긴 보조기를 차고 2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아버지가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 퇴원해서 집으로 모셔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 허리가 아픈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전기 코드나 가스레인을 잘못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집에 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어머니가 집에만 계실 수도 없는 일이다. 몇 년째 재개발이 되지 않는 산복 도로 위의 낡은 집은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어 저항력이 약한 아버지에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받아서 내야 하는 병원비를 걱정해서다. 본가에서 가깝지만 가격이 약간 비싼 요양병원을 찾았다.싼 곳은 시설이 형편없거나 거

리가 너무 멀어 아버지가 지내기 어렵고 어머니가 다니기 불편해서 더 고민하지 않았다. 몇 번 망설임 끝에 형에게 전화했다. 마치 내 잘못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고 집에서 돌보기 싫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는 변명식으로 구구절절하게 말했다. 마음이 돌아선 남자에게 여자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애면글면 매달리던 드라마 생각이 났다. 남자는 ‘내 아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라거나 ‘얼마면 되겠어’ 같은 상투적인 말로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답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뺨을 때려서 분노를 표했다. 형의 답은 후자였다.

“한 달에 얼마면 되겠니?”

나는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상태나 어머니에 대해서 일절 물어보지 않았다. 차라리 ‘낳아 놓기만 하고 방치만 했는데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라는 질문을 해 주길 바랬는지도 모른다. 전화하는 도중에 한국과 형이 사는 뉴욕과는 13시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뒤늦게 서야 생각났다. 형의 반응만 걱정하다가 시간개념을 상실한 것이다. 전화를 받은 형은 한밤중이었을 것이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형수는 웬 밤에 불길한 전화가 왔는지 의아해할지도 몰랐다. 시설과 환자 수에 따라 가격 대별로 나뉜 5단계의 병실을 상, 중, 하 3단계로 축소해서 이야기했다. 형은 중간 단계로 하라며 매달 거기에 맞는 돈을 내 계좌로 부쳐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도 얼마를 보태겠다는 준비된 말도 하기 전이었다. 국제 변호사인 형은 예전 통화에서 곧 더 큰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사도 할 것이라고 했었다. 한 번씩 부모님 문제로 전화할 때마다 잘나가는 형의 인생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한국에 남은 우리 가족이 형을 상대로 한 자해 공갈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출세한 사람들이 자기의 미천한 출신지

를 숨기는 게 인지상정이라면 도마뱀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데 번번이 실패하게 하는 원흉이 나라고 형이 지목할지도 모를 일이다.

형을 생각하면 젊은 날의 아버지가 떠오른다. 자식에게 관심이 없듯이 치매로 오래 고생하신 할머니를 어머니가 수발하도록 맡긴 게 다였다. 형과 전화를 할 때마다 귀찮은 일에 휘말렸고 빨리 통화를 끝내고 싶다는 무언의 짜증 같은 것을 느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서울에 있는 여동생의 의견대로 셋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필요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했다.

실핏줄처럼 퍼져있는 골목길과 그 사이에 끼여 있는 옛 동네의 집들을 돌아보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물 밑의 돌맹이를 들추자 가재가 나오고 다른 돌맹이를 흔들면 피라미가 고개를 내미는 식으로 집집마다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과의 사연으로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었다. 보충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 기억들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치매를 앓을 수는 없지만 진행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동네에 들어올 때는 육교를 통해서 뒤편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들어온 쪽과 반대편 골목으로 해서 나갔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술이 깼을 만큼 놀랐다. 골목 입구에 있었던 중국집이 생각나서 놀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중국집 대신에 3층 건물이 들어선 것에도 놀랐다. 술 취한 아버지가 잘 넘어지던 장소이기도 했다.

왕 서방 아저씨의 중국집. 그 동네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형과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 집에서 뭘 먹어 본 적은 없다.

게다가 왕 서방 아저씨의 딸 보미. 나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운이 없어서 같은 반은 한 번도 되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가난해도 보미 앞에서 허겁지겁 짜장면을 목에 넘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칼을 목에 넘기는 것만큼이나 싫었다. 봄이 되면 연음법칙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보미였다. 봄이 와서 철로변에 개나리가 피고 기차가 달려오면서 물고 온 바람 때문에 개나리꽃이 파도타기 하듯 샅노랗게 물결쳐 오는 모습이 화사한 보미 얼굴과 겹쳐지곤 했다.

왕 서방 아저씨를 닮은 큰 키에 기름진 중국음식을 먹어선지 윤기 나는 피부와 맑은 샘 같이 깊고 큰 눈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었다. 그 동네에서 공부로는 형, 인물과 마음씨로는 보미만 한 애가 없었다.

우리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이었다.

원칠한 왕 서방 아저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아줌마의 의심에, 중국집이 쉬는 날 방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왕 서방 아저씨는 어이없는 죽음을 택했다. 119를 처음 보았고 들것에 실려 나가는 왕 서방 아저씨의 푸른빛이 도는 핏기 없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 사건 이후 보미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갔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여상을 거쳐 취직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뭇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돌아온 연인을 환영했다는 소설 속의 애기처럼 제대할 무렵까지 봄이 오면 가지에 매달린 노란색 개나리꽃이 나를 환영하듯 피어있다는 상상을 했고 그때마다 보미를 생각했다.

옛 동네를 돌아보다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잊고 살았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옛 동네를 다녀온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았다. 형은 미국에, 여동생은 서울에 있어서 할 수 없이 맡은 아버지였다. 폭탄 돌리기에 서 오롯이 내 차지가 되어 버렸다.

아버지를 만나러 병실에 들어오면 일단 기저귀 틈새에서 쏟아져 나온 똥,오줌 냄새가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게다가 노인 특유의 비릿한 살 냄새

새와 감지 않은 머리 냄새, 가래와 콧물에 흠뻑 젖은 쓰레기통 속의 휴지 냄새, 살 썩는 냄새가 나는 욕창에, 쉬지 않고 밀려 나오는 입 냄새까지, 파도가 일듯이 병실을 떠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어 그래 왔나. 오늘 근무하고 왔나?”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

몇 분 지난 뒤 아버지와 나는

“오늘 근무하고 왔나?”

“오늘 일요일입니다”

를 몇 번씩 반복했다. 동네 구석구석을 찍은 스마트폰의 사진을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옛 동네를 기억하지 못했다. 몇 달 사이에 기억력이 더 감퇴한 모양이다.

손에 잡힐 듯 현실같이 생생한 꿈을 꾸어도 꿈이 깨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다. 이럴 때 꿈에 본 사물이나 비슷한 사건을 접하게 되면 꿈의 내용이 단번에 생각나곤 한다. 아버지의 기억에서 간단한 사건이나 사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고 또 다른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치매 진행속도를 더디게 만들어야 한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선잠이 들거나 깰 무렵 나에게 삼촌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아버지가 입원한 6인실의 창가에 누운 치매 환자는 배우자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다. 눈을 멀뚱거리면서 주위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어눌하지만 높임말을 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 적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다.

아버지를 찾아뵙는 날 가끔 그 환자의 아들과 마주친 적이 있다. 서로

의 힘겨운 처지를 알아서 눈인사만 하고 지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운동시켜야 한다고 해서 운동기구가 설치된 6층에 오래 있었던 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자전거로 옮겨 앉아 페달을 간신히 돌리고 있었다. 휠체어를 밀고 온 그와 바로 옆에 서게 되어서 인사를 나눴다. 박이라고 소개한 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말했다.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기억을 잃어버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못 알아 보는 게 조금도 섭섭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젊어서 형사였어요. 흉악범들을 많이 잡았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토막살인사건의 범인도 아버지가 잡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괴롭지 않겠어요. 차라리 가족들이 괴로운 게 낫지. 적어도 아버지는 그런 기억에서 놓여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면 아버지가 가족을 잘 보살폈겠네요.”

“전혀요. 가족에게 참 무심한 아버지였죠. 형과 내 졸업식에 한 번도 오지 못했죠. 집에 들어온 날도 손으로 꿈을 정도였어요. 오히려 집에 오는 날은 불안했어요. 왜 있잖아요. 불길한 예감 같은 거.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면……. 실제로 집에 온 다음 날 격투 끝에 칼에 찔려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요. 지금이 훨씬 아버지를 많이 볼 수 있죠.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으니깐요. 돌아가시면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남들이 보면 최악이라고 볼지 몰라도 저희는 좋아요. 어릴 때 집에 전화가 걸려오면 불안했어요. 칼에 맞았다거나 언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족이 늘 신경을 곤두세웠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하는지.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니까 알겠더라고요. 배운 게 그런 일인데 부양 가족을 위해서 어찌겠어요. 아버진들 흉악범과 맞닥뜨리고 싶었겠어요.”

박이 두려워했던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박을 알고 난 후의 일이

다. 추석 연휴 전날이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였다. 요양병원이었다.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 톤이나 속도로 봐서 심상찮은 일임이 분명했다. 떨썈하던 아버지가 왜 그런 것인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모든 게 너무 막막했다. 몇 층으로 오라던 병원 관계자의 말을 잊어버려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2층으로 갔다. 놀란 얼굴로 박이 앉아있었다. 7층 응급실로 가라고 알려주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한쪽 침대에 아버지가 좀비로 변하려는 인간처럼 몸을 비틀고 있었다. 숨을 쉬려고 하는 것 같았다. 숨을 한번 쉬기 위해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몸을 뒤틀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놀란 마음에 정신까지 없었다. 간호사가 당직 의사를 불렀고 당직 의사가 다가와서 아버지의 상태를 알려 주었다. 아침밥을 먹다가 식도로 넘어갈 밥의 일부가 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했다고 한다. 수습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응급처치해 놓았다는 짧은 설명만 하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몸을 뒤트는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버리는 의사와 별일 아니라는 듯 다른 일을 하는 간호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따라 올라왔던 박이 빨리 큰 병원의 응급실로 모시고 가라고 했다. 여기도 응급실인데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간다한들 무슨 수가 있겠냐는 의구심에

“병원 특성상 요양병원 응급실은 잠깐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일반 병원 응급실에 전문 장비가 많아요. 아버지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봐서 알아요.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고요.”

라며 놀라서 정신없는 내 손을 잡아주었고 구급차까지 불러주었다. 아버지는 근처의 종합병원으로 옮겨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아니면 살아날지 의사들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산소호흡기와 연결되어 기도로 삽입된 관을 손으로 뺄까 봐 손을 침대에 묶어 놓은 아버지는 의식이 들자 이 황당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손을 풀어달라는 눈빛을 보내곤 했다. 독한 항생제를 맞으며 잘 견딜 수 있을지 하루에 두 번으로 제한된 면회시간에 아버지를 보며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적어도 내게는 그랬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였다. 장 주무관이 생각났다. 무심한 나는 그를 잊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가 생각났다.

장 주무관은 내가 지금 근무하는 구청으로 전입해 오고 나서 만난 직원이었다. 암 수술과 치료로 휴직 중이었고 내가 전입해 온 몇 달 뒤에 복직했다. 처음 본 느낌은 헌병에 적합한 몸매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꺾충한 키와 몸보다 머리가 약간 작아 헌병용 철모를 쓰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었다.

헌병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내가 말년을 보낸 동해방어대란 육상부대에 전입하기 전 그 부대에서 근무하던 헌병 2명이 제대기념 사진을 찍으러 방파제 끝에 나가서 1명이 파도에 끌려 사라진 사건이었다.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갑판수병으로 초계함에 근무하던 내가 이 부대의 식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으로 발령 날 예정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경계병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소 경계병이 된 것이다. 훈련이나 실전 상황이 아니면 들여보내지 말아야 할 방파제에 헌병을 들여보낸 초소 경계병이 영창을 갓고 방어대장이 바뀌는 동시에 군기가 엄청나게 세서 육상부대의 경계병 일이 녹록지 않았다. 모든 해군의 꿈인 육상근무를 하는 동안에 해기사 공부를 하려 했던 꿈이 사라져서 제대하면 하급선원으로 배를 타야만 했다.

몸이 아파서 다른 직원들과 소원한 그와 전입해 와서 어색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내가 가까워진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잡무가 남아서

초과근무를 하러 온 토요일 날, 집이나 산에 있어야 할 그가 출근해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사무실에는 돌밖에 없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연장자인 것을 의식해서 인지 간단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하며 내게 근무 환경이 어떻냐고 물어서 나도 진성으로 대답했다. 그날 이후 가끔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어 둘만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자 자기의 병명이나 가족관계와 급기야는 얼마 남지 않은 20년의 근무 기간을 채운 뒤 가족에게 연금을 받게 해주고 나서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 휴직 기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지리산자락으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다고 했다.

편백 숲을 돌면서 등산을 하는 게 좋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시골학교에 잘 다녔다고 했다. 그곳이라면 완치는 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몇 년은 더 살 자신이 있었다고 했다. 남자 친척 중에서 40 고개를 넘은 건 자신이 처음이라고 했다. 몸이 좋아질수록 목숨 연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산골에 파묻고 언제까지나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휴직 기간에도 한계가 있어서 초조했다는 말도 했다. 퇴직하고 혼자 산속에 살고 부인과 아이들은 도시로 보낼 궁리도 했다. 그런 길보다는 복직을 해서 간간이 병원에 다니면서라도 몇 달 남지 않은 20년을 채우는 게 가족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집에 있는 가족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가끔이지만 휴일에 출근한다는 얘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진주에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전학을 왔는데 그때가 생각난다면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잘 지내보자고 했다. 진주라는 말에 한동안 멍했다. 장 주무관으로 해서 내가 금기로 여기는

군대의 일과 진주에서의 일이 동시에 생각나 한동안 힘들었다.

어릴 적 남해에 살다가 아버지가 진주에 일을 얻어 어머니와 큰형, 작은형을 데리고 분가한 적이 있었다. 여동생은 태어나기 전이고 할머니와 나는 남해에 계속 살았다. 할머니가 부엌 문턱에 걸려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된 나까지 진주에 가서 가족과 합류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은 남강댐을 구경하러 갔다. 나를 본 순간 작은형의 얼굴에는 막내 자리를 뺏아서 미안하다는 표정이 선명했다. 오는 길에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준다고 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 내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을 작은형은 막내 자리가 바뀌어 적응되지 않았는지 혼자 걸음이 뒤처졌다. 그래서 조바심이 났는지 이미 도로 건너편으로 가 있던 우리에게 오기 위해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왔다. 건너왔다고 보다는 뛰어들었다. 그때 커다란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도 말할 틈이 없었다. 그 후의 일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머지 가족이 작은형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큰형을 그냥 형이라고 부르고 여동생이 태어나서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다. 사춘기 내내, 진주에서 나를 보고 어색해하며 미안해하던 작은형이 생각났고 내가 계속 남해에 있었다면 작은형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할머니가 더 없이 좋았지만, 다친 할머니를 핑계 삼아 가족이 보고 싶어 진주로 보내달라고 떼졌던 기억 때문이다. 큰형과의 간극을 메워줄 유일한 인물이 사라져 버렸다.

장 주무관은 복직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병가 내는 일수가 많아지더니 다시 휴직했다. 병가 중에 휴직계를 내려 와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할 때 모두 놀랐다. 가뭄에 타들어 가는 식물처럼 말라 있어서다. 내 손을 잡은 그에게서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그냥 기분일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20년을 채우리라는 의지가 강해서 당장 어떻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치료 잘 받고 나오라고 웃으면서 얘기했고 나중에 몸이 나오면 뱃꽃 필 때 같이 휴가를 내서 남해에서 진주를 거쳐 진해, 내가 군대 시절 말년을 보낸 동해시와 그가 군 생활하던 강원도 원통까지 일주하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문병 갔을 때 통닭과 아귀찜을 먹고 있길래 상태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일반음식을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가망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게 하라는 의사의 지시였다고 한다.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은 욕망을,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국화의 꽃말은 감사라고 했던가. 장 주무관의 상가에 문상을 가서 환자답지 않게 환한 얼굴의 영정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배낭을 메고 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도 작은형의 죽음을 떠올렸다. 작은형의 죽음이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사고 난 날에 먹기로 했던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큰형과 나는 졸업식 날에도 짜장면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장 주무관의 딸들을 보자 미국에 있는 조카 생각이 났다. 아들뿐인 내게 딸이란 부러운 존재였다. 실제로 만나 보지 못했다. 영문과를 졸업해서 영어회화가 되는 여동생은 형수와 가끔 통화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여동생의 카카오스토리에 집 앞에서 찍은 형의 가족사진을 본 적이 있다. 잔디밭이 넓고 숲 속에 있는 듯한 2층의 큰집이었다. 조카는 골격은 서양인인데 눈빛과 머리카락 색, 얼굴 윤곽은 형을 닮았다. 허드슨 강과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금발 머리에 선글라스를 쓴 형수는 영화배우처럼 멋있었다. 한국에서 이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형은 그곳에서 재혼했다. 명문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집안에 장가들었지만 형수와 갈등이 심했다. 형수에게 보잘것없는 시댁의 형편과 수준이 늘 불만이었던 모양이다. 신혼 초 명절 때 오던 형수는 발길이 뜸해져 형 혼자 오더니 둘 다 아예 발길을 끊었다. 형은 판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가서 자리를 잡았다. 형은 어머니 혼자 사는 산복도로 위의 재개발 되지 않는 낡은 집이나 똥오줌 못 가리는 아버지나 어릴 때부터 나이 차이 때문에 서먹했던 나에 대해 기억하기 싫어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장 주무관을 화장하는 날 장맛비 같은 봄비가 왔다.

비 오는 화장장에서, 내가 지키던 초소로부터 맞은편 민간인 부두 쪽으로 뻗어 나가 있던 방파제를 생각했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사라져 버린 현병이 생각났다. 그 현병 때문에 경계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방파제로 들어가는 입구의 1초소에서 끊임없이 방파제 끝을 바라보았던 옛날을 기억했다. 텔레비전에서 속초 북한 잠수정 사건으로 북한 잠수정이 그 방파제 안쪽으로 끌려오던 장면을 보았고, 아이엠에프로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제한되어서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갈 때 동해항의 민간인 부두를 떠나 반대편 방파제 쪽으로 출항하면서 내가 자주 근무했던 1초소와 방파제 끝을 본 일도 생생했다. 비상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는 방파제는 그 넓이와 길이가 대단했다. 방파제 바깥쪽으로 한 개에 몇 톤씩 나가는 테트라포드가 방파제 끝나는 데까지 엉겨서 이어져 있었다. 거친 동해의 파도를 막아 줄 섬 하나 없어 방파제 끝은 물결과 바람이 잠들지 않는 곳으로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햇볕이 짹짹한데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방파제 끝에 부딪쳐 포말이 사오십 미터씩 솟구치면서 무지개가 퍼지는 날, 제대기념 사진을 찍으러 방파

제 끝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전설 같았다. 장 주무관의 환하게 웃던 영정 사진이 무지개와 겹쳐졌다.

장 주무관이 쓰던 사무실의 책상 위에 국화꽃이 놓여 있지 않았다. 내 뒷자리에 있던 그의 빈 책상을 보는 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그의 책상 위가 광고지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한 장씩 돌리고 남은 것을 빈 책상이라서 다 놓아둔 모양이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서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 생활수기 공모전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글쓰기에 켄병인데 상금을 받으면 장 주무관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려고 투고했다. 월급에서 댄 돈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한 나에게 자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구청으로 찾아오기도 했던 체납자의 이야기였다.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 죽었고 두 아들을 키워서 남은 재산이 천만 원인데 전 재산을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이 담겼다. 비 오는 화장장에서 빗방울이 창문가에 부딪치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장 주무관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이성을 잃은 민원인이니 이제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상상하는 내용도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다. 이런 수기는 글솜씨보다 사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내용을 슬프게 썼다. 대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수상 정도는 받아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장 주무관의 가족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입선에도 들지 못했다. 모두에게 잊혀진 장 주무관처럼 이야기 자체도 설득력을 잃어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고 장 주무관과 비슷한 연배의 작은형의 일도 동시에 잊고 말았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지만 산소 호흡기를 빼서 아버지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위험한 고비를 넘긴 건 아니었다. 계속해서 열이 많이 올랐다. 어머니는 수의를 빨고 다녔다. 형에게 카톡을 보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버지와의 통화를 다음 날 면회시간에 주선했다. 서울에서 여동생도 와있었다. 아버지는 몇 마디 응응하는 소리를 내더니 예상외로 짧은 통화가 끝났다. 통화 내용을 여쭙어 보았다.

“형이 뭐래요?”

“응, 잘 지내라고 하네. 근데 오늘 근무하고 왔나?”

“오늘 일요일입니다”

죽을 확률과 살 확률이 반반이라는 아버지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서 이틀을 지낸 뒤 종합병원을 퇴원해서 요양병원으로 돌아갔다.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길 때 어머니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관리소홀과 응급처치만 했다 뿐 존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별다른 2차 조치 없이 방치한 의사가 있는 예전의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리라는 게 내 주장이고 어머니는 살아났으니 다행이고 그 값에 이만한 병원이 없다는 게 내세우는 말이었다. 시골의 형님 집에 가서 추석을 쇠려고 아침 일찍 인사차 병원에 들렀던 박이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이다.

형제들의 단체 카톡방에 아버지가 고비를 넘겨 다시 요양병원에 재입원했다는 내용과 사고가 난 날 아침의 상황과 함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실로 소송을 하거나 어디든 알려서 병원에 과실이 있다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 형에게서 글 풍선 모양의 답이 와있었다.

‘任’

단 한 글자였다. 한국에 있는 친구 변호사나 의사에게 동생을 도와주라는 말을 해 놓았으니 누구를 찾아가 봐라 하는 내용의 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소송비용을 대겠대거나 법률자문을 해 주겠다는 정도

는 기대했었다. 어릴 때 형의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오는 날, 집 앞에서 노는 나를 외면하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 이 글자를 본 순간 형이 애플이나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 대신 어쩌다 중국제 값싼 스마트폰을 호기심에 사서 키를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여동생의 전화가 와서 내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고 알려줘서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귀찮은 일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던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꼴이었다. 시골에 살던 외할머니가 터미널에 왔을 때 마중 나가기 싫어서 중학생인 나를 보냈고 할머니와 약속장소가 어긋나 2시간 만에야 만나서 집에 모시고 오자 길눈이 어둡다고 눈물이 나올 때까지 잔소리하던 아버지였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유산 받은 시골의 땅을 팔아 옛 동네를 떠나 이사를 해도 처가에 고마워할 줄을 몰랐다.

형이 서울에서 대학을 거쳐 대학원에 다니고 나중에 여동생마저 서울로 올라가 취직을 하고 야간 대학을 다닐 때 제대하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배를 타기 위해 내가 해군에 지원해서 복무 중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면회실이 있는 후문 경계근무를 서면서 우리 가족은 면회를 오지 않을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을 가족은 알거나 했는지……, 1초소에 경계근무를 설 때 방파제 끝을 노려보면서 제대하면 집을 떠나 배를 타고 항구마다 방파제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상상으로 근무 시간을 버텼던 나였다. 동남아를 왕래하는 목재 운반선의 선장인 친구에게 나를 소개해 준 주임상사 덕에 제대만 하면 배를 탈 수 있었지만 품에 맞아 쓰러진 아버지 때문에 배 타는 것을 포기한 내 심정을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아버지와 가족에게 섭섭했던 마음까지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나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고민조차 두려

왔다. 아들의 치아 덧씹우는 재료를 별생각도 없이 ‘제일 싼 것으로 해 주세요’라는 말을 했던 세상에서 제일 싸구려 아버지였다.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중환자실을 찾았던 여동생이 형과 아버지의 통화를 듣고 나가서 엠알아이 결과를 상기시키며

“오빠, 아빠는 젊어서부터 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다. 정상인이 아닌 아버지가 나를 대했듯이 정상인인 내가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자문했다. 같은 날 오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을 했다. 두 곳 다 결론은 같았다. 민사, 형사상 소송이 가능하나 병원의 대처가 미흡했다거나 실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낼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런 변호사라 하더라도 지루한 공방으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병원 측이 유리하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소송에서 유리하지 못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법학과 출신의 직원 몇 명을 만나봤지만 소송 외에는 별 방법이 없었다.

공무원 생활 중 제일 귀찮은 게 상급기관에서 이첩되는 민원이다. 해결책이 별로 없고 처리 기간도 정해져 있고 윗선에서 결재할 때 신경도 많이 쓴다.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민원을 상급기관에 넣어야 한다는 게 근친상간을 하는 것 같이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중앙부처에 올린 민원이 일선 감독기관으로 이첩되는 현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병원을 일선 감독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선 감독기관으로 이첩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답변이 올 동안 일인시위를 하려고 노조

의 서 주무관을 찾아가서 자문했더니 난색을 보였다. 공무원이 병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아버님 일은 안 됐네…….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질 뻔한 일도, 그런 재발 방지 노력에도 관심이 없어. 우리도 그래. 연금이 깎이고 나면 직원들은 언제 연금 개악 저지 운동을 했는지 금방 잊을 테지. 장 주무관 일처럼. 지금은 세상이 치매 시대야. 오랫동안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게 없어…….”

대학 시절부터 운동권이었다는 서 주무관의 말을 들으며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에 경찰에 접수할 고소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2주가 지나서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기관이라서 조사를 할 권한이나 강제력이 없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첩했고 그쪽에서 나에게 연락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전화가 왔다. 차분하게 상황설명을 하던 담당자는 사과를 받는 다거나 재발방지 약속같이 실체가 없는 것은 협상의 요구 조건이 될 수 없어 돈을 요구하라고 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자 병원에서 얼마라도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게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대신 병원에서 조정중재를 원치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조정중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환자 측과 병원 측이 모두 조정중재에 합의해야 중재원에서 과실 유무와 경중을 따지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병원의 태도로 봐서 조정중재안은 소득이 없는 것 같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소송 쪽에 무게를 두고 물어보았다. 주변에 의료분쟁소송을 감당할 가까운 변호사가 있다면 모를까 승

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에 형이 국제변호사란 이야기를 했다. 그 담당자가 갑자기

“친형 맞아요?”

하는 말을 했다.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 친아버지라면 당연히 변호사인 아들이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쓸데없이 민원을 넣었다는 질책으로 들렸다. 담당자에게 의붓형이란 오해를 받은 형은 어릴 적 남해에 살 때 친구와 함께 산에 갔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감싸며 집까지 왔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당장 업고 병원에 갔을 테지만 아버지는 형의 뺨을 때리며

“나가서 뒤지고 오지 왜 살아 왔냐”

는 말을 했다. 병원은 어머니가 데리고 갔다. 형이 아버지를 외면하는 이유는 이런 사건 말고도 여럿 있다. 담당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남은 방법은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다.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반쯤 작성하고 있을 때 요양병원의 상담 이사란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재입원할 때 언쟁이 있어 소송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담했던 이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병원으로 찾아가서 상담했다. 상담 이사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와 요양보호관리사들의 급여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 설명을 했다.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려서 환자와 간병인의 일대일 간병 체계를 의무화하기 전에는 아버지 같은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에 병원이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들이 섭섭해 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해를 구하지 못했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큰 병원으로 데려가

지 않는 환자도 많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그럼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잖아요?”

“.....”

그 당시 내가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상상만으로 소름이 돋았다.

상담 이사와 상담을 하고 나오면서 잠깐 아버지 병실에 들렀다. 평일 인데도 박이 와 있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생각을 말했다.

“세월호 사건을 보고 느꼈어요. 개중에는 일진도 있었을 것이고 살아봐야 평생 부모 등골 뼈 먹는 자식도 있었겠지만 누가 그들에게 삶을 뺏을 권한이나 자격이 있나요. 그저 아들이고 딸이어서 고맙고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흉악범과 맞닥뜨리는 삶을 살았던 건 저희 때문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아버지에 대한 짐을 벗고 싶어요. 외국영화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운전하던 장면이 떠올라요. 옆에 있던 동생이 운전하는 법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었더니 몸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신은 가족을 잊었지만 몸은 아직 우리를 기억한다고 느낍니다. 가끔 내 손을 꼭 잡고 휠체어에 앉을 때와 침대에 오를 때 아버지의 몸을 부축하면서 느낍니다. 아버지의 그런 삶이 선택이었든 운명이었든 따져 보면 되겠지만....., 아버지는 제게 선택은 아니었고 운명이었지만 순순히 받아 들이겠다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만 받지 않는다면 평생 어떤 모습의 아버지도 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했지요. 저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경찰입니다. 아버지 같은 형사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비번일 때는 평일에도 가끔 옵니다.”

그 일 이후 한동안 요양병원을 나설 때마다 아버지를 남겨두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걸어가서 뒤돌아보았다. 어둠 속의 요양병원은 킁킁한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여객선 같아 보였다.

예전과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1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후 아버지를 찾아와 말동무를 하고 저녁 식사 시중을 들고 양치하는 것을 도운다.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앞니 몇 개가 빠져서 양치할 때 물을 뱉으면 으깨진 치약과 함께 음식물 찌꺼기가 비위가 상할 만큼 많이 나온다. 배가 부르면 누울까 싶어 말을 붙여서 관심을 끌었다. 아버지를 좋아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봐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할머니 생각하세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아니요, 아버지의 어머니”

“그래, 기억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면 거의 기억이 없다. 진주에 살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가지자 나는 다시 남해로 와서 할머니와 살았다. 작은 형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병아리 품듯 품어준 할머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매일 아침 비스켓을 하나씩 주면서

“아침에 이웃 마을로 마실 나갔더니 다리를 저는 할매가 불쌍하다면서 과자를 주더라”

는 말을 했다. 그 시골에 비스켓을 매일 줄 이웃 마을 사람도 없고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이웃 마을로 아침부터 마실 나갈 일도 없지만 나는 잠들기 전에 내일도 할머니가 비스켓을 얻어 와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잠깐 같이 살던 삼촌이 외국으로 일하러 가게 되어 할머니와 나는 아버지를 따라 다시 진주를 거쳐 진해에 살다가 부산에 오게 되었다. 부산에 와서

변변히 돌아볼 곳 없는 동네에서 할머니는 육교 계단에 앉아서 지나가는 경부선 열차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목발을 짚고 다니던 할머니와 함께 가는 게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치매에 욕창까지 겹쳐 큰아버지 집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장례식 때 찾아가지 않았다. 큰아버지 집에서 나온 현 옷 말고는 입을 게 없던 내가 지키고 싶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친척들 앞에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의 유치한 정서였다.

환경이 바뀐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하던 이야기도 했다.

“우리 부산으로 이사 오던 해 기억나세요?”

“이사, 기억나지.”

“어떻던가요?”

“뭐가?”

“그때 부산에 건설 붐이 일어서 진해에서 부산으로 왔잖아요. 봄에.”

“봄?”

“네”

여기서부터 아버지는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둘이 마주 보고 멍하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저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사를 왔다. 도시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전에 소풍을 갔다.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가내 수공업 공장에 일하러 가서 혼자 소풍을 가야 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할머니는 따라올 수가 없었다. 소풍에 혼자 온 아이는 나 하나였다. 점심때 보미 어머니를 찾아가면 밥을 주라고 부탁해 놓았으니 보미네와 같이 점심을 먹으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야속했다. 점심때 반 아이들과 한참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도시

락도 없이 소풍 온 초라한 꼴을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싫어서다. 옆 반이었던 보미가 용케 나를 찾아와서 김밥과 찐 만두가 담긴 종이 도시락을 주었다. 내 마음을 알았는지 같이 먹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에게 관심이든 동정이든 봄바람 같은 감정을 불어넣어 준 아이였다. 혼자 하는 얘기에 아버지가 관심을 보여서 다시 말을 붙여 보았다.

“아버지, 옛날 살던 동네에 있던 중국집 생각나세요?”

“중국집?”

“네, 사장이 왕 서방이라고 키가 크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랑 고량주 마시던 집요.”

“왕 서방. 알지”

“저한테 가끔 공짜 짜장면 준다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 갔나?”

“아니요”

“왜?”

“……”

미모가 남달랐던 보미는 선생님들과 남자애들에게 인기여서 질투심이 심한 여자애들이 짱깨집 딸이라고 놀렸다. 집에 오는 길에 여러 명이 놀리는데도 같은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시골에서 왔고 노가다 집 아들이라는 자격지심에다 보미 편을 들었다가는 신랑각시 될 거라고 손가락 걸었다는 놀림을 당할까 봐서다. 사실은 그런 놀림을 받고 싶었지만 보미에게는 내가 격에 맞지 않는다고 내 처지를 비관했다.

보미에게 이사 잘 가라고 인사를 하지 못한 게 내내 후회되었다. 좋아했지만 미안해서 아무 느낌도 없는 척했던 가슴 아픈 일이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 보미를 잊은 게 아니라 미안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맞는 말이다.

아버지와 매주 이야기를 할수록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일이 많고 미안해서 그 사람을 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동생도 비슷한 말을 했다.

거의 한 달 만에,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첩된 공문에 의료기관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강제는 아니며 의료인이 환자에게 불친절과 불성실했다는 객관적 판단은 하기 어렵다고 적힌 내용을 받은 다음 날이었다. 소극적이지만 병원 측의 사과를 받아내어서 경찰에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단체 카톡에 올리고 난 후였다.

“오빠, 참 대단해 아버지 때문에 대통령께 편지도 쓰고……”

“대단하긴, 초등학교생도 대통령께 편지 쓰는 세상인데”

“미안해, 미안해서 그동안 소식 못 전했어. 내게는 친정 일이라 신경 덜 쓴 건 아니야. 친정 생각만 하면 정말 미안해서 잊고 싶었어. 큰 오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오빠들끼리 오해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큰 오빠는 우리에게 미안해서 그래서 더 생각하기 싫고……, 한국 일은 잊고 싶고……, 한국에서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사실은 아닐 테지만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 옛날 일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정말 미안하니까 오히려 치매에 걸려서 기억 못 하는 게 다행이야. 아버지 기억 되살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 오빠.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일지도 모르잖아. 자식에 대한 사랑 한번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잖아. 불쌍한 사람이야.”

동생의 말을 듣고 나는 어떠했나를 뒤돌아보았다. 풍 맞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대하고 복학할 때까지 노가다 판에서 지냈다. 기술이 없으니 아버지처럼 데모도로 일했다. 아버지가 다녔던 노천 인력시장 옆에 간판을

단 용역회사가 들어섰고 아침마다 그곳으로 출근해서 현장으로 갔다. 용역회사 사장이 질통에 메는 벽돌 갯수가 몇 개인지 물었고 대답을 하지 못하자 5장씩 9줄로 세워 45장이 보통 실린다고 알려주었다. 아버지처럼 기술 없이 살면 평생 벽돌 45장씩을 어깨에 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공사판을 찾아 서부 경남을 휩쓸고 다녔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내가 복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형수 될 사람을 보고 난 뒤 잘나가는 형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형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장이었다. 철학과를 나와서 할 일은 별로 없다.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풍 맛은 아버지를 위해서 의료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을 찾아야 했다. 답답한 집과 육지를 떠나지 못할 봐야 뭐가 되든지 상관없었다. 시험과목에 수학이 들어가지 않아 문과 성향에다 모집 인원이 많고 전공과 아무 관련도 없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되었다. 공무원이 된 뒤 3월이면 지하철 게시판에 붙은 광고를 보고 가슴에 불이 붙는 기분이었지만 참았다. 해기연수원에서 해기사 단기 양성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꽃샘추위로 심한 독감에 걸린 어머니가 며칠 동안 아버지를 못 찾아 뵈어서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병원에 간 날이었다. 창가 쪽 밖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침대에 이불도 없고 시트까지 벗겨져 있었다. 병실을 옮기는 일도 종종 있어서 다른 병실로 갔나 생각했다. 기저귀를 가는 요양보호사가 오길래 물어봤더니 화요일 날인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노인분들이라 환절기에 잘 돌아가세요.”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감정이 희석되고 지나가는 말투라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어머니가 낮에 계셨으면 나에게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박

에게 정말 미안했다.

박의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는 환절기를 잘 넘기고 계셨다.

“2월이 다가요. 저는 2월의 날수가 일 년 중에 제일 적어서 불안하고 겨울의 마지막 달이라서 또 불안해요. 해빙기잖아요. 곧 봄이 돼요. 봄이면 뭐가 생각나세요?”

전에도 했던 질문이었다.

“.....”

“전 할머니가 좋아하던 봄 도다리썩국이 생각나요. 고향 앞바다의 도다리와 아지랑이 피는 언덕마다 뭉게구름처럼 솟아나던 썩으로 만들었죠. 부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진해 생각나세요? 벚꽃 때문에 분홍색 솜사탕같이 거리가 날마다 부풀어 오르는 듯했어요. 우리가 살던 셋집 처마 밑에 지난해에 지은 집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제비도요. 옛날 살던 동네 철로 변에 개나리가 필 거예요. 가지마다 노란색 손수건이 매어져 있는 것 같을 거예요. 노란 손수건은 꼭 돌아오라는 바램이랍니다. 기억이 돌아오든. 그래요, 돌아온다면 좋은 기억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왕 서방 아저씨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보미에게는 미안했지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했었죠. 그런 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든....., 2월처럼 불안하지 않고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지저위할 만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계속 듣고 있었다. 희미한 눈동자에 약간 서늘이 비치는 듯했는데 밥이 온다는 소리에 다시 희미해졌다. 식사시중을 들고 양치물을 버리고 병원을 나섰다. 지난주까지는 병원을 나설 때 킁킁했는데 이제는 제법 밝았다. 봄이 와서다. 지난봄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다시 오는 소리가 난다. 봄. 봄. 봄.

수상 소감

전강원영동 병무지청

이상성



검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작은 물고기

고향의 바닷가는 늘상 우울했다. 사람이 그렇고, 파도가 그렇고, 배도 그렇다.

그건 나룻가의 준열한 삶이었다. 흔히 바다는 낭만과 희망의 상징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를 박고 사는 어부들의 삶은 광부만큼이나 처절하다. 그래서 어부의 자식이 어부가 되지 않으려고 이반을 일삼았다. 아버지가 바다라는 전쟁터로 나가는 동안 고작 멀리서 어눌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마음 한쪽에 상흔처럼 남아있는 빛 진자의 고뇌가 한 마리의 물고기로 변하여 감히 이들 앞에 현정 되었다. 검은 바다에서 길러낸 이 한 조각의 글이 질곡의 덩어리를 얼마나 풀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싶다.

뽑아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빈 배

오징어 철이 돌아오고 있었다.

훈훈한 계절풍이 바다를 비단 천으로 휘감듯이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M항은 이때가 되면 잠에서 깨어나듯 생기가 돌았다. 그래서 없던 힘도 생겨나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겨울과 봄, 근 두 계절을 항구 안에 틀어박혀 발이 꿈꿈 뭉였던 오징어 배들은 이제 그 긴 칩거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선원들은 먼지가 뿌얹게 앉은 어구를 만지작거리며, 마치 잃었다 다시 찾은 물건을 다루듯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하나 손을 보았다.

바다 날씨는 연일 호수같이 고요하여 수면은 유리를 얹어 놓은 것 같았다. 오징어 조업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벌써 발 빠른 배들은 첫 출어에 손맛을 톡톡히 보았다고 호들갑들을 떨었다. 그러자 항구 안은 갑자기 바빠졌다. 어부들은 뱃기를 높이 꽂고 기고만장하여 바다로 달려갔다. 밤낮없이 항구를 빠져 나가고 들어오는 배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날이 거듭될수록 부두는 오징어로 발 디딜 데가 없었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징어를 실은 트럭이 물을 툇툇 흘리며 어디론가 떠나고, 발채를 단 지게꾼들이 어판장 뒷전에서 물오징어를 지게 할 주인을 찾느라 웅성거리고들 있었다.

논골 언덕에는 꽤나 넓은 오징어 건조장이 여러 군데 있다. 햇별이 중

일 들고 바람 막히는 데가 없을뿐더러 평지가 많아 건조장 조건으로는 논
골 만한 데가 없었다.

남자가 바다로 나가면 밀린 숙제를 하듯 오징어를 햇볕에 말리는 건조
작업을 하는 일이 여인네들의 몫이었는데, 매일 잡아 드리는 산적한 오징
어 때문에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꿀뚱네는 박선장이 잡은 오징어를 익숙한 솜씨로 활복을 끝내고는, 그
것들을 바닷물에 씻어서 대광주리 목까지 차도록 퍼 담았다. 그리고는
물 받아용 고무다라에 무거운 광주리를 얹고, 그것을 머리에 인다. 그녀
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킨 다음 고무다라를 두 손으로 잡고 가파른 언
덕을 오른다. 억척같은 꿀뚱네도 처음엔 그리 힘든 줄 몰랐으나 건조장이
있는 논골 언덕 마루를 세 번째 오를 때는 숨이 끊어지는 듯하여 긴 휘파
람 소리를 토해 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을 가지고 한 번
도 힘들다거나 지겹다고 여긴 적이 없었다.

이런 꿀뚱네에게 한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이름이 말해주듯 그녀
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얼굴이 튀어나게 검었다. 그래서 꿀뚱네는 얼굴 때
문에 어지간히 속을 썩여왔다. 그것도 동네 여편네들의 입방아 정도는 얼
마든지 무시 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늘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사는 박
선장의 입에서는 쓰다 달다하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으니 그것이 때로는
그녀의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었다.

꿀뚱네는 아침나절에 힘들게 머리에 이고 온 오징어를 건조대에 모두
늘어놓고, 방에 들어오니 간밤에 오징어와 사투를 벌인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다.

꿀뚱네는 남편이 잠든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다시 건조장
으로 갔다. 벌써 오징어는 물기가 싹 마른 상태로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건조대에 바싹 붙어 열 손가락을 능숙하게 움직여 눈썹을 떼어내듯 들려붙은 오징어 다리를 바람이 잘 통하게 짹 갈라 놓는다. 어디서 한줄기 바람이 달려와 행하니 뚫린 다리 사이를 지나 바다로 달아난다.

굴뚝네는 땀방울이 송송 땀 얼굴을 머리수건으로 콕콕 찍어냈다. 그리고는 햇볕에 상기된 눈으로 언덕아래 아득히 펼쳐진 항구와 그 안에 첩첩히 포개져 있는 배들을 바라본다. 지난밤에 선원들과 동고동락했던 선박들이 질곡의 순간을 반추하듯 미동도 않고 정박해 있다. 그녀는 갑자기 무엇이 생각난 듯 총총히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그만 자고 인제 일어나이소. 배 나갈 시간이 되어가는 고만.”

굴뚝네는 곤히 잠든 남편을 깨우기가 미안한 듯 안쓰러운 얼굴을 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남편 박선장은 아내의 첫 마디에 발탁 일어나는 편이었다. 그는 무겁게 상체를 일으키고 낮잠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굴뚝네 쪽으로 돌렸다.

“몇 시여? 벌써 그렇게 됐나!”

“벌써는요? 얼른 밖에 나가 보이소. 정신이 번쩍 들겠구먼.”

굴뚝네가 남편을 뻗히 쳐다본다. 해풍에 단련된 갯바위 같은 어깨와 시커먼 얼굴, 그리고 돌미역처럼 구불구불한 머릿결이 자연스럽게 흘러 양쪽 귀를 숲처럼 덮어버렸다. 그러나 남편의 가자미눈에 대해서는 후한 굴뚝네도 그저 그렇다.

정신을 차린 박선장이 바람에 말리느라 뜨락에 내 놓은 감물먹인 낚시줄을 건어서 골고루 감물이 들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신 말이야. 큰 놈(왕 오징어) 따로 빼 놓는 거 하고, 그거 손질 하는 거 신경 써야 해. 어지간히 값이 좋아야지. 그거 열 바리(한 바리는 백 두

름) 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 일을 저질러 보겠어.”

박선장은 막 잠을 깬 사람 같이 얇게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도 참, 누가 그걸 모리요. 큰놈 귀한 줄.”

“아! 그러니까 잘 챙기라는 거잖아. 이 사람아!”

박선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버럭 역정을 낸다.

“당신 맘 내가 다 알아요. 걱정 말고 고기나 마이 잡아 오이소,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만은……”

굴뚝네는 그 생각의 본론은 꺼내지 못했으나, 박선장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 한다는 의미로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담았다.

“생각? 무슨 생각? 음, 당신 그 등대 아래 가는 거 말이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그 일을 꼭 해내고 말거니까. 당신은 전적으로 나를 도와야 한다, 그 말이야.”

박선장의 눈이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알아요. 당신이 그리 바라는 일인데 내가 보고만 있겠소. 하는데 까지는 해 바야제.”

굴뚝네는 박선장이 벗어 놓은 양말짝을 집으며 긴장하는 기색이 역역했다. 오징어 냄새가 푹푹 찌는 국방색 잠바 소매에 팔을 끼는 박선장의 눈빛이 또 한 번 번득였다. 그건 예사롭지 않은 눈빛 이었다.

광주리를 어깨에 멘 박선장이 저만치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 청색 물옷으로 갈아입은 남편의 꺾어진 뒷모습이 오늘따라 굴뚝네의 기분을 찢어지게 잡아당겼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는다. 모름지기 사람은 무슨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항상 그 심중에 한바탕 풍량이 있게 마련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러다 힐끗 바다로 가는 언덕 너머를 바라보았다. 석양별을 받고 하얀 등대가 늠름히

서있다. 굴뚝네의 눈에 비친 등대가 순간 그녀의 가슴을 후두둑 뛰게 한다. 이제는 분신이 된 장소였다. 굴뚝네는 그 곳에서 온 우주를 품에 안은 듯한 경험을 하곤 하였다.

배후에 완만한 골짜기와 넓은 언덕을 거느린 M항은 부두 동편 쪽으로 외항 방파제가 바다로 길게 뻗었고, 방파제 입구와 인접한 부두 한 구역에 오래된 소규모 조선소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한 해 여러 척의 소형 선박이 만들어지고, 수리가 되어 진수되었다. 주위에 철공소, 제빙공장, 빈 고기 상자와 그물을 쌓아두는 야적장과 허름한 창고가 에워싸고 있어 빈민굴 같은 이곳은 항상 우중충하고 시끄럽다. 그리고 단층의 낡은 건물들은 기름때가 배어 까맣다 못해 숯검댕이 같았다.

철공소는 종일 쇠붙이 따위를 뜯는 소리가 행인의 고막을 찡는다.

건물 밖으로 비스듬히 빠져나온 연통에서 끊임없이 시커먼 연기가 펍 펍 쏟아져 하늘로 치솟았다. 다만 조선소는 이따금 들리는 나무 자르는 둔탁한 소리 말고는 비교적 조용하다.

며칠 조업에 바빴던 배들은 갑자기 불어 닥친 강풍으로 발이 묶였다. 그 틈을 타서 박선장은 모처럼 면도를 하고 말쑥한 차림으로 조선소엘 갔다. 그는 새로 모으는 발동선의 용골만 덜렁 누워 있는 도크 가까이서 목수의 일거수일투족을 훑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먹통과 기억자를 든 목수가 삼 한쪽 끝에 먹줄꼭지를 꽂고 먹줄을 풀면서 반대편으로 가서 까만 줄을 팽팽히 잡아당긴 후, 한 손으로 줄을 들었다가 놓아버린다. 그러자 널판에 일직선이 그려졌다. 이번에는 목수가 한쪽 눈으로만 선이 바르게 그어졌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잘 되었다는 표시로 고개를 까닥하고는 곧장 톱을 잡았다. 그는 상체와 엉덩이를 피스

툰처럼 움직여서 선을 따라 그침 없이 톱질을 했다.

박선장이 옆에 있는 것도 모른채 톱질만 하던 그는 힘이 부치는지 허리를 펴고 담배를 꺼내 문다.

“오징어 배를 타시오?”

목수는 도크에서 경충 뛰어 내려왔다.

“아, 뭐 그렇긴 하지만, 좀 물어 볼 것도 있고 해서.”

거북등처럼 투박한 목수의 손이 박선장 눈에 들어왔다.

“음, 배를 모으시려고? 자재 값이 어지간히 올라야지, 원.”

목수는 미간을 찡그렸다.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박선장은 가자미눈을 더욱 깜박댔다.

“그야 배 나름이지.”

그는 미간을 펴고 상대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불룩 튀어나온 눈이 오징어 눈을 연상시켰다.

“이 정도의 목선에 기계를 올린다면 대략 얼마나 잡아야 합니까?”

박선장은 눈앞에 있는 배를 턱으로 가리켰다.

“발동기 말이군. 아마 한 장은 가져야 할 건대.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는 박선장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한 장이라면 억이란 말씀이요?”

얼른 감이 오지는 않았으나 한 장이란 말에 박선장은 억장이 짓눌렸다.

“어! 그 양반 계산 한 번 빠르군. 그 정도면 얼추 맞출 수가 있지.”

그는 이야기는 끝났다는 듯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톱으로 자른 삼의 윗부분을 이번에는 대패로 밀었다. 삭삭하고 대패의 나무 갹아먹는 소리가 박선장의 귀를 굹었다.

“실은, 배를 한 척 모을까 해서 사방팔방으로 뛰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그야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배 주인만 보더라도, 처음엔 무일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배를 가지게 되었잖소. 그 쪽도 못할 거야 없지요. 노력만 한다면야.”

목수는 먹줄을 부지런히 들었다 놓았다. 입을 굳게 다문 목수가 이번에는 손도끼를 높이 쳐들어 있는 힘을 다해 내리쳤다. 박선장의 심장에 피가 튀었다.

번번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격어야 하는 박선장이었다. 그건 비단 오늘 처럼 조선소에서 뿐만 아니라, 간혹 새로 건조된 선박이 진수식이란 이름으로 깃발을 나부끼며 항구 안을 한 바퀴 돌아 바다로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는 날은 공연히 마음이 바빠지고 조금해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는 조선소를 한 바퀴 둘러 본 것으로 위로를 삼고 굴뚝네가 기다릴 논골 산꼭대기 집을 향한다.

박선장은 언덕을 시름시름 오르고 있다. 좁은 고샅길이 슬레이트집들의 주녀 사이를 용케 비켜 가며 언덕을 향해 꾸불꾸불 나있다. 그는 낮은 지붕추녀가 어깨에 닿아도 개의치 않으며 이미 길이 되어버린 남의 집 마당을 아무렇지도 않게 횡단한다. 일자형의 토담집과 판자집, 문이라곤 단 두 개, 잠자는 방과 부엌에 딸린 거적매기 같은 문은 더워서 모두 열려 있다. 어른과 아이들의 신발이 한데 섞여 나뒹군다. 빨래 줄에는 오징어가 옷가지 대신 몇 마리 걸려 있고, 바지만 걸친 아이들이 새카만 얼굴을 하고 눈만 껌벅댄다. 문 앞에 싸인 빈 소주병들이 날 잡아 잡수시오하고 고래고래 소릴 지르고, 어느 집에서 여인네의 악다구니가 단말마처럼 터져

나온다. 가난의 수레바퀴아래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논골 기슭에 코를 박고 살아간다.

피약벌에 앞이 시들해진 상추밭 옆에는 물이 뺨 오징어들이 새끼줄에
달려 빠작빠작 타들어가고 있다. 박선장은 건조대에 가까이 가서 새끼줄
에 걸려있는 오징어의 뾰족한 귀를 만져본다. 그들의 볼품없는 물골을 보
고 있으니 그는 정복자의 뿌듯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한편 그들이 박
선장의 창칼에 쓰러지며 끝까지 저항하던 지난밤의 처절한 전투를 잊을
수가 없다. 저들이 죽어야 내가 살고 저들이 꺼꾸러져야 내가 일어서게
되는 평범한 전장의 이치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니 말이다. 놈들을 많이 무
찌를수록 그의 거룩한 희망은 속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적은 적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를테면 오징어는 그를 도
와주려는 고마운 적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 조종을 울릴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축포를 쏘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가는 길에 종려나무와 겉옷
을 깔아 줄 가룩한 벼들이여! 복을 받을 지어다. 이제 그를 밟고 일어서
벽을 넘어면 광명한 천지를 만나게 될 적이다.

박선장은 새삼 힘이 솟는 것을 느낀다. 그는 종전의 정복자가 누렸던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존귀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쭈그
렁밤송이 같은 오징어가 달리 보였다. 오징어는 다른 어느 물고기보다 그
생김새가 귀티가 난다. 쫓긋한 두 귀는 모든 소리를 들은 다음 공평무사
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지혜롭고, 산사의 범종을 닮은 몸은 사뭇 위엄이
있다. 그런데 거추장스럽게 왜 다리가 열 개여야 하는 것은 조물주의 고
유영역에 속한다고 박선장은 못을 박는다.

그러나 열 개의 다리를 생각하면 그는 마음 한 구석이 아려오는 아픈
기억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는 날, 건조가 완성된 오징어를 한 두름씩(스무 마리) 짍을 짓고 있었는데, 마리수를 재확인하고 있던 굴뚝네가 열 마리째의 것에서 갑자기 긴 다리 하나를 쑥 뽑아서 입에 무는 것이다. 순간 박선장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험악한 얼굴이 되었다. 그건 오징어 다리가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강한 신호가 그의 뇌리를 번개같이 스쳤기 때문이었다.

“여보! 그 무슨 짓이요? 오징어 다리를 뽑으면 쓰나!”

처음엔 점잖게 나무랐다.

“당신도 참 순진하기는, 우리뿐인데 누가 보기라도 해 썼소. 다리 하나 없다고 장사꾼들이 안 사 가나, 트집을 잡나. 알긋어라.”

굴뚝네는 되레 당당하다. 그리고는 오징어 다리를 짹짹 씹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안 보이는 데라고 다리를 뽑아버리면 사기꾼인거야. 이 사람아!”

화가 난 박선장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 버렸다.

“사기꾼! 고까짓 다리하나 가지고 그런 말을……”

굴뚝네는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내 진작에 당신한테 말 할라 했소. 저번 참에도 그러더니 오늘 또, 못 된 버릇이란 말이요. 조심 하겠소, 할 것이지 무슨 양탈인가. 양탈은.”

박선장은 흥분하여 씹씹거렸다. 굴뚝네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럼 당신이 모두 다 해보이소. 건조고 뭐고 나는 손 하나 까닥 안할 테니.”

그녀는 손에 쥐었던 오징어를 바닥에 팽개치고 후딱 밖으로 나갔다.

부부사이의 사소한 것도 화근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는 굴뚝네가 나가고 난 뒤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박선장은 잠시 그를 붙잡았던 유쾌하지 못한 기억에서 벗어나 건조대 너머 항아리 속같이 오목한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다.

강풍의 여파로 방파제 너머서 만들어진 산더미만한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아 외항 끝에 서 있는 등대와 삼발이를 무섭게 내리 친다. 그리고 내항으로 쏟아진 물살이 해일처럼 불어나, 다닥다닥 붙은 배들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당분간은 조업이 될 것 같이 않아 보였다. 선원들이 제일 싫어하고 우울해지는 때가 바로 이런 날들이었다. 그래서 어깨가 축쳐진 선원들이 부두 뒷골목 술집을 찾는 횡수가 잦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소주로 텅 텅한 목을 축이며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사망에서 소주잔 부딪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더러는 마치 동해바다를 다 퍼 마실 듯이 폭주를 일삼는 축들도 있었다.

술을 끊은 박선장이 의기소침해져 낯선 사람처럼 그들 옆에 우두커니 앉았다. 동료들이 억지로라도 술을 먹여 보려하지만, 그는 완강히 손사래를 치며 거부한다. 그러자 박선장 앞으로 음료수가 어색하게 놓였다.

박선장도 한 때는 술과 친구가 되어 굴뚝네를 힘들게 한 적도 있었다. 그렇던 그에게 술을 끊어야 할 결정적 계기가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징어잡이를 마치고 신나게 귀향을 하고 있었는데, 기계를 걸어 놓고 잠시 짬을 낸 기관장이 술병을 들고 와서 박선장한테 잔을 내밀며 입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간단히 입가심이나 하자며 잔을 권했던 것이, 한잔이 두 잔이 되고, 너덧 잔 마신 것이, 그를 알근하게 취기를 돌게 했던 것이다. 그랬으면 키를 좌상한테 잠시 맡겼으면 될 것을 굳이 거머쥐고 있다가 배가 입향을 눈앞에 두고 마주오던 작은 통발이 배 옆구리를 그만들이 받고, 갑판에 서 있던 그쪽 배 선원이 바다로 튕겨져 나가는 해상 충

돌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박선장은 그 후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한 변화는 그를 더욱 의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그는 일에 묻혀 지냈다.

날씨가 정상을 회복하자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배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한 마리의 오징어라도 더 잡기 위해 배들은 부지런히 항구를 드나들었다. 연일 만선의 깃발을 올린 배들이 부두에 옆구리를 붙이고 오징어를 꾸역꾸역 풀어 내렸다. 부두는 산적한 오징어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굴뚝네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여인들이 오징어 무더기 주위에 둘러앉아 활복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오징어 뱃속에 칼끝을 넣고 배를 갈랐다. 허연 내장이 들어나고, 그것은 곧장 시퍼런 두 눈과 함께 꺼내져 한 쪽으로 버려졌다.

“이봐! 집에는 배를 산다며? 좋겠다.”

수건을 쓴 여인이 굴뚝네를 보고 물었다.

“배는 무신 배?”

굴뚝네가 오징어 뱃속에 칼을 넣으며 펄쩍뛰었다. 그 바람에 그만 칼끝이 먹통을 건드렸다. 새까만 먹물이 콜타르처럼 칼에 묻어났다.

“소문이 짝 퍼졌던데, 뭘 그래!”

“썰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고기나 떼게소.”

굴뚝네는 시커멓게 된 오징어를 저쪽으로 던졌다.

“내가 없는 소리를 하겠어. 다들 그러대.”

여인이 바닥에 칼을 쓱쓱 갈았다.

“왜! 우리가 배를 사면 안 되는 일이라도 되는 기가?”

“안되기는, 좋지. 축하해 줄려고.”

여인은 오징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시 칼을 넣어 배를 갈랐다. 오

징어 배는 마치 한지 종이 갈라지듯 두 쪽으로 나뉘졌다.

“고맙네. 실은 우리 집 양반이 배를 살까 해. 돈이 문제지.”

이번에는 먹통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굴뚝네는 조심스럽게 칼을 다루었다.

“그것 봐. 소문이 사실이구면. 한턱 낼 텐가?”

여인의 끈질긴 추격에 굴뚝네는 손을 들었다.

“그 전부터 배하나 가지는 게 소원인데, 그놈의 돈이 무언지, 하늘에서 콧돈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네.”

굴뚝네가 실망 섞인 소리를 냈다. 기분이 언짢은 듯 손놀림이 한층 빨라졌다. 활복 당한 오징어가 그녀 옆에 거름 더미처럼 수북이 쌓였다.

“좋겠다. 누구는 박선장 같은 남편 만나 선주 마누라 되고, 나는 언제 선주 마누라 돼 보나. 부럽다 부러워.”

여인은 오징어 내장과 눈을 꺼내며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는 듯

“저런 먹통을 건드렸네. 호호.”

여인은 굴뚝네의 실수가 재미있는지 대놓고 놀렸다. 다른 건 몰라도 그놈의 먹통소리만 나오면 괜히 얼굴이 화끈, 그리고 신경이 곤두서는 굴뚝네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열등의식과 당당히 맞섰다.

“그래, 내 들어보라고 하는 소리 줄 안다. 꼭 그렇게 남에 속을 곱어야 시원하모 얼마든지 해보라 카이.”

굴뚝네는 웃고 있었다. 오징어 활복 작업을 정신없이 하다보면 먹물이 튀는 것은 다반사인데도 여자들 입방아에 오르면 무신경한 그녀도 열이 받칠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붉은 녹듯이 사라지는 굴뚝네였다.

간밤에 박선장이 잡은 오징어를 발채에 담은 지게군이 힘겹게 논골 언

덕을 오르고 있다. 지게 물받이에서 물이 똑똑 흘러 길을 적셨다.

“날을 잡아 헌 배를 계약 할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어구 광주리를 어깨에 멘 박선장이 무거운 물오징어를 이고 있는 굴뚝네를 쳐다보았다.

“새 배 모은다, 카드마 와 그라는데요?”

“나도 그러고 싶었지.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어. 당신도 그렇게 알어.”

“그거야, 당신이 하도 새 배만 노래를 불러싸서 하는 소리지요.”

굴뚝네는 머리에 인 짐 때문에 대꾸하기가 힘드는지 얼굴을 찌푸렸다.

“배는 어디 있는 뱅데요?”

“삼척 정나진 뱅데, 혈값에 나왔거든.”

“하기사, 헌 배면 어떤노! 고기만 잡으면 되지!”

굴뚝네는 남편을 의식한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나한테는 기대가 크다고 해야지. 그래서 배 이름도 고치기로 했어. 동해호로 말아야.”

“그거는 당신 이름하고 같네요. 박동해 씨.”

굴뚝네는 머리에 인 짐도 잊은 듯 웃고 있었다. 아마 그녀는 남편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어느새 논골 중턱에 이르렀다.

뒤 따라오던 지계군이 지계에 작대기를 받치고 쉬고 있다가 일어선다. 먼저 건조장에 도착한 그들은 지계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언덕을 올라온 짐꾼이 발채를 한 쪽으로 기울어 물오징어를 바닥에 쏟았다. 굴뚝네가 품삯으로 오징어 두 두름을 지계군에게 내어주었다.

그들은 방금 운반해 온 오징어를 건조대에 널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은 코발트색이었다. 햇볕이 쨍하고 사방에서 금가는 소리가 났다.

“여보, 오늘 오징어는 뽕나게 굴거 보입니다.”

굴뚝네가 대꼬챙이로 오징어 머리를 찢러 한 마리씩 새끼줄에 끼우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새끼줄이 무게를 못 이겨 활시위처럼 축 늘어졌다.

“추석이 가까우니 씨알이 굵은 거지. 명절 전까지 두어 번 만선을 해야 배 값에 보탬 건대……”

박선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추석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끌고 와야 하겠기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걱정 마이소. 꼭 만선 할 겁니다.”

오징어를 다 널고 난 굴뚝네는 빈 고무다라를 이고 앞서가는 박선장을 따라 등대 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도 배들은 강풍으로 발이 묶였다.

박선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굴뚝네를 보고 산제골에 있는 학교 앞, 단골 이발소에 간다고 알리고는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첫 번째로 만나는 포도밭에는 이미 수확이 끝난 포도나무에서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찢었다. 그리고 포도밭이 끝나면 묘지 하나가 집근처에 누워있었다. 박선장이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는 묘지 옆집의 그 다음 집이었다. 그가 이발소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이발사가 반갑게 맞았다.

박선장이 빈 의자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다. 폭신한 감축이 일시에 전신을 무너뜨려 금방 잠이 올 것 같았다.

이발사가 흰 가운을 가져와 박선장을 휘둘러 감았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머리 앞뒤를 치댔다.

“아저씨 오징어 많이 잡았어요?”

젊은 이발사는 바리칸을 밀다 말고 거울 속에 비친 박선장을 힐끗 쳐다 보았다.

“응, 많이 잡았지. 미스터 박도 손님 많이 받았는가?”

박선장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하품을 하였다.

“그저 그래요, 폰돈이 뭐 돈이 되나요. 아저씨처럼 고기를 잡아야지.”

“그럼 오징어 배를 타지 그래.”

박선장의 감았던 눈이 거울 속에서 번쩍 떠졌다.

“저는 배 멀미 땀에 안돼요. 한번은 멧모르고 배를 탔다가 속이 뒤집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산제골 사람치고 오징어 배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간첩이라고들 했다. 그만큼 달랑 낚시 하나만 들고서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오징어 잡이였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가 호된(멀미) 시험을 치르고는 걸음아 나 살려라하고 줄행랑을 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럴 거야. 미스터 박은 이발사가 천직이구먼.”

“그런가 봐요.”

이발사가 이번에는 가죽혁대에 면도칼을 힘들여 밀며 히죽이 웃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이발사의 하얀 얼굴을 희미하게 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박선장이 활처럼 굽은 해변을 따라 걸어간다. 그는 축축하게 젖은 모래톱 위에 판각 같은 무수한 발자국을 남겼다. 이따금 바닷물이 밀려와 그의 벌거벗은 허벅지를 때리려 했지만, 그는 잘도 피했다. 몸이 투명한 학꽂치들이 수면 위를 날며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그는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앞을 주시하던 그는 갑자기 나타난 푸른덩어리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접근해 갔다. 가까이 다가갈 수록 박선장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정체불명의 물체에 대해 해석을 내린 상태였다. 그건 용연향이 분명했다. 향유고래의 수컷이 바다의 온갖 것을 삼키고 소화시키지 못하여 토해 놓은 아주 고약한 악취덩어리지만, 그 어떤 금은보화 보다 고가에 팔린다는 용연향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는 타조 알만한 그것을 끌어안고 새 배를 한척 얻은 것 만치 감격하다가 화들짝 잠이 깨버린 것이다. 썩썩한 뒷맛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선장이 멀건 표정으로 뒹을 놓고 있자, 이발사는 의아하다는 듯이 놀란 토끼 눈을 한다. 사실 새 배 대신 흰 배를 사기로 결정했을 때도 지금처럼 허전하지는 않았었다. 그는 이발소를 나왔어도 꿈의 잔영이 머릿속에 남아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선장은 이발로 다듬어진 얼굴과는 달리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다. 그는 집 가까이 와서도 곧장 귀가하지 않고 오징어 건조장으로 갔다. 한창 햇볕에 마르고 있는 오징어가 오늘은 귀티가 나는 대신 한갓 패잔병처럼 보였다. 박선장의 거룩한 희망을 속히 달성하도록 도와줄 고마운 적들은 이제 더 이상 고마운 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언덕 아래의 항구를 흐릿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허리를 맞댄 배들이 꼬리를 물고 올망졸망 펼쳐져 있다. 덩치가 큰 배는 작은 선박주위에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있다. 방파제 밖에는 더 큰 배들이 운집해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구름만한 배는 강풍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박선장이 자리를 뜨려 하는데 작은 배 숲에서 갑자기 배 한척이 돌출한다. 그 배는 마스터에서 조타실까지 주렁주렁 집어등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새 배의 진수를 알리는 기다란 삼색기를 휘날리고 있었다. 그럼 얼마 전에 조선소에서 본 그 배? 그건 아니지. 박선장이 눈을 크게 뜨고 방파제 밖으로 나가는 배를 집요하게 쫓아가고 있었다. 바람에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는 것이 마치 개선장군의 금의환향을 보는 것 같았다. 그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 나왔다. 배가 항구 밖에서 여러 차례 회항을 하고 돌아올 때 까지 박선장은 불박이가 된 듯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굴뚝네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다. 그 옆에는 박선장이 가자미 눈을 감고 생각에 골똥히 잠겨 있다.

“그 쪽 배는 언제 끌고 와요?”

그녀는 가루분을 얼굴에 두드리다가 박선장을 돌아보았다.

“응, 명절 지나면 곧 인수 해야지. 당신 어디 갈라고?”

“갈데가 있어요. 저녁은 챙기 냈으니 기다리지 말아요.”

“어디를 가는데?”

박선장은 굴뚝네의 얼굴이 몰라보게 희어 있는 것에 놀랐다.

“등대 있는데 갔다 옵니더.”

“아! 그럼, 당신이 늘 가는 곳 말이군.”

굴뚝네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박선장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출어가 추석 뒤에 들여오게 될 배의 선가를 지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그는 계산하고 있는 터였다.

박선장이 밖에까지 나와 집을 나서는 굴뚝네를 배웅하고 있다. 그녀는 우두커니 서 있는 남편을 의식 한 듯 뒤를 자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들어가라는 시늉을 한다. 그래도 박선장은 말뚝처럼 서 있었다. 굴뚝네는 바람이 달아나듯 등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배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조업을 가졌으나,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실망하지 않고 몇 날을 끈기 있게 더 버텨내었다. 그러다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렇다면 앞 바다에도 곧 오징어 떼가 몰려 올 것이라고 선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출어를 위해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조업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박선장이 만국기처럼 달려 있는 집어등을 모두 켜고 조도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기관실로 내려가는 입구에 머리를 들여밀고 기관장이 기름걸레로 터빈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하며 만족해 하고 있다. 기관장과는 한 배를 탄지가 오래된 동료이자 친구였다. 기관장과 박선장은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다. 어느 한 쪽이 고장이 나면 배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부 같은 관계였다. 아이러니 하게도 박선장은 기관장이 기관실을 나올 때 기름때로 시커멓게 된 얼굴을 하고 나타나면 굴뚝네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음 날, 오징어 배들은 야간조업을 위해 저녁 무렵 일제히 항구를 떠났다. 여러 척의 배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계음 소리가 쿵을 뚫는 듯이 탕 탕 하고 굉음을 질렀다. 항구를 빠져나온 배들은 마치 물위에 고기가 뛰듯 생동감 있고, 힘이 넘쳐 났다. 갑판에 서 있는 선원들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대하던 만선의 꿈이 곧 현실로 펼쳐지는 것 같았다.

하늘에는 옅은 잿빛 구름이 천천히 한곳으로 모여드는 것과 수평선 위로 약간의 검은 구름이 끼어있는 것 외에는 대체로 바다 날씨는 좋은 편이었다.

“이런 날이 고기가 몰려오기는 딱 알맞은 날이야! 대신 바다가 출렁거

리지 않고 흐려만 있으면 말이야! 오늘이 꼭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조타실 지붕위로 얼굴만 내민 박선장이 선원들을 향해 일갈했다.

“맞아요. 흐리고 바다가 조용할 때가 오히려 오징어가 많이 잡히지요.”

방수복을 입은 갑판장이 응수했다. 통상 고기들은 햇빛이 강한 날 보다는 흐린 날에 활동 빈도가 높았다. 특히 야행성 어종인 오징어는 흐릿한 밤을 좋아했다.

선장이 땡땡이 종 손잡이 줄을 연속으로 잡아당겨 기관실에 배의 속력을 재촉하는 신호를 보냈다. 기관장이 전진기어를 끝까지 밀었다. 선체가 한차례 부르르 떨었다. 스크루가 급회전하며 선미를 강하게 들어올렸다. 배는 수벽을 뚫고 질주했다. 물보라가 일어나 뱃전에 흩어지고, 선미 쪽은 부서진 물살이 작은 파도가 되어 뱃길을 남기며 점점 멀어져 갔다.

배는 어느새 악명 높은 참물내기 암초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바닷물이 빙글빙글 회전하여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에 부딪힌 선체가 암초 쪽으로 쏠리는 듯 잠시 균형을 잃었다가 이내 제 코스를 찾았다.

아득히 떨어져 있는 해안선은 어슴푸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선장이 마지막으로 희미한 해안선을 본 뒤로 얼마 후에는 그것도 보이지 않았다. 망망대해만 덜렁 남았다. 선단을 이룬 선박들이 주위에 포진하였으나 서로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박선장의 배는 저녁물의 오징어를 잡고 있는 동료 배들 사이에 들어가, 엔진을 끄고 정박을 했다. 수중 닻이 이물에서 바다로 던져졌다. 해류로부터 배의 떠내려감을 더디게 하는 수중 닻이다. 그리고 집어등에 불을 밝혔다. 어둠이 시나브로 바다를 덮기 시작했다.

박선장이 방수복을 입으며 선원들을 지휘했다.

“오늘 밤은 날씨가 꾸리 할 것 같으니 다들 긴장들 하세요! 이런 날에 오히려 고기가 대거 몰려 올 수 있으니 행운을 비는 바이요.”

그는 조타실 뒤로 가서 우선 공갈 낚싯대를 뱃전에 차려 놓았다. 오징어들이 쏘다니는 것이 목격되자 곧이어 낚싯대 끝이 꼬덕꼬덕 흔들거렸다. 박선장은 썩싸게 낚싯대를 걷어 올렸다. 낚시 바늘에 걸려든 오징어가 허공에서 먹물을 별뿔처럼 길게 방사한다. 그는 팔을 뻗혀 오징어를 잡아채어 갑판 바닥에 던졌다. 내동댕이쳐진 오징어가 뱃속에 남아 있는 먹물을 있는 데로 토해 내느라 몸부림을 친다.

기관장이 일을 끝내고 선상으로 올라왔다. 그가 마지막으로 방수복을 입고 기관실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광주리 안에서 낚시채비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마치 낙하산 모양을 하고 있었다. 오징어 시선을 끌기 위해 하얀 사기로 된 타원형 추 좌우 날개에 낚시 바늘이 달려있다.

선원들이 일제히 낚시를 바다에 던졌다. 낚시가 갑판의 줄을 끌고 물속으로 도망치듯 달아난다. 적당한 수심에서 줄을 정지시킨다. 선원들이 줄을 잡고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다. 그러면 허수아비 낚시는 바다 속에서 오징어를 유혹하느라 어릿광대춤을 춘다.

최초의 어신이 박선장에게 찾아왔다.

“왔구나! 왔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어요.”

박선장의 구성진 목소리가 노랫가락처럼 울렸다.

“나도 왔어요! 어이쿠 제법 무거운데.”

갑판장도 뻑뻑하게 따라오는 낚싯줄을 뒤로 빼고 있었다. 뱃전까지 거의 다 올라온 오징어를 그는 허리를 굽혀 한 손으로 잡았다. 그 순간 무방비 상태인 갑판장 얼굴에 물 폭탄이 터졌다. 정신이 아찔했다.

“아! 당했다. 이 경을 칠 놈! 넓은 바다를 두고 얼굴에 갈기다니 어디 맛 좀 보라.”

그는 장화발로 오징어를 한쪽으로 밀었다. 오징어는 찌꺼기를 쏘느라 퍽퍽 소리 내며 몸통을 굴렀다. 갑판장의 눈이 오징어를 노려보고 있었다.

밤이 점점 깊어갔다. 별무리도 보이지 않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바람도 초저녁 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다. 선원들이 던지는 낚시줄과 오징어가 뽑는 먹물이 허공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에 떨어졌다. 집어 등 아래 흰히 들어난 수면위로 비늘물결이 급하게 흘러갔다.

자정 무렵이 되자 박선장의 예상대로 고기떼가 갑자기 몰려들어 배 주위를 감쌌다. 밀집한 오징어가 떠를 만들어 겹겹이 진을 쳤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낚시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징어 등판에 올라 앉아 있었다. 선원들은 허수아비처럼 팔을 벌리고 낚시를 쌍끌이 하듯 좌우로 끌었다. 그러자 오징어가 마치 기증기에 달린 물건처럼 낚시에 걸려 비스듬히 누운 채 올라왔다.

“히히, 이놈들이 팔자가 늘어졌어. 날 잡아 잡수시유 하는 구먼-”

조타실 옆에서 기관장이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갑판에 털면서 이죽거렸다. 환한 집어등 아래 비쳐진 바다 속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오징어로 마치 쌀뜨물을 부어 놓은 것처럼 허영게 변해 있었다.

“오늘 밤에 요절을 녀시다! 언제 이런 날이 또 오겠소. 떡 벌어지게 만선을 시켜 봅시다!”

박선장이 선원들을 행해 소리쳤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놈들을 모조리 척살하는 겁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갑판장이 맞장구를 쳤다.

박선장이 허리를 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불빛들을 하나하나 주시했다. 어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선박들도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장화발에 밟히는 오징어를 넘어서 조타실에 있는 야광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다.

“박선장 얼마나 잡았소?”

기관실 옆자리를 차지한 기관장이 새카만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기척을 했다.

“이정도면 한발(백두름)이 문턱에 거의 온 것 같은데, 기관장은 얼마나 잡은 것 같소?”

“나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소. 무슨 놈의 오징어가 까마귀 떼처럼 이렇게 몰려오다니, 뱃놈 생활 통 털어서 이래보기는 생전처음 인 것 같소.”

기관장은 와중에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물 쪽에는 얼마나 잡았소?”

기관장이 선수 쪽 동료들을 향해 외쳤다.

“만선 일보 직전입니다. 다들 행운을 빕니다.”

이물에서도 희소식이 들려왔다.

“허허 벌써 그렇게 됐나. 오늘 밤은 만선이 틀림없어.”

박선장은 한 것 감정이 고조되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기관장이 뱃전 너머로 허리를 굽혀 선체가 어는 정도 물에 잠겼는지 확인했다. 아직은 손끝에 물이 닿지 않았다. 다만 밀려온 너울이 가끔 손목을 흠치고 지나갔다. 그럴 때 배는 시소를 타는 듯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의 하중도 같이 증가하여 선체는 오히려 수중에 묵직하니 잠겨 든듯한 느낌이 들었다. 만

선을 코 앞에 두고 있었다.

선원들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아 벌떼처럼 달려오는 오징어를 가슴으로 받아냈다. 바다는 오징어를 꾸역꾸역 토해내고 선원들은 그것들을 꾸역꾸역 집어 삼켰다.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포만과 만식이 있을 뿐이었다. 그 누구도 중재 하거나 단절시킬 수 없는 무아지경의 시간이 흘러 가고 있었다. 어깨춤도 절로 나왔다.

누구보다 박선장이 만선의 기쁨에 들떠있었다. 그는 조타실 위로 머리를 내밀고 선원들을 둘러봤다. 그들도 더 이상의 포획은 원치 않는 듯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박선장이 채비를 견고 슬그머니 기관장 옆으로 다가갔다. 기관장은 선장이 온 것도 모르고 오징어가 달린 채비를 연실 건져 올렸다.

“기관장, 좀 쉬었다 하지 그래. 어지간히 잡은 것 같은데……”

박선장은 기관실 지붕에 걸터앉으며 목소리에 친근함을 더했다. 기관장이 오징어가 걸린 채비를 한손으로 잡아 바닥에 털고 머리에 쓴 방수 모자를 벗었다.

“그럼 쉬었다, 합시다. 이만하면 배는 만선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귀항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날씨가 어땠겠소?”

“날씨? 배질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소.”

박선장의 목소리에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그건 그렇고, 기관장? 생각해 봤소? 추석 전에 끌고 오기로 한 배 말이요. 선주한테서 기별이 왔는데 빨리 잔금을 지불하라는 거야. 오늘 만선한 배가 항구에 들어가면 바로 대금이 완불 될 것이요. 기관장이 내 배를 맡아준다면, 배는 내일이라도 들여 올 수가 있지.”

박선장이 기관장의 결심을 재촉했다.

“입항하면 마누라와도 상의를 해본 뒤에 알려주겠소.”

기관장이 젖은 방수복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라이트를 켰다.

“헌 배일망정 평생에 처음 가져보는 배요. 집에서 반대도 했지만, 배를 가져야 하겠다는 내 집념은 막지 못했소. 허허, 선주가 되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다니, 기관장도 내 심정을 이해 할 것이지요.”

박선장은 집어등 위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혹 같은 밤이었다. 멀리 떨어져 불빛만 일렁이는 조업선들이 야광충처럼 보였다.

“박선장은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기 배를 가지게 되다니.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요.”

기관장이 담배를 바다에 획 던졌다.

“다, 아버지 때문이지요. 평생 남의 배 선원 노릇만 했으니……”

박선장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기관장은 다시 낚시를 바다에 넣었다. 그러나 띠를 형성했던 오징어 떼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불빛이 닿는 자리에 휘뿌연 부유물이 떠다녔다. 오징어 몸에서 떨어진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낚싯줄을 바다 깊숙이 풀어주다가 멈췄다. 몇 차례 담금질 끝에 어신이 찾아왔다. 반가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줄을 걷어 들였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낚싯줄이 가볍게 따라왔다. 수면을 뚫고 나타난 채비에 한 마리 오징어만 보였다.

“박선장! 나만 그런 건가? 오징어가 달아난 것 같네!”

기관장이 선장을 향해 소릴 질렀다.

“나도 입질이 없어. 매정한 놈들, 좀 기다려 봅시다.”

“달아난 고기가 쉽게 돌아오겠소? 이제 남은 건 아사이찌(아침에 잡은 오징어) 뿐인데, 그것도 바다가 잠잠해야 기대 해 볼 수 있지 않겠소?”

기관장은 은근히 철수하자는 뜻을 비쳤다.

“아니요! 아사이찌는 반드시 잡아야 하오. 요즘 들어 부쩍 상인들이 선호하는데, 고기 값이 저녁오징어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했소.”

박선장은 고가에 팔리는 아침오징어를 잡을 생각이었다. 그러자면 새벽 여명까지 배를 이동해서는 안 되었다.

박선장이 어획량을 파악하기위해 오징어가 쌓여 있는 갑판을 비척거리며 걸어갔다. 갑판장과 이물 쪽의 선원들이 쉬지 않고 채비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그는 갑판위에 질펀히 깔려있는 오징어를 대충 훑어보고 선원들을 독려했다.

오징어가 뜬해진 틈을 타서 기관장이 다시 배의 경계수위를 확인했다. 배의 곡선 중앙에 해당하는 기관실 뱃전이 수면에 잠기고 남은 부분이 불과 반팔도 되지 않았다. 경계수위를 지나고 있었다. 초기의 얇은 너울이 선체를 지날 때 뱃전에 부딪히는 소리가 바로 코밑에서 들렸다. 팔을 내리면 곧장 바닷물이 손끝에 닿았다.

“박선장! 수위가 경계를 지났소. 이쯤해서 철수 하는 게 좋겠는데, 너울도 일어나고 있소.”

기관장이 갑자기 귀항을 서둘렀다.

“나도 알고 있소. 동이 트고 있는데, 아사이찌는 보고가야 하지 않겠소? 조금만 있어 봅시다.”

그는 기관장 말을 뒤로하고 급히 채비를 던졌다. 그러자 곧장 신호가 왔다. 아침 오징어였다. 멀리서 보아도 아침 오징어는 달랐다. 청갈색 무늬가 추상화를 그리듯 몸을 휘감아 돌았다.

“이것 보라구! 이 분출하는 힘을 말이야! 단연 보석감이야!”

박선장은 오징어 몸통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빨판이 손등을 감아 따

끔거렸다. 손아귀를 빠져나가려 몸을 팽창시켰다. 바닥에 떨어진 오징어가 널빤지를 들어 올릴 듯이 용트림을 쳤다.

“자! 해뜨기 전에 사라질 녀석들이니 한 마리라도 더 잡아요!”

박선장의 목소리가 갑판을 뛰어 넘어 이물에 쩌 올랐다. 찌 직, 찌 직, 오징어 방사 음이 배안에 난무했다. 박선장이 한바탕 신명나는 담금질을 갑자기 멈췄다. 기관장의 말이 신경에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점점 흰해지는 수면을 탐색하듯 응시하였다.

시아에 들어오는 바다 표면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다. 바람이 물결과 너울을 먼 바다로 끌고 갔다. 만선한 배가 너울이 용골을 지날 때 시소를 타듯이 선체 앞뒤가 들렸다가 내려갔다. 하늘은 비를 쏟을 것 같이 검은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주위에 집어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단을 이루었던 동료 배들은 이미 철수 한 상태였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도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박선장이 그제야 상황 판단을 한 듯 약간 허둥거렸다. 그는 방수복을 벗고 키 손잡이를 양다리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는 선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자! 배가 만선이 되었소.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닻을 빼고 기계를 거시오! 날씨가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으니 긴장들 하시오.”

선원 둘이 수중 닻을 힘겹게 끌어 올렸다. 기관실에서 엔진 예열시키는 소리가 바람소리에 묻혔다. 닻을 올린 선체가 잠시 물결에 휘돌렸다가 선장이 키를 육지 방향으로 틀자 이내 제자리를 잡았다. 짧은 예열이 끝나고 곧장 시동을 거는지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펑펑 튀어 나왔다. 배는 동력을 받고 느릿느릿 움직였다. 너울이 선미를 떠밀어 배는 가속을 받

는 듯 했다. 그러나 오징어 하중을 견뎌야 하는 선체는 평소의 속력을 내지는 못했다. 엔진 회전 속력을 최고에 놓았는데도 연통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와 연기는 툭툭하고 마치 해소병 환자처럼 맡은기침을 뱉어내었다. 다행히 뒤에서 밀어주는 너울이 환자를 돌보듯 배의 모자라는 힘을 도와 주었다.

기관장이 갑판위로 상반신을 내어놓고 바다 상황과 배의 진행을 파악하였다.

“박선장! 날씨가 어떨 것 같소?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직은 괜찮소. 이대로만 간다면 항구에는 무사히 도착 할 것ियो.”

박선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기관장의 귓전을 때렸다.

“그런데, 다른 배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들 일찌감치 꿈무늬를 뺐 건가?”

“그랬을 테지. 아마 만선 전에 철수를 했는지도 모르지. 이 정도의 날씨엔 견딜만한데, 겁쟁이 친구들. 우리가 본때를 보여 줍시다.”

여전히 박선장은 자신에 차 있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킁킁한 바다를 매가 먹이를 노리듯 사뭇 노려보고 있었다. 배 이물이 방아를 찧듯이 오르내리며 바다를 파헤쳤다. 크고 작은 물보라가 일어나 이물갑판에 우박처럼 떨어졌다. 갑판장과 선원들이 벗었던 방수복을 다시 입었다.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져 방수복을 때렸다. 선원들이 급히 기관실 쪽으로 모여 들었다. 엔진 과부하에 걸린 선체가 수압과 하중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내느라 몸체를 떨었다. 갑자기 배 측면에서 돌출한 괴 너울이 뱃전을 때리자 선체가 한바탕 요동을 쳤다. 그 바람에 선원들이 움찔 놀라며 몸을 가누려고 허둥댔다. 바람과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

박선장이 극도로 굳은 얼굴을 하고 연안 쪽을 살폈다.

“갑판장! 선원들을 한곳에 피신시키시오! 지금부터는 힘든 항해가 될 것ियो. 이럴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안전사고를 막을 수가 있소.”

박선장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다. 어둠속에서 배 앞부분이 너울에 들렀다가 바닥을 치는 횡수가 잦아졌다. 바닷물이 배 이물 밖에서 하얗게 갈라지며 갑판 위에 물을 세차게 뿌렸다. 물 파편이 조타실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박선장에게 까지 날라 왔다.

수평선이 어슴푸레 동이 트고 있었다.

또 한 차례 너울이 밋밋한 언덕을 만들어 선체를 들어올렸다 내려놓았다. 선장이 일직선으로 잡은 키에서 뿌드득하는 마찰음이 들렸다. 그건 물의 중압을 견디는 키의 신음소리였다. 연통을 빠져나오는 기관소리는 여전히 툅툅 툅툅 받는 음을 토했다.

“박선장! 괜찮아요?”

기관장이 다시 갑판 밖으로 나오며 선장을 불안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을 선장에게 건넸다.

“나는 괜찮소. 기관실은 이상 없소? 그런데 날이 왜 갑자기 험악해 지는 거야!”

“이쪽은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 항구에 무사히 들어가야 할 텐데.”

기관장의 탄성이 터졌다.

“항구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한 시간은 가야 할 것 같소. 배가 만선 한 상태니 더 힘든 것ियो. 최선을 다해 봅시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박선장이 강풍으로 변하고 있는 바다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기관장! 배수펌프를 작동하시오.”

기관장이 급히 내려가 배수펌프 스위치를 올렸다. 배 옆구리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피스톤에 기름을 쳤다. 엔진에서 열기가 폭폭 켜졌다. 기관실 안이 기름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 찼다.

박선장이 배의 진로를 따라 목표지점을 찾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선체가 좌우로 흔들리며 솟았다가 떨어졌다. 너울성 파도가 배를 때린 것이다. 그러자 갑판위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오징어를 덮쳤다. 갑판의 오징어가 바닷물과 같이 기관실 쪽으로 밀려왔다. 한곳에 모였던 선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밀려온 오징어와 부딪쳤다. 그리고 뱃전 가장자리가 수면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아슬아슬하게 바닷물을 피해갔다. 너울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져서 파도가 되어 부서졌다. 바다는 점차 강풍과 풍랑이 뒤엉키는 사나운 형국으로 변했다.

배는 앞뒤좌우에서 달려드는 파도를 맞고 뒤통거렸다. 연실 갑판 위로 쏟아지는 바닷물이 오징어를 한쪽으로 쓸어갔다.

모든 상황을 위험 전 단계로 판단한 갑판장이 박선장을 향해 긴급 제의를 했다.

“선장님! 이러다가 배가 위험 할 수 있어요. 배안에 있는 오징어를 전부 버립시다! 무게를 줄여야 배가 제 속력을 내고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갑판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선장을 압박했다.

“뭐? 오징어를 버려! 이 피 같은 오징어를……”

박선장이 고함을 질렀다.

“지금 오징어가 문제니까! 배가 위험에 처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갑판장이 물러설 것 같지가 않았다. 박선장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는 기관장을 불렀다.

“오징어를 버리자는데, 기관장은 어떻게 생각 하시요?”

“이 상황에, 어찌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소. 박선장이 결정 하시요.”
기관장은 침통한 표정을 하고 선장과 갑판장을 동시에 쳐다보았다. 굽이 치던 너울이 이번에는 배를 덮칠 듯이 다가오다 도중에서 꺾어졌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너울이 먼 데서부터 스물스물 기어와, 선체 가까이 접근해서는 봉우리를 만들어 바로 배 옆에서 하얗게 뒤집혔다. 그러자 배는 소용돌이치는 물살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켰다.

기관실 통로에 모여 있는 선원들이 초조하게 선장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러나 박선장 입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독기가 서려 있었다.

“안되오! 오징어는 버릴 수가 없소! 날이 밝으면 풍랑은 가라앉을 것이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박선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날이 밝으면 잠잠해 진다는 말에 갑판장도 흥분을 가라앉히는 듯 했다. 바다는 점점 더 광란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비바람 소리에 새벽잠을 깬 굴뚝네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칠흑 속에 빗줄기가 전신을 몰아쳤다. 그녀는 등대 불빛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비추고 있는 바다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불빛과 빗줄기 뿐이었으나, 멀리서 들려오는 해조음 소리에 바다가 심상치 않음을 의식 할 수 있었다. 굴뚝네는 급히 우의를 입고 등대를 향해 뛰어갔다. 등대 처마 아래 쪼그리고 앉은 그녀는 불길한 생각에 온 몸이 굳어 버리는 것 같았다.

굴뚝네는 합장한 두 손을 턱 밑에 모으고 입술을 조금씩 달짝 거리기 시작했다. 강풍이 그녀를 흔들었으나 굴뚝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부처님, 성주조왕님, 우째든지 배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이소. 그라고 이번에 우리 박선장이 꼭 선주가 되도록 소원성취 시켜 주이소, 비나이다……”

굴뚝네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었다. 그녀는 비손을 마치고 발딱 일어나서 캄캄한 바다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 어디에도 배의 불빛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등 뒤에서 둥근 서치라이트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사방이 흰빛으로 밝아 오고 있었다.

선미에서 선수까지의 배 윤곽이 뚜렷하게 들어났다. 그리고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의 강도와 규모가 한 눈에 들어왔다. 태풍이었다.

배는 그 험악한 길을 용케도 버텨 온 것이다. 박선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였다. 날이 밝으면 풍랑이 가라앉을 거라 했던 자신의 발언이 완벽히 빗나가고 있었다. 굳게 다물었던 입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다. 선원들은 모든 것을 포기 한 듯이 보였다.

“박선장 이대로는 안 되겠소. 오징어를 싣고 항구로 갈수 없을 것 같소. 박선장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오. 이번 조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소.”

기관장이 광란하는 바다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알겠소. 기관장 생각도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오징어를 포기합시다. 그러나 저 피 같은 오징어를 버린다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소.”

박선장의 눈가에는 물보라인지 눈물인지 분간 할 수 없는 물방울이 맺혀있었다.

그사이 또 한바탕 높은 너울이 봉우리를 꺾으며 선체 옆구리를 때렸다. 배는 마치 곡예를 하듯 바다 속을 빠져 들었다가 다시 솟아올랐다.

“자! 모두 들어시오! 나도 뱃놈이요. 잡은 고기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건 어부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이요. 그러나 사고는 막아야 한단 말이요.”

박선장은 소리치고 나서 자신이 잡은 오징어를 먼저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선원들도 오징어를 뱃전 너머로 던졌다. 버려진 오징어가 바다 위를 나뭇잎처럼 떠다녔다. 풍랑에 휩싸인 오징어 떼가 이번에는 거대한 띠를 만들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바다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두릅시다!”

갑판장이 광주리에 오징어를 쓸어 담아 뱃전 너머로 쏟아 부었다. 선원들이 장화발로 오징어를 한 곳으로 모은 다음 두 팔로 끌어안아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파도가 오징어를 두꺼비처럼 널름 널름 받아 삼켰다.

박선장 가슴에 퍽퍽 도끼질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쪽도 못할 거야 없지요. 노력만 한다면야. 오징어 닮은 묵수의 불룩한 두 눈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텅 빈 채로 항구로 돌아온 배가 쑥스러운 듯 부두 끝에 조용히 접안해 있다. 만선을 알리는 깃발이 파장이 된 어판장을 향해 줄기차게 펄럭인다. 폭풍에 놀란 갈매기들이 피 할 곳을 찾느라 바쁘게 날아오른다. 하늘이 금방이라도 항구에 폭우를 내릴 것 같았다.

가파른 논골 언덕을 박선장이 무거운 걸음으로 오르고 있다. 그 뒤에 굴뚝네가 고무다라를 이고 따라가고 있다. 박선장은 지난밤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는 듯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한 발작 한 발작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용연향의 꿈을 꾸고 있었다.

수상 소감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

서행련



아주 오래전 이었습니다.

집 위의 낮은 언덕,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서 처음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은……

그리고 타박타박 먼 길을 걸어 왔습니다.

때로는 글쓰기의 외로움에 치이고, 때로는 세상의 모서리에 마음 다쳐도
끝까지 저의 곁에 문학이 있어 행복 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주신 것만으로 감
사한데 분에 넘치는 상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기쁨인 저의 가족들과 끝까지 선량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이웃’들에게 부족한 이 글을 올립
니다.

새가 앉은 동안

“아궁이는 항시 방보다 낮아야 하니, 방을 향해 정성껏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가 바로 아궁이의 자세이니라.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두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제 분수와 도리를 알기 때문이다. 아궁이는 무엇이든 말없이 삼킬 뿐 도로 뱉어내는 일이 없으니, 이것 또한 아궁이의 미덕이니라,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말로 뱉을 때, 구들장은 그 말을 날날이 돌판에 새겨 지옥까지 짙어지고 간다 했느니라. 구들의 귀는 밝아서 금방 따뜻해지고 또 금방 차가워지니, 아궁이의 불은 아흔 노인의 눈꺼풀과도 같으니라. 아 침잠은 이승에 두고 저녁잠은 저승에 두어도, 그 눈꺼풀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나니, 구들장의 온기 또한 그리해야 한다. 해를 향해 높이 서 있는 굴뚝은 하늘로 통하는 하늘 문(門)이니라.

구들장을 돌아 나온 연기를 신선계로 인도하는 통로이니라. 그러하니, 수시로 하늘의 기색을 살피고 저어하여라.

날아가는 연기는 나무의 혼령(魂靈)이다. 살아, 습함이 많았던 나무의 령(靈)은 불 지피는 자의 눈물을 거두어 같이 가는 법이니, 맵다고 불 평해서는 아니 된다. 살아, 뒤뜰림이 많았던 나무의 령(靈)은 제대로 뿌리 뻗지 못한 큰 바위 근처의 나무이니라. 그 연기의 형상은 흡사 승천하지 못한 못의 이무기와 같이 구불거리 느니라. 살아, 잔가지가 많았던 나무의 령(靈)은 하늘 높이 솟지 않고 옆으로 길게 드러누워 노을처럼 퍼지느

나라.”

새가 얹은 팔각의 기단에 하얀 입김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새는 두 다리를 모으고 작고 뾰족한 부리로 쫑쫑 연기를 쪼았다.

헤실헤실.

연기에 취해 날아오르던 새는 이제 아주 보이지 않는다……

지리산 남쪽, 어느 선사에는 아(亞)자방의 구들이 있어 하루만 불을 넣어도 그 해 겨울을 난다고 했다. 그러나 꺾의 구들은 온전한 ㅁ자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고래의 불길을 내기 위해 차근차근 놓아간 구들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온돌은 층층시하(層層侍下)였다. 넓적하고 얇은 돌은 서로 포개져 굽이굽이 구중궁궐을 돌았다. 고개를 숙인 채 끝없이 행렬의 꼬리를 물고 도는 궁녀들의 발걸음과도 같았다. 어디가 고래이고 어디가 구새목인지 바람의 끝을 애달프게 쫓아가는 연기처럼, 궁녀들은 앞사람의 치맛자락을 쫓아 무리를 지어 걸었다. 늘 머리를 조아리고 걸어야 하는 궁녀들의 정수리는 동그랗게 햇빛에 닳아 있었다. 햇빛이 새긴 정수리의 둥근 나이테는 궁녀의 오랜 관록이었다. 듬성듬성 정수리의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마다 도장 같은 테두리가 도드라졌다. 궁녀들의 필체, 궁체(宮體)를 연습하는 것도 저 혼자만의 뛰어난 필체를 갖기 위함이 아니었다. 누가 이어서 쓴다고 해도, 결국은 오직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었다. 정중동으로 빼고 멈추길 반복하며 붓을 멈추는 호흡까지도 궁녀들은 똑같이 익혀야 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린 글체여야 비로소 궁체이듯 쪽빛 치마와 남색 저고리를 똑같이 차려입은 궁녀들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궁을 빙빙 맴돌았다. 흡사 군무를 추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이지 않고 그 누구와도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지 말아야 했다.

살아서는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없는 궁에서 딱 한번, 죽음의 때에 이르면 궁녀는 비로소 궁을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늙고 병든 궁녀는 서쪽 쪽문으로 조용히 나가야만 한다. 죽음이 서린 불길한 육신을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늙은 궁녀는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품고 쫓겨나듯 궁문을 나섰다. 이승의 마지막 순간에 입에 물고 있어야 할 저승 노잣돈, 스무 냥씩이 하사되었다. 아직 손발을 놀릴 수 있는 궁녀들은 비구니 절로 들어가 허드렛일을 거들었다. 병이 깊어 밥숟가락 들 힘조차 남아 있지 않은 궁녀들은 북쪽의 변두리 객사를 떠돌았다. 오직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스스로 곡기를 끊고 누워 있어도 숨은 마음대로 끊어지지 않았다.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궁녀는 다시 길 밖 세상으로 나서야 했다.

그래서 궁녀들은 늙어 열흘 안에 죽을 수 있는 것을 최고의 지복(至福)으로 꼽았다. 노 상궁이 애기 나인에게 이르기를, 살아 부지런히 선행(善行)의 공간을 채우면 하늘 수문장이 따로 노잣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 번도, 누구도, 가 본 적 없는 저승으로 잘 떠나기 위해, 이승의 궁녀들은 부지런히 손발을 놀렸다. 선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끝없는 고된 노동일뿐이라고 해도 기약 없는 세월을 견디기에 그만한 약은 없었다……

“때각시로 쓰기에는 인물이 아깝구나.

열두 살 나이에 제법 고운 여인의 태를 갖추었구나.”

노(老)상궁은 손가락으로 문 나인의 사주를 꼽아 보다가, 손마디 끝을 살짝 접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외로 꼬아 문 나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문 나인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윗목에서 일렁거리는 촛불이 행

여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올까, 문 나인은 방바닥까지 이마를 조아렸다.

김 상궁은 무릎을 끌고 윗목으로 옮겨 앉으며 말했다.

“이 아이의 사주에는 물이 없습니다. 숨어 있는 물조차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무 목(木) 세 자 위에 불 화(火) 두 자가 앉아 있습니다. 목생화(木生火), 나무로 불을 낳은 사주입니다. 때각시로 쓰기에 이만한 사주는 찾기 힘들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쩐지 이 아이에게서, 문자를 가까이 한 자의 분위기가 느껴지는구나, 저 구부린 어깨선을 한 번 보아라. 작은 산 봉우리를 닮은 저 부드러운 흐름을 보아라. 책을 가까이 하면 양 어깨에 부드러운 8부 능선이 생겨나지 않더냐? 산줄기처럼 솟다가 완만하게 떨어져 내리지 않더냐?……

이 아이에게는 책의 향이 깃들어 있구나…… 아까운 노릇이 로고.”

“아무리 재주와 용모가 빼어난들, 팔자 도망은 못 간다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아이는 어미를 일찍 잃어 철이 일찍 들었을 뿐이옵니다.”

“그래…… 결국은 그렇지…… 햇빛을 못 받는 아래쪽의 꽃은 오히려 햇빛을 받으려고 웃자라지. 결국은 위의 꽃보다 응달로 먼저 떨어져 내리는 일 밖에 없는 것을……”

달빛 아래 굽이굽이 병풍처럼 이어진 궁궐의 담을 따라 걸었다. 김 상궁 두어 걸음 앞에 서서 등(燈)을 비추는 나인의 등은 곱사등이처럼 굽어 있었다.

초승달이 정작 자신의 등을 비추는 것도 모르고 늙은 나인은 등(燈)을 들고 늙은 당나귀처럼 허덕허덕 걸었다. 문 나인은 자신의 등을 적시고

있을 달빛도 어젯밤의 그 달빛이라는 것에 비로소 안도했다.

그들은 끝도 없이 이어진 담장을 걸어 아홉 개의 쪽문을 넘었다. 그리고 궁궐 가장 깊숙이 들어앉은 D자형의 캄캄한 쪽궁 앞에 섰다. 문 나인은 가슴에 품고 있던 보따리를 슬며시 내렸다. 그러나 김 상궁은 그 곳을 지나쳤다. 돌레방의 난간을 지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마침내 깊고 넓은 마루에 이르렀을 때, 김 상궁은 손가락으로 마루 밑을 가리켰다.

“들어가거라.”

마루 밑은 약간 경사져 있었다.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동궐(東闕)의 모든 건물은 비스듬한 땅의 기울기에 맞춰 조금씩 기울어 세웠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평평해진 궐 바닥의 역설(逆說)은 아마도 궁궐터를 다지는 이의 꿈에 나타난 부처가 일러주지 않았을까.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의 더함도 덜함도 보텔 것이 없느니라. 무엇을 바꾼들 결국은 다 제자리니라.

일어난 대로, 또 안 일어난 대로 다 잘 된 것이다.’

법당의 시주 쌀을 팔아 책으로 모두 바꾼 문 나인의 아버지에게 수비스님은 다만 이 말씀을 했을 뿐이었다.

‘무엇을 바꾼들 결국은 다 제자리이다.

일어난 것은 일어난 대로 다 잘 된 것이다……’

문 나인은 등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더듬더듬 앞을 짚으며 나아갔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앞은 오히려 점점 밝아졌다. 희미하게 앞을 밝히는 빛을 따라 들어가자, 땅 바닥이 마른 이불처럼 까슬까슬해지며 저 끝에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는 아궁이가 보였다.

“불 앞에 앉거라.”

문 나인은 아궁이 앞에 꿇어앉았다.

“부지깽이를 들라.”

짐승의 작은 꼬리뼈 같은 부지깽이를 문 나인은 가만히 들어 올렸다.

“아궁이 앞에서는 일 년 열두 달 한결같이 연행을 삼가도록하라. 절대로 소리 내어 울어서도 안 된다. 조왕신의 백 년 잠을 깨워 분기를 돋우면, 그 해는 가뭄이 든다 했느니라. 가뭄이 들면 그건 온전히 네 탓이라 여겨야 할 것이다. 행여 혼자 한밤에 실성 한 듯,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거든 황급히 손으로 그 입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문 나인은 입을 막았다.

“도망치다 잡히면 인두로 너의 얼굴을 지저 놓을 것이니 그리 알거라.”

마루 아래 구덩이를 파서 만든 함실 아궁이는 어둑했다.

깊고 맑은 종소리를 위해 종 아래 물 항아리가 놓이듯, 함실 아래에는 드르가 놓여 있었다. 행여, 불이 나면 화마(火魔)가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놀라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라는 뜻이었다.

한낮이면 어둑한 마루 밑으로 귀한 손님처럼 햇빛이 살포시 찾아 들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빛이 맞은 편 굴뚝으로 꺾인다 하여, 아궁이에는 아예 검은색으로 덧칠을 입혔다.

함실 안은 어둑한 종 속 같았다.

종 안에 들어앉아 있는 듯, 함실의 아궁이는 깊고 고요했다.

은 나무의 생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낮고 무른 언덕에서 군락을 이루어 살다 온 상수리나무였는지, 아니면 비스듬히 굽은 산비탈에서 온 몸을 뒤척이다 온 소나무였는지, 나무 타는 소리를 들으며 문 나인은 가만히 나무의 전생을 헤아렸다.

살아서 혼자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었던 나무는 죽어서

이 한양까지 먼 길을 돌아서왔다.

문 나인의 일생도 나무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다.

아궁이 앞에서 저문 바다의 꽃게처럼 좌(左)로 세 걸음 우(右)로 세 걸음씩을 옮기다 보면,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가 시작이었다. 궁의 하루는 더디 갔지만 세월은 빨랐다.

나무 타는 소리에 혈육 같은 정을 붙이게 되면서부터, 문 나인의 눈은 차츰 멀어갔다.

주춧돌에 거미줄처럼 성글게 걸린 햇빛도, 문 나인은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혹.

지상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온다. 굴뚝이 산꼭대기라면 아궁이는 산이 시작되는 골이다. 바람은 언제나 아궁이에서부터 시작된다. 미끈거리는 바람을 문 나인은 손가락으로 살짝 움켜쥐었다. 그리고 살살, 바람의 끝을 문질렀다. 바람의 곁은 햇미역처럼 보드랍다. 바람의 두께는 얇고 그 무게는 가볍다. 손가락 사이로 설렁설렁 빠져나가면서도 몽근한 소금기를 남기지 않는다. 바람의 소금기는 연하고 그 맛은 아릿하다. 서쪽의 앞은 바다, 황해에서 불어 온 하늬바람이다.

깊고 어두운 동쪽의 심해에서 불어온 바람은 물레의 잣처럼 둥글게 손목부터 감겨들어 왔었다. 바람의 곁에 잔뜩 몽근한 소금기를 품고있었다. 더러 서개 같은 소금 알갱이를 드문드문 손가락 끝에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서풍은 가볍다.

서해 앞은 바다에서 잔물결을 일으켜, 애꽃은 새우의 등만 구부리다 온 미약한 해풍이다. 물결을 따라 숨차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새우는 등

마디마다에 흔적 같은 물결무늬를 둥글게 새겨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새우는 바다를 닮아갔을 것이다.

복사꽃은 그렇게 마을을 닮아갔을 것이다.

소나무는 그렇게 산언덕을 닮아갔을 것이다.

문 나인이 탕화 속의 조왕신을 닮아가듯, 세상 만물은 모두 제 곁의 가장 가까운 것을 닮아갔다……

서풍이 불 때는 불너미 고개를 낮게 쌓아야 한다. 불너미 고개만 넘고 나면 불은 무엇이든 절대 다시 뺏어 내는 일이 없었다.

불은 바람기 많은 사내모양 건들거리며 바람을 타고 오른다. 그러나 걸 불꽃만 검붉어 요란할 뿐, 속불은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

불은 조용하고 쓸쓸하다.

불너미 고개를 넘고서부터 불은 그을음만 자욱하다.

잠에서 깨면 문 나인은 먼저 두 손을 모아 조왕신께 발원했다. 풍년이 들기를 축원하며 아궁이 깊숙이 찌리나무를 밀어 넣었었다.

그러나 비쩍 마른 찌리나무는 더 이상 쌀 튀기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주린 배를 채우듯 성급하게 땀감을 품고, 아궁이는 졸음에 겨운 아이가 마당에 오줌 누는 소리를 내며 “쉬잇 쉬잇.” 타고 있다.

극성맞은 쥐떼들의 행렬을 본 것도 오래 전의 일이었다.

아마도 궁궐의 공간은 텅텅 비어가고 있으리라.

그믐밤에 자객이 든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

자객은 멀건 대낮에도 칼과 총을 들고 밀어 닥쳤다.

군사들은 이제 더 이상 활을 쏘지 않았다.

오른쪽 왼쪽으로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는 진동 소리만 요란했

다. 줄을 맞춰 일렬로 행진하는 군사들은 발소리부터 맞추었다. 전쟁은 줄 맞춰 오지 않는데 군사들은 줄 맞춰 “교오오오 쓰 게.”를 복창했다.

활을 버리고 총을 쏘는 군사들에게 이제 바람의 방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활을 당기며 슬쩍 콧물까지 닦아내는 어린 병사도 없었다. 깃발이 흔들리는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 굴뚝의 연기부터 읽어야 하는 별관도 없었다.

“이 봐, 할멈. 나무 잡아먹는 귀신님이!

아직 살았는가? 죽었는가?

오늘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오오?”

활쏘기 시합이 있을 때마다, 별관은 마루 밑으로 고개를 넣어 외쳤다.

문 나인은 대답대신 부지깽이로 확, 불을 돋웠다. 맞은 편 굴뚝에서 몽실몽실 바람을 타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별관은 툭, 사과 한 알을 던지고 돌아갔다.

봄바람을 타고 지상에서 스르르 끈 같은 것이 미끄러져 내려온다. 봄날의 어린 뱀이다.

아직 화려한 몸놀림을 익히기 전이어서 뱀의 움직임은 어수룩하다. 가늘고 여린 뱀은 느릿느릿 문 나인의 팔뚝을 타고 지나간다. 봄날, 이른 잠에서 깨어나 먹이를 찾는 것인지, 혹은 누구의 먹이가 될 것인지는 온전히 뱀의 운명이다. 문 나인은 그 어느 것의 운명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이제껏 궁에서 살아온 문 나인 평생의 본분이었다.

며칠 전에는 늙은 두꺼비 한 마리가 이곳까지 엉금엉금 기어들어와 마지막 숨을 거둔 적도 있었다. 축축한 두꺼비는 문 나인의 마른 허벅지 위

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썰룩거리는 울음주머니는 허파처럼 늘어났다가 파리처럼 줄어들기를 오래도록 반복했다.

마치 고문을 당하는 늙은 신하처럼 두꺼비는 그렇그렇 낮게, 울었다. 쉬이 숨을 끊지 못한 두꺼비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피익, 피익,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었다. 혹처럼 크게 부풀어 올랐던 울음주머니는 납작하게 쪼그라들었다. 령(靈)이 빠져나간 두꺼비의 육신은 아궁이 깊숙이 넣어 던져졌다.

봄에는 미물들의 죽음이 잦았다. 별별 떨어져 악착스럽게 겨울을 난 미물들은 봄이면, 먼 산의 긴 상여 행렬을 따라 들어갔다.

아궁이는 온갖 미물들의 화장터였다.

아궁이 깊이 던져 넣어진 미물들의 육신은 고랫길의 연기가 되어 궁의 방바닥을 돌았다. 구절양장 같이 굵은 구들을 돌아가며 육신의 연기는 조금씩 맑아져갔다. 미물들의 혼이 마침내 굴뚝의 연가(煙家)에 이르렀을 땐, 저주와도 같았던 육신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세상의 낮은 곳을 찾아 평생을 기어 다녀야 했던 기억도 이제 없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날 하루 죄 짓는 일인 미물들의 목구멍은 비로소 그 주름을 면 할 것이다.

언제나 배고팠던, 검은 아궁이 같은 그 입에 대고 옥황상제님은 차마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을 터였다……

절의 한낮은 적막할 만큼 고요했다.

열두 살, 어린 문 나인은 책을 필사하고 있었다. 문 나인의 아버지는 흐릿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글 한 구절구절을 필사할 때마다 문

나인의 눈은 맑고, 입 끝은 오묘하게 양끝으로 말려 올라갔다.

“세상 학문을 두루 주관하는 나반존자 같구나.”

문 나인의 아버지는 기특하게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은한 묵향이 방 안을 흠뻑 적셨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먹먹하도록 평화로웠다. 문 나인의 아버지는 와불처럼 방바닥에 길게 누워 이따금씩 손가락으로 귀를 찼다. 귀 딱지는 더 깊이 들어간 듯 했으나, 문 나인의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문 처사는 들으시오.

사람이 공것으로 절밥만 축내면, 죽어 절 마루 밑의 구렁이로 태어난다 하오. 청수간 물 한 그릇 떠 놓고는 하루 종일 방구들 짚어 지고 뭐하시오? 노는 손에 장작이라도 좀 패시오. 보기 흉악스럽게, 다 늙은 여자가 도끼까지 들고 장작도 쪼개서 받쳐야 하오?” 공양주가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

방 안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절 마당의 돌배나무 잎사귀들이 일제히 와아아 함성을 질러댔다.

문 나인의 아버지는 모로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문 나인이 필사 했던 다산의 책이었다.

“여령아, 검은 글자들이 끝없이 길게 줄 맞춰 서 있는 문장들의 길을 보아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긴 여백을 보아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이, 행과 행 사이의 여백이 흡사 받고랑 같지 않느냐?”

“받고랑은 뒷산에나 가서 찾고, 문 처사는 어서 빨리 나오시오 ”

“여령아. 여기 지극히 아름다운 구절이 있구나.

사람이 제 입을 속여 밥을 먹는 방법인데, 살림이 어려워 김치 담그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상추를 입 속에 넣고 삼키며 이것이 김치다. 라고 스

스로의 입을 속여 밥을 먹는 방법이라 하였다. 다산 선생은 곤궁한 귀향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내면서도 끝까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문 나인의 아버지는 다산 정약용을 책 밖으로 끌고 나와 비루한 자신의 처지를 덮어 보려 했다. 그러나 18년 귀향지의 다산과 절행랑채에 붙어사는 문 씨 부녀와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두 사람의 불우는 비슷했지만, 그 불우를 대하는 자세는 판이하게 달랐다.

사람보다 자연을 가까이 벗했던 사대부의 시가(詩歌)를 넘어, 땡볕을 등지고 서서 저물도록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다산의 책을 아버지는 철저히 잘못 읽었다고 문 나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나라를 잃고 궁촌벽지를 떠돌며 무위도식 했던 두보나, 밤 배 위에서 위태롭게 취해가던 이태백이 아버지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어린 문 나인은 생각했다.

“오늘 궁에서 높은 माम님이 오신다는 기별이 왔소.

하다못해 빗자루로 뜯이라도 쓸든가, 아니면 석등(石燈)이라도 좀 닦으시오. 그 방은 구들장도 안 꺼지오? 허리뼈는 안 부러지오? 틀어 박혀서 책만 읽지 말고 세상도 좀 읽고 사시오.

아이고, 우리 스님 아니면 세상에 어느 누가 있어 저 화상을 거두어 줄까? 쫓쫓.”

문 나인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무식한 여자야. 당신이 지금 걸레로 박박 문질러대는 저 편액의 글씨를 누가 쓰셨는지 아시오? 도대체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나 있소?”

“내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았어도 밥은 안 빌어먹고 사요.”

“기껏 밥 얻어먹으려 내가 절에 있는 줄 아시오?”

아버지는 마당으로 내달아 보란 듯이 도끼를 들어 올렸다. 햇빛의 날이 시퍼렇게 도끼의 검은 날을 베고 지나갔다.

“광.”

아버지는 장작을 내리쳤다.

도끼는 장작에 그대로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절 마당의 배통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끼룩끼룩 웃었다.

“어여쁘게 생긴 아이로구나.”

장옷을 머리끝까지 둘러쓴 여자가 문 나인의 앞에 서 있었다. 찰박찰박, 눈물이 흥건한 두 뺨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말리며, 문 나인은 봄 아지랑이 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여자는 장옷을 내리고 손수건을 건넸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고운 빛깔의 명주 천이었다. 여자는 허리를 굽혀 고이고이 문 나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모습이 이러하리라고 문 나인은 생각했다.

“애야. 나를 따라 갈런?”

네 포래의 동무들도 재잘재잘 아주 많이 있단다.

철마다 빛깔 고운 옷을 입고, 금박 새긴 땡기도 드릴 수 있느니라.

또 먹을 것은 지천에 두루 깔려 있느니라.

저, 봄쑥처럼, 말이다.”

“혹시 책을…… 읽을 수는…… 있사옵니까?”

“규장각에 있는 수만 권의 책은 네가 죽을 때까지 읽어도 평생을 다 못 읽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 제가 그 책들을 필사해서 저희 아버지께 보내 드릴 수는 있사옵니까?”

“궁에는 필사를 하는 지밀나인들이 따로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거라. 보아하니 네 아버지는 책보다 양식이 더 급한 듯 싶구나. 1년 새경으로 쌀 닛 되와 콩 두 되. 그리고 대구미 두 미가 나오느니라. 대구미 두미 대신 필사본 두 권을 보내마. 이제 나를 따라 나서겠느냐?”

일주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문 나인을 배웅하듯 솔바람이 불어 내려왔다.

툑. 툑. 툑.

등 뒤로 힘없이 솔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문 나인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문 나인의 아버지는 두 손 가득 들고 있던 솔방울을 슬며시 뒤로 감추었다. 두 눈은 별경게 달아서 일주문의 사천왕상 같았다. 문 나인의 아버지는 돌아서서 비틀비틀 일주문에서 멀어져갔다.

그것이 문 나인이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저녁 무렵에 이르러 그들은 궁궐 가까이 다다를 수 있었다.

저 멀리서 층층 계단처럼 높이 솟은 궁궐의 지붕이 보였다. 상궁의 걸음은 자꾸 빨라졌다. 비단 치맛자락이 휘휘 바람을 감고 장구처럼 빙빙 돌았다.

궁궐 출입문 앞에서 그들은 멈춰 섰다.

드높은 궁궐 지붕을 머리에 이고 서 있는 상궁은 아까의 그 상궁이 아니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문가 여령이라 하옵니다.”

“틀렸다.

너는 김 막달이다.

이제부터 너는 김가 막달이다.

네가 누구냐?”

“.....”

“네 아버지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어서 대답하여라.”

“.....김가 막달이옵니다.”

기왓장처럼 굽은 문 나인의 등에 봄별 한 줄기가 다가와 찰싹 엉겨 붙는다.

나이 예순이라 귀가 어진 문 나인은 봄별이 노는 소리를 들으며 봄별의 나이를 헤아린다.

봄별은 애기나인의 아장 걸음처럼 동동 거린다.

아, 아, 아, 웅알이를 한다. 문 나인은 어린 햇별을 등에 태우고 뚝뚝 어른다.

해는 점점 길어져 불을 지피는 시간은 차츰 짧아졌다.

겨울 내내 문 나인은 봄을 기다리며 살았다. 겨울 동안 구석진 응달 아래로 산보를 나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사시사철 궁궐 뜰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도 좋지만, 자작자작 나무 타는 소리도 좋지만, 더러는 사람의 말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었다. 다급하게 지나가는 지상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문 나인은 궁궐의 소식을 미루어 짐작했다. 남은 일이라곤 민화 속의 목단처럼 지겹게 남아가는 일 뿐이라고 해도 문 나인은 저 지상의 소식이 궁금했다.

아아아.

깊은 한밤중이면 문 나인은 소리를 내어 보았다.

산꼭대기에서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자신의 목소리는 낮설고 아득했다.

무겁고 축축한 혀끝에서 지상에서 익힌 말들은 바람처럼 헛돌았다.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었는데…… 문 나인은 혀끝이 아릿했다.

입 안 가득 침을 삼키며 문 나인은 먹먹한 귓속을 목탁처럼 탁탁, 두드렸다.

입술을 목탁처럼 동그랗게 말아, 문 나인은 저갯거리의 목탁처럼 마구 소리를 내고 싶었다.

사람들은 모르리라.

문 나인의 귓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들어 있는지를.

저벽저벽 자박자박 조곤조곤 철벽철벽.

발자국 소리들은 장단을 맞추어 가까이 다가왔다.

응달의 나직한 그들로 와서 사람들은 비밀을 속삭였고, 더러는 가져선 안 되는 물건들을 안으로 집어 던졌다.

꽃신 한 켤레가 툭, 지상에서 내던져졌다.

꽃신 한 짝이 문 나인의 등짝을 치고 떨어져 내렸다.

문 나인은 꽃신을 주워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었다. 꽃신을 던진 사람이 누구든 정작 꽃신의 주인은 아닐 것이므로, 한밤중에 훔친 꽃신을 신고 달빛 아래를 걸어보아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새내기 궁녀는 이제 알았을 것이니 그걸로 된 것이었다. 속가에서 자주 굶주렸던 궁녀는 입 껴하면 가장 먼저 먹을 것을 탐했다. 옷전에서 물린 떡을 쥐고 급히 달려 와서 꿀꺽 삼키고 가는 궁녀도 있었다. 더러는 남은 떡 쪼가리를 있는 힘껏 내던지고 가기도 했다. 대추씨가 들어있는 누름떡은 달콤쌔쌔했다. 입 속에서 찰지게 미끄덩거리는 떡을 문 나인은 오래오래 침으로 녹였다.

선승처럼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문 나인은 궁궐의 온갖 비밀을 들었다.

“기름 바른 떡 열 말을 강에 던져 넣어라.

자시(子時)에 물 위로 오색빛깔의 기름이 떠있게 하라.

시절이 태평하여, 이런 상스러운 징조가 일어났다고 옆에서 말을 거들도록 하라.”

“그러면, 강에 기름만 부어넣으면 아니 되옵니까?

쌀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대감마님.”

“허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아주 흘러가 버린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느냐?”

“제가 어리석어 생각이 짧았습니다.”

늙은 대감은 자신이 꾸며낸 하늘의 징조를 두고, 짐짓 시조 한 수를 길게 선창할 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금 한 뿔 뒷박만 넣어주오.

배가 잔뜩 부르면 사단이 날 터이니, 베갯속에 그저 안 빠져나올 만큼만 담아주시오.”

젊은 무수리는 소금창고지기와 사랑을 속삭이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 무심히 말을 꺼냈다.

문 나인은 마른 등을 굽다 킁킁 웃었다.

목욕대를 타고 퍼지는 웃음소리가 다른 이의 웃음소리처럼 공허했다.

문 나인은 문득 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다. 날짜를 헤아리는 것을 그만둔 것도 오래 전 일이었다. 달이 한껏 차오르면 삭이고 달이 아주 기울면 망이니 구태여 날을 꼽을 이유 같은 것도 없었다.

아궁이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잘 짐작하지 못했다. 물 항

아리를 채우러 오는 무수리 몇몇은 낮도깨비를 본 듯 놀라 자빠졌다.

“옴마야. 화마 귀신 아니여?

드르에나 제 낮을 비출 것이지 왜 킁킁한 거기 앉았다냐?

아이고, 무서버라,”

문 나인은 알고 있었다.

이 켄 안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속의 귀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끔 너무 외로운 날에는 귀신이라도 찾아와 주었으면 하고 문 나인은 바랬다. 산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었으니 두려울 것은 없었다.

행여 발 없는 귀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문 나인은 새벽에 땅바닥에 귀를 대어 보기도 했었다. 미칠 일도 이젠 문 나인에겐 남아있지 않았다.

궁이 텅텅 비었을까?

발자국 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 아침이었다.

아침마다 배식구로 들여보내지던 개다리소반은 하루 두 번에서 한 번, 그리고 이를 전부터는 그것마저 끊겼다.

임금님께서 궁을 옮기신 것은 설을 나시고 난 직후였다. 어린 순종 임금님은 따뜻하게 겨울을 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윤패되기 위해 궁을 떠나셔야 했다. 나귀들이 끝도 없이 궁으로 들어와 짐을 실어 날랐다. 나귀 목의 방울소리가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소리를 대신했다. 딸랑거리는 나귀 방울 소리가 지나고 나면, 뒤를 이어 나귀의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히잉히 히잉 히잉히…….”

나귀의 울음소리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그 밤은 쉬이 물러가지 않았다.

햇불이 모자란다 하여, 문 나인은 아껴두었던 금송 장작을 내주었었다.

문 나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땀감을 비축하기 위해 굵고 튼실한 장작은 모두 오른편으로 물리었다. 서풍이 부는 날에는 불꽃이 안까지 타들어가기 어려우니 서풍 잦은 봄날을 대비해야 했다.

보름마다 들어오던 땀감이 끊겼다. 어제, 땀감이 들어와야 맞았다. 느릅나무가 제철이고 버드나무가 한창인 철이었다. 더러 장작더미에는 진달래가 진홍빛 연서처럼 남모르게 실려 들어오기도 했었다. 소나무는 솔방울을 잔뜩 매달고 와서 진저리를 치듯 솔방울들을 떨어뜨렸다. 한밤중에 툭툭, 떨어져 내리는 솔방울 소리를 들으며 문 나인은 아버지가 던졌던 솔방울들을 생각했다. 자기 자신에게 돌팔매질 하고 싶은 걸 그렇게 했을 거라고, 문 나인은 눈물이 다 말라붙은 눈을 오래도록 꿈뻑거렸다.

한 쪽 신발을 조심스레 끌며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온다.

미세한 땅의 진동을 어렴풋이 느끼며 문 나인은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인다. 뒤를 이어 조근조근 따라오는 새초름한 발자국 소리도 들린다.

‘밥이 이제야 오는 건가?’

웃전에서 물린 밥상이 돌고 돌아 문 나인에게 오기까지 시간은 더디 갔다. 음식은 식고 섞여서 본래의 색깔을 잃은 지 아주 오래였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문 나인은 흡족하다. 입 속 가득 침이 차오른다. 소나무 껍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 나인은 자신의 이가 새까매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드므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조차도 문 나인은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손을 뻗어 물 표면에서 환영처럼 일렁이는 자신의 얼굴을

찰랑찰랑 어루만질 뿐 이었다.

발자국 소리가 멈추었다.

“나를 기억하느냐?”

“소인은 눈이 멀어 앞을 잘 보지 못하옵니다.”

“복이체는 원래 서서히 눈이 멀어 가느니라.

뜨거운 불꽃에 눈동자가 데이고, 그 막이 차츰 닳아가기 때문이니라.”

문 나인은 고개를 들어 지상의 환기창을 우러러보았다.

희뿌연 망막위로 우물 위의 물이 일렁이듯 햇빛이 일렁인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김가 막달이라 하옵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이다. 진짜 네 이름을 말해 보거라.”

“문가 여령이옵니다.”

“나를 원망 안하느냐?”

“제가 이제껏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았습니까?”

“내 오라비의 서녀 대신 네가 궁으로 들어왔느니라.”

눈물이 바짝 마른 문 나인의 눈이 햇빛 속의 목어(木魚)처럼 꾸무럭거린다.

“여기 책 한 권이 있다.

선바라밀 이니라.”

“소인은 이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어서 늘 제 때를 맞추지 못했나이다.”

“궁 밖으로 나가서 필동 학점을 찾아가거라. 단 한 권 남은 필사 본이

니, 팔아 쓰면 네 여생은 그럭저럭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을 대면
알아서 후하게 쳐 줄 것이다.

그동안, 너의 온기는 적당했느니라. 노여움도 절망도 외로움도 모두 넘
어섰느니라. 네가 지피는 불에는 여백이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한겨울에
도 구들장을 태우지 않았고, 긴 여름 장마철에는 곰팡이도 피어나지 않았
느니라, 불은 그것을 지피는 자의 성품을 따르니, 너의 불은 참으로 어질
었도다……

오늘은 백 년에 한 번씩 아궁이를 청소하는 날이다.

새 복이체가 들어서 조왕신께 예를 갖추는 날이기도 하다.

너는 부지깥이를 넘겨주고 궁을 나서거라.

나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단 한 마디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나 또한 너에게 이제껏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느니, 그 옛날 나에게
너를 팔아넘긴 사람은 바로 네 아버지니라.

내가 아니었다면, 너는 사당패에 팔려가서 평생토록 오욕의 삶을 살아
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너무 원망 말거라.”

발자국은 목련 떨어지는 소리처럼 사르르 사르르 멀어져갔다.

문 나인은 꺼져가는 아궁이를 돌위 불을 지폈다.

그리고 책 한 장 한 장을 뜯어 아궁이 깊숙이 던져 넣었다.

책을 태운 연기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글자는 마디마디로 분절되어 세
상을 떠돌리라. 선(禪)자는 허공으로 흩어지며 마지막 텅 빈 공간, 무를
향해 날아가리라. 있음과 없음이 그렇게 홀연히 서로를 껴안고 그 경계는
열어지리라. 이승과 저승이 새가 앓은 동안, 눈 한 번 깜빡이는 것임을 아

흔 노인은 이제 알아차리리라.

사람 인(人)은 입 구(口)를 뚫고 나와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가리라.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감옥이었음을 그 때 수인(囚人)은 비로소 알아차리리라.

어느 날이었던가.

문 나인의 아버지는 책을 빌리기 위해 사당패를 찾았었다. 놀부는 무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대신 문 나인의 아버지가 무대에 섰다. 따로 대사를 외우지 않아도 문 나인의 아버지는 흥부전의 토씨 하나까지도 이미 다 외고 있었다.

“고초장 된장 간장 땃장…… 아이고, 아니로구나.

초장화 장화초 아이고, 이것도 아니로구나,

이것이 무엇일까?

방장 천장 구들장.

아이고, 이것도 아니로구나.

이것이 무엇일까? 갑갑하여 못살겠네.”

사람들이 와락, 웃음을 터트렸다.

“화초장! 화초장!”

앞에 앉았던 아낙이 답답하여 소리쳤다.

그러나 문 나인의 아버지는 끝까지 못 들은 척 했다.

“화화장. 초초초장. 땃장. 아이고, 이것도 아니로다.”

“화초장이라니까! 화초장! 아이고, 답답해서 나 죽어 볼것네.”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 질렀다.

와아아. 다시 웃음이 흐드러졌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문 나인의 아버지는 화초장을 지고 뒤통거리며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갔다. 오래된 화초장은 햇빛 속에서 터무니없이 화려했다. 분홍과 노랑의 목단 송이는 늙은 기생의 치맛자락처럼 화려했다. 목단 송이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새는 하늘을 향해 부리를 올리고 있었다. 햇빛이 날카롭게 새의 부리를 물고 지나갔다.

“아궁이는 항시 방보다 낮아야 하니, 방을 향해 정성껏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가 바로 아궁이의 자세니라.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두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제 분수와 도리를 알기 때문이다. 아궁이는 무엇이든 말없이 삼킬 뿐 도로 뱉어내는 일이 없으니, 이것 또한 아궁이의 미덕이니라.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말로 뱉을 때, 구들장은 그 말을 날날이 돌판에 새겨 지옥까지 짊어지고 간다 했느니라. 구들의 귀는 밝아서 금방 따뜻해지고 또 금방 차가워지니, 아궁이의 불은 아흔 노인의 눈꺼풀과도 같으니라. 아침잠은 이승에 두고 저녁잠은 저승에 두어도 눈꺼풀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나니, 구들장의 온기 또한 그러해야 한다.

해를 향해 높이 서 있는 굴뚝은 하늘로 통하는 하늘 문(門)이니라.

구들장을 돌아 나온 연기를 신선계로 인도하는 통로이니라. 그러하니, 수시로 하늘의 기색을 살피고 저어하여라.

날아가는 연기는 나무의 혼령(魂靈)이다. 살아, 습함이 많았던 나무의 령(靈)은 불 지피는 자의 눈물을 거두어 같이 가는 법이니, 맵다고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 살아, 뒤틀림이 많았던 나무의 령(靈)은 제대로 뿌리 뻗지 못한 큰 바위 근처의 나무이니라. 그 연기의 형상은 흡사 승천하지 못한 못의 이무기와도 같이 구불거리 느니라. 살아, 잔가지가 많았던 나무의 령(靈)은 하늘 높이 솟지 않고 옆으로 길게 드러누워 노을처럼 퍼지

느니라……”

문 나인의 팔을 붙잡고 선 공녀는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문 나인의 흐릿한 눈동자 속으로 새 한 마리가 아주 짧게 스치고 지나
갔다……



수상 소감

대구광역시 교육청

김철구



아침햇살이 유난히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상 중에 가끔은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살면서 한권의 책을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힘을 내서 좋은 글 쓰도록 스스로를 고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남편의 소설을 읽어준 아내와 함께 글을 쓰는 대구교육청의 문학동아리 '문향'의 문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에서 나오는 지시에 남자는 순순히 반응하고 있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저택의 1층에서는 시끌벅적하게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남자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의 푸른빛 유리로 된 동굴이 남자를 맞았다. 남자는 이 복도를 통과할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 푸른 조명이 몸에 닿을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끼쳐왔다. 사장은 그곳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공간이라며 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라고 자랑을 하곤 했다.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자 커다란 서재 겸 사무실이 나왔다. 거기에서 남자의 친구인 K사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K사장은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최고의 수집가이자 분석가로 통했다. 그는 창업을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월매출 1억이 넘는 회사를 만든 CEO로 소문이 나있다.

S회사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남자는 신도시인 데이터 벨리에 새로운 지점이 생기면서 전출을 왔다. K사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남자가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학연과 지연이라는 두 가지 인연과 함께 믿을 만한 컴퓨터 수리공이 필요했던

K사장과 보다 많은 수입이 필요했던 남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K사장은 남자에게 데이터 검색로봇으로 자료를 모아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그 대가로 서비스센터에서 받는 월급의 두배가 넘는 돈을 받았다.

“다 끝났어.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한번 돌려봐.”

K사장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스타게이트의 문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K사장이 마우스를 클릭할 때 남자의 손가락도 살짝 떨리며 까닥거리며 마우스를 누르는 동작을 따라했다. 순식간에 수 백 만개의 데이터들이 파란 모니터에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 채 일본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남자는 모니터에서 ‘TRUE 0, FALSE ALL’이라는 문구를 읽을 수 있었다.

“오늘도 건질게 없네. 아 참 수고했어. 괜찮으면 아래에서 칵테일 한 잔 하고가! 난 급한 일이 있어서.”

K사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 하나를 내밀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K사장의 방에서 나와 1층으로 향했다. 1층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끄럽고 북적거리던 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귀가 아파왔다.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했으나 들리지 않았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어제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예약해 두었다가 급한 일로 다녀오지 못한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다. 계속 꿈을 꿔다. 어떤 날은 K사장의 방문 앞에 있는 그 파란 복도에 서 있기도 했고, 스타게이트에 나오는 시간여행자의 문 앞에 서 있기도 했다. 어떤 때는 즐겨하는 게임의 캐릭터들이 남자의 옷을 입고 버티고 서 있었다. 꿈을 꾸는 밤이면 늘 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어지러워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통증도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남자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 1층 홀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술잔이 부딪치는 소리, 포크가 접시에 닿는 달각거림, 컵에 물 따르는 소리, 소시지가 오븐에서 툭툭 터지는 소리, 바람에 커튼이 날리면서 창문에 부딪치는 작은 소리까지도 들렸다.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주위를 빙 둘러보니 홀 가운데에 하얀 손가락으로 붉은 포도주잔을 든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자와 텍시도 차림의 나비넥타이를 한 남자들이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무슨 판토마임 대회라도 열린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남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귓속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왔다. 남자는 구역질을 참으며 베란다로 나왔다. 아직 다 차지 않은 상현달이 하늘에 하얗게 떠 있었다. 그 때 베란다 끝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내 귀가 왜 이러지?”

여자가 베란단의 가장자리에 서서 수영장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자신의 귀를 툭툭 치고 있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남자의 옆을 지나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남자는 길을 비켜주며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잠깐만요.”

여자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난, 내 귀가 먹었나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쪽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남자는 두 손을 들어 여자를 안심시키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 저도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요?”

여자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여자는 놀란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는지 남자를 쳐다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거렸다. 남자에게 그녀의 눈빛이 어쩐지 익숙했다. 진한 갈색의 깊고 큰 눈이었다. 남자는 K사장에게 올라가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마지막 그의 눈빛이 그 생각을 포기하게 했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그 집을 나와 레온 스트리트를 걷고 있다. 사람들은 데이트 벨리에 새로 생긴 길을 레온 스트리트라고 불렀다. 남자는 K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하루 더 빌릴 수 있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만 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침묵이란 오히려 내뿜어지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말보다 침묵이 강하다. 그러나 때로는 가벼움을 위해 침묵이 깨어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여자였다.

“길이 노랑네요.”

밤이 깊어질수록 레온 스트리트의 노란 나트륨 가로등이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그러네요.”

남자도 침묵이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답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며 물었다. 조금 전에 만난 두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긴 침묵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집에 가야지요.”

남자는 무뚝뚝한 대답이 점연쩍었는지 여자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제 저녁 그 파티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상실증. 이 말도 방금 생각났어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누구이고, 집이 어디인지 또 내가 거기에 왜 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이름은 헤민이에요. 정헤민……. 아마 그럴 거예요. 아까 주민등록증에서 내 사진과 이름을 봤어요. 아 거기에 주소도 있겠네요. 그럼 집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쪽은요?”

여자가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남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남자는 이 여자를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 이런 나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건 건망증이 아니겠지요? 꿈에는 가끔 제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기는 했는데…….

남자는 가로등 아래에 주저앉았다. 여자는 가로등 불빛을 찾아 날아온 불나방들을 피해서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남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머니에서 뭉가를 꺼냈다.

“아! 제 이름은 김성훈인가 봅니다.”

남자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운전면허증을 지갑에서 꺼내어 보여주었다. 여자는 남자를 한참 쳐다보다가 그녀의 명함을 지갑에서 꺼냈다.

“이 주소를 찾아가 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좀 주실래요?”

남자는 여자의 명함을 받아 들었다. 명함에는 ‘디자이너 정헤민’이라는 은박의 글씨와 함께 휴대폰 번호와 메일 주소가 또렷이 적혀있었다. 여자의 집은 신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구도심에 있었다. 남자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집을 못 찾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남자가 다시 여자에게로 갔을 때 여자는 파출소 앞 가로등 아래서 경계석을 툭툭 차고 있었다. 주소를 들고 이십분이 지나서야 콘크리트로 된 2층 건물 앞에 갈 수 있었다. “혹시 열쇠는 있어요?”

여자가 핸드백 안을 살폈다. 핸드백 속에서 보라색 립스틱이 튀어나와 바닥으로 떨어져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갔다. 여자는 힐끗 쳐다보더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 다시 핸드백 속으로 눈을 돌렸다. 남자가 따라가 립스틱을 주웠다. 여자가 핸드백에서 몇 개의 카드를 꺼내 차례로 현관에 대자 어느 순간 잠금장치가 스르륵하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가 문을 밀자 현관 천장에 달려있는 노란 전등이 환하게 두 사람을 반겼다.

“그럼 전 가 볼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다.

“아……. 괜찮으시다면 잠깐 들어왔다가 가세요.”

여자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남자를 쳐다봤다. 집안은 호텔 객실 같았다. 카드를 현관 옆 키홀더에 꽂자 이곳저곳에서 불이 밝혀졌다. 형광등 하나만으로 사는 남자의 집과는 판판이었다.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여자가 마실 것을 가지러 부엌으로 가자 남자가 물었다.

“네. 그러세요. 그런데 좀 느려요.”

여자는 남자에게 창 오른쪽에 책이 뺑뺑이 꽂혀있는 책장 옆에 있는 컴퓨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서재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책들이 주로 꽂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꿈의 해몽’, ‘빼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라는 제목의 책이 남자의 눈에 띄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꾸 꿈을 이야기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남자가 검색창에 ‘갑자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대답들이 화면에 우르르 몰려나왔다.

‘이통치통’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귀가 아프시다구요? 이통치통이비인후과로 오세요.’ 그리고 ‘이어폰 함부로 쓰면 귀를 망칩니다.’, ‘보청기는 대국보청기입니다’라는 글들도 보였다. ‘KOKO69’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귀를 잘못 애무할 경우에 오는 부작용입니다. 치료를 원하면 [\\$\\$\\$\\$.69.com](http://$$$$.69.com)을 눌러주세요.’ 등 이상한 글들이 쏟아지거나 야릇한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그 이외에도 ‘토끼 귀나 당나귀 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국경 없는 이비인후과’, ‘귀 아픈 사람들을 위한 힐링’, ‘귀 소본능’ 등 갖가지 이름의 카페들도 있었다.

그러던 중 남자가 ‘소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카페를 클릭하자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점점 밝아지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고 했으나 다른 내용은 멤버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남자는 서둘러 회원가입을 시작했다. 가명으로 가입을 시도했으나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실패하고 나서 포기하려는데 여자가 다가왔다.

“아! 아까 우리가 겪은 일 때문에 좀 알아보려고요.”

“뭐라도 찾았어요?”

“아니 아직,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을 것 같네요.”

남자는 회원가입에 실패한 카페를 다시 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신이 듣지 못한 소리를 찾아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남자는 다시 회원가입을 시작했다. 여자가 내어 온 차는 다 식은 채 겨우 열은

수증기를 찾잔 주위로 흘리고 있었다. 회원가입이 끝나자 조금 더 카페의 정체를 알만한 자료들이 나왔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인포히스테리] 또는 [정보카오스증후군]으로 불림.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 아직 사회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극히 적음. 인터넷의 과다한 정보에 너무 노출되어서 생기는 정신질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함.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이 극히 떨어져서 정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카테일효과와 비슷함. 카테일파티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성의 소리만 유독 분명하게 들리는 현상. 주요 증상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음성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신호가 아닌 소음으로 인식함. 예외적으로 함께 오래 생활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는 그 사람의 음성 주파수가 이미 인지되어 있어 신호로 구분해 낼 수 있음. 대개 기억상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됨. 보통은 최초 증상이 발생하고 12시간 동안 지속됨.

치료법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모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매체와 접촉을 피할 것.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는 최초에 증상이 발생했던 곳으로 가서 다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해 볼 것. 가까운 사람과 가능하면 동행할 것. 12시간을 초과하는 기억의 상실은 매우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이 카페의 매니저와 상의 바람.

여기까지 읽고 나자 두 사람은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이 카페의 글이 사실이라면 열 두 시간 동안 우리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옆에 서있던 여자가 ‘이제 어찌지요?’하는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우선 열 두 시간이 지나봐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 글이 사실이라면 기억은 회복되었지만 혹시 안 그러면 어찌죠? 사실 전에도 가끔 밤에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귀가 들리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남자는 다시 귀가 아파오는 것 같아 얼굴을 찡그렸다.

“어쨌든 열 두 시간이 지나면 이 글이 사실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글대로라면 아마 우리는 전에 서로 알던 사이라야 될 것 같은 데……. 어쩐지 익숙한 거 같기도 해요.”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찾아내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남자는 멍하니 컴퓨터를 쳐다보다가 컴퓨터와 접촉을 피하라고 했던 카페의 글이 생각났는지 컴퓨터를 꺼버렸다. 그리고는 ‘컴퓨터와 접촉은 피하라면서 인터넷 카페는 왜 만들어 놓은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 컴퓨터 옆에 있는 프린터에서 남자가 조금 전 캡처한 화면이 출력되어 나왔다.

“혹시 몰라서 카페의 주소와 연락처를 출력했어요. 도움이 될지 모를 것 같아서요.”

남자가 프린트된 종이를 여자에게 내밀었다.

“이제 가볼게요. 혹시 열 두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연락하세요.”

다시 머리가 아파왔다. 아침이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있다.

꿈을 꾸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나온 명함을 바라보며 무언가 기억해 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잊어버린 꿈

은 기억하려 할수록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식탁위에 놓인 알약을 한 움큼 삼켰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다. 어제 다녀온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야 하고, K사장에게 보낼 자료들도 정리해야 했다. K사장에게 보낼 자료들이야 검색로봇이 찾아줄 테지만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건 귀찮았다. ‘고객님!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매우 만족 부탁드립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항상 속을 뒤틀리게 했다. 남자는 컴퓨터를 켜고 습관처럼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다.

‘참 그 트위터에 이상한 글을 올린 축구선수는 악플로 고생하겠지?’, ‘이번에 마약을 했다는 인터걸은 뭐라고 변명을 댔을까?’, ‘인터걸이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했는데?’, ‘참! 아까 축구선수 트위터부터 봐야지’, ‘중국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던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서남아시아의 에볼라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은 뭐지?’ 남자는 궁금한 것이 많았다. 찾아보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다. 몇 시간째 컴퓨터에 앞에 앉아 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난 것을 빼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컴퓨터를 수리하러 다니면서도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세하게 알아냈다. 그리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다. 그뿐 아니라 K사장이 말하는 빅데이터도 모았다. 사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냥 컴퓨터에 설치된 검색로봇만 실행시켜 놓으면 알아서 검색해서 저장했고 K사장에게 일주일에 한 번 가져다주면 그만이었다. 왜 그 일을 자신에게 시키는지 남자는 묻지 않았다. 그 일은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K사장은 그날이면 항상 자기 집에서 칵테일파티를 열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었다. 다시 몇 시간이 지나갔다. 남자는 배가 고팠다. 그 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가 들렸다. 초인종이 낙뢰에 고장 난 것을 고치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문밖에 어떤 여자가 서 있다. 겨우 손잡이를 잡았을 때쯤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귀에 익다.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현관문도 사라지고 문밖에 서 있던 여자도 사라진다. 남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여자는 남자를 겨우 거실 바닥에 눕혔다.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렇다! 성훈이가 틀림없어. 김성훈’ 여자는 자기가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가 어릴 적 담장 너머로 꽃을 던지고 달아나곤 하던 산곡리의 두 살 아래 성훈이라고 확신했다. 팔에는 장미가시에 찢린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어제 밤에는 왜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남자는 눈을 떴다. 옆에 누가 앉아 있다.

‘그녀다. 어제 저녁에 그 파티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목소리를 들려준 그녀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왔을까?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성훈아! 성훈이 맞지?’

여자의 손길이 남자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남자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햇살이 골목길에 내려앉고 있다. 따뜻한 바람이 분다.

일곱 살 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대문 앞에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다. 남자 아이 하나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온다. 남자 아이는 여자 아이를 보면서 걷는다. 여자 아이의 옆을 스치듯 지나간다. 남자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걷고 있다. 엄마도 같이 돌아본다. 엄마가 아이의 어깨를 돌려서 골목 끝으로 간다. 하나, 둘, 셋, 넷 여자아이의 집과 남자 아이의 집 사이에 네 개의 대문이 더 있다. 끼이익~ 대문 여는 소리와 함께

골목도 집도 사라진다. 대문만 남아 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대문, 스타게이트……. 남자 아이는 대문을 밀었다. 대문을 밀어내자 여자 아이가 서 있다. 손에는 빨간 앵두가 소복이 쌓여있다. 남자 아이의 침 삼키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진다. 다시 골목길이다. 교복을 입은 남자 아이 하나가 대문 앞을 서성인다. 자전거가 옆에 서 있다. 담장 너머로 능소화가 피었다. 나비 몇 마리가 앉지 못한 채 주변을 배회했다. 축축하게 습기가 얼룩을 매긴 담 자락에 펼쳐진 나뭇가지처럼 양손을 하늘로 펴고 매달린 듯 피어있다. 남자 아이의 손에 꽃이 들려있다. 빨간 장미다. 담장 너머로 꽃을 던진다. 꽃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꽃비가 되어 내린다. 집 마당과 대문과 골목까지 빨간 장미꽃잎이 흩날린다. 골목길로 꽃상여가 지나간다. 하얀 종이꽃을 달았다. 남자 아이의 손에는 검은 액자가 들려있다. 여자 아이가 대문을 열고 나와서 그 광경을 본다.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의 눈이 마주쳤다. 남자 아이가 고개를 숙인다. 상여가 멀어져 간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비좁은 골목을 겨우겨우 느리게 지나고 있다. 운전석 옆 자리 조수석에 남자 아이가 타고 있다. 남자 아이는 차가 조금 더 느리게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의 집이다. 섬돌 아래 하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남자는 눈을 떴다.

옆에 그녀가 앉아 있다. 깜짝 놀라서 황급히 일어났다.

“어떻게 여기에…….”

남자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여자를 향해 물었다.

“너 김성훈 맞지? 산곡리에 살던, 난 그 능소화집의 정혜민이야. 모르

겠어?”

남자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녀를 어제 저녁 카테일파티에서 만났을 뿐이다. 열 두 시간이면 기억이 회복될 거라고 했다. 운전면허증의 주소를 보고 집을 찾아왔었다.

“혹시 다시 컴퓨터로 뭘 했어?”

여자가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다그치듯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위협적이다시피 한 여자의 반응에 놀라 컴퓨터가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여자는 체념한 듯 남자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남자는 여자가 내미는 종이를 받아서 읽어 내려갔다.

정보카오스증후군의 주의사항

1. 기억이 회복된 후에는 24시간 이내 인터넷 접속을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기억상실이 재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런 경우 기억상실의 증상은 24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장기 기억 뿐만 아니라 단기기억의 손실도 예상되며 기억이 회복되더라도 3~5일 주기로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함. 방문요망)

그리고 그 끝에는 매니저의 연락처가 덧붙여져 있었다.

“그런데 헤민씨… 맞죠? 헤민씨는 괜찮은가요? 기억이 돌아왔나요?”

남자는 여자가 내민 종이를 다 읽고 나더니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보며 물었다.

“난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열 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하던… 그런데 아마 성훈씨는 문제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저

컴퓨터 때문에, 아...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해요. 지금은 성훈 씨의 기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 카페의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는 여전히 웅웅거리는 컴퓨터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런데 자꾸 꿈을 꿉요. 꿈을 꾸고 나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지금은 좀 나은 편입니다. 자꾸만 어떤 골목길을 지나가는 꿈을…….”

남자는 눈빛을 흐린 채 혼잣말 하듯 말을 흐렸다. 여자가 카페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자 한 시간 쯤 후 검은색 승용차 한대가 아파트 아래로 왔다. 여자와 남자는 자동차 뒷자리에 타고 난 후 기사가 준 안대로 눈을 가렸다. 그 장소를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치료조건의 일부였다. 차가 도착하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신사가 남자와 여자를 맞았다. 치료실의 지하 한쪽 모퉁이에는 세 대의 커다란 컴퓨터가 검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가운데의 한 대는 좀 더 컸다. 기계를 작동시키자 별떼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처럼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는 상자처럼 생긴 그 방에 들어온 순간 얼마 전 읽은 책인 ‘빠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 나오는 맥 머피가 떠오르는 바람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혹시 이거 ECT는 아니겠지요?”

“아! ECT를 알고 계시다니 놀라운데요? 아마 좀 비슷할 겁니다.”

매니저는 두 손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채 두 사람을 안심시키려든 듯 대답했다. 매니저는 ‘빠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책이 영화화 되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가져온 부정적 이미지들과 ECT(전기충격치료)의 긍정적 기능과 사례들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다.

“ECT의 치료과정에서의 전기충격 때문에 기억상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바로 회복됩니다. 임상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지요. 제 환자 중에 ECT의 치료과정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기억이 더 정밀해지고 또렷해지는 사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기억상실 환자에게 ECT와 동료연상법을 함께 적용해서 기억상실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어떤 병원에서도 믿어주지 않더군요. 아마 여기서 치료하고 나간 사람이 열 명은 넘을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그 만두셔도 됩니다.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이제 보고 싶지도 않겠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매니저의 이야기를 마치 동시 통역사처럼 전해주었다. 매니저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기억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는 카페에서도 보셨겠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각태일효과와 비슷합니다.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인 ‘신호’와 이를 방해하는 ‘소음’을 잘 분리해야 하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기를 반복하다 보면 소음 때문에 신호를 분리해 내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신호를 거부해버리게 되죠. 그럼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소리를 다시 들려면 최초로 그 일이 발생했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장소에서 소리를 채집해서 다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장비가 그것을 도와 줄 겁니다.”

매니저는 가운데에 웅웅거리는 커다란 컴퓨터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컴퓨터의 모니터에는 작은 벌들이 8자를 그리며 퇴비우스의 띠를 돌듯 화면 위를 설 새 없이 돌고 있었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전기충격기와 컴퓨터로부터 나온 검고 하얀 줄이 남자의 머리에 연결되었다. 남자는 그 모양이 흡사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몸을 꼬면서 승천하는 모양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에게는 어떤 형태이든 구원자가 필요했다. 혹시 모를 충격

에 대비해서 남자는 수면상태로 들어갔고 몸은 침대에 결박되었다. 여자의 머리에도 하얀 두 갈래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매니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빨갭게 생긴 부저 하나를 지그시 눌렀다. 가끔씩 남자의 몸이 침대에서 들쭉거리며 작은 경련을 일으켰다. 가운데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벌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웅웅거리는 소리도 점점 커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빠~’하고 부저가 울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남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다. 여자의 발 앞에 멈췄다. 여자 아이는 땅바닥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있다. ‘너는 김성훈이야’ 남자 아이가 대문을 열었다. 여자 아이가 서 있다.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를 보고 말한다. ‘너는 김성훈이야’ 하늘에서 장미꽃이 쏟아진다. 꽃상여가 지나간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 한 대가 골목길을 빠져나간다. 여자 아이가 손을 흔든다.

매니저가 머리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선을 떼어내자 여자가 먼저 눈을 떴다.

매니저는 여자가 쉽게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말했다.

“혜민씨가 오래 전 기억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치료가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 분은 아마 한동안 잠을 잘 겁니다. 깨어나면 기억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알겠지요. 여긴 제가 있을 테니 전에 소리를 잃어버린 곳에 가서 소리를 좀 녹음해 주시겠어요?”

매니저가 조그마한 녹음기 한 대를 내밀었다.

“성훈이는 괜찮을까요?”

여자는 자기의 입에서 남자의 이름이 튀어나왔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매니저를 쳐다보았다. 매니저는 대답 대신 웃어보였다. 어

췌든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기억을 잃은 지 5일이 지났다. 다시 토요일이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원래 소리를 잃은 그 자리에 성훈이가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자가 누워있는 남자를 보며 말했다.

“아마 내일 아침까지는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회복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자는 저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어둠이 레온 스트리트로 몰려오고 있었다. 저택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날과 같이 북적거렸다. 홀 가운데서 K사장이 일장 연설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초대용량의 데이터 양, 다양한 형태, 빠른 생성 속도에 가치를 더하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져오는 데이터에 최고의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이고 부의 원천입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사할 것입니다.”

갑자기 여자는 그 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여자는 매니저가 준 소리채취기를 홀 가운데에 있는 조각상 아래에 올려놓았다. 그 때 까만 셔츠차림의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왔다. K사장이었다.

“지난주에는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지?”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안으며 이야기했다. 여자는 남자의 손길에 몸을 움찔했으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다시 자료를 좀 모아줘야 할 것 같아. 오늘 그 친구가 오지 않았어. 연

락도 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다음 주까지 자료를 구해와. 좀 급하게 됐어. 필요한 사항은 메일로 보내놓을게.”

남자가 여자에게 다짐을 받아야겠다는 듯이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 했지만 격앙되어 보였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파티를 계속했다. 한 두 사람이 K사장이 지나갈 때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그저 그런 이야기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여자에게는 누구도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는 베란다로 나왔다. 건너편에서 성훈이 자기를 부를 것 같았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성훈이 이사 가고 난 후 K가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 동네에서는 성훈과 동갑내기였던 K를 제외하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동쪽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레온 스트리트는 노란 나트륨 가로등에 달빛이 섞여 길은 샛노란 은빛으로 빛났다.

여자는 저택에서 나와 가로등 아래 기다리고 있던 차를 탔다. 안대를 가리고 있긴 했지만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이십 미터에서 우회전 후 바로 좌회전, 십 분쯤 지난 후 신호대기 그리고 이십분 정도 직진 후 우회전, 다시 이십 분에서 삼십 분 정도 직진’ 그렇게 세다가 여자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운전수가 여자를 깨웠 때는 이미 건물 앞이었다. 운전수의 안내를 받아 다시 그 치료실로 돌아왔을 때까지 한 시간 삼십 분쯤의 시간이 지났다.

남자는 이제 잠에서 깨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여자가 들어오자 반가운 듯 활짝 웃으며 여자에게로 걸어왔다.

“나 이제 돌아왔어요. 완벽해요. 산곡리 능소화집 맞죠? 와 세상 참 좋아요.”

남자는 흥분한 표정이 역력했다. 여자는 남자의 반응이 의외로 단순하고 어딘지 들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니저는 잠시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을 불렀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으니 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저의 존재는 비밀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떡거린 후 남자와 차에 올랐다. 두 눈에는 다시 안대가 씌워졌다. 여러 가지 의문스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었다.

여자의 2층 집 출입문 아래에 조간신문과 함께 우유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여자는 2층 주택이 아닌 1층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는 여직원 한명만 남아있었다.

“성훈아! 먼저 올라가 있어. 난 사무실에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금방 올라갈게.”

여자가 남자에게 열쇠카드를 내밀었다. 남자는 갑자기 여자가 이름을 불러서 당황스러운 듯 카드를 받아 잠시 머뭇거리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여자의 집 거실에 있는 동그란 원, 그 원은 여자가 터키 여행에서 사온 양탄자였다. 가운데에는 알 수 없는 고대어가 금박으로 박혀 있었는데 꽤나 오래된 골동품 같이 신비한 느낌을 주었다. 두 사람은 원안에 놓인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소파에 마주 앉았다. 여자는 포도주를 한 병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정도이다. 두 사람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기억이 잠깐 머릿속 어느 저장고에 격리되어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기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 포도주잔을 마주 부딪치기 위해 둘은 허리를 앞으로 쪽 내밀었다. 그게 어색했든지 두 사람은 웃었다. 결국 남자가 여자의 곁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깨가 살짝 닿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깨와 팔꿈치가 닿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비자연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어린 날의 기억은 그들을 든든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여자는 포도주잔을 비웠다. 그리고 다시 포도주잔을 내밀어 남자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받았다. 여자는 남자가 산곡리를 떠난 후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집에 대한 그리고 K에 대한 이야기, 어른이 되어서 다시 K를 만나고 그와 같이 일하게 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여자가 K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눈 끝이 파르르 떨렸다. 남자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술 대신 차가운 물을 연신 마셔댔다.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남자는 여자를 침대에 눕혔다. ‘혜민 누나’ 이제는 누나라는 말이 쑥스러웠다. 누나가 여자로 보였다.

자정이다. 하루가 바뀌는 시간, 초침이 딸깍하고 수직의 경계를 넘어서면 다른 날이다. 그 딸깍거림으로 하루가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해가 달라진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징검다리를 건너듯 다른 마음을 가슴에 품는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 3차원의 시간의 세계에서는 사실 딸깍거림이 필요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 늘 연속되는 시간의 긴 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경계란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경계라는 것이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분별력 없는 인간이 그 자신의 한계인지도 모르고 만들어 놓은 웅덩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면 무슨 새로운 세상이라도 눈앞에 열리는 마냥 들뜨는 것은 할 수 없다. 낮이면 정신이 몽텅하여 생각, 기억, 감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자정 즈음이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그런 인간의 세계에 길들여

저 왔기 때문이다. 긴 하루가 지나고 길어질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숨 가쁘게 달려가야 할지 모를 그 하루의 경계에 남자는 서 있다. 남자는 여자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것을 한동안 쳐다보다가 소파에 몸을 눕혔다. 천장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남자는 깜깜한 골목길 앞에 서 있다.

골목길의 건너에는 그녀가 서 있다. 발밑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했던 골목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방에서 빛이 쏟아지며 환해졌다. 새하얗게 빛나는 광물로 만들어진 벽은 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까만 대리석이 반짝거렸다. 어디에서인지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날아와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점점 더 크고 복잡한 소리로 엉켜서 주파수를 찾기 못한 AM라디오처럼 뻑뻑거리는 소리로 골목이 꽉 찼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이 골목 안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귀를 막고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길 건너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성훈아, 성훈아” 남자는 여자가 부르는 소리를 소음들 속에서 골라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남자가 눈을 떴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다.

누나가 창가에 서 있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헤민 누나와도 헤어져야 한다.’ 남자는 그런 생각이 들자 이대로도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좋아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소음에 불과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누나가 고마워서.”

“뭐? 누나라고? 하하 그렇게 부르니 이상하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 헤민씨라고 부르기도 그렇잖아.”

여자도 남자가 그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오늘 어디 산책이나 갈까? 치료는 내일하기로 했으니 오늘 하루 쉼은 어딜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 먹을 것도 없어.”

남자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가족이라고는 없었던 그에게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그의 친구는 컴퓨터와 기계뿐이었다. 차는 5번 국도를 내달려 어느 산골에 도착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늘 꿈에 보이던 골목길에 사내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골목은 하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흙벽돌로 이어진 골목길은 시멘트 블록으로 바뀌었다.

“뭐 생각나는 게 있어?”

“저기 누나가 있었지.”

“너희 집은 저 위쪽 있었어. 넌 늘 우리 집 앞을 지나갔지.”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골목이 우리를 기억할까?”

여자가 남자를 쳐다봤다. 남자는 가만히 여자의 손을 잡았다. 여자가 기대어 왔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다시 침묵이 시작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다시 그 치료실에 와 있다.

남자가 침대에 누워있고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있다. 매니저는 웅웅 소리가 나는 컴퓨터에서 나온 검은 케이블을 남자의 귀를 덮고 있는 커다란 헤드폰과 연결했다. 매니저와 여자도 헤드폰을 하나씩 쓰고 있다. 매니저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소리가 초록색 파동으로 모니터에 나타났다. 헤드폰으로 저택의 파티장에서 녹음된 소리들이 들렸다. 피아노 소리, 샴페

인 병 따는 소리, 잔이 떨어지는 소리, 구두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들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함께 들렸다. 남자는 오랜만에 듣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공포감을 느꼈다. 남자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그 공포를 이기려 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속에서 소음과 신호를, 주변 음과 사람의 말을 구별해 보려고 애썼다. 남자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출렁이던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파동이 규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헤드폰에서는 이제 소리가 나누어서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소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 걸려져 나와 남자의 귀로 들렸다. 나머지는 모두 소음으로 들렸다.

“지난주에는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지?”

“다시 자료를 좀 모아줘야 할 것 같아. 오늘 그 친구가 오지 않았어. 연락도 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다음 주까지 자료를 부탁해. 필요한 사항은 메일로 보내 놓을게.”

K사장의 목소리였다. 여자가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괴롭다는 듯이 몸을 흔들었다.

“할 수 없었어요. 현재로서는 환자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신호는 K사장의 목소리입니다.”

매니저는 여자에게 헤드폰을 벗으라고 손짓하더니 단호하게 이야기 했다.

“이제는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혹시 전처럼 다시 기억상실증이 재발하면 연락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매니저는 남자에게서 헤드폰을 벗기고 팔에 주사를 놓았다. 진정제였다. 여자는 자기도 진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남자와 여자는 오랜만에 산을 향했다.

모처럼의 등산이라 옷도 신발도 새로 샀다. 마치 두 사람은 신혼부부의 여행길에서처럼 커플룩을 입었다. 산 보다 좋은 치료법은 없다. 자연 속에서는 소음이 없었다. 모든 소리가 치료제요 안정제였다. 그래서 소음과 신호를 구별할 필요도 없어졌다. 오늘 그들에게 유일한 소음원은 라디오 하나였다.

마침 라디오에서는 어제 저녁에 터진 희대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몇 시간째 보도하고 있다. 능력 있는 빅데이터 분석가이자 CEO로 알려진 K사장이 사실은 자신의 돈과 명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와 기업의 부당거래자료 등의 블랙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업에 이용하거나 기업과 사채업자들에게 음성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체포되기 직전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인터폴 및 중국 경찰과 공조하여 수사하고 있지만 중국이 너무 넓어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어떤 익명의 여자의 투서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아마 K사장과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성 기사를 내놓았다. 함께 잡힌 ECT정신병원의 정신과의사였던 Y모씨는 D메트로폴리스의 산속에 무면허 의료시설을 지은 뒤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다가 검거되었으나, 며칠 전 자신의 시술로 위기에 처한 환자를 치료한 환자가 있었다며 자신은 사실 K사장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십 년 전에 모 텔레비전 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최면술사로 출연한 적이 있었고 그 일로 일하던 ECT정신병원에서 해고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남자가 여자의 손을 끌어당겨 나무 그루터기에 앉히며 물었다.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가 있었어. 그 파티에서도 그리고 그 치료실에

서도……. 치료실에서 두 번째 당신을 치료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소리를 채취한 것을 집에 복사해 두었는데 이상하게 치료에 사용한 것이 용량이 작게 나타나더라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네가 잘 때 다시 들어 봤는데 알고 보니 그 둘이 한 패였어. 너의 치료를 위해 소리를 채집하러 갔던 날 두 사람의 통화가 녹음되었던 거지. 우리를 치료해 준다고 할 때부터 의심이 들긴 했는데 두 사람이 자기들의 범죄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기억을 상실하도록 만든 거야. 알지 그 검색로봇, 그걸 쓰면 늘 우울해지고 기분도 나빠졌었잖아. 거기에 그런 장치가 있었어. 다른 게 더 있었는지도 모르지. 사실은 우리를 치료해 준 게 아니고 강한 최면을 건 것 같아. 너는 나보다 마음이 더 복잡하고 혼란한 상태여서 더 쉽게 최면에 걸려든 거지. 그리고 더 오래 최면상태에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실제로 정신병원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우린 다행이야.”

남자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난 그 친구가 고마워?”

“뭐라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었잖아. 혹시 내 기억속의 헤민이가 진짜가 아니면 어찌지?”

“아! 그건 그렇네. 그런데 김성훈씨 맞아요?”

남자는 여자의 장난이 귀엽다는 듯이 여자의 어깨를 끌어당겼다.

“그런데 그 많은 데이터들은 다 어쨌어?”

“아 빅데이터들? 저기 배낭 속에 넣어왔어. 산속에 묻어 버리려고.”

“아니, 아직 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수상 소감

의정부 민락중학교

김영완



어릴 때부터 무언가 만지작거리며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로 조립해서 완성하는 장난감 같은 것들이었지요. 그때는 얼마의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속품들로 이루어진 조립식 장난감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 그걸 조립해 맞추면 됐지요.

이제는 이야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돈 주고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재를, 인물을, 사건을, 주제를 제가 제 삶에서 직접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만지작거리어도 잘 만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잘 만들지 못한 장난감 같은, 하지만 제게는 너무 소중한 장난감이 되어 버린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음이 없는 도시

약속 장소는 한강변에 있는 공용 주차장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그곳까지 걸어오는 김민수의 티셔츠는 벌써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한 여름의 태양 빛이 한강물을 증발시켜 버릴 기세로 내리 췌다. 일이 끝나면 가장 먼저 자동차를 사야겠다고 김민수는 생각했다. 그가 주차장 구역 안으로 들어섰을 때, 검은색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한 가운데 서 있는 게 보였다.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해서인지 한가한 낮 시간이어서인지 다른 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김민수는 승용차를 향해 다가갔다. 차유리가 검게 썬팅되어 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조수석 유리창이 내려가고 안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내밀어 물었다. 김민수요, 하고 김민수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생년월일을 물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확인되자 김민수는 당연한 수순이라 여겨 뒷좌석에 타려했다. 차량은 그러나 김민수를 주차장에 남겨두고 홀로 출발해 떠나버렸다.

시간이 꽤 흘렀다. 김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작정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주차블럭 턱에 앉아 있는 그의 티셔츠는 이제 땀에 젖어 몸에 들러붙었다. 심여 미터만 몸을 움직이면 나무 그늘 아래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몸을 굳

이 돌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김민수는 문득 자신의 신체에 관해 생각해 봤다. 내 키는 몇이었던가? 몸무게는 얼마였지? 키는 175센티미터였지만 몸무게가 몇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잴 게 언제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마르거나 통통한 편이 아니었으므로 육십에서 칠십 킬로그램 사이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는 자신의 신체 부위 중 병약하다거나 질병에 감염된 부위가 있는지 생각해 봤다. 가벼운 비염과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봄이 되면 항상 휴지를 휴대하고 다녔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십대 중반인 그의 몸은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언제 나타났는지 검은색 승합차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승합차는 곧장 김민수 앞으로 다가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자 김민수는 그것이 자신이 타야 할 차라는 걸 알아챘다. 아무런 말도 신호도 없었지만 그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15인승 승합차 안에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 다섯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었다. 방금 차문을 열었던 젊은이만이 맨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 젊은이가 김민수에게 눈가리개를 건넸다.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김민수는 자신도 눈을 가려야 한다는 걸 알아챘다. 김민수가 눈가리개를 착용하자 승합차가 출발했다.

김민수가 약속 장소인 주차장으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여자 친구를 만난 일이었다. 평소와 다르게 그는 여자 친구와의 약속 장소를 정하느라 며칠을 두고 고민했다. 그가 고민 끝에 여자 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그의 대학 캠퍼스였다. 그런 그의 결정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을 붙잡고 싶은 막연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그도 모르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되자 멀리서 나타난 여자 친구가 노천극장으로 걸어왔

다. 김민수는 그런 여자 친구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사로 잡혔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인 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서로를 원하며 기다렸고, 그들은 곧 만나게 될 것이었다. 김민수는 그 모습이 흔해 보이면서도 바로 거기에 인류를 지속되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음을 문득 느꼈다. 그와 동시에 김민수는 자신의 인생에도 누구에게나 그렇듯 꽃과 같은 시절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삶이 주는 공평함에 어느 정도 안도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허물어지게 될 것을 잊지 않으려 했다.

“오늘은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그리고 뜬금없이 웬 무릎 베개? 너무 고전적인 거 아냐?”

여자 친구의 무릎을 베고 누운 김민수는 질문에 별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여자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가를 꺼낼지 말지 고민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내 곧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 노천극장은 드문드문 모여 앉은 대학생들로 시끄러웠다. 저 멀리 한 무리의 대학생들 가운데 희끗한 머리카락에 멀리서 봐도 분명 노인으로 보이는 이가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노인은 대학생 무리의 한 명으로서 전혀 이질감 없이 그들과 자연스레 섞여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주고받는 몸짓과 표정, 무엇보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보이지 않는 상호 작용이 그가 무리 중 한 명이 아닐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늦깎이 학생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랬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래 보이는 심리적 거리가 나타나 보이는 법이었다. 어쨌든 노인의 모습에는 무언가 기묘한 구석이 있었다. 얼마 전부터 캠퍼스에는 것처럼 묘한 분위기의 노인 학생이 몇 명씩 생겨나고 있었다. 김민수는 노인을 한참 쳐다보다가 못 볼 거리

도 본 듯 눈을 질끈 감아 버렸다.

김민수가 탄 승합차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눈가리개를 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내렸다. 김민수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재판이 끝나 총살형장으로 끌려온 포로처럼 체념의 분위기를 풍겼다. 조수석에서 내린 중년의 사내가 젊은이들을 향해 눈가리개를 벗고 자신을 따라오라 말했다. 김민수와 젊은이들은 중년의 사내를 따라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제법 큰 건물의 지하주차장이었다. 그것 외에는 그곳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승합차 속에서 눈가리개를 착용할 때부터 김민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고의 정지.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건물의 18층이었다. 그곳은 층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병동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식 병원은 아니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김민수의 눈에 바닥에 남아 있는 파티션 자국이 들어왔다. 그곳은 아마도 어떤 회사의 사무실로 쓰이던 공간인 듯했다. 김민수와 젊은이들은 종합검진실이라는 뜻말이 붙은 방으로 들어갔다. 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그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소변을 채집하고, 혈압을 재고, X-선 촬영을 했다. 다음에 그들은 설명실이라는 뜻말이 써진 곳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역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으로부터 영호르몬과 그것을 채취하는 시술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자신을 내과 의학박사라고 소개한 그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러했다. 4년 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병원 내분비과 연구소에서는 영호르몬이라

이름 붙인 새로운 종류의 호르몬을 발견했다. 이 호르몬은 인간의 노화 속도를 조절해 젊음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관한 논문은 곧 네이처지에 ‘영호르몬: 인간이 영원히 늙지 않을 길을 열어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영호르몬과 관련된 연구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현재는 이 호르몬의 신체 작용 기전과 추출 방법까지 국제 학술지에 기재돼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연구의 진행은 거기까지였다.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용될 만한 곳은 전 세계에 250명 존재하는 조로 증 환자 치료 분야뿐이었다. 연구는 더 이상의 다른 가치는 창출해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영호르몬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려 한다. 우리는 이 영호르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와 그것을 덜 필요로 하는 이들을 중계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려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호르몬 채취 시술의 의학적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며 설명을 끝마쳤다. 설명이 끝나자 김민수와 젊은이들에게 시술 동의서와 서약서가 배부됐다. 그들은 거기에 서명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김민수는 작은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네 평 정도 되는 어둡고 작은 병실이었다. 그런 크기의 병실 수십 개가 복도를 중심으로 다닥다닥 붙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각 병실에는 침대 두 개, 곧 젊은이 두 명이 들어가 있었다. 젊은이들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자신의 시술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김민수의 옆 침대에 누운 젊은이는 늙자마자 뒹굴뒹굴 코를 골았다. 그 젊은이의 태평한 모습 때문인지 김민수는 그제야 자신의 긴장을 알아챘다. 승합차에 탄 뒤로 지금까지 이를 악다물고 있어 그 악력에 턱이 시려왔다. 김민수는 옆 젊은이의 코고는 소리에 맞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뱉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자

서서히 긴장이 녹아 내렸다.

“거기, 그 쪽은 몇 살이에요?”

김민수가 심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언제 깨어났는지 젊은이가 물었다. 잠시 망설이던 김민수는 스물다섯이요, 하고 대답했다. 잠시의 망설임은 벌써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버린 그의 나이를 떠올리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제 나이를 입 밖으로 낸 김민수는 이제는 잃어버려 찾을 수 없는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부모처럼 허망함을 느꼈다.

“나랑 동갑이네? 근데 어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야 말로 정말 막장인데.”

젊은이는 자신은 다른 처지에 있더라도 한 것처럼 해맑게 웃으며 물었다. 병실 조도가 낮아 김민수에게는 젊은이의 흰자위 눈과 웃을 때 보이는 하얀 치아만이 보였다. 김민수는 젊은이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깜빡거렸다. 그러다 언뜻 보이는 젊은이의 얼굴이 자글자글 주름진 노인의 얼굴로 보여 화들짝 놀랐다. 노인의 얼굴을 것처럼 공포스럽게 여기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것이 어둠으로 인한 착각임을 알고 안도했다.

“돈이 필요해서요. 그쪽은 아닌가요?”

김민수가 여전히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젊은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하긴 뭐 다들 그렇겠죠? 나도 참 괜한 걸 물어 봤네. 돈이 필요한 이유가 다들 뭐 천태만상일 텐데.”

젊은이가 내뱉은 천태만상이라는 말이 김민수에게는 어쩐지 야속하게 들렸다.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 자신의 젊음을 팔아 던지는 이유가 천태만상의 그렇고 그런 뻔한 이유이라는 걸 김민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김민수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 곱씹어 봤다. 아버지가 의류공장 사업 실패 후 잠적해 버렸고, 언제부턴가 채무자들이 집으로 들 이닥쳤다. 채무 상황은 고사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민수는 휴학 후 아르바이트에 열중했다. 사학과 출신인 학과 선배들은 졸업 후에도 직 장을 얻지 못했다. 김민수는 자신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결 실감해 갔다. 그럴 즈음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아버지가 객사했다 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아버지는 젊은이의 거리라 불리는 서울의 한 변화 가에서 한밤중 쓸쓸하게 숨을 거뒀다. 언젠가 TV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속 인물들은 사업 실패 후 파탄 난 가정을 뒤로 한 채 떠돌다 사망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김민 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례 를 치를 돈도 없었다. 다행히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와 구청이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그 일환으로 무료 장례를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의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채무는 민법에 따라 친족인 어머니와 김민수에게 상속되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 포 기나 한정승인제도라는 절차를 신청하면 채무 상속을 벗어날 수는 있었 다. 하지만 어머니와 김민수는 법률 지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생계를 이 어가느라 경황이 없어 기한을 놓쳐 버렸다. 아버지가 사라지자 뜸했던 채 무자들은 다시 어머니와 김민수에게 찾아왔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드러 누웠고 김민수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 되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렇게 지내던 어느 날 김민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대학 캠퍼스 화장실 벽 에 붙은 ‘영호르몬 고가에 매입합니다.’라는 스티커였다.

젊은이는 김민수가 묻지 않았는데도 곧이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여자 친구의

생일 선물로 줄 명품 핸드백을 사려고 빌려 쓴 사채 때문이었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 전에 서민경제가 어떠니, 사금융 시장 금리가 어떠니, 여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전주곡처럼 쉴 새 없이 떠들어 댔다. 나중에야 김민수는 끊임없이 떠들고 있는 젊은이가 자신보다 오히려 더 긴장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젊은이의 이야기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 병실의 문을 두드렸다. 이어서 젊은이의 이름 세 글자가 호명되었다. 젊은이는 나중에 밖에서 만나 술이나 한 잔 하자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떠났다. 김민수는 어두운 병실에 홀로 남아 곧 다가올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누군가 김민수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신체의 흔들림 혹은 시끄러운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꼭 잡힌 어깨의 결림 때문에 김민수는 눈을 떴다. 퀴퀴한 냄새가 풍겼고 사방이 어두컴컴했다. 누워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어서 일어나라고 청년이 다시 한 번 재촉했다. 김민수는 기억을 되뇌어 봤다. 눈가리개를 한 채로 봉고차에서 내렸다. 눈가리개를 벗어보니 한 밤중이었고 인적이 드문 도심의 길 한복판이었다. 어질어질했고 잠이 쏟아졌다. 김민수는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길가에 있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나온 김민수는 대형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멈춰 섰다.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었다. 예상 속에서 늙게 변할 인물은 미래의 그였지만, 이제는 현재의 그가 정말로 늙게 변해 있었다. 미래의 나, 현실의 두려움과 불만족 그리고 불확실함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가공

의 나는 진짜 자신이 아니었다. 오로지 지금 여기에 발붙이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의 나만이 진짜 자신이었다. 그런 진짜 자신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갈라진 계곡처럼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머리칼은 하얗게 섰고, 팔다리의 근육과 피부는 중력에 굴복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져 있었다. 변한 것은 신체의 외형만이 아니었다. 몸이 주는 느낌을 날씨에 빗대자면, 이전과는 다르게 시원찮고 꾸물꾸물한 흐린 날씨와도 같았다. 몸살을 앓기 직전인 것처럼 몸이 거추장스럽고 무겁게 느껴졌다. 김민수는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도 살폈다. 힘없이 축 늘어진 거무튀튀한 성기와 음낭이 퇴화된 유물처럼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듯했다.

ATM기기 앞에 선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예금확인 버튼을 눌렀다. 약속된 금액이 어제 날짜로 입금돼 있었다.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해 총 여덟 번에 걸쳐 돈을 입금해 주기로 했었다. 김민수는 화면에 뜬 0의 개수를 세어 보았다. 몇 번을 세어 봐도 틀림없이 약속된 금액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돈이 모두 입금되면 아버지의 채무를 갚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김민수는 생각했다. 그러나 김민수는 그 새로움이라는 말의 느낌이 주는 위화감에 마음이 금방 불편해졌다.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무언가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다. 도심에서 꽤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한 열다섯 평짜리 연립 주택은 채무자들의 시달림을 피해 어머니와 김민수가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이었다. 김민수는 마음을 줄이며 안방 문을 열어 보았다. 혹시나 어머니가 안에 있어 자신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행히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쓰던 이불만 덩그러니 펼쳐져 있었다.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이 시간에 집에 있던 적은 별

로 없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김민수는 베개 옆에 현금 다발이 담긴 봉투를 놓아두었다. 봉투 옆에는 앞으로 계속 갖다 드릴 거예요. 이제 일 그만두세요. 민수가, 라고 쪽지를 써 두었다.

김민수는 집 밖으로 나왔다. 마땅히 갈 곳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피약 별을 맞으며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노화 탓인지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금방 숨이 헉헉거려왔다. 하지만 예전만큼 더위는 느껴지지 않았고 땀도 별로 흐르지 않았다. 땀이 많은 체질이라 여름에는 늘 고생하던 그였다. 늙으니까 땀이 줄어서 좋군, 하고 김민수는 쓴 웃음을 지어 봤다. 걷다보니 이제는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다. 김민수는 길가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다. 시내버스 하나가 정류장 앞에 섰다. 냉방 중인 버스 안이 바깥보다 시원해 보였다. 김민수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가 버스에 오르자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가 일어나 자리를 비켜줬다. 김민수는 괜찮다고 손을 내젓고는 뒤쪽으로 갔다. 항상 맨 뒷좌석에 앉았던 습관대로 그리로 가서 앉았다.

버스는 노선을 따라 변두리에서 도심으로 향했다. 항상 보던 낮익은 도시 풍경이 차창 밖으로 끊임없이 흘러갔다. 교복을 입고 까르르 웃는 한 무리의 여고생들,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바빠 달리는 퀵서비스 배달원, 청바지를 입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 흔하디흔한 풍경들이 오늘따라 김민수에게는 유난히 활기차게 보였다. 김민수는 혹시 자신의 노화 때문에 그만큼 세상이 상대적으로 활기차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다. 그러다가 곧 삶의 속도와 그 속도로 인해 달라지는 시간의 개념에 관한 상념에 빠져들었다. 여고생의 한 시간, 젊은 엄마의 한 시간, 그리고 늙어버린 자신의 한 시간이 결코 같은 한 시간일 수는 없을 듯했다.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이 삶에도 적용되는 것만 같았다. 노인이 된 자신의 한

시간은 젊은이들의 한 시간보다 짧은 게 틀림없어 보였다. 젊은이들의 활기가 시간의 효용성을 높여 결국 시간을 확장해 버리는 마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김민수는 지금 버스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자신과는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존재처럼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도심으로 들어온 버스가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로 유명한 공원 앞을 지나갔다. 김민수는 공원을 보자 무언가에 이끌리듯 정차벨을 눌러 정류장에 내렸다. 그곳은 지금 자신과 동일한 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을 위해 머지않아 자신 역시 그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야 함을 김민수는 잘 알고 있었다. 김민수는 오늘 그들의 세계를 미리 탐색해 볼 요량으로 공원입구로 향했다. 하지만 입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는 않았다. 마음 속 저항이 계속해서 발걸음을 잡아챘다. 김민수는 그래도 입학 날 억지로 학교에 끌려가는 취학 아동처럼 자신을 공원으로 밀어 넣었다.

공원으로 들어선 김민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노인들의 표정이었다. 정자에 걸터앉아 장기를 두는 노인이 장군이요, 하고 외치며 웃음지었다. 그건 분명 웃음이었지만 웃음 같지 않은 묘한 구석이 있었다. 장군을 피할 묘수를 고민하느라 찡그리는 상대방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골몰하는 찡그림이 찡그림 같지 않고 언뜻 보면 묘한 웃음처럼 보였다. 김민수는 노인들 사이를 비집고 정자에 걸터앉아 방금 본 노인의 표정을 따라해 봤다. 찡그리면서 웃어 보기도 하고, 웃으면서 찡그려 보기도 했다. 부자연스러웠다. 가짜 같았다. 웃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찡그림도 아니었다. 김민수는 노인들의 표정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피봤다. 수채화가 떠올랐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표정으로 올라오면 곧 수채화처럼 열게

퍼져 사라졌다. 표정이 하나의 감정에 질게 사로잡혀 있지 못했다. 김민수는 그 이유에 관해 생각해 봤다. 하지만 그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세월의 풍파를 많이 겪은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뿐이었다. 이제는 노인들마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과는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존재처럼 여겨졌다.

김민수는 노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공원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잠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젊은이 둘이 김민수에게 다가왔다. 자신들을 근처 대학의 사진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그들은 김민수에게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네며 말했다.

“저희가 노인을 주제로 한 졸업 사진 작품을 준비 중인데요. 실례지만 할아버지가 저희 모델이 돼 주셨으면 해서요.”

“죄송하지만 아까부터 할아버지를 지켜봤는데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게 뭘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진을 찍어 보고 싶어요.”

생각해 보시고 꼭 연락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젊은이들은 돌아갔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노인들과 다른 면이 있긴 하지, 하고 김민수는 표정 없이 되뇌었다.

다음으로 김민수가 향한 곳은 여자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카페 앞이었다.

카페는 젊은이들로 항상 붐비는 대학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강의가 끝난 늦은 오후여서 거리는 지나는 대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카페 유리창 앞에 선 김민수는 자신의 용모를 살폈다. 헝클어진 흰머리를 정리하고 이마의 주름을 펴 애써 환하게 웃어 보았다.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 뒤로 젊은이들이 설 새 없이 지나갔다. 그 때문인지 그가 더욱 늙수그레하게 보였다.

카페 안 창가 테이블에 앉은 김민수는 주문대에 있는 여자 친구를 먼 발치서 바라만 봤다. 흰색 블라우스 유니폼을 입은 여자 친구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느라 바빴다. 김민수는 여자 친구가 그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생각도, 자신도 애초에 그는 없었다. 며칠 째 연락두절인 자신에 관해 여자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화상으로라도 이별을 통보해 만남을 정리해야 했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이기적인 생각일지라도 김민수는 자신이 누린 젊음의 흔적이 거기 그대로 멈춰있게 두고 싶었다. 언제든 곱씹어 볼 수 있는 결말이 맺어지지 않은 이야기, 쓰다 만 소설처럼 남겨지기를 원했다.

병실에서 만났던 젊은이로부터 연락이 온 건 해가 뉘엿뉘엿해 질 즈음이었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김민수에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그리로 가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얼마 뒤 김민수가 도로가에 서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돌아보니 자신처럼 노인이 된 젊은이가 검정색 승용차를 몰고 와 섰다. 불과 며칠 만에 보는 것인데 늙어 해후라도 하는 것처럼 젊은이는 김민수를 부둥켜 안고 팔짝팔짝 뛰었다. 젊은이가 그렇게 나오자 김민수도 어쩐지 마음이 울컥했다. 노화된 젊은이의 얼굴을 보자 지난 며칠이 수십 년의 세월이었던 것처럼 아득했다.

“돈이 두둑이 생기니까, 일할 필요는 없어지고 시간만 탕탕 남아돌아. 난 벌써부터 못 견디겠어. 이렇게 심심한데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은 매일 어떻게 버티는지 몰라.”

젊은이가 앓는 소리를 해댔다. 젊은이는 이어 김민수를 차에 태우고 어

던가로 향했다. 젊은이가 김민수를 데려간 곳은 콜라텍이었다. 도시 변두리의 어느 후줄근한 상가건물 지하계단을 내려가자 한백년, 칠갑산 등의 노래가 어둠속에서 흘러나왔다. 김민수는 젊은이의 손에 이끌려 구석의 테이블에 앉았다.

“나라고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그나마 신나는 데가 여기라고. 나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 어떡하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냥 즐기자고.”

곧이어 웨이터가 할머니 둘을 데려와 앉자리에 앉혔다. 젊은이는 곧바로 앞에 앉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홀로 나갔다. 할머니를 껴안고 춤을 추다가 홀을 짝 채운 노인들 사이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김민수는 그런 젊은이가 기묘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그토록 무겁게 여겨 내딛지 못하는 그 길을 저 철없는 젊은이는 이미 가볍게 뛰어넘은 것인지도 몰랐다. 어찌면 철이 없는 자는 젊은이가 아니라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홀의 노인들은 모두가 음악에 맞춰 까닥거리는 시계추처럼 춤을 췄다. 김민수는 그 모습이 왠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는 여기가 처음인가 봐요?”

김민수의 앞에 앉은 할머니가 눈가에 웃음을 지며 물었다.

“네, 저는 처음이에요. 그러는 할머니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일주일에 두세 번 밖에 안 와요. 자주 오는 늙은이는 아침 먹고 매일 여기로 출근하는데요, 뭐.”

“여기가 좋으세요? 할머니는 여기 왜 자주 오시는데요?”

“자주 아니라니까. 여기 오면 엔돌핀이 생기는 거 같아서 좋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머리가 멍해서 두통약도 자주 먹는데. 여기 오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는 할아버지는 왜 왔는데요? 연애하려고 온 거 맞죠?”

“아니에요, 그런 거.”

“이 할아버지 얼굴 빨개지는 거 봐. 귀여운 할아버지네.”

할머니가 김민수를 보며 깔깔거렸다. 김민수는 그 상황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워 일어나 콜라택을 빠져나왔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서서히 해가 지려하고 있었다. 김민수는 도심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사방이 어스름해졌을 때 김민수는 도심의 호텔로 들어갔다. 노화의 대가로 얻은 돈을 이제 좀 쓰면서 누려 볼 생각이었다. 스위트룸을 얻은 김민수는 널따란 침대에 양팔을 한껏 벌리고 누웠다. 사지가 욱신거리고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잠이 쏟아질 듯했다. 고개를 돌리니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계곡물처럼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세상은 제시간대로 흘러가는데 자신만 시간의 지름길로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되돌아간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도 자신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개져 찢린 듯 움푹 시려왔다.

김민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스테이크 코스 요리로 저녁식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호텔바로 들어가 고급 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홀로 테이블에 앉은 김민수는 호텔바 안을 둘러보며 와인 잔을 홀짝거렸다. 바 안은 사업 차 한국을 방문한 것처럼 보이는 외국인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김민수는 손에 든 와인 한 잔의 값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던 딱 그 정도의 금액이었다. 김민수는 와인을 잔에 흘러넘칠 정도로 가득 따랐다. 잠시 멀뚱히 잔을 바라보다 그것을 한입에 쑥 들이켰다.

좀 떨어진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자가 아까부터 김민수를 계속 힐끔거렸다. 김민수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 여겨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후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가 김민수 쪽으로 다가왔다.

“실례지만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김민수의 대답이 없는데도 자연스레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여자는 김민수의 얼굴을 보며 젊은 시절에 미남이었을 것 같다는 등, 인간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재간이 없다는 등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주에 불과할 뿐 여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듯했다.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거 같은데요, 아가씨. 그걸 하세요. 저는 아가씨처럼 젊지 않아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 시간은 늙어서 아가씨보다 빨리 흘러가요.”

여자는 김민수가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로 돌아왔다. 여자는 짐짓 대단한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늙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노화를 멈추고 지연시키는 방법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혹시 영호르몬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영호르몬 시술 브로커였다. 그리고 보니 최고급 호텔인 그곳이야말로 브로커들이 적당한 고객을 물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김민수는 여자가 시술 브로커임을 알게 되자 문득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다. 조용한 목소리로 김민수가 여자에게 물었다.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 시술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김민수가 여자로부터 들은 시술 비용은 자신이 노화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네 배가량 되었다. 여자는 시술 대기자가 많아 하루라도 빨리 예약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김민수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 뷔페를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은 바다가 보이는 남쪽 지역 작은 도시의 경찰이었다. 경찰은 오늘 아침 해변에 주차 된 승용차 속에서 한 노인이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했다.

-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도 조회해 보니 기록 없는 대포차구요. 노인이 가진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니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경찰이 노인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김민수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노인, 아니 그 젊은이의 신원에 관해 자신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며칠 전까지 이십대의 젊은이었다는 사실 뿐이다. 그리고 보니 자신 역시 며칠 전까지는 젊은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 하나뿐이다. 그런 그가 죽어버렸다. 그럴 상황은 없겠지만, 한때의 자신의 젊음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김민수가 체크아웃을 마친 뒤 호텔 정문을 밀고 나왔을 때 그 앞에 피켓 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사십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호텔 문을 밀고 나오는 이들의 눈을 말없이 차례로 응시했다. 김민수는 남자가 든 피켓에 써진 글귀를 읽어 보았다. <다섯 살 아들이 수술비가 없어 죽어 갑니다. 도와주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잠시 후 호텔 직원들이 달려 나와 남자를 끌어내려 했다. 남자는 기둥을 붙잡고 버티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김민수는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다. 주

머니에서 명함을 꺼낸 김민수는 그것을 남자의 얼굴 가까이 들어 보았다. 어제 밤 호텔바에서 만난 여자가 준 명함이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으세요? 그럼 여기로 전화 해 보세요. 길이 있을 겁니다.”

김민수는 사진 촬영 스튜디오로 향하고 있었다.

공원에서 만난 젊은이들에게 연락을 한 건 오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만은 아니었다. 경찰에게서 들은 젊은이의 죽음 때문일까. 김민수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존재를 어떤 형식으로든 세상에 남겨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스튜디오는 도심에 위치한 한 예술대학교 사진학과 건물 꼭대기 층에 있었다. 학생 실습용답게 아담하면서도 공간 효율을 높여 갖가지 실습 장비를 잘 갖춰놓고 있었다. 김민수가 도착했을 때는 벌써 사진촬영을 위한 준비가 마쳐져 있었다. 젊은이들은 촬영을 위한 별도의 분장과 의상착용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조명 역시 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해 평소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런 모습을 포착하고 싶다고 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직 나이가 든다는 것, 늙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의 자연스런 모습, 특히 얼굴과 표정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두 시간 정도에 걸쳐 촬영이 진행됐다. 실제 촬영에 소요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중간 중간 카메라 장비를 바꿔 세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김민수는 젊은이들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섰다. 젊은이들은 주로 김민수의 얼굴을 근접 촬영했다. 주름 진 손과 발, 팔과 다리, 목 등의 신체 부위도 카메라에 담았다.

촬영이 끝나자 젊은이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인쇄해 김민수에게 기념으로 주었다. 모델료가 담긴 봉투도 건넸지만 김민수가 사양했다. 사진학과 건물을 나온 김민수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자신이 나온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웬 낯선 노인이 사진 속에서 어색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알 수 없는 낯선 표정들이었다. 사진을 넘기다 김민수는 겨우 낯익은 표정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 속 노인은 낯익은 표정으로 사진 밖의 김민수 자신을 바라보는 듯했다. 김민수는 그 사진을 촬영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봤다. 오랜 시간 설 틈 없이 여러 장을 찍어서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생각 끝에 문득 어느 한 순간이 떠올랐다. 아마도 그때였던 거 같다. 카메라 뒤에 선 젊은이가 김민수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젊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표정 좋은데요. 자, 그럼 찍습니다.”

수상 소감

교육부
박은지



공무원 문예대전의 존재를 처음 알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아 작품을 써서 제출한 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컸는데 상까지 받게 되니 기쁨이 더욱 큼니다.

감사합니다.

솜사탕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평화

현대

아저씨 글은 몽글몽글하네요.

그 아이가 말했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었다.

나는 아직도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글은 그렇게 말해 준 그 아이에게 주고 싶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정신 좀 차려. 네 나이가 몇인 줄 알긴 아니.

5분 전에 끊은 전화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온 정신을 울린다. 나를 이 세상에 낳아 주신 분은 걱정이 많으시다. 그럴 만도 하지. 서른 된 아들이 갑자기 시골에 날아가 골방에 틀어박혀 벌어오는 돈도 없이 부모 돈을 축내기만 한다면. 잔소리가 싫어서 이사 온 건데 현대문명의 힘이란 장소에 구애 없이 부모의 걱정을 듣게 한다.

옥탑방 계단 가에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이젠 값도 올라 귀한 녀석이지만, 속이 답답해 참을 수 없다. 한적하고 분위기 좋은 시골에 오면 글이 잘 써질 줄 알았다. 아니, 사실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싶었다는 뜻이다.

그러다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여자아이를 봤다.

“.....”

뭐야, 재는. 당황스러워서 물고 있던 담배를 입에서 떨어뜨렸다. 초등학생 같은 애가 제 손바닥만한 책을 들고 읽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가 도로에 있다는 것이었다. 황급히 몸을 일으켜 계단을 뛰어 내려가 대문을 열고 나갔다. 아이는 마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고 있었다. 부양 소리를 내는 차가 달려오는데도 책을 읽는 아이의 걸음이 멈추질 않아 황급히 아이의 팔을 잡아 당겼다.

“으악!”

깜짝 놀란 눈동자와 마주쳤다가 이내 횡 지나가는 차를 보자 상황을 알았는지 머쓱한 웃음을 짓는 꼴을 보아하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뭘 읽는데 그렇게 정신 빼놓고 다녀? 그러다 사고 난다.”

감사하다는 듯 다시 한 번 고개를 까딱거린 아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소설책을 내 눈앞에 흔들며 보였다. 너무 재밌어서 빨리 읽고 싶었어요. 나는 제목을 보고 경악했다. 표정이 너무 드러났는지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 그거 엄청 좋아해.”

우와, 대박.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이거 지금 세 번째 읽는 거예요. 아이의 신기해 하는 목소리에 생각했다. 난 몇 번 읽었는지도 생각이 안 난단다, 애야.

글에는 국적도 나이도 상관없다고 했던가. 정말 신기하게도 나와 아이는 놀랍도록 좋아하는 책 취향이 비슷했다. 아이는 12살이었는데 친구들이 읽는 책보단 좀 더 어려운 걸 읽었고, 나는 딱히 어른들이 쓴 딱딱하고 현학적인 글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우리 집에 놀러온 후 벽에 뽁뽁이 꽃힌 책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읽고 싶은 책이 잔뜩 있다며.

“아저씨, 여기.”

“벌써 다 읽었냐? 빨리도 읽는다.”

히히 웃으며 책을 내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바지에 잔뜩 붙어있는 이상한 것들을 보았다. 뭐야, 저건. 풀인가.

“야, 이게 뭐냐?”

“어, 도깨비풀이다.”

“도깨비풀? 그게 뭐야.”

“에엑. 몰라요?”

저 녀석은 나보다 한참 어린주제에 저렇게 그걸 모르다니, 너 참 한심하구나라는 얼굴을 잘 한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멍하니 아이를 보자 바지에 덕지덕지 붙은 걸 킁킁대며 떼더니 보여 준다. 뽁뽁이 이상하게 생긴 걸 눈앞에 들이 밀며 말한다. 이건 도깨비풀이에요. 내가 애들하고 좀 이상한 길로 왔거든요. 거긴 갈대도 많고 막 지나가면 도깨비풀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 따가워요. 아저씨도 좀 떼 주세요.

“그런 거 없는 길 있지 않아? 그게 더 빨라?”

“뭐, 조금 더 빠르긴 하죠?”

“빨라서 그리로 오는 거야 애들하고?”

“아뇨?”

그런 걸 왜 물어, 라는 얼굴이다. 하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다. 왜 그리로 와? 이렇게 귀찮은 것도 달고.

“재밌잖아요.”

아, 그래. 재미구나. 나는 픽 웃었다. 번거로움과 재미, 둘 중에 누가 이기게 되는지가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다 싶었다.

“우리 애가 신세를 많이 지네요.”

“예?”

나는 집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상품을 진열대에 쌓고 오래 된 물건에 먼지라도 쌓여있으면 대충 털고 계산대에 와서 앉는 것이다. 그렇게 앉았더니, 라면과 채소 등을 담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번에 아이와 최근 열중하고 있는 신간에 대해 토론을 하다가 마주쳤던 그 아이 어머니였다.

아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 최근엔 책만 갖고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옥탑방 1층 할머니가 마당에 내놓은 평상에서 놀았다. 그 곳은 길가에서도 훤히 보이니까. 뭐랄까, 금쪽같은 딸내미가 뭐하는지 알 수도 없는 놈팡이랑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정도 신경은 써야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저도 즐겁습니다.”

“책을 많이 못 사주는데, 선생님이 책 많이 갖고 있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못 놀아주는데, 선생님하고 할머니께서 아이 봐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싱긋 웃으시는 얼굴에 묘하게 힘이 없다. 일로 인해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마음 쓰여서 기운 빠져 하시는 느낌은 아니지만, 아이의 집안 사정에

는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여 별로 묻지 않았다. 아이도 가끔 저렇게 힘없이 상긋 웃을 때가 있긴 있지만.

“책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제 자식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더 어렸을 때도 자기가 찾아보고 그랬어요. 기억 나으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책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고개를 꾸벅하고 바구니를 든 채 사라져가는 아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계산대를 정리했다. 힘없는 미소 속에서도 읽을 수 있는 그것이 느껴져 기분이 몽클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자부심. 아직 쪼그맣기만 한 아이인데도 내 아이는 훌륭하고 자랑스럽다는 그 자부심이 느껴졌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자랑스러워하실까.

비가 와서 평상에 있을 수가 없어 결국 방 안에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1층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오뎡탕을 중간에 두고 아이는 오뎡을 우물거리면서 최근 열중해 읽고 있는 판타지 소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불현 듯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뭐 해요?”

“뭐, 직업?”

“그렇죠. 직업.”

그런 걸 왜 물어. 순간 어린애에게 울컥할 뻔했다. 그러나 저 애가 뭘 알고나 묻는 거겠는가. 넌 왜 그 나이 먹고 시골에 처박혀 있냐고 비웃려는 의도일 리가 없다. 힘이 잔뜩 빠져서 책을 툭 바닥에 내려놓고 중얼거리듯 말해버렸다.

“글 써.”

쓴지 정말 오래됐지만, 마지막으로 자판을 두드린 지가 언제지 모르겠다. 무심코 대답하고 나니 얼굴에 열이 오르는 느낌이었다. 대답한 것이 너무 창피했다. 어디 시골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남는 시간에 글을 쓴다고, 아니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직업인가. 내가 어린애한테 사기나 치고 있다니.

썩쓸해진 기분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아이가 책을 덮은 채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 보고 있다. 그 입에서 나온 말도 의외였다.

“우와! 아저씨 멋있다!”

“뭐가 멋있어.”

“나도 글 쓰고 싶은데! 나도나도!”

피식 웃었다. 너한테 하늘이 어떤 재능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일에 그 재능을 준 것이었으면 좋겠구나.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글 하나 써 주면 안 돼요? 나도 주인공 해 보고 싶다.”

“너한테 뭐 특별한 스토리라도 있냐?”

“특별해야만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해줬다고요. 나, 나를 1인칭 주인공시점으로 해서 써 주면 안 돼요?”

나는 정말로 웃어버렸다.

“그런 건 어디서 들은 거야.”

“나 공부 잘해요, 왜 이래요. 학원 다니는 중학교 언니들 국어책에서 좀 봤어요.”

의기양양한 얼굴을 하는 아이를 가만히 보았다. 나도 저렇게 해맸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트 아르바이트는 오후 3시에 끝난다. 그러면 나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 작은 시골 마을을 터덜터덜 돌아다닌다. 마트 근처의 아주 작은 버스터미널 안 몇 개 안되는 오락기기 앞에 아이들이 바짝 붙어 왁자하게 떠들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뒤편으로 펼쳐진 풀밭을 걸으며 예전에 기차가 다녔던 듯 황폐하게 남은 철길을 걸으며 무너질 것 같은 역사를 보고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이 한적한 광경은 내가 이 마을에 머물도록 결심한 이유였다. 정치 없이 배낭을 메고 모험심에 가득 차 글을 쓸 만한 경험을 하겠다고 날뛴 때 이 마을을 어쩌다 처음 봤었고, 나중에 시골에서 조용히 글을 써 보자 했을 때 바로 생각난 곳이 이 마을이었다.

철길을 괜히 한 번 밟아보다가 생각했다. 그리고 보니 이 철길 건너편으로 죽 가면 저변에 아이가 말한 ‘재밋는’ 길이 나온다. 아이들 몸으로 그 안에 폭 파묻힐 갈대와 바지에 잔뜩 달라붙을 도깨비풀. 그것을 넘고 흙길과 도보를 오락가락하며 걷다 보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길은 아니다. 좀 빙 돌긴 하지만 도보가 죽 깔려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게 재미있다고 말하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거기서 벗어나 정반대편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마을은 일직선으로 큰 도로에 웅기종기 모여 있다. 큰 도로래 봤자 이 마을에서 큰 길이라는 거지 별로 크지도 않다. 바깥에 빨래를 널고 있는 아는 아주머니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크게 팔을 휘저으며 인사를 건네신다.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꾸벅거리고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 새 길쭉한 다리가 나온다.

다리 앞에 멈춰 서서 밑에 흐르는 강물을 멍하니 보았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쾅쾅 달려와 놀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깊지 않고 맑았다. 메기

도 나온다고 하니깐, 뭐. 초등학교도 안 갔을 법한 아이들이 강 옆 물웅덩이에서 까르륵거리는 소리도 들려오고, 적당한 속도로 줄줄줄 흐르는 물 소리도 들려온다.

나의 이 산책은 매번 희망에 차고, 공허하다. 뭐라도 보면 혹시 번뜩이는 영감 같은 것을 얻게 되지 않을까, 다른 유명한 작가들처럼 무언가를 보고 갑작스레 글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만 곧 이 짧은 산책 코스를 마무리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들면 공허해진다. 그런 영감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닌 건지, 아니면 그저 나의 한계인 건지.

꽃가에 조그맣게 울려 퍼지는 잔잔한 음악소리, 어느 집의 어린 아이들 웃음소리, 물소리와 함께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 성과도 없이. 공허하게.

“야, 너 죽었어!”

내가 틀렸다. 하루가 지나가려면 아직 멀었다. 나는 바깥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아이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친구들과 놀면 꽤 험한 말을 곧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 창문으로 빠끔히 내다보니 남자 아이들을 죽어라 쫓아다니고 있다. 장난을 쳤나보다. 책가방도 안 메고 있는 걸 보니 집עד 벗어던지고 나온 모양이다.

대충 살핀 아이의 하루는 일단 이랬다.

아침에 비몽사몽인 얼굴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다. (다른 아이들은 종종 가방을 안 멘 아이도 있어서 너는 왜 메냐고 물었더니, 어머니의 교육방침이라고 했다. 아무리 무거워 해도 책가방은 들고 다녀야 한다고 하셨단다.) 학교에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제법 사이 좋게 노는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듯 보인다. (아이 친구들이 넌 이번에도

시험 잘 봤잖아, 하며 웅얼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안다.) 학교가 끝나면 보통 남자 아이들은 마을 중간쯤에 있는 태권도 학원으로 가고, 여자 아이들은 그 맞은편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간다. (남녀차별인가.)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피아노 학원에 간다. 1~2시간 정도 피아노를 치다가 집에 가서 만화를 보든지 우리 집에 와서 책을 읽든지 하다가 어머니가 찾으러 나오면 저녁을 먹는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또 시끄럽게 놀러 나오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자신을 찾으려면 후다닥 뛰어나와 주위가 어둑해질 때까지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것이다.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를 하기도 하고, 매번 놀이는 다양했다.

오늘은 학원이 쉬는 날인지 하교하자마자 땀박질이다. 창문에 팔을 톡 걸친 채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시선을 눈치 챘는지 고개를 발짝 들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든다. 다른 아이들도 그 시선을 따라가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인다. 다른 녀석들도 마트에서 일하는 내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맘껏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여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는 일이 왕왕 있었기에 내 얼굴을 알고 있다.

“아저씨, 한발두발 할래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너네랑 어떻게 한발두발을 하니. 그러다가 어느덧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터덜터덜 내려가 대문을 나서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도 좀 심심했나보다.

이것도 지역마다 명칭이 다양한 모양인데 한발두발이라는 것은 술래가 5발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5발, 술래는 4발만 뛰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터치하는 놀이였다. 종종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았기에 물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수가 문제였다. 내가 정말로 내려오자 아이들은 깔깔거

리며 웃어재졌다.

“아저씨는 그럼 두발 뺄까?”

“두발 빼도 닿지 않나?”

“야, 너네 키가 내 반은 넘는데 두발 빼면 어떻게 닿냐?”

“그런가?”

그러긴 개뿔. 애들이 멀리 뛰면 얼마나 멀리 툰다고.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멀리 뛰기를 잘 못하더라. 아이들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나에게 한 발만 빼주었고 결과는 뻘뻘했다.

“아저씨, 너무해! 어린애 이기니까 좋아요?”

“헤헤. 좋지, 그럼. 너희들은 꼭 이럴 때만 너희들이 어린이라고 주장하는 나쁜 버릇이 있지! 자, 이제 잡힌 애들 다 가위바위보해!”

나는 두발 빼고 게임을 시작했고, 일부 특출한 남자 녀석들을 제외하고 다른 애들을 다 터치했다. 그 때 내 표정은 정말 승부욕으로 불타는 무서운 얼굴이었다고 아이가 나중에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저 녀석은 정말 가끔 어른 같은 얼굴을 한다니까.

1층 할머니가 잘라주신 수박은 속이 빨갛고 딱 차 있었다.

은근히 할머니가 아이를 예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이렇게 평상에 앉아 있는 다고 수박을 주시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물이 잔뜩 흐르는 수박을 우적우적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아이가 남긴 수박껍데기를 보고 지적했다.

“야, 이거 빨간 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

“초록색 맛 난 단 말이에요.”

“수박바도 초록색이 더 맛있잖아. 이거 막 무침해서 먹기도 하는 거라

고. 깨끗하게 먹어야지.”

“그럼 아저씨가 먹어요.”

저게. 시큰둥한 얼굴로 내뱉듯 말하곤 아이는 평상에 드러누웠다. 이젠 뭐 수박을 먹은 거야, 만 거야. 빨강게 군데군데 남은 수박껍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혀를 끝끝 차고 있는데, 누워있던 아이가 허공에 대고 불쑥 말했다.

“난 빨리 크고 싶어요.”

그래? 난 다 커서 싫어 죽겠는데. 나는 아이들이 흔히 하는 그 말에 공감해 줄 수가 없는 어른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어린애는 다들 그래.”

“그래요?”

“그래, 너흰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 어른들이 너희한테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너희들 잘 되라고 이것저것 신경 써 주는 것도 귀찮아하지. 네가 빨리 크고 싶은 이유가 뭘데?”

입술을 쪽 내밀곤 생가에 잠긴 얼굴을 했다. 자신이 무척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다소 마음이 상한 모양이다. 그래도 결국 인정했는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고 싶은 건가 봐요.”

“그래, 애들이 다 그렇지.”

“내가 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 현실은 안 그렇지. 오히려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에서 벗어나 온갖 시련을 겪으며 지금 이 시간이 차라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

“마음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걸 결정할 순 있겠지.”

“마음대로까진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진 얼굴로 변하기에 뭔가 잘못 말했나 싶었다.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다.

“그런데 마음대로 어떻게 살고 싶기에?”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곰곰이 되짚어 봤다. 슈퍼집 아들이 돼서 슈퍼에 있는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던 것도 같고, 오락실 주인집 아들이 돼서 오락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던 것도 같다.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나 책을 잔뜩 산다던가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아이의 대답은 예상도 못한 것이었다. 조그맣게 손을 입가에 대고 속삭이듯 대답했다.

엄마를 구해줄 거예요.

“?”

아이는 딱 그 말만 하고는 다시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 다리를 휘적휘적 움직이며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아이가 손을 뺀어 책 한 장을 넘기려 할 때 나는 입을 뗐다.

“야, 수박 먹은 손 그대로 책 건드리면 어떡해.”

“아, 맞다.”

이미 아이의 손이 닿았던 곳에는 수박물이 묻어있었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물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손을 닦아 주었다. 그 날의 이상한 대화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마우스 휠을 내렸다.

한 소년의 이야기를 썼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란 상대방을 버겁게 하는 법이라 그 관계를 그려내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즐겁게 썼다. 아니, 조금 초조하긴 했다. 그래도 즐겁다고 생각했다. 소년이 소녀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해도, 그러한 관계에서조차도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하찮아도, 누군가 나의 글을 좋아해 줄 수 있고, 내 글이 가치 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런 상황조차도 행복을 향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 기분으로 오랜만에 냈었던 작품이었다. 간신히 썼던 이야기였다. 쓰고도 꽤 마음이 가는 글이었다. 즉, 나는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던 글이었다.

그럼에도.

“하아.”

한숨이 나왔다. 입상작 명단에는 내가 쓴 글의 제목이 없고, 입상자 명단에는 내 이름이 없다. 마우스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벽에 가만히 기댔다. 조용한 방 안에 시계바늘 움직이는 소리만 크게 들렸다. 톱. 톱. 톱. 머리를 감싸 쥐며 몸을 웅크렸다.

뭘 해야 하지, 이제. 뭘 할까. 한두 번이 아닌 이 실패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그 때, 반갑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밑에 층에서 할머니에게 조잘조잘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들린 것이다. 아이는 이제 곧 올라올 것이다. 나는 매번 그러하듯 반갑지만 귀찮다는 듯 그만 좀 오라고 말을 해야 할 터다. 톱탁탁 가벼운 발이 계단을 올라오고 이내 작은 문을 끼익 열어젖히

며 어머니가 매일 공들여 묶어 주어 양쪽으로 땀은 머리를 한 아이가 확 들어왔다.

“아저씨, 오늘 잠자리를 잡았는데 실험을 했……. 응?”

“…….”

나는 머리를 그려준 모양새 그대로 가만히 구석에 쭈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며 잠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냥 가면 될 텐데. 좀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다.

그러나 아이는 가지 않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는 턱 질문을 던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성인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보통 성인이었다면 그냥 문을 닫고 조용히 나가지 않았을까.

“아저씨, 울어요?”

그 무심한 질문에 나는 핵 고개를 들었다. 울긴 왜 우냐. 내가 왜 울어.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다. 눈이 마주친 아이의 얼굴엔 의아함이 떠올라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 하는 거였다.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러고 있나. 어쩔 줄 몰라 한다고 생각했던 건 어른의 착각이었다.

나는 그 흥미로워하는 아이의 얼굴에 뭔가 펴 터져버렸다. 갑자기 눈물이 투두둑 흘렀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내가 지금 슬퍼 죽겠는데.

“헐, 진짜 울어.”

너는 정말 도움이 안 돼, 이 녀석아. 나는 툭툭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폭 숙여버렸다. 머릿속엔 온통 음울하고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생각만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얼했는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고 싶은 단 하나의 일. 그 일에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걸은 길은 무엇이 된단 말인가. 먹고 살만큼의 재능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 길을 포기하게 되는 건가. 다들 그런 건가.

“아저씨, 울지 마요.”

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습해졌다. 덤덤해 보이더니 나이 먹은 어른이 엉엉대는 꼴을 보자 감정이 전염됐나 보다.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걸 보니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해졌을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아이를 살피주기에겐 어른이 아니었다.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른이 되도록 나는 저 아이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이 한심한 나를.

아이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내 앞에 툭 앉으며 질문을 던졌다.

“글이 안 써져서 그래요? 어떤 글이 쓰고 싶은데요?”

나는 그냥 글을 쓰는 게 좋았다.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공감하고 좋아해 주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끊겼다. 내 글에 더 이상의 가치가 주어지지 않았고, 내 글은 나에게 생계를 유지할만한 그 어떤 것도 내놓지 못했다. 내 재능은 그 정도까지였다.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싶지.”

내가 들어도 웃긴 목소리로 꺽꺽대며 나는 아이의 물음에 답했다.

“아저씨가 좋아하는?”

“다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

아이가 조그만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툭툭 친다. 위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쓰다듬는 것도 아니고 치는 건 뭐람. 나는 무르팍에 머리를 묻은 채 들지 않았다. 끄꼭대는 울음은 끝도 없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사실 거짓말이다.

“그런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래,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지. 내가 좋아하고, 남들이 좋아해 주는 글을 쓰고 싶었지.

“그런 글을 써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지?”

“왜요, 아저씨가 어때서요. 아, 울지 마요, 진짜.”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냥 껴끼이 울기만 했다.

얘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니? 너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어. 나는 너한테 그냥 꿈에 가득 찬 아저씨이고 싶거든.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다른 글 다 필요 없고.

그저 나를 먹고 살게 해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

며칠이 지났다. 아이는 여전히 자주 방문했다.

지금도 옆에서 조잘거리며 말하는 중이다.

“몇 십 년 뒤에 갑자기 막 이차원의 괴물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도 그 괴물들을 막을 특공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특무부 같은?”

“특무부? 특공대보다 어감이 예쁘다. 하여튼 그런 게 생기고, 거기 별

어지는 일들!”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음.”

금세 시큰둥한 얼굴로 나를 뵈는 아이의 이마에 꿀밤을 한 대 때려줄까 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물어버린 날 이후로 아이는 자신이 쓰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곤 했다.

“아주 예쁜 여자애도 있고, 사이가 좋은 남매도 있고.”

“여자애가 주인공이야?”

“응. 근데 그 한국지부 특무부에 다른 애가 또 있는데, 사실은 그 애가…….”

“흑막이야?”

“아니, 흑막은 아니고요. 괴물들이 있는 차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 애가 탈출해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 쪽 사람들이 그 괴물을 풀어서 그 애를 찾고 있었던 거죠.”

아이의 이야기는 제법 흥미로웠다. 그나저나 생각 안 해봤다더니 술술 나온다. 제법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야긴가 보다. 아이를 볼 때마다 새삼 느끼지만, 10대 아이라고 해서 감성이 어른보다 모자라다거나 다른 세계를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세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 뺏어도 돼?”

“에에?! 안 돼요. 뺏으라고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야, 나한테 쓰라는 의도가 아니었나.

“그럼 이걸 왜 말해 주냐?”

“그냥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내 이야기가 어떤지. 그…… 작가로서 말이에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의 컷볼이 잔뜩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작가로 인정해 주고, 자기 이야기가 어떤지 좀 평가해 달라는, 그런 뜻인가?

“아저씨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어?”

“어른들은 다들 그래요. 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크면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지.”

이런 애어른 같은 게. 나는 발딱 일어나 책장에서 책을 고르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았다. 아이가 책 한 권을 손에 쥔 채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말했다.

“아저씨는 좋은 작가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 글을 읽어본 적이나 있냐? 내 표정에 그대로 티가 났는지 아이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껍 내뱉듯 말했다.

“사실은 읽어 봤거든요.”

“엑! 언제! 이놈 시키가!”

“아, 자리 비울 때 많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읽으라고 놔둔 거 아녜요, 읽으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아이를 더 타박할 수 없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별로 보라고 놔둔 건 아니었다. 그냥 설마 볼까 싶었을 뿐이지. 내 컴퓨터 바탕화면의 단순하게 ‘글’이란 폴더 안에 지금껏 써놓은 글들이 모조리 들어가 있으니 어떤 글을 어디까지 봤는지 도저히

히 알 도리가 없고 묻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지금 순간은 무척 창피했다. 나는 아이가 꽤 애늬은이 같은 구석이 있는 것도 최근에 깨달아 알고 있었고, 글을 보는 감성이 나와 비슷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창피했다. 나는 아이를 어리다는 이유로 그 감성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고, 따라서 아이가 내리는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로 내 글에 대해 아이가 내리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었다.

어, 아니 근데 아까 애가 뭐라고 했지?

“아저씨는 좋은 작가라고요.”

“.....”

아저씨는 좋은 글을 써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글에는 그 사람이 물어나오는 거였어요. 아저씨 순수하고 맑은 글을 쓰는 좋은 작가라고 생각해요.

“아저씨 글은 몽글몽글한 느낌이에요.”

몽글몽글? 의문스러운 눈동자로 아이를 보았지만 아이는 설명하기 힘든 듯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랬지.”

물론 돈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고 너한테 말하진 않았지. 그 날의 씁쓸했던 기분이 떠올라 입가에 자조적 미소가 지어졌다.

“그런데 아저씨 글은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응?”

“글쎄요, 공감하게 해 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아저씨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남들이 들어주길 바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 달라요. 공감하고 들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인 거죠.”

“넌 아까 나보고 좋은 작가라며?”

“좋은 글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야, 말하는 걸 보면 지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똥한 얼굴을 하고 있자 아이는 살짝 웃음지었다. 하기가 내가 생각해도 이 그림은 웃기다. 저 앤 지금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들일 테니까. 나이는 한참 어린 것이.

“공감하고 들어주기만 하는 친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나한테 의지하고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친구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은 그런 뜻이었어요.”

“.....”

“그러니까 포기하진 마세요. 아저씨 좋은 ‘작가’니까.”

“.....”

정말 남들은 한심하다고 비웃겠지. 고작 저렇게 어린 아이의 위로나 받고 있는 작가 지망생인 나를. 얼른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걱정이나 덜어드리라고 할지 몰라. 그래도 지금의 나는 정말 저런 말이라도 필요했다.

“고맙다.”

그래서 네가 참 고맙다, 아이야.

그나저나 정말 표현력이 어린애치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꼭 책을 많이 읽히도록 해야겠단 생각이 든다.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으음거리며 뒤척이다가 손에 잡히는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아니, 이 시간에 도대체 누구야. 끄응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니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문을 슬쩍 여니 고개를 푹 숙인 아이가 있어 당황했다.

“야, 뭐야. 이 밤중에 여긴 왜 왔어.”

“아저씨, 나 잠깐 들어갈게요.”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에 어, 그래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비에 젖은 아이에게 수건을 가져다주고 핫초코를 해 주는 내내 아이는 아무 말도 안했다. 흘끔 얼굴을 보자 잔뜩 울어 눈이 부어있긴 했지만 어디 생채기가 난 흔적은 없었다. 뭐지?

“자, 이거 마셔.”

“감사합니다.”

웅얼거리듯 답하는 목소리도 어둡다. 맞은편에 앉아서 나도 핫초코 한 모금을 마셨다.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긴 하지만.

“그거 마시고 일단 한숨 자.”

“.....”

잔뜩 새빨개진 눈을 하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본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안 궁금해요? 낮은 목소리로 물어 와서 고개를 살짝 저었다.

“뭐, 별로. 네가 말할 마음 없으면 안 해도 돼.”

“도망가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갈 데가 없었어요. 아침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때 나갈게요. 핫초코 맛있어요. 이도 안 닦았지만 일단 그냥 잘게요.”

다다다 빠르게 말을 이어 붙이고는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팍팍 터는 아이를 멍하게 보았다. 도망가겠다고? 누가? 불현 듯 아이가 저번에 소곤거리며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엄마를 구해 줄 거예요.

“그래, 잘 자라.”

그게 그 소리였다. 한숨을 푹 내쉬고 컵 두 개를 들고 싱크대에 넣었다. 베개와 작은 이불을 주니 아이는 수건을 베개 위에 깔고 구석에 누워 꾸그리고 눈을 꼭 감았다. 내가 불을 꺼주자 이내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그냥 눈을 뜬 채 천장을 멍하니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해 주지 못한 거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아이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반짝 떴다.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 있었다. 아침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아이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몸을 일으켰다.

“지금 가려고?”

“지금 가야죠?”

어젠 죽어라고 울어 젖히더니 얼굴이랑 눈은 텅텅 부어가지고 그 특유의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목소리로 돌아왔다.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도대체 세상이 뭐 이렇담. 이 어린애가 말이야.

“괜찮겠어?”

아차. 입에서 말이 나간 다음에야 후회했다. 괜찮으냐는 질문과 걱정이 때론 상처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말을 조심했어야 했다.

“괜찮지 않으면요?”

아이가 피식 웃는다. 죄스러운 어른이 되고 말았다.

“내가 데려다줄게.”

“아니예요.”

생각보다 단호하다.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애를 혼자 보내는 게 말이 되나. 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지 아이가 피식 웃었다.

“괜찮아요. 아저씨가 가는 게 더 문제일걸요. 따라 나오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계단을 톡톡탁 내려가서 대문을 열고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왔다. 정말 괜찮을까.

아이가 또래 아이답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건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데에는, 그만한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어른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이라던가, 어른이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부모라던가. 아이가 아이일 수 없게 만드느, 그런 것들.

아이 집은 여기서 그다지 멀진 않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습한 공기가 주변에 가득하여 아이가 도도도 뛰어가는 게 이내 흐려졌다.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중얼거리듯 내뱉은 거였는데, 순간 누군가 등짝을 짹 때려 꺾꺾 놀라 비명을 내질렀다.

“으악! 할머니, 왜요!”

“월세나 내, 이놈아! 남의 집 사정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신고는 무슨! 다들 몰라서 가만있는 줄 알아? 넌 월세나 내!”

“아, 벌써 오늘이 내는 날이에요? 아, 알았어요! 제가 언제 밀린 적 있어요? 그만 때리세요, 아 할머니!”

뭔가 잔뜩 분한 얼굴을 하고 계신 할머니는 그 후로도 한동안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나를 쫓아 내 등짝을 후려갈기셨고 내 등은 시뻘겋게 변해버렸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끝마치고 비도 많이 오고 피곤해서 집에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퍼뜩 깨어 중얼거렸다. 애들 기분은 정말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바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 중앙에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있었다.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아이가 찾아왔던 때보다 비가 더 쏟아지는 날이다. 아이들 서너 명이 웅기종기 도로변에 몰려 있었다. 도로변 구석구석에는 깨진 곳이 있어 빗물이 잔뜩 웅덩이처럼 고인 곳이 많았다.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 자세히 보니 아이들 모두 신발도 안 신고 까르륵대고 있다. 신발들은 웅덩이 근처 도로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다. 저러다 다들 부모님한테 들리면 엉덩이를 흠씬 두들겨 맞는 거겠지. 신발들은 아마 진흙이 잔뜩 묻어 축축해져 있을 것이 뻔했다. 나는 턱을 괴고 웅덩이 흠탕물을 손바닥에 담고 아이에게 쏟아 붓는 어린애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뭐가 저렇게 즐겁지. 어제까진 평평 울면서도 깨끗한 것이 애어른 같더니, 오늘은 저렇게 또래의 해맑아 보이는 애들하고 섞여서 까르륵 대는 것이 어렵진 않을까.

“으악, 물 뿌리지마!”

“으악, 아악! 안 보여!”

……어렵지 않은가보다. 비를 저렇게 맞고 있으면서 저런 이야긴 왜 할까. 나는 나를 아련한 시선으로 아이를 보려다가 이내 마음을 바꿨다.

그래봤자 저 녀석은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 친척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그럴수록 더욱 그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아, 그래.”

그래, 정말 주인공을 시켜주자. 온갖 전투적인 자세로 비를 맞으며 아이들과 물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자니, 예전에 아이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써 달라고 청얼뻤던 것이 생각이 났다. 아이는 이제 잔뜩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친구들에게 흠땀물을 발로 차 뿌리고 있었다. 네가 원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글을 써 줄게. 무슨 이야기로 쓸까. 일단 현실의 무거움에 질식하려고 하는 여자주인공으로 하자. 나이는 좀 더 높여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저게 어떤 청소년이 되려나.”

나를 기대된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로 할까.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뭐랄까, 현실에 치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아무 생각할 수 없이 당황스러운 곳으로 가서 적응해 나가는 이야기를 써 보자.

“아니, 애들이 감기 걸리면 어찌려고 이래!”

“당장 못 들어와!”

우산을 들고 어머니들이 등장했다. 아이들은 머리와 팔, 다리 여기저기에 진흙을 묻힌 채 뜨끔한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보다가 어머니들에게 귀를 잡혔다. 까악까악거리며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가는 아이들은 마치 까마귀 같았다. 아이 어머니도 아이의 등을 팍팍 치면서 아이를 다그쳐 집으로 향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도로에는 빗소리만 가득 차버렸다.

“갑자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생각나네.”

나는 창문을 다시 닫았다. 빗방울이 조금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한동안 글을 쓰느라 정신없었다.

오랜만에 의욕이 생겨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하는 산책도 그만두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끊임없이 자판을 두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죄다 지우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하얀 노트를 펴놓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죽죽 적어 내려갔다. 하얀 종이에 빼곡히 생각난 문구와 이야기들을 살피다가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문득 일주일이 넘도록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보니 애 무슨 일 있나?”

갑자기 비가 오던 날 음울한 얼굴로 방문을 두드리던 아이가 생각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머리를 긁적이다가 노트와 컴퓨터를 옆으로 밀고 어슬렁어슬렁 밖으로 나섰다. 1층 할머니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어이구, 이제야 기어 나오냐? 글은 많이 썼고?”

“그냥, 조금…….”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오죽 열심히 틀어박혀 있어야 말이지.”

이 윗집 옥탑방에 산지 1년도 안됐지만 할머니께서는 나를 꽤 신경 쓰고 계신다. 할머니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씩 웃었다. 간식거리를 들고 종종 올라오셨는데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말을 못 걸으셨단다.

혹시 아이도 그래서 그냥 간 적이 있었을까? 한 번 산책이나 다니면 여기저기 친구들과 싸돌아다니는 아이를 만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대문을 열려고 다가갈 때 끼익 낡은 소리를 내며 대문이 먼저 열렸다. 역시 사

람들은 다 양반은 못되는지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왔다.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글에 몰두해서였을까 꽤 반가운 마음에 야, 이 녀석하고 말을 걸려는데 문 뒤로 누군가가 더 들어왔다. 조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 어머니였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아이 손을 잡고 계신 아이 어머니는 뭔가 부탁할 게 있어보였다. 할머니께서 뒤에서 빨래바구니를 들고 저벽저벽 걸어오시더니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왜 그러누?”

“아, 제가 잠시 다녀올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이랑 혹시 시내에 좀 놀러가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친한 친구들은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같이 못 간다고 하네요. 뭐, 애들끼리 버스 태워 보내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말이 시내지 이 시골마을보다 조금 더 변화한 정도로, 읍내라고 부를만한 곳이 버스를 타고 20여분 정도 가면 있었다. 7일장 정도로 시장도 열리는 곳인데, 그러고 보니 오늘이 장 서는 날이구나 싶었다.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 어머니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아이에게 떼쓰지 말고 잘 놀다오라고 조근조근 말한 후 대문을 닫고 나가셨다.

“흠, 자 그럼 가볼까?”

“왜 네가 더 신났냐? 어린애 같은 놈.”

할머니의 빈정거림에 아이가 킁킁 웃음 지었다.

“우와, 사람 많다!”

“그런가? 너 시장 처음 봐?”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그건 아닌데, 오늘따라 더 많은 것 같다고 대답하는 아이는 분주히 눈을 돌리며 주변을 살피기에 바빴다. 하긴, 그러고 보니 이번 장이 다른 때보다 크게 선 것 같기도 하다.

“우와, 이거 예쁘다.”

“.....”

아이의 반짝거리는 조그만 핀들과 머리끈을 넣어놓은 좌판 앞에 멈춰 서서 이것저것 들춰보며 눈을 빛냈다. 아이고, 그거 예쁘지? 직접 하면 더 예뻐.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는 화색이 도는 얼굴로 끼어들었다.

“아빠한테 좀 사 달라 그래~”

“헉?”

나는 진심 당황했다. 아니, 내가 벌써 저런 애가 있는 나이로 보인단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저런 조카가 있다면 모를까 저런 딸이 있는 걸로 보이다니! 뭔가 슬프면서도 분노하는 기분으로 아주머니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싸구려 큐빅이 온통 박힌 머리핀을 집어들며 외치는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다.

“아빠, 나 이거 사 줘!”

“.....그래.”

아이의 희희낙락하며 핀을 손에 짊고 뛰어다녔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간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얇은 지갑을 움켜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아빠! 나 오뎅 사 줘요!”

왜 불길한 예상은 틀리는 법이 없다. 이제 아예 걱정만 한 듯 나를 아빠라고 불리대며 활기차게 포장마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아이를 보며 어색하게 허허 웃어보였다. 하긴, 내가 20살쯤 사고 쳐서 아이를 낳았으면 저런 딸이 있었겠구나.

오뎅을 그 작은 입으로 순식간에 5개 정도 먹어치우고 아이는 다시 깔깔 웃으며 길에 놓인 토끼를 파는 곳 앞에 서서 방방 뛰기도 하고 새를 파는 곳 앞에 가서 고개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나는 서서히 아이가 억지로 밝은 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묻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생활에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뭐랄까. 아이는 내 친구니까. 그냥 옆에 있어달라고 하면 옆에 있어주는 정도의 역할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할 말이 있고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제야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아빠!”

그러니까 그 아빠란 소리 좀 그만해주렴.

나는 슬프게 웃으면서 아이가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람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아이 머리만한 솜사탕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 몇 명이 그 앞에서 눈을 빛내며 서성이고 있었다.

“솜사탕!”

“솜사탕?”

얼마 만에 보는 건지도 모르겠다. 애들은 저런 게 좋은가. 나는 아이의 빨리 오라는 손짓에도 터덜터덜 천천히 그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가 받아가는 초록빛 솜사탕을 흘린 듯 보고 있었다. 마침

숨사탕이 다 떨어졌기에 나는 아저씨에게 숨사탕 하나를 주문했다. 아이가 분홍색! 이라고 외치기에 아저씨에게 분홍색으로 해 달라는 말도 추가했다. 즐거운 얼굴로 숨사탕이 막대기에 감겨 부풀어 오르는 걸 보는 아이가 신기하여 물었다.

“숨사탕 맛있어?”

“네!”

완성된 분홍색 숨사탕을 들고 잔뜩 좋아하는 얼굴로 한입 물며 고개를 크게 끄덕인 아이는 말을 이었다.

“폭신폭신했고 보들보들하고,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달기까지.”

“그렇게 좋아?”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응?”

“다른 애들이 날 숨사탕 같다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쁘고 몽글몽글하고,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웃게 하는.”

아이치고는 정말 구체적인,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상이다. 정말 이 녀석이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화해 보면 20살 정도 차이나는 내가 이 녀석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숨사탕 같다, 라.

정말 슬프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폭신폭신했고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손으로 숨사탕을 뜯어먹다가 손가락이 끈적거린다고 울상 짓는 아이를 무시한 채 아저씨에 하늘색 숨사탕 하나를 더 주문했다.

어머니의 전화는 최근에 오지 않고 있었다.

최근이라 봐야 2주일 정도? 어머니 된 입장에서 자식의 안부가 들려오지 않는 일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인지 핸드폰에 뜨는 어머니라는 문구에 가슴이 시려왔다.

“예.”

[아이고, 연락도 없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 속을 썩여, 이 녀석아.]

“한두 번인가요.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녀석이, 애를 낳아봐야 그런 말을 어미한테 안 하지.]

피식 웃음 짓기만 했다. 그리고 보니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뵈 지 1년은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고 시골 마을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아니, 멍한 건 아니지. 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다만 성과가 없을 뿐이지. 그래도 요즘은 즐겁게 글을 쓰고 있던 와중이라 목소리가 가벼웠는지 어머니께서 말을 이으셨다.

[뭐가 잘 되가는 거니?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그렇죠.”

[예구, 이 놈 보게. 정말 뭐가 잘 되거나 보네.]

딱히 잘 되가는 건 없지만, 글이 잘 써져서 그런가? 나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그냥 웃기만 했다. 그 때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며 아저씨! 하고 아이가 들어왔다가 전화를 하는 내 모습에 자기 검지를 입에 대고 씹씹거렸다. 뭐 그렇게 조용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이가 발꿈치까지 들고 살금살금 움직이기에 픽 웃고는 그냥 내가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니?]

“아, 옆집 꼬마가 잠깐…….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저기, 애야.]

어머니의 무거워지는 목소리가 무엇을 말할지 예감이 왔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말을 돌리며 전화를 끊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뭐랄까. 그래, 나도 이제 그만 들어갈 때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만 들어와, 이 녀석아. 글 써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해. 그래도 일단 들어와. 이 어미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그래. 글은 집에서 써도 되지 않니.]

생각보다 대답은 무척 쉽게 나왔다.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뭐? 정말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화색이 돈다. 주름살이 잔뜩 느꼈을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련해졌다. 몇 번이고 확인을 하시는 목소리에 그냥 알겠다고 했다.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바뀐 건 아니다. 아니지만, 뭐랄까. 내가 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아저씨, 어디 가게요?”

“응?”

아이가 방 안에 아빠다리를 하고 앉아서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눈을 깜박였다. 아이 손에 잡혀있는 책은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였다. 아이는 가만히 책을 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어 구절을 읽었다.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뭐야, 갑자기.”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어린왕자가 정말 좋아요. 이게 말이에요. 읽을 때마다 기분이 달라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아저씨만한 나이가 되어서 이 걸 읽으면 또 기분이 다를 거라는 거죠.

“아저씨가 요즘에 집중해서 쓰고 있는 글말이에요. 그거 내가 주인공 이죠?”

배시시 웃는 얼굴에 장난기가 잔뜩 스며있다. 저게 또 언제 무단으로 내 컴퓨터 파일을 읽은 거야. 좀 머쓱한 기분이라 대충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진짜 주인공 시켜줄 줄 몰랐는데, 내가 주인공이라니. 대박대박.

아이의 조잘거리는 말 속에서 나는 웬지 그 결말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제부턴지 모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 어머니가 어두운 얼굴로 나에게 아이를 맡길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아이가 밝은 얼굴로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였을까, 아니면 아이가 비오는 날 도망쳐 나와 나를 찾아왔을 때였을까.

“아저씨, 나 전학 가요.”

“그래...? 좋겠네.”

“놀라지도 않네. 웬지 아저씨 알 것 같더라고요. 말해주려고 왔는데, 아저씨도 가는구나.”

그래. 난 그래서 떠나야겠다고, 이제 그만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지. 네가 있어서 내가 글을 더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만 이 곳에서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주인공이 없는 소설은 쓰기 힘들잖니, 아이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진 모르지만, 먼저 가는 사람이 좀 울어요. 그

정돈 해 주죠, 서로?”

“뭐냐, 그게.”

그럴 만큼은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배시시 웃었다.

눈이 왔다. 나는 박스에 책들을 집어넣고 있던 참이었다.

창문 밖으로 꽤 굵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아, 이사 가기 불편하게. 눈이 올 때 어른의 감상은 이렇다. 그러나 아이들은 역시 다르다. 벌칙 문이 열리며 아이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잔뜩 상기된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아이가 이사 가는 날은 오늘이었다.

“아저씨, 눈 와요!”

“그래, 이사 가기 어렵겠네.”

“에이, 어른같이 재미없는 소리하지 말구요.”

빨리 와서 보라고 손짓을 한다. 나는 아직도 쌀 게 한참 남은 책을 흘끔 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나는 3일 후 정도에 이사 갈 예정이니까 잠깐 눈 좀 본다고 무슨 일이 나진 않겠지.

아이의 집 앞에는 트럭이 와 있었다. 아이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허공에 손을 뻗고 눈을 손바닥에 얹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저씨, 내가 주인공인 소설은요. 완성되면 꼭 나 보여주세요. 아니, 책으로 나오면 내가 사 봐야지.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무슨 자신감이야.”

“내가 주인공이니까!”

주먹을 불끈 쥐며 웃는 양을 보면 영락없는 어린앤데.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그것을 눈치 채고 냉큼 나에게 손바닥을 펴고 인사했다.

“아저씨, 안녕.”

“...그래, 거기 가서도 잘 지내고.”

후다닥 계단을 내려가는 몸이 작고 가볍다. 아이는 아버지 차에 쏙 몸을 숨겼다. 검은색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직선도로를 죽 가다가 왼쪽으로 차가 돌아가고, 아,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맞았다. 울어주긴 좀 어렵구나. 눈물이 나오진 않았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길들여졌고, 아이는 길들였다. 나는 아이의 세상이 안타깝고, 화가 나고, 또한 부러웠다. 나는 다시 한 번 중얼거렸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의 가버렸다. 가버린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행복해지길 바랐다. 언젠가 한 번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질 거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될 걸, 이라고 말한 나의 말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속삭이던 아이가 있었다.

그러니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언젠가 다시 아이를 만나면 지금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길.

나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방 안으로 들어와 컴퓨터를 켜다. 첫 문장을 시작했다.

이 글은 기록이다. 기억하고 싶은 나의 기억에 대한 기록.

제 1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수필

심 사 평

응모작을 읽고 나서 느낀 소감은 대부분의 응모자들이 ‘수필’의 형식과 문학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대부분의 글들이 체험 수기나 보고서 같은 느낌을 주었다.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이지만 수필은 체험의 기록이나 수다로 그치는 게 아니다. 삶의 체험을 통한 인생의 발견과 깨달음을 꽃피워 낸 글이어야 한다.

수필은 인생의 성찰인 동시에 삶에 대한 의미부여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소재는 아주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읽는 이를 감동시키는 글도 많았다. 부모님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가족을 사랑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고 있나를 보여주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뽑히지 않은 작품을 대할 때 안타까웠다. 가장 많이 다룬 소재가 부모님의 고생담과 자신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담, 그리고 세태를 반영하듯 치매로 고생하는 조부모나 부모와 이웃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산문에도 나름의 맛과 글쓰는 이의 정신은 필요하다. 지나치게, 살아온 이의 일대기를 나열하거나 상황 묘사만 보여주는 글은 제외시켰다. 한가지 주제를 향해 몰입하고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자세와 단락구성, 필력도 보여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서정성이 수필의 전부인양 상투적인 표현의 과잉이나 시종일관 대화체로 끌어간 글, 소재가 진부하거나 주제가 약하고 산만한 글들은 제외시켰다. 원고지 투고나 글자크기 8호 이하의 깨알문자도 곤란하다고 본다.

심사위원: 정목일, 권남희, 박미경

봄날은 간다

삼천포 중앙여자중학교 김도숙

● 금상

회초리

법무부 서울남부교도소 채규보

● 은상

옥탑방의 겨울

서울특별시 강서구 최경숙

꽃

서라벌 여자중학교 서형숙

내 유년의 여름

전)울산광역시 김갑주

● 동상

달쟁이 순가락

전)전주송북초등학교 정성수

첫사랑

미래창조과학부 경주우체국 조정임

겨우살이

강원도 태백시 남궁중

일상예찬

수륜초등학교 서동숙

절망이 찾아준 또 다른 이름, 희망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인교

두근두근 심장소리는 희망입니다

심창초등학교 진병국

큰 형님

강원도 인제군 손미정

● 입선

아가, 넌 누구다냐?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이영표

수상 소감

삼천포 중앙여자중학교

김도숙



다시 오월이 돌아오고 꽃향기와 초록빛 산야로 물든 누리가 참 눈부십니다.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기에, 어머니에 대한
 정이 각별했습니다. 육신은 비록 멀리 떠나갔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늘
 제 마음 속에 살아 있어 그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일(忌日)을 앞두고 날아 온 이 기쁜 소식은 어머니의 영혼이 바
 람 되어 제 곁에 다가 온 듯 가슴 벅차고 설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을 이제 세상을 향해 보답하고 싶
 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으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겠습
 니다.
 부족한 글 뽑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며, 아름다운 자연만큼 따
 뜻한 세상을 위해 성찰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날은 간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가 봄을 알리더니 어느 새 하얀 목련이 호롱불 같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하릴없이 봄날이 가고 있다.

아까 산책길에는 하얀 목련 앞에 서성이는 나에게 꽃대를 흔드는 바람 소리가 ‘豈無一時好 不久當如何(어찌 한때의 좋은 시절이 없겠는가. 오래 가지 못하니 어이하리오).’라고 탄식하는 도연명(陶淵明)의 소리로 들렸던 건 무슨 까닭이었을까?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셨다.

내가 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아파트 단지의 산책에 나설 때도 우리는 ‘꽃 마중 가입시더!’라는 말로 통했다. 집을 나서면 계절에 따라 저 혼자 피고 지는 크고 작은 색색의 꽃들과 마주한다. 산책길에서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꽃으로 다가가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꽃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꽃 마중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정말 꽃을 좋아하셨다.

그 많은 꽃 중에서도 유독 하얀 목련을 좋아하셨다. 지난 봄 산책길에서 마주친 하얀 목련 숲에서는,

“우와, 벌써 목련꽃이 활짝 피었네. 너 초등학교 입학 때 모습 같다. 참 곱다!”

하시더니 불현듯,

“내가 이 아파트, 너희 집에 온 지도 벌써 두 해째가 되는구나. 세월은 이렇저렇 흘러가는데, 병들고 늙은 나는 빨리 가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짐만 되는구나…”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당신의 노후가 편치 못함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나는 달리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여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어머니는 멋쟁이십니다. 꽃을 좋아하시니까요. 이제부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 이름을 세면서, 마음 속에 그 꽃을 하나씩 그리며 사입시더.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마음 속에 그 꽃을 하나하나 그리며 사입시더. 내사 이렇게 어머니랑 함께하는 꽃 마중이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얀 목련꽃 앞에서 ‘꽃 하나, 어머니 하나, 꽃 둘, 나 둘…’ 내가 꽃을 세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느닷없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는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셨다.

베이비부머인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거의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분들이다. 얼마 전 개봉되었던 영화 <국제시장>이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갱신하면서 화젯거리가 된 적이 있다. 이 영화처럼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우리 역사의 험난한 질곡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이 극한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시다.

우리 어머니는 더욱 더 그러하셨다.

젊은 날의 고생은 차치하고, 할아버지가 십 수 년을 중풍으로 누워 계

시는 동안 대소변을 받아 내어야 했고, 집에 수도 시설이 없어 날마다 새벽에 공동 샘터에 가서 물동이에 서른 세 동이의 물을 이고 와서 할아버지의 속곳을 씻어야 했었다. 이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무릎 관절이 닳아 다리를 쓰지 못한 채 또 다시 할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대물림한 아버지의 병구완을 구 년 동안 해야 했다. 그러다가 무릎 관절수술의 기회를 놓친 어머니는 극심한 골다공증과 무릎 연골 손상 등의 합병증으로 무척 고통스러워 하셨다.

수술하기에는 고령인 여든 여덟이라는 연세에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욕창까지 얻어 설득 끝에 막내딸인 우리 집에 오시게 되었다. 돌아가실 때까지 욕창이 낫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의의 말도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집에 오셔서 소독과 민간요법과 영양식을 겸한 덕분인지 잘 낫지 않을 것 같던 욕창에 새살이 돋는 기쁨을 맛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 혼자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다. 기거나 앉은뱅이로 살아도 혼자 움직일 수 있었을 때에는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당신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셨다. 그리고 그 절망 끝에서 죽음을 선택하려고도 하셨다. 수면제를 사다 주라거나 총으로 쏘 달라는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거나 당신이 살던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시며 그곳에 가서 혼자 죽겠다고 하셨다. 그것은 평생 남에게, 심지어는 자식들에게까지도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철저한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식들에게 힘든 일은 시키지도 않고 공부만 하라며 오롯이 혼자 굶은 일을 다 하셨던 우리 어머니. 그것이 당신의 사랑법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뼈마디는 그래서 성한 곳이 없이 골병이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무엇보다 그 옛날 당신이 감당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병

상 대소변 일을 이제는 당신이 자식들에게 치르게 한다는 것을 힘들어 하셨다. 더욱이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끔찍이도 싫어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에 나가는 시간이나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는 아들인 오빠가 우리 집에 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어머니는 거의 어린애처럼 홀로 울곤 하셨다.

젊은 시절엔 우리 집안의 버팀목이었던 강인한 어머니가 이제는 당신의 육신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솜 인형이 되었다. 그래도 날씨 좋은 날에는 꽃 마중 산책을 시켜 드리고 싶었지만 모든 힘을 빼고 누워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기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기에 자주 할 수도 없었다. 가까스로 휠체어에 태워 아파트 단지나 동네로 산책을 시켜 드릴 때면 어머니는 세상을 처음 보는 어린애처럼 꽃을 보고 마냥 좋아하였고, 푸성귀를 심어 놓은 공터의 남새밭 앞에서 푸른 생명력에 마음을 뺏기곤 하셨다.

그러나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어머니의 병상에서,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두나,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지쳐 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어머니가 깜깜한 방에서 죽은 이들과 무어라고 얘기를 나눌 때면 나도 불면의 밤을 지새우곤 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출근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억지로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들이 뒤엉켜 잠은 더욱 달아나 버리고 그런 날이 잦아지면서 내 몸에도 이상이 오고 있었다.

마침내,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다.’는 푸념이 튀어 나오면서 결국 오빠들과 고심한 끝에 요양원으로 모시자는 대안이 나왔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요양시설을 몇 군데 둘러보았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서니 소독 냄새와 노인들의 용변 냄새가 섞여 음습함과 불쾌감이 엄습했다. 그나마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걸어 다니기도 하였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온종일 꼼짝 없이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요양보호사들이 옆에 붙어서 시중을 들 수 있을 만큼 수가 많지 않기에 하루 종일 같은 처지의 노인들끼리 쾅한 눈으로 서로 바라보거나 아예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린 눈빛으로 물끄러미 허공만을 보고 살아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 현장을 보고 나는 어머니를 시설로 보낼 수 없었다. 어머니는 건조한 노인성 피부 타인지 혈액 순환이 안 된 타인지 계속 등이 가렵다고 하여 등을 긁어 드리거나 마사지를 해 드려야 하는데, 시설에 모셨다가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더욱 피폐해질 게 뻔하였다. 나는 생각 끝에 우리 집에서 계속 모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신 이 년 뒤, 꽃 피고 새 우는 봄날에 세상을 떠났다. 내 나이 오십이 넘도록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었던 인연은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미쳤다. 어머니의 일기 쓰기와 남에 대한 자비심과 자상함, 부지런함과 강인한 생활력은 딸인 내가 본받아야 할 삶의 방식과 태도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내 자신이 자꾸만 한탄스러워졌다. 철재 침상 위의 생활로 자유가 없는 갇힌 몸의 한계를 얼마나 치절하게 견디셨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누워 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어떤 전조(前兆)도 없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따뜻하게 손잡아 드리고 말 한 마디라도 부드럽게 할 걸 하는 때늦은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많은 삶을 사셨다는 회한이 들지 않도록 마지막 가는 길을 조금은 편안하게 위로해 드리지 못한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이기적

이었다는 자책에 나는 아직도 괴롭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노후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사는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적은 지금,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다. 젊은 날에는 까마득해 보이던 종착점이 확연하게 다가온 것이다.

항상 내 삶은 어떤 돌레 안에서 긴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돌레 밖으로 나와서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런 나와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어르신이 계신 요양원을 방문하고 있다. 평소에 깔깔하시고 손끝이 야물기로 소문났던 그 분도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후 치매에 걸려 정신 줄을 놓으셨다. 몇 번을 내가 찾아가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어느 날에는 문득 동공이 풀린 눈으로 나를 그윽이 바라보시다가 내 손을 꼭 잡고 그냥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다.

앞으로 우리 세대는 요양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요양원은 마지막 가는 이를 보내 드리기에는 너무나 삭막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라고 애지중지 돌보고 온갖 사랑을 다 쏟지만, 노년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노년기 또한 힘 없고 병들어 어린애처럼 돌보아야 할 시기이며, 한 생명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기에 사람들의 관심과 온정이 꼭 필요한 곳이다.

예전보다 훨씬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요양 시설이 여기저기 들어서 있고,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노인복지시설엔 돌보아야 할 사람들에 비해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누워서

마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마저도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집에서 꼼짝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도 부지기수라 한다.

이것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진입과 함께 간병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결과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요양시설의 부족과 제한적인 노인요양 평가 판정항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이제 하얀 목련도 곧 질 것이다.

어느 봄날,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처럼 봄날이 가고 있다.

오늘은 황사로 부연 먼 산을 바라보며 시름에 겨워 창문을 닫는데 불현듯 사이먼과 카평클의 ‘엘 콘도르 파사(El Condor Pasa)’ 가사가 철렁 가슴에 내려앉는 게 아닌가.

‘지금은 멀리 날아가 버린 한 마리의 백조처럼, 나도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어요. 땅에 엮매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슬픈 신음소리를 내지요. 가장 슬픈 신음소리를… 음음.’

그래, 어머니의 빈자리를 보며 간 봄을 그리워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슬픈 신음일 수 있지만, 정작 이 봄날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고 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수상 소감

법무부 서울남부교도소

채규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글을 잘 써야한다는 것'에 대한 중압감은 오랜 세월 가슴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고질병이었습니다. 다행히 해가 거듭할수록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글을 쓰지 않으면 지난 추억들이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같은 불안 증은 여전합니다. 어린 시절, 회초리는 두렵고 아픈 기억이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사랑이었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고 회초리 이상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글을 쓴다며 훗날 추억이 될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묵묵히 기다려준 아내와 건강하게 성장해 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회초리

나의 집에는 회초리가 한 개 있다.

대나무 끝 부분에 구멍을 뚫고 검은 실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거실 벽에 걸어 놓았다. 고향 집 뒤뜰 대나무 밭에서 죽순의 부드러운 살갗이 단단 해져 갈 무렵, 한 자 반의 길이에 성인 중지 손가락 굵기의 대나무를 톱으로 썰고 낮으로 잔가지를 정리해서 만든 것이다.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던 해 봄이었으니 십여 년 넘게 가족들과 함께 해온 셈이다. 회초리는 두 아이의 훈육을 할 때 사용했는데 백 마디 말보다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게을리 하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할 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이제 두 아이가 성장하여 철이 들고 스스로의 길을 걷게 되자, 회초리는 나의 손길에서 벗어나 벽에 붙은 쇠못에 의지해 매달려 있다. 그동안 세월이 훑고 지나간 대나무 외피는 빛이 바래고 금이 간 자리에 먼지가 힘겹게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회초리를 볼 때마다, 수년 전 작고하신 아버지께 회초리 맞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가정교육에 매우 엄하셨다. 사소한 일이라도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주저 없이 회초리를 드셨다. 아버지의 회초리는 안방 문설주 위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안방을 드나들 때는 걸음걸이부터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오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리다고 회초리에 사정을 두지 않으셨다. 회초리를 맞는 순서가 마

지막이었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간담이 서늘해졌다.

어린 시절 회초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종아리에 떨어지는 회초리의 따끔한 자극은 차라리 전율이었다. 종아리에 벌겋게 돌아나는 회초리 자극은 나의 내면에 숨어서 방심하면 슬며시 고개를 내미는 나태와 방종이며 바르지 못한 것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회초리는 마음 밭에 숨어 뿌리 내린 잡초를 뽑아내고 본연의 마음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나의 어린 마음은 회초리가 종아리에 떨어질 때 고통으로 몸부림 치고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그런 고통을 주신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내가 아버지께 회초리 맞을 때, 발을 동동 구르시던 어머니께서는 나의 등을 밀며 어서 도망가라고 채근하셨으나 아버지의 눈매에 서린 준엄하고 거역하지 못할 위엄에 압도되어 도망은커녕 말 한마디 변명을 하지 못하고 회초리가 멈출 때까지 종아리 위로 걷어 올린 바지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그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산과 들이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했다. 눈이 내리면 아버지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싸리 빗자루로 쓸어 고샅으로 옮겨 놓으셨다. 그런데, 며칠 동안 눈이 멈추지 않고 내리자 고샅은 빙판길이 되었다. 그날도 무료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형들이 고샅에서 부모님 눈을 피해 썰매를 타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작은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마니 치기를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으셨다. 빙판길은 개구쟁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터였으나,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었다.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골절이나 타박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곤 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집 할아버지 한 분이 이웃 동네에 다녀오시다 예의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할아버지 가족이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치료비 걱정을 하고 갔다. 이장님은 할아버지 가족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종을 쳐서 긴급으로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마을 회관에서는 빙판길에서 넘어진 할아버지의 치료비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던 끝에 고샅에서 썰매를 탄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마을 회의에 다녀오신 아버지께서는 헛간에 숨겨 놓은 썰매를 모두 찾아내어 해체하시고 형들과 나를 안방으로 불러들이셨다. 고샅에서 썰매를 탈 경우 빙판길이 더욱 미끄러워져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인데 썰매 타는데 마음을 빼앗겨 빙판길을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꾸짖으시고 안방 문설주에서 노간주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모두 내리셨다. 그날 회초리는 부러지거나 중간이 끊어져서 버린 것이 서너 개였다. 이 날 형들과 나는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회초리를 맞았다. 처음 몇 대는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나도 모르게 비명이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으나, 그 후로는 감각이 없는 중에도 아버지의 회초리는 계속되었다. 머리에서는 현기증이 나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잠시 후 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기절을 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어머니께서 나의 머리맡에 앉아 신열이 끓고 있는 이마에 찬물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병간호를 하고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쓰러지자, 깜짝 놀라시고 우황청심환을 물에 녹여 손가락으로 떠 넣었으나 차도가 없자 경기(驚氣)에 좋다는 약재를 얻기 위해 삼 십리 길 한약방에 가셨는데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하셨다.

나는 비록 어린 마음에 회초리를 맞아 서운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았으나 아버지께서 개구쟁이인 막내를 위해 회초리로 훈계하신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 귀여운 막내의 종아리를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가슴에 새겨졌을 멍은 내가 겪었던 회초리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다. 아버지께서는 눈보라 치는 어둠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약을 지어 오셨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이 달라붙어 눈사람처럼 되어 방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맨 먼저 나의 건강상태부터 챙기셨다. 난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앞에 가슴이 먹먹해져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죄스러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방문 밖에서는 먹물 같은 어둠을 틔타 북풍한설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할아버지 치료비는 부모님께서 겨우내 아픈 어깨 두드려가며 친 가마니와 손바닥에 물집 잡히도록 끈 새끼를 읊내 장에 내다 팔고 받은 돈으로 겨우 해결 하셨다. 부모님께서서는 함구하셨으나,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듣고 알게 되었다. 그 날 이후, 난 눈 오는 날 고샅에서 썰매를 한 번도 타지 않았다.

서양 속담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했다. 매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녀가 귀하다고 해서 매를 아끼면 나무의 가지를 자르지 않는 것과 같아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귀여운 아이일수록 회초리를 아끼지 않고 주었던 것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 병을 치료하듯이, 마음이 헤아려지면 회초리로 흐트러진 정신을 바로 잡아서 자녀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처음 세웠던 목표를 향하여 매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했던 것이다.

사랑의 매는 조선시대 서당의 초달문화(楚達文化)에서 비롯되었다. 서

당에 학동(學童)을 보낸 아버지는 음력 초하룻날이면 회초리를 만들어 자식의 손에 들려 훈장에게 보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잘 가르쳐 달라는 뜻을 회초리에 담아서 훈장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사랑을 담은 회초리는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육의 잣대가 되었다. 회초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당장은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도 언젠가는 아이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회초리는 사람다움에 어긋날 때 불가피하게 들어야 하는 교육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초이물(夏楚二物)이란 말이 있다.

싸리나무로 회초리를 만들면 하(夏)이고 가시나무로 매를 만들면 초(楚)라고 한다. 교육은 때가 있는 법이다. 싸리나무로 다스릴 때가 있고, 가시나무로 다스릴 때가 있다. 싸리나무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리지 않고 방치하다 가시나무로 다스리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 버릇없는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부모가 있다면 밑이 빠진 독을 만들고 있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매를 들기 전에 종아리를 맞아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회초리를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 사리가 분명하여 언제 어디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연아(憐兒)여든 다여봉(多與棒)하고, 증아(憎兒)여든 다여식(多與食)하라.”

“귀여운 아이는 매를 많이 때리고, 미운 아이에겐 먹을 것을 많이 주라.”는 뜻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훈자편(訓子篇)에 나오는 글귀이다.

귀여운 아이일수록 장래를 생각하여 회초리를 들어 엄하게 기르고 미

운 아이는 먹을 것을 주어 배부르게 해주면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는다. 선현들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회초리는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려주고 마음에 새겨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허물을 알려주는 사람은 참다운 스승이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회초리가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큰 스승이셨다. 아버지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정직과 부지런함 그리고 절약 정신은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좌우명이 되었다. 산은 말이 없으나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산과 같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셨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지금도 나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회초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수상 소감

서울특별시 강서구

최경숙



나는 활자중독증상이 있다. 초등학교 때 며칠간 머물렀던 시골 할아버지 집에는 배추 재배법이라는 5쪽 짜리 리플릿 외에는 어디서도 글자란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난 사흘간 그 리플릿을 수백 번을 읽었다. 그 아이는 닥치는 대로 독서를 하는 소녀가 되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글을 쓰며 내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여긴 그 글쓰기로 난 은상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누가 무어라 해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글쓰기지만 이 상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괜찮았다고, 나쁘지 않았다고, 그리고 속삭여 주었다. 계속 해 나갈거지? 라고.

옥탑방의 겨울

2000년 12월, 스물아홉의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혹독한 바닷바람이 거침없이 몰아치는 옥탑방에서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고 겨울을 지내는 법을 배웠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산 만원어치의 기름은 말통 절반을 조금 넘기는 양이었지만 그것을 들고 4층까지 좁은 계단을 올라오는 건 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중력을 거슬러 들고 온 기름을 석유난로에 붓고 점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타다다 탁’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작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으로 만원어치의 온기는 나와 딸아이의 것이 되었다.

나는 창문 하나만 열면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는 집에서 태풍을 감내하는 법을 배웠다. 깨진 현관문을 비닐로 가리고, 홀덱의 창이 미친 듯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 손으로는 창을 누른 채 한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나는 냉장고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 필요한 식재료들을 조금씩 사와서 조리해 먹고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해야 하는 음식들이나 우유는 집에서 가장 서늘한 북쪽 담 밑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것들은 밤사이 난방을 하지 않는 방으로 옮겨져 얼어붙는 위험을 피했다.

나는 텔레비전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 물론 방 한 구석에는 텔레비전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했다.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화면

전체가 초록색으로 보였다. 나는 한동안 그 초록색 덩어리의 움직임으로 화면을 추측하며 텔레비전을 라디오처럼 사용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명을 다한 텔레비전이 최후의 초록색 점으로 사라지자 나는 마치 생명체의 죽음을 목도한 것과 유사한 서글픔을 느끼며 코드를 뽑아버렸다. 버릴 까도 생각했지만 방이 너무 비어보일 것 같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장식품처럼 그냥 두었다.

나는 거칠어지는 피부에 이내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아무 옷이나 걸치고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남들의 시선에도 차츰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나는 점점 내면으로 침잠해 갔다.

세상의 전부가 된 옥탑방에서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였다. 끝이 없는 자아비판을 넘두리처럼 주절거렸다. 나는 오만했고 허영심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허영심은 청춘이 부릴 수 있는 범주를 그리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았다.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졌던 호기심 어린 관심도 그리 비도덕적인 일은 아닌 듯싶었다. 나는 잘못된 게 없다고 세상에 소리쳐 외치고 싶었지만 사실 그것은 사소한 잘못이 아니었다.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등산로를 살짝 비껴난 그 옥한 산길에 발을 디뎠던 소녀는 그 선택의 결과로 숲처럼 깊은 그늘을 지닌 여인이 되어있었다.

나는 포기하고 싶고 비뚤어지고 싶은 욕구를 순간순간 느꼈다. 길을 걸어가며 모든 아름답고 고상한 것들을 비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다. 두려움이란 안전장치가 없었던 나는 충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아이가 있었다. 2001년 새해가 되면 곧 세 돌이 되는 딸 아이였다. ‘몇 살’보다는 ‘몇 개월’로 연령을 가늠하는 어린 아이였지만 나

는 아이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았다. 아이는 말을 빨리 익혔고 그보다 더 빨리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익혔다. 그 어떤 표정으로도 아이에게 마음을 들키지 않을 도리가 없음을 알고 나는 마음을 돌보아야 했다.

나는 궁핍의 생활을 재미있는 소재거리로 삼을 만큼 마음을 키웠다. 나는 환상적인 북유럽풍 동화들을 지어내어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좁은 계단은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었고, 태풍은 무시무시한 바람 여신의 입김이었고, 추위는 얼음여왕의 왕국이 되었다. 방의 작은 온기는 용감한 아이들의 심장이었다. 동화 속에서 아이와 나는 언제나 주인공이었고 언제나 성공했다. 아이는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하고 나날이 온전했다. 나는 그 마음의 충만함을 자신의 것으로 나눠 가졌다.

기나긴 겨울을 버티는 사이 아이는 세 살 생일을 맞았고 나는 서른 살이 되었다.

옥탑방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다. 가로 세로 1미터 정도를 시멘트 블록으로 대충 쌓아올린 후 흙을 채운 공간과 가지만 앙상한 나무 하나를 화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겨우내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나무는 때가 되어 꽃을 피웠다. 매화꽃이었다. 연한 붉은색으로 물든 꽃 한송이 한송이는 콘크리트 벽을 배경으로 생동맛을 정도로 예뻐다.

그날 밤은 달이 떴다. 고대부터 동양의 무수한 시인과 화가들이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았을 풍경이 나의 눈앞에, 누추한 옥탑방 앞마당에 펼쳐져 있었다. 달빛 아래 핀 매화꽃.

나는 생각했다.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지 못한 집세는 어김없이 보증금을 갹아먹고 있었다. 1층을 종일 지키는 보석방 가게주인과 2층 전채를 차지하고 있는 집주인과 3층을 다섯 칸으로 나누어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머리위에서 살고 있는 옥탑방의 모녀에게 관심이 많았다. 특히 주인 여자는 우리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일이 자신의 권리라도 되는 듯 옥탑으로 올라오는 쪽문을 확 열어젖히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애 엄마, 살 거야? 말거야?”

나는 대답을 못했다. 주인 여자의 질문은 분명 집세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나는 머릿속으로 엉뚱한 말장난을 하고 있었다.

‘살다’의 반대는? 방을 빼다. 죽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가 있더라? 집토끼, 바다 토끼, 판 토끼, 죽은 토끼.

야단치는 선생님 앞에서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상상의 세계에 빠진 학생의 은밀한 즐거움을 나는 느꼈다. 적어도 해가 떠 있는 시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밤이 되고 달이 떠오르자 매화꽃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일깨워주었다. 나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옥탑방 집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마지못한 듯 생각의 모터가 슬금슬금 돌아갔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빈궁의 늪에 빠진 한부모였다. 적어도 남보기에 멀쩡했던 한 여자가 옥탑방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터가는 한부모가 되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겪고 나와 딸아이는 섬동네 옥탑방에 흘러들어와 겨울을 나고 새해를 맞았다. 그리고 매화꽃이 피었다.

생각의 모터는 여기서 멈췄다. 고통스러웠다. 나는 잠든 아이를 보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제 어디로 가지?’

어둠속에 매화꽃이 붉은 점점으로 사라져갔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여느 때와 달리 쪽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친구가 들어왔다. 주인여자가 아닌, 쪽문으로 들어온 최초의 사람이었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나를 염려하여 수소문하여 찾아온 소중한 친구였다. 태어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처음 접하는 것처럼 서먹하게 구는 나를 보며 친구는 혀를 찼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갈 차비만 남겨놓고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아이의 과자값으로 내 놓고는 사회복지 수급자 신청을 해 보라고 말 했다.

사회복지라면 나도 알고 있었다.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시행된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한지 불과 5개월여가 흐른 시점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난 단 한 번도 사회복지란 것과 내가 생의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친구의 말에 내가 보인 반응은 고작 ‘사회복지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란 생각이었다. 순간 나는 그 가난한 사람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분이 나빴다. 아마 난 자존심을 다친 사람이 취하는 표정, 말투 그대로 친구에게 물었던 것 같다.

“그저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

결국 나는 친구가 당부한대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썼다. 담당이라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나왔다. 지금도 기

억난다. 흰옷을 수수하게 입고 느슨하게 묶은 긴 머리를 한 그 여자는 한참을 물끄러미 옥탑방의 스산한 풍경을 보다 매화꽃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 그 말은 정답이었다. 나보다도 더 어려 보였던 여자 앞에서 난 눈물을 삼켜야했다. 사회복지를 담당한다는 그 공무원은 담담히 말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모자원이라고 해요. 소득 재산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되면 3년간은 생계비를 받으면서 무료로 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어머니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나중에야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가 어설픈 초보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위험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서야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는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재빨리 말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가겠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모자원은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라 통금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라고도 할 거예요. 괜찮겠어요?”

나는 물론 괜찮았다. 설령 그곳은 수녀원이고 한 번 들어가면 3년 동안 담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나에게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이고 돌아갔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알게 된 사회복지란 새로운 세상은 이후 문자 그대로 내 삶의 터전이 되었다. 절벽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자원에 온 엄마와 아이들 45세대와 함께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청학모자원에서 3년간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퇴소를 며칠 앞둔 때였다. 옥탑방을 방문했던 흰옷의 여자와 같이 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는 순간이었다. 고단한 삶을 살아왔을 내 눈앞의 사람들이 적어도 나와 마주한 그 순간 만큼은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모자원을 떠나던 날은 휴일 새벽이었다.

난 제법 두툼해진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단잠에 빠진 엄마와 아이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그곳을 떠나왔다. 첫 발령지인 경상남도 산청군을 향해서였다.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책갈피의 공간과 먼지 사이에서 비밀히 잉태된 벌레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기호를 읽어냈다. 이제 벌레는 자신이 깃든 공간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하고 있었다.

수상 소감

서라벌 여자중학교

서형숙



스무 살 무렵에는 나이 마흔이 되면 정말 불惑(不惑)일 줄 알았습니다. 격랑처럼 들끓는 마음의 흔들림이 가을 강물처럼 고요히 정화되고, 뇌우(雷雨) 쏟아지는 내면의 갈등도 지네끼리 부대끼고 부대끼면 그 날카로운 모서리가 닳아 서로 화해하여 손잡을 줄 알게 되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耳順)이 눈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소용돌이는 고요해지지 못하고 때때로 불면으로 밤을 새게도 합니다. 그런 밤, 마음속 소용돌이에서 거품을 내며 부대끼다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기억의 장면을 걸어 올려 글로 옮겨 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걸러내고 걸러내면 제 혼돈의 알맹이도 걸러지지 않으려나, 기대해 봅니다.

삶이란 가멸 없는 그 무엇에 기대어 희망하고 또 희망하며 살아내는 노동인가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글, 선택하여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 자신에게는 좀 더 정진해 보자고 어깨를 쳐 주고 싶습니다.

꽃

낮은 자세로 조용히 조용히 다가오던 봄이 일시에 달려들더니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난다.

땅이거나 나무 위거나 할 것 없이 꽃 잔치가 크게 열렸다. 풀밭에는 청보라 봄맞이꽃, 키 작은 노란 민들레가 다투어 피고,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서는 진달래가 고흥적 분홍 망울을 터뜨리더니, 도로 가에 줄지어 심어진 개나리가 노란 물감을 쏟아놓고 벚나무들은 일시에 연분홍 꽃구름을 피워낸다. 멀리 금강대 옆 버드나무 숲에는 연초록 안개가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린다.

꽃그늘에 서면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실체가 없는 아련한 애수가 눈가를 살짝 젖게 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밀려온다. 아름다운 꽃은 세상의 색깔을 바꾸고,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경주는 벚꽃이 필 무렵이면 상춘객으로 넘쳐난다. 찾길이 막히고 걸어다니기에 불편할 정도로 인파가 몰려오면, 작은 도시 전체가 연분홍 설렘으로 술렁거린다. 호수를 낀 관광단지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묻혀 있는 유적지 순환 길도, 왕릉이 밀집한 고분공원 옆 돌담길도, 다른 지역에서 꽃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일렁이고 그들이 몰고 온 몽환적 분위기에 함께 젖어 꿈결 같은 봄날을 만든다.

행복한 연인들은 자전거를 타고 훑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바퀴를 밟다가도 문득 두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래 붙잡아두듯 사진을 찍어대고,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온 가족들은 그들의 부모와 더불어 한 봄의 기억을 한 해라도 더 잡아 둘 양으로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다. 아마 그들은 그 사진 속 꽃처럼 행복한 기억을 가슴 속 깊은 우물에 간직해 두고, 삶이 고단하거나 지칠 때 가끔 그 기억의 우물가로 가겠지. 그럴 때 이 사진들은 두레박이 되어 지나간 행복의 기억을 퍼 올려 고단하고 메마른 목을 잠시라도 축여줄 것이다. 어떤 이는 이미 더 이상 봄의 꽃놀이를 함께 하지 못할 부모를 기억 속에서나마 불러올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권태로워진 어떤 부부는 그 사진 속에서 상대의 빛나는 젊음을 추억하며 잠시나마 행복한 연인이었던 시절로 돌아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꽃이 순간의 아름다움만으로 그친다면 누가 꽃을 아름답다고 말할까?

꽃이 아름다운 것은 겨울을 지나는 인고(忍苦)와 꽃이 진 후의 열매가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사람의 한살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꽃 같은 시절’이라고들 한다. 그 시절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청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청춘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어느 수필가는 청춘의 아름다움, 청춘의 활력, 청춘의 순수함, 청춘의 이상(理想)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부러움 가득 찬 예찬을 보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청춘을 아름답다기보다 아프고, 힘들고, 어두운 터널일 뿐이라고, 가능하면 빨리 지나가야 할 고통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이 자신에게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할 숙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숙성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와 풍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꽃은 하루아침에 피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에 온몸이 젖으며 자신을 깨끗하게 세우는 힘을 기르고, 여름밤의 천둥과 번개를 맞으며 정신을 버릴 때, 더 실하고 향기로우며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날 것이다.

내게도 젊음은 서럽고 아픈 시간이었다.

오래 병석에 누우셨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학생이었던 동생에게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나는, 하고 싶었던 공부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고 산골 오지의 중학교에 교사로 부임했다. 퇴근하던 시골길의 타는 저녁 노을이나 일찍 찾아오는 산골 겨울밤의 뒷문을 모질게 흔들던 매서운 바람은 20대의 내게 아득하고 막연한 좌절감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날이 많았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을 독서로 새우던 시간은 내게 간접 경험을 쌓게 하였고, 그것은 학생을 대하는 교사인 나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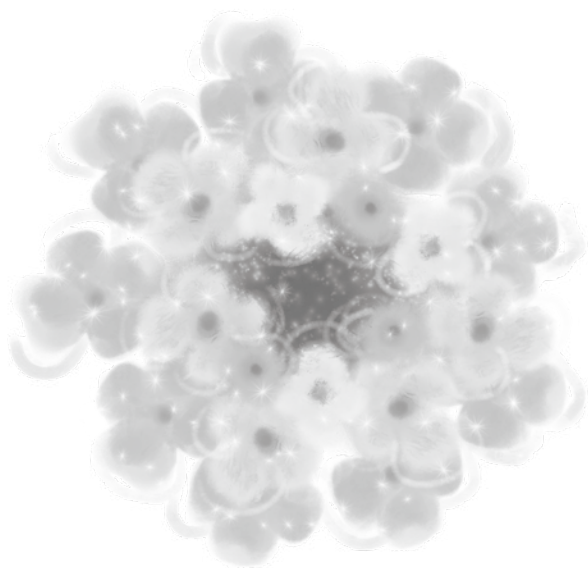
서른 가까운 나이에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만들어야 했던 새로운 가족 관계는 내게 또 다른 것을 버리기를 요구했다. 경북 북부 반가의 긍지를 자랑으로 삼던 시댁에서 종갓집 종부로 살며 개인이기보다는 가문의 한 구성원이 됨을 더 중시하는 가풍 속에서 한 해 열한 번의 제사와 차례를 모셔야 했다.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의 유교적 전통을 존중하는 시어른을 모시고 살다 보니 도시의 종갓집이라고 들며나는 시골 손님도 많았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한 고단한 날들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다. 어느 새 시어른들은 연로하여 예전의 서슬이 무너지시고

내 아이들은 자라서 제 길들을 찾아가고 나도 벌써 예순이 가까운 풍상(風霜)을 겪어 왔다. 내 체력의 버거움과 때론 내 게으름이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 버려.’ 하고 나를 유혹할 때도 없지 않았다. 가끔은 손 안에 한 줌 전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만 듯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는 내 삶이 되고 말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이 봄날, 저 흐드러지게 피어 세상을 밝혀 주는 꽃등불 아래 서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 내 삶은 축복 받은 삶이었음을, 감사해야 할 시간들이었음을 깨닫는다. 내게는 산골 중학교에서 시작하여 서른 해 동안 길러낸 자식같은 제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교단에서 가르칠 힘이 있음을 감사한다. 학생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때로는 그들과의 부대낌이 오히려 내 부족함을 깨우쳐 나를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철들게도 했다. 힘든 가풍에 어울릴만한 인품이 못되어 남몰래 눈물 짓는 일도 있었지만, 집안 어른들의 진중하고 절제하는 몸가짐에 맞추어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 어느덧 말과 행동의 경박함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힘들다고 투정부리며 부대껴 온 그 긴 시간들이 미당(未堂) 시(詩)의 국화꽃처럼 ‘먼,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게 나를 조련하고 정화해 준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머리에 흰 터럭이 희끗희끗 생겨나고, 이마에 희미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제 한 송이 꽃이 되어 보련다. 비로소 자신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고 다른 이를 이해하는 너그름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게 된 지금 이 순간 나는 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 받는 화려하고 풍성한 꽃나무는 아닐지라도, 풀밭 한 귀퉁이에 저만치 피어서 주변의 고요함과 조화를 이룰 그

런 되어 보련다. 흐르는 시간의 섭리에 몸을 맡겨 ‘있는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낸 후 가을이 오면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김용택 시인의 시 ‘가을이 오면’에서 따옴.)’ 그런 꽃 한
송이가 되련다. 나비와 벌과 바람에게 나누어 준 나는 또 다른 풀밭에서
더 많은 꽃으로 다시 피어나겠지.



수상 소감

전울산광역시

김 갑 주



꽃피는 봄이 짝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 꽃은 곧 봄 한 자락 안고 더위에 무너지고, 그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꽃 진 자리가 더없이 초록으로 눈부십니다. 상념의 치유를 위하여 공부하면서 치유도 안되는 여러 번의 낙방을 또렷이 안고 작문의 수인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아 글귀가 흐트러져 걸어 치우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프도록 기쁨 뿐이며, 축 처진 시간의 자국을 덮어주는 보람을 느낍니다. 허기진 마음 언저리를 활짝 펴주는 몸매에 갇힌 아픈 문자들이, 박제된 기억들이 깨어납니다.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유년의 여름

일요일, 어스름한 꼭두새벽에 선잠을 타하며 아직 어둠이 살아 있는 옥상에 올라선다.

나는 여태 꾸덕꾸덕한 삶을 바지런히 꺾매고 있었다. 출입문을 열고 닫는 건 한결같이 닳아 헐거워진 삶이었다. 잊은 지가 오래된 오늘 다시 찾은 건 나이가 아닌 옛날의 시간이 담긴 깊은 늪이다. 시원한 공기를 들이쉬 후 다 낡은 여러 사진첩을 열다 보니 누렇게 빛바랜 흑백기억의 사진 몇 장이 눈에 오롯이 돌아난다. 그 위에 아련한 그리움의 추억 한 자락이 영상처럼 흘러온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새록새록 떠오른다. 지난 세상을 훑쳐보는 것 같다. 선생님도 못 외면서 국민교육현장을 외지 못한다고 손바닥을 얻어맞고 늦게 귀가하던 그 시절, 사진 속에는 이웃 동네의 어렵게 살던 학우들이 마냥 웃고 있다. 매양 배고팠던 그 놈들, 비록 다산의 전후세대이지만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먹을거리가 적었던 시절을 거쳐 온 저민 동료들. 시간의 얼굴들이 겹쳐 떠오른다. 불러 앓혀 다들 어찌 살고 있는지 입술이 들썩이는 늦은 안부를 묻는다. 지을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이 선명하게 피어난다.

날 유년의 고향에 데려다 놓는다.

빛바랜 시간을 풀어 저 멀리 고향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짐승 잔등이

같은 낮익은 능선에 에워싸인, 언제 봐도 그리운 어머니 품속처럼 푸근한 곳이다. 그 옛날 상여집이 있던 야트막한 산기슭을 지나노라면 잡초만 무성하다. 동급생들의 동네가 훤히 바라보이는 뒷산 산등성이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마을 앞을 감도는 하천의 물웅덩이에 산 그림자가 내려와 앉는다. 개 해엄칠 때 숨긴 검정고무신이 떠오르는 물에 날 비취 본다. 그때의 까까머리는 온데간데없고 고향을 등진 중년의 한 사내가 그곳에 서있다.

엄마의 고향 여름을 잔뜩 안고 죽담 고샅으로 접어들면 바람 한 줄기가 구멍이 숭숭 난 돌담 틈새를 헤집는다. 잘 여문 바람의 끝이 달려오는 담벼락이 어린이 키만큼 나지막하다. 담장을 넘은 감을 따먹고 쫓기다 얻어 맞은 일이 돌연 스친다. 아침이면 골목바람이 간밤 안부가 궁금하여 담을 타 넘어오고, 달이라도 휘영청 밝은 날이면 낭랑한 살찐 달빛도 잔뜩 바람이 들어 몰래 담을 넘는다. 잘 자란 달빛을 깔고 앉아 그 영롱함에 흠뻑 젖는다. 마을 뒤 둔중한 달구산과 앞의 나지막한 군들산 능선에서는 산과 여름을 들어올리는 땀꾸기가 요란스레 울어대고 녹음 터진 습한 향기에 온 마을이 젖는다. 서정이 물씬 풍기는 한 폭의 풍경화다.

가사는 어렵지만 철모르던 어린 시절 쌀밥과 반찬 투정을 한다.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가슴자리가 넓은 엄마는 “별거 있냐? 뜨끈한 보리밥과 시래깃국, 김치와 풋나물, 간장과 고추장이면 됐지.”라고, “갈치 한 토막도 없어요.” 손가락과 마음만은 푸르려야 함에도 세상물정 모르는 반찬 투정이 매양 넉넉하게 받아주는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하교하면 엄마는 짠 세월을 묵묵히 삼키면서 목숨을 비집어 일구는 한 점 채전으로 나가고 등골 같은 집은 텅텅 비어 있다. 가슴팍에 드리워진 난만한 엄마

의 향내만 남아 있다. 무두질로 배는 쓰리고 고프지만 마땅한 반찬이 없다. 힘들 때 시름과 함께 빈 뱃속에 남은 허기는 고구마 한두 개, 보리밥을 찬물에 말아 밥알 한 톨 남김없이 한 손갈 입안에 떠 넣으면 그게 전부다. 다 닳은 문장을 다시 씹어 봐도 마찬가지로듯이 한숨이 절로 나와도 별수가 없는 처지다. 찢어지는 가난을 베개 삼았으니 걱정을 털어낼 여력이 없다. 굶주림을 막는 데 바쁘니 재력은 닿을 수 없는 길이다.

돌담 감나무 밑 시들지 않는 그늘이 팽팽하게 깔고 앉은 대나무 평상이나 멍석 위에서 밥을 먹을 땐 반찬도 그렇거니와 금시 돌담을 넘어온 긴해가 등쪽에 난 땀띠를 들쭉서 놓는다. 얼른 밥을 찬물에 말아 목구멍으로 넘긴다. 유년의 여름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냉수예다 밥을 부어 먹은 기억밖에 없다. 그나마 읍내 시장에 발밤발밤 갔다 오는 엄마 손엔 아버지가 좋아하는 소금 밴 여린 갈치 한두 마리가 고작이다. 전리품처럼 새끼줄에 묶인 갈치는 은빛이 벗겨지고 너무 짜서 한 조각 입에 넣을 때마다 온몸이 설렸지만 오랜만의 고기반찬이라 참고 먹는다. 그것도 가끔 장날이라야, 아버지가 조금 남겨줘야 가능하다. 중년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치는 그때의 꿀맛 나는 추억을 먹고 사는 게다. 그게 5일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땐 해마다 그렇게 싫었던 보리밥이 이제는 건강을 볼모로 먹고 싶은 게다. 그래서 시방은 보리를 많이 넣은 잡곡밥을 짓는다.

말없이 분주한 수저질로 짠 갈치 한 동강 먹으며 땀띠와 모기가 톡톡 쏘아 대던 그 등짝 언저리를 다시 한 번 쥐어뜯기고 싶어진다. 그래도 저녁이 늦을 때면 시래기 국맛은 농주에 취한 달을 띄워 마시는 기분이다. 이미 그 맛이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얼버무려져 있다. 음식은 그대로지만 내 입맛이 그간 변해 버린 탓이다. 찬물에 술렁술렁 말아먹어도 뱃심 채우는 게 보리밥이라고. 그런데 그때가 둘러앉은 식

구들의 감성적 정서적 허기도 함께 힘을 잔뜩 받을 땐가 보다. 하루 세 끼니의 경계가 무너지는 홀로 있는 집에서 마주하는 밥상은 아무리 잘 차려도, 주전부리를 하여도 힘이 되질 않는다.

요즘은 그런 날이 사나흘 계속되면 인근 꼬불꼬불한 주린 창자 채워주는 반점에 손자장면 먹으러 간다. 지금 먹는 나의 두 눈 속에는 까칠한 수염을 양 볼에 담았던, 담배가 하루 4갑 골초이던, 배가 만산인 여자 같은 중국아저씨의 그리움이 산다. 그땐 읍내 장날이면 번잡하여 같은 반 친구 집 입구 한쪽 구석진 곳에 앉아 문틀 밖 지나는 사람들을 물품처럼 구경하곤 하였다.

장날에 내다판 엄마의 소채와 바구니, 소쿠리 덕분에 몇 푼을 꼬깃꼬깃 만지면 그날이 생일이다. 엄마는 저녁상 무렵 누렇게 바랜 거울 앞으로 나를 오라며 피죤취한 옷차림을 벗기고는 깔끔하고 값싼 옷을 입힌다. 많은 엄마가 그렇듯이 살불이 수저무게에 달라붙은 속울음 묻어두고 가슴으로 자녀를 키운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 책임감으로 “난 괜찮다.”라고 하던 엄마는 허기진 생의 끝자락을 가슴에 쓸어 담고 가셨지만 가슴 뭉클 치민다. 난 언제나 수수한 엄마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 사랑은 피와 눈물만큼 거룩하였다. 이런 날 불룩한 마음은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채워도 끝없는 오늘의 욕망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마 걸음걸음 읽고 가는 선승 같은 달도 크고 별도 충충 빛났던 게다. 그래서 지워진 유년의 기억 한줄이 부표로 떠올라 지금도 온몸을 휘감고 돈다.

좁다랗게 꾸불꾸불하며 끊어지다 다시 이어지곤 하던 길들, 그 안에 사는 농어촌사람들의 애환과 함께하며 세월을 머금은 늙수그레한 길들이다. 눈 감아도 환한 그 속에서 숨바꼭질하던 아이들의 쟁글쟁글한 웃음소리,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의 족쇄, 어깨에 매달고 온 길목에 흩어 놓은 배

고품, 아랑곳 하지 않고 명치끝을 내리치는 허기, 가슴 철렁 설레며 오가던 마을길목의 추억, 텅 빈 한낮의 적막함까지 오롯이 배어나는 곳이다. 저녁나절이면 전어 굽는 냄새가 온 동네 퍼지던 …… . 길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짙어오고 집집이 처마 끝에 초롱불이 밝혀지면 시골마을의 적절한 밤이 시작된다.

저녁을 먹고 하늘의 깊이를 재는 모닥불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쯤 더위도 쉬어가는, 지친 하루를 행귀주는 마을 앞 하천 물소리가 피어오르는 교량 위에 자리하면 다 삭은 검은 바람을 맞을 뿐 바깥은 이미 어둠 속이다. 햇빛은 어둠을 삼키는 밤의 들머리가 익어가는 시간이다. 화려한 외출로 어둠을 파고드는 매미소리가 복터위를 북아대며 귓속을 따갑게 달군다. 하천에 풀리는 달을 보며 청산을 건져 올릴 듯 숨을 멈추고 담담하게 물밑에 들어 담방구질 하는 아이들의 목청이 살아있다. 귀가 길은 집집마다 초롱불빛을 향해 더듬어갔다. 심신은 익숙한 어둠에 절어도 정신과 숨결은 맑다. 뒷마루에 걸터앉으면 그 누가 별점을 치는지 밤하늘의 별뿔들이 쏟아지고 마을 앞 들판과 뒷동산 숲속에서 밤을 다 파먹는 가느다란 풀벌레 울음소리가 한층 가까이 들리는 적막한 사위. 새까맣게 물려드는 벌레에 물리는, 그 소리를 씹는 시간이다. 어둠을 부둥켜안고 반짝이는, 명멸하며 바깥세상을 밝혀 주는 유일한 반딧불만 간혹 보일 뿐 가로등도 없고 불빛 없던 시절의 그런 밤은 어둠이 주는 편안함과 온전한 사유의 시간이다. 이슬방울 속으로 어둠이 오롯이 들어갈 무렵 모기들이 침을 놓는, 하염없이 밤잠을 갇아먹는 풀벌레울음을 덮고 자는 밤이다. 하늘에 닿은 내 생각을 반죽한다. 어둠을 뜯어먹는 초롱초롱한 별빛이 내려앉아 초가지붕에서 자작자작 쉬는 소리가 나는 듯하다.

“시골 초가 처마 끝에 초롱 별 걸어놓고/쩍! 열린 수박 한 통 삼베옷을 적시면/매캐한 쑥대연기가 한여름 밤 길을 연다.”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마당에 나서기라도 할 때면 마당 가득히 내려앉은 별빛의 찬란함과 찌든 뒷간냄새에 잠이 확 달아난다.

온 세상이 모두 잠든 밤에도 마치 은하수처럼 별들이 그렇듯 마지막 순간까지 깜박이며 밤을 지키는 것이 신기롭다. 별은 확연히 현실과 거리를 둔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별은 밤의 속살을 속속들이 비추어 주며, 수많은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은 지금 내 어깨에 머리맡을 기대고 있는 엄마의 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어둠이 들면 궁금한 광년의 우주를 담아 가슴속을 흐르는 별을 돌아본다.

늘 고무줄처럼 오락가락 시골의 울타리 속에서 나이를 먹고 뒷산 잔디밭에서 좋은 일과 궂은일을 수런수런 풀어놓고 뛰놀다가 땀감을 장만하여 돌아오는 게 전부다.

기억은 단순하게 멀어져간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만 추억은 그 속에서 뛰놀던 시기를 얘기하는 것. 과거를 비우는 기억 떠난 빈자리에 추억이 소록소록 들آمد다. 그래서 추억은 필름을 풀어가는 파노라마다. 다만 기억이란 영상에는 세월이 빚어낸 망각의 먼지들이 더께더께 끼게 마련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은 기억이 추억으로 재생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개미처럼 땅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새처럼 허공을 날아다닌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란 없기에 찰나에서 찰나로 이어지

는 순간순간들은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언제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들이 오래도록 자신의 곁에 머물기를 바라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날의 향기가 그리운 것이다.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져 그 잔상이 그리움을 더한다.

사람 만나는 일들, 마음 써야 하는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면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기도 한다.

오랫동안 열어 보지 않았던 앨범을 들춰본다. 그 안쪽 어렵게 다니던 학창시절에 적어 놓은 짧은 적바림과 여기저기 부서진 일상의 파편들이 내속에 다시 들앉는다.

곳곳에 필연 같은 우연들이 마음 가는 데로, 눈길 가는 데로 그저 흘러갈 뿐이다. 아직도 털 꿇은 삶이 있어 또 한 생을 굴리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은 저절로 써지는 한 권의 책이다. 아니 인연과 얽힘의 역사이다. 삶은 도중에서 하차할 수 없는, 퇴고도 할 수 없는 연속적인 여정인 것이다. 그 선상에서 고향에 두고 온 그 시간들은 잊지 못할 그리움으로 깊어진다.

고향을 떠나도 마을 앞 시냇물 웅덩이에서 담방구질 하던, 이웃집 감이파리 날아가다 멈추던, 짚으로 이엉을 엮어 엮던 등의 지난날은 꿈결에서도 주요배경이 되어 내 몸 안에 담겨있다. 돌아갈 마음의 안식처는 어머니의 품속처럼 넉넉하고 푸근해서 마냥 좋다. 아무리 몸속에서 퍼내도 그리움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름에 고인 화폭 벽공 끝에 걸려있다/한 뜸의 오래에다 고살길 끄트

머리/애기가 서린 그림자 묻고 왔을 뿐이다//뿌리내린 잡초처럼 균열된
생의 틈새/그곳으로 가고 싶어 파스처럼 달라붙는/회억의 터널 한복판에
내려앉은 거미줄//가슴을 타고 올라 기억저편 텅텅인다/달리는 열차 속
에 붓짐을 벗어놓고/길이 든 고향 쪽으로 그리운 몸 돌린다”

만남과 헤어짐, 드러남과 감춤이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있다. 다른
나는 나를 감시하며 작아진 나를 되돌아본다.

어느새 시간만 먹은 흰머리가 검은 머리를 밀어내고 뒤룩뒤룩한 뺨살
에 뒗짐을 지기 시작하는데도 유년의 시간만큼은 골이 팬 기억들만 촘촘
히 쏟아낸 진실이고 추억이다. 그래서 그림자를 밟으며 묻힌 과거를 사색
하며 거닌다. 옛날도 오늘을 살고 있다. 모두 떠난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은
시간의 상처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은 시간의
덕지덕지한 더께다. 모든 존재의 이유는 형형한 마음의 눈길 때문이다.
그 눈길이 없다면 존재도 없고 세상도 없다. 눈길로부터 사라졌을 때 끝
났다고 말한다.

도회를 떠난 시간을 거슬러 올라 킁킁한 길모퉁이에 서서 희미한 기억
을 더듬어 그리움이 머무는 옛날을 되뇌며 아득한 고향에 파묻힌 여름밤
의 호젓함으로 한 움큼 움켜진 향수에 빠져드느라 번잡한 세상사도 잠시
잊은 한 때.

수상 소감

전전주송북초등학교

정성수



어머니의 손끝이 닿으면 모든 것은 밥이 되고 반찬이 되었다. 세상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손맛에 길들여지고 어머니의 손맛으로 자란다. 군것질 거리가 없던 유년은 허기가 절반이었다. 학교가 파하고 돌아오면 살강에 정좌한 밥그릇 밑에 감추워 뒀다 꺼내주는 누룽지 한 볼탱이는 이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간식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이 만들어낸 진미이자 걸작이었다.

요즘이야 누룽지를 굽어주는 어머니도 없을 뿐만아니라 달챙이 숟가락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직도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을 그리워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

달챙이 숟가락

어머니의 기일이다.

아내가 제사상을 차렸다. 제사상이라고 해야 제수진설법에 의해 차린 것이 아니다. 소반 위에 영정을 모셔놓고 양쪽으로 촛불을 켜 놓았다. 영정 앞에는 꽃바구니가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장미와 안개꽃을 장식한 꽃바구니다. 살아생전에 꽃을 좋아하신 어머니였다. 추석 성묘나 어머니의 묘소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은 국화가 아닌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 제사상에 놓은 가지가지 꽃들을 섞어 만든 꽃바구니를 내려다보는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웃으시며 걸어 나올 것 같다. 꽃바구니 앞, 하얀 접시에 놓은 숟가락이 눈에 띄었다. 한 눈에 봐도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이었다. 순간 뜨거운 것이 울컥하더니 목구멍을 막았다.

오늘 낮에 찬장 속을 정리하다가 눈에 띄었다고 한다.

마침 어머니의 기일이어서 제사상에 올려놨다는 아내의 말이다.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을 바라보는 우리 육남매는 아무 말이 없었다. 서로의 가슴속에서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이 어머니를 추억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이 자식들의 가슴속에서 감밥을 굶고 있었다. 따뜻한 것은 감밥이 아니라 땀과 땀은 달챙이 숟가락이었다. 달챙이 숟가락은 생이 무너졌어도 향기가 있고 울림이 있었다.

달챙이 숟가락은 어머니의 분신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은 여름철 하지감자를 굽거나 김장을 할 때 배추뿌리나, 무, 생강 껍질을 벗겼다. 그런가 하면 고구마도 바닥에 놓고 득득 굽으면 탱글탱글한 속살을 보여줬다. 이처럼 달챙이 숟가락은 한 몫을 할 때가 많았다. 껍질을 벗길 때 칼보다는 달챙이 숟가락이 효율 가치가 컸다. 칼로 껍질을 잘못 벗기면 껍질보다 속살이 두텁게 깎여져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달챙이 숟가락은 겉껍질만 살짝 긁어내어 허실을 적게 한다. 특히 감자나 생강을 깎을 때는 달챙이 숟가락의 끝부분에 대고 살살 돌리거나 굽으면 껍질이 잘 벗겨진다. 그런가하면 씨눈이나 상한 부분을 오려내는 데도 그만이다. 울퉁불퉁하여 껍질을 깎아내기 어려운 생강도 달챙이 숟가락으로 좁은 골을 따라가면 구석구석을 긁어낼 수 있다. 늪은 호박 껍질도 달챙이 숟가락 앞에서는 고분고분하다. 밥솥 바닥에 늘어붙은 찹밥은 달챙이 숟가락이 있어야 쉽게 긁을 수 있다.

달챙이 숟가락은 끝이 닳아서 반달 같이 생긴 숟가락이다.

그것을 전라도 지방에서는 ‘달챙이 숟가락’라고 부른다. 그런가 하면 충청도 지방에서는 ‘모지랑 숟가락’이라고 한다. 이 말은 ‘모지랑’과 ‘숟가락’의 합성어다. ‘모지랑’은 ‘모지라지다’라는 뜻으로 ‘물건의 끝이 닳아서 없어지다.’이다. 말 그대로 ‘모지라진 숟가락’이란 뜻이다. 보통 숟가락이 보름달이라면 달챙이 숟가락은 반달이었다가 세월에 부대끼면서 그믐달이 되고 종당에는 끝이 뭉툭한 달챙이 숟가락이 된다.

달챙이 숟가락은 무쇠 솥 바닥을 긁는 때 진가가 확연히 드러난다. 밥을 다 푸고 난 다음 찹밥을 긁어낼 때 달챙이 숟가락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달챙이 숟가락으로 갸바빔을 끓는 소리는 주전부리가 혼치 않았던 시절 자식들에게 최고의 복음이었다. 나는 가끔 어머니가 저녁밥을 지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땔 때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아궁이를 바라보았다. 활활 타는 불빛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새색시 얼굴처럼 환했다. 말없이 불을 때고 있는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왜 불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한 적이 있었다. 코밑수염이 구둑술처럼 자라면서 어머니는 그 때 첫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첫사랑에 열병을 앓고 있었던 때였다. 지금도 목을 움츠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젊은이들을 보면 저녁 아궁이의 불빛을 보는 것 같다. 할 수만 있다면 젊은이들의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으로 끓은 갸바빔 한 볼탱이를 선물하고 싶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여름날이었다.

학교가 파하고 집에 돌아왔다.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배 속에서는 개구리들이 울고 있었다. 책보를 마루에 집어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마침 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는 달챙이 숟가락을 들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가 방금 갸바빔을 끓었다는 것을 눈치 챘다. 어머니가 들고 있는 달챙이 숟가락 끝에 아직도 붙어 있는 밥풀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 눈치를 눈치챈 어머니는 살갗 위에 얹어 놓은 밥그릇을 들추더니 한 볼탱이가 될까 말까 한 갸바빔을 내 주셨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다. 보리밥을 끓은 것이었다. 보리갸바빔을 한 입에 몰아넣고 우물거리자 어머니는 급히 먹다 체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했다. 동생들이 오기 전에 먹어야 빼앗기기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씹지도 않고 한 순간에 먹은 것이다. 이 때 대

문에서 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입을 쓰
으 닫고 부엌을 나왔다. 바로 아래 동생이 “형? 갸뱌 먹었지?” 나는 시치
미를 톡 떼고 동생에게 “갸뱌 좋아하시네? 갸뱌 푸기도 모자란단다. 알았
냐 잉?” 큰소리를 치고는 돌아서서 입을 막고 킁킁거렸다.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는 달챙이 숟가락으로 과일을 곱어 먹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서 달챙이 숟가락을 사용했던 것처럼
과일을 곱어 과즙이 흥건하게 담긴 숟가락을 입에 넣기도 했다. 잇몸
부실한 어머니에게 달챙이 숟가락은 효자 노릇을 했다. 지금 제사상에
놓은 어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은 자식들에게 “늙어 용도 폐기가 될지라
도 억울해 하지 말고 유용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라.”말하고 있었다.

인간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이 세상에 온
다고 한다.

그것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달챙
이 숟가락이 될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정 속의 어머니가
한 번 만져보기라도 하자는 듯 달챙이 숟가락으로 손을 뺏는다. 아직도
쓸 만하니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어
머니의 달챙이 숟가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수상 소감

미래창조과학부 경주우체국

조정임



이른 아침 지나가는 비가 내렸다. 계절이 바뀌는 대기에는 아직도 비 내음이 싱그럽다. 너른 들판은 모내기하는 일손으로 분주하고, 산과 공원은 행락객으로 생기가 넘친다. 늘 그렇듯 타인의 고뇌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저마다의 속도에 맞추어 잘도 돌아간다. 늘 일탈을 꿈꾸면서도 언제나 제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일상을 탈출하고 싶던 그때마다 내 가슴 언저리에는 새로운 문장이 하나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기대하지 않고 보냈던 원고에 수상소식이 날아왔다. 부족한 글인 줄 알면서도 뿌듯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제 시작이다. 서툰 날갯짓에 용기를 북돋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사랑

난데없이 오른쪽 발목의 복사뼈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게 부어올랐다.

병원에 가서 벌써 몇 일째 주사기로 물을 빼내었지만 도무지 나아 기색이 없다.

‘복숭아……’ 나직이 중얼거리기만 해도 그 관능적인 분홍빛에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덜컥 주저앉고 말았던 솜털 보송보송 하던 첫사랑의 한때를 기억하라고 사람들은 복사뼈를 ‘복숭씨’라 부르는 것일까?

그날 이후부터였다. 십수 년 만에 나간 고향마을 옛 친구들 모임에서 그를 다시 만났던 날, 나는 변해버린 그 모습에 순간 놀라 소스라치고 말았다. 친구들 틈에서 불쑥 튀어나와 반갑게 악수를 청하던 그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하고 있었다. 사춘기 풋풋한 소녀였을 때 그를 처음 보았고 첫눈에 그에게 호감을 느꼈던 그날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다 넘어져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었다.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지만 짧은 순간 만감이 교차하면서 움찔거렸다. 반가움보다는 놀란 몸짓을 숨기지 못하고서 그만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휘청거리면서 어딘가에 복사뼈를 부딪치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내내 오른쪽 복사뼈가 시큰거리더니 붓기 시작했다.

삼십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지난 일이다.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에 나는 단짝 친구의 손에 이끌려 친구가 다니던 조그만 시골 교회에 가게 되었다. 열댓 평쯤 되어 보이는 조그만 예배당에서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 조출한 종강행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유난히 노래를 잘 부르던 친구는 자기 순서가 되자 어떤 남학생과 함께 무대로 올라가 인사를 하더니 그 남학생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독창했다. 나는 친구보다 그 남학생에게 자꾸만 눈길이 났었다. 외딴 시골마을에 사는 가난한 친구가 늘 안쓰러웠는데 그날은 함께 무대에 선 친구가 부럽기만 했다.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 피아노를 치는 남자를 보기란 쉽지가 않았기에 새하얀 얼굴에 찢어 놓은 듯 긴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그 모습이 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아 남모르는 가슴앓이가 시작되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친구에게 다가가 넋지시 그 남학생에 대해 물어보니 나보다 세 살 많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도 그날 그는 여러 번 피아노 반주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고 그때마다 나는 까치발을 하고 더 자세히 보려고 발돋움하다 결국 행사가 끝날 무렵에 그에게로 분별없이 열려버린 내 마음 때문에 온 몸에 힘이 빠져 그만 누군가에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복사빠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병원은 물론 보건소조차 먼 곳이라 우선 마을의 어느 할아버지 댁에서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였다. 어쩌다 보니 나는 처음 만난 그 남학생의 부축을 받아 할아버지 댁으로 옮겼고 응급치료를 받았었다. 그리고 그는 절룩거리는 나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우리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평소엔 친구네 마을에서 우리 집까지는 꽤 먼 거리라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왜 그리 가깝게 느껴지는지 아쉬움이 남았다. 그가

발목을 다친 나를 배려하여 천변에 앉아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였고 우리는 넓적한 바위에 나란히 앉아 수줍어 서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먼 산만 응시했다. 그는 천변에 흐드러지게 핀 패랭이꽃을 한 아름 꺾어 주었다. 조금씩 마음을 연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는 도외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목사님인 아버지를 도와 교회행사에 참석하러 왔고 바로 다음 날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도 친구를 따라 온 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고 했다. 자 전거는 비포장 길을 덜컥이며 제멋대로 달렸고 나는 그때마다 그의 허리춤을 꼭 껴안았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가슴이 얼마나 큰 소리로 쿵쾅거리는지 들킬 것만 같아 내내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었다. 우리 집 앞에 다 왔을 무렵 그가 말했다. “편지 할게.” 하면서 가늘고 긴 손을 흔들며 그가 떠나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가 꺾어준 패랭이꽃을 꽃병에 꽂아두고 매일 그의 편지를 기다렸다.

그 후 한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었다. 고3 이었던 그는 대입 시험일이 다가오면서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겨버렸다. 어쩌다 그 교회 앞을 지날 때, 그 천변 길을 혼자 걸을 때 문득 문득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먼저 연락을 해 볼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그렇게 서서히 그는 내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그리고 불혹의 나이에 다시 그를 만났다.

내가 변한 만큼 꼭 그만큼 그도 변해있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무슨 사연을 가슴에 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연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숨길 수 없는 삶의 이력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가 건네 준 명함을 무심히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나는 궁금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패랭이꽃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한다고 아직도 패랭이꽃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30여 년 만의 해후치고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게 헤어졌다.

첫사랑은 첫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유물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가치가 의미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라든가 사람에 대한 믿음의 가치관이 첫사랑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속설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첫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시절 그 가슴 떨림은 첫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억만으로도 지나간 삶이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이 있었으니, 내 첫사랑의 추억은 털 익은 풋과일 같아서 모자랐거나 넘쳤던 마음들이 나뭇가지를 떠나 뚝뚝 떨어진 낙과같이 그날 내 발목으로 우두둑 떨어진 모양이다.

오랜 기억의 터널을 지나오니 과육 반점 같은 복숭씨가 또 다시 부풀어 오른다.

첫사랑을 수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으니 기억만큼 아름답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발목이 시큰거리도록 추억의 길목을 헤매었던가 보다. 인생의 긴 여정 중에 잠시 미소 지을 수 있는 풋풋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바가지 마중물을 퍼 올려 준 부어오른 복사빠도 이제 곧 아물 것이다. 첫사랑의 기억처럼.

수상 소감

강원도 태백시

남궁증



메마르기 쉬운 공직생활에 문학이라는 정서의 場을 만들어 주신 인사혁신
처의 모든 분들, 그리고 미흡한 글을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까지 먹구름 속에서 울던 천둥의 소리
를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삼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렇듯,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해 준 아내와 가족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겨우살이

햇살을 머리에 이고 봄이 오려나보다.

파스텔 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나무들이 남녘의 바람과 손을 잡고 구절양장(九折羊腸)을 만든다. 좁고 굽은 산등성마다 돌아눕는 풍경. 연한 아지랑이가 만든 햇살이 나무위에 조롱을 건다.

겨우살이다. 팽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도 좋지만 아무래도 겨우살이는 참나무에 핀 모습이 어울린다. 활엽수림 가운데 둥글게 열매 맺는 참나무의 성질 때문일까.

이십 수년 전, 겨우살이를 처음 보았다. 산악회의 멤버가 되어 몇몇 선배들과 처음으로 등산을 할 때였다. 정상을 앞둔 능선 비탈에 연두색 조롱을 단 참나무가 있었다. 앙상한 참나무의 가지에 유독 그것들만 연두색 옷을 입고 까치의 둥지처럼 달려 있었다.

잔설이 참나무의 발등까지 덮고 있으니 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건만, 계절을 무색케 하는 참나무의 요술에 아연하였다. 참나무에게 저런 모습이 있을 줄 미처 짐작하지 못하였다. 동면에서 막 깨어난 참나무가 곁가지에 연두색 조롱을 걸다니. 아니, 참나무가 조롱을 매단 것이 아니라 저 조롱이 참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참나무가 주인이라면 저 조롱은 더부살이였다.

어떤 연유로 술한 터 중에 하필이면 참나무를 택한 것인지, 살기 위해

다른 나무의 몸을 빌린 모습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채 들기 전에 문득, 홀로라는 생각이 무서워 참나무 숲을 황급히 빠져나왔다.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 가슴에 찬바람이 쏘아아 드는 날이면 그때, 산정의 겨우살이가 생각난다. 당시의 강렬한 기억과 함께 한때 겨우살이 같은 삶을 살았던 조카 때문이다.

조카가 내게 몸을 의탁했을 땐 얼굴도 마음도 가냘팠다.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조카의 깊은 눈망울엔 참나무에 매달린 겨우살이가 들어있었다.

조카는 어느 겨울날, 겨우살이처럼 내 곁가지로 찾아들었다. 교통사고로 형수님을 잃은 후다. 형님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랜 병원생활이 필요했다.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책이며 옷가지를 조롱처럼 들고 내게로 의탁해왔다. 아파트 한쪽을 막아 조카의 작은 방을 만들어 준 후에야 겨우살이가 남에게 의탁해 자라는 더부살이 식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나무가 텃새라면 겨우살이는 철새다. 참나무의 양상한 가지 끝을 맴돌던 두루미나, 저녁하늘에 어둠을 그으며 날아가던 쇠기러기가 겨울의 더부살이라면, 산정을 오가며 구슬프게 울던 빠꾸기는 여름의 더부살이다.

빠꾸기는 겨우살이처럼 남의 등지를 빌려 알을 낳고 자라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여름 한철, 조석(朝夕)의 저 울음은 제 어미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발로는 아닐까 싶어 사뭇 마음이 애처롭다.

텃새로 자라지 못하고 철새로 자라야했던 조카의 겨우살이가 내 어릴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가련한 생각이 든다.

등산길의 겨우살이를 본다. 잔바람에 흔들리는 연두색 작은 몸짓이 눈 시리다. 동공의 틈을 비집고 홀로선 모습이 외롭다. 볼을 흐르는 눈물이 한 뼀 그만의 영토에 노란 물감으로 번질 것만 같다. 앙상한 참나무의 손길이 한사코 보듬고 있는 겨우살이가 조카인 것만 같아 마음 아프다.

조카는 꿈속에서도 옷을 벗지 않았다. 거실과 통한 그만의 작은 방에서 자습을 하고 책을 읽고 꿈을 꾸었다. 끼니마다 밥상에 앉아 밥이 아닌 눈물을 먹었을 것이다. 내 아이들과 차이 없는 일상이었지만 슬픔이 배였고 기쁨은 반이었다.

앙상한 참나무의 가지 끝에서 혼자만의 등지를 틀고 슬픔을 안으로 쥔 여 놓었다. 아직 부모 품이 그리운 초등학교 4학년 응석받이의 눈물은 조롱을 가득차고 넘쳤다.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던 조카에게선 바람에 흔들리던 겨우살이의 여린 마음이 느껴졌다. 몸이 아파 끄끙거리는 날이면 나의 옆구리가 시려왔다. 한줌 어둠을 끌어안고 별을 세는 밤이면 가까운 곳에서 찬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카는 겨우살이처럼 참나무인 나의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다. 낯선 도시의 한쪽 틈을 비집고 더부살이 생활에 적응하여갔다.

조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울지 않는 것과 독서였다. 어떤 때는 폐잔병 같은 모습이 보기 싫어 야단을 치면 조카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리곤 그만의 작은 공간에서 ‘어린왕자’의 판타지아에 빠져들었다. 책이 조카의 생계를 담보하는 밥보다 귀중한 양식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인다.

그런 어느 동짓달이었다. 동장군의 기세가 매서운 날 이었다. 야근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조금 못 미친 시간이었

다. 행여나 아이들과 아내의 잠을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어둠 속으로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신음과 같이, 그리고 누군가가 들을까봐 애써 억누르며 울고 있는 소리. 가늘게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하였다.

조롱 같은 그만의 방에서 조카는 가고 없는 엄마와 함께 울고 있었다. 불에 덴 듯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후 조카는 곧잘 피리를 불곤 하였다. 조롱 속에서 부는 피리는 적막하였다. 피리소리를 따라 조카의 마음도 하늘을 날았으리라. 보고 싶던 엄마의 얼굴이 피리소리를 타고 내려오는지 조카의 얼굴이 환해진다.

1년이면 족하리라던 형님의 병세가 2년을 넘어 3년을 지나는 동안, 조카의 울음은 피리소리로 바뀌어갔다. 조카의 피리소리에선 연한 겨우살이 냄새가 났다.

겨우살이는 생명력이 강하다. 태생부터가 그렇다. 산비둘기니 산 까치니 이름 모를 산새들이 매개체라고 한다.

나는 밭은 또 어떤가. 참나무나 밤나무, 신갈나무, 팽나무다.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은 나무가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참나무나 밤나무는 나눠주는 나무다. 인간에게 열매를, 겨우살이에게는 자양분을 나눠준다.

또, 겨우살이가 주인에 기생하는 머슴이라면 참나무는 주인이리라. 머슴이 질긴 잡초라면 주인은 화분속의 화초는 아닐까.

잡초는 아무리 짓밟아도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겨우살이가 그렇다. 겨우살이를 보면 한겨울을 변함없이 견디는 자존을 느낄 수 있다. 척박한 환경과 낮은 텃세는 그의 자양분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사는 것은 없으리라. 동물도 암수의 짝이 있듯,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몸의 한쪽을 의지하여 산다.

나눠주고 나눠받고 사는 게 참나무나 겨우살이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라는 큰 생명체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겨우살이는 아닐까도 한다.

그런 존재의 특이함 때문이라. 겨우살이는 사람들의 약재로 그 생명까지 주는 것은 물론, 그림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애달픈 더부살이를 상징하는 글감이 되어 마음을 울리기도 한다.

언젠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뿌리가 잘리고 근거지마저 없어져버린 겨우살이를 보면서 내 집이 없어진 것 같아 못내 섭섭하였다. 동짓달 매서운 추위에 사위어가던 조카의 작은 몸짓이 눈에 아련하였다.

전혀 좁혀질 것 같지 않던 꿈속의 거리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우살이에 마음 샘을 적시던 날이 얼마나 되었을까?

나 역시 세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파산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조카와 같은 나이에 큰댁 겨우살이를 하지 않았던가.

겨울바람의 매서움과 속울음의 안타까움을 견뎌내고 피운 게 겨우살이였다. 절뚝이며 그린 파란하늘. 한줌의 바람. 척박한 땅. 겨우살이가 딛고 서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멍울진 기억들을 조카가 밟고 있어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홀로서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내 어린 시절이 조카의 모습 속에 오롯이 담겨있다.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한 껍질을 벗겨내면 내 모습이 있고 또 한 껍질을 벗겨내면 조카의 모습이 보인다. 30년을 뛰어넘어 더부살이를 했던 조카와 나의 모습이 참나무에 핀 겨우살이 인연 같아 가슴 아프다. 조카의 겨우살이에 진정한 참나무가 되어 주지 못한 내가 안타깝기만 하다.

오늘아침엔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다. 꽃이 진자리, 마른 꽃대가 만든

그들처럼 목소리에 눈물이 달려있었다.

꿈의 잔해가 만든 굴레를 타고 인생의 쳇바퀴를 몇 번을 돌았을까. 살아온 날들 뒤 돌아 보면 문득, 생각나는 기억의 편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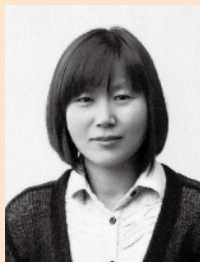
겨우살이가 만든 세상 한쪽이 환하다.



수상 소감

수륜초등학교

서동숙



메테를링크의 동화 '파랑새'에서 틸틸과 미틸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바로 그들 자신의 집 새장 속에 있었던 것을 보고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던 어리석음을 깨우치며 말했다. "우리들이 찾고 있던 것이 이것이다. 먼 곳까지 찾으러 갔으나 여기 있었구나."

이제 나는 먼 곳만을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늘 곁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가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일상에찬

소중한 것들은 항상 내 곁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당위성과 일상성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당위성과 일상성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기가
쉽다. 그러다 한번쯤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제껏 느끼지 못했
던 그 존재의 소중함에 소스라치듯 놀라곤 한다.

지난 겨울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몸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내 얼굴 반쪽이 그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일을 멈출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내 얼굴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멈추
었다.

내 얼굴의 마비는 귀의 통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귀와 목뒤가 놀리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느껴졌고 가볍게 생각했던 통증은 점점 더 심해
져서 급기야 왼쪽 눈이 잘 감겨지지 않고 혀가 얼얼해져 왔다.

급히 도착한 병원에서는 눈을 위로 치켜뜨게도 하고 우, 이 발음을 하
게도 하여 얼굴 근육의 상태와 귀 속의 상태를 점검했다. 마비된 쪽 이마
주름까지 잡히지 않고 귀 속에 수포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봐서 바이러스
에 의한 안면신경마비인 벨스마비로 단정 짓고 스테로이드제와 소염제가
포함된 다량의 알약을 처방받았다. 돌아오는 중에도 얼굴의 마비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후로도 일주일 동안 마비는 계속 진행되었다.

안면신경마비는 안면의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어 마비된 쪽의 얼굴이 움직여지지 않고 눈을 감지 못할 뿐 아니라 마비된 쪽의 턱과 입이 제 기능을 못하여 음식을 먹을 때에도 흘러내리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다른 증상이 없이 얼굴의 마비만 나타나는 경우를 벨스마비라 부르는데 벨스마비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로, 스트레스, 감기 등의 여러 원인으로 약해진 몸의 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안면신경마비 환자는 몇 주에서부터 길게는 몇 개월 이내에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안이한 생각과는 달리, 일주일 뒤 신경검사결과를 보고 의사와 상담을 한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던 내게 갑작스런 의사의 진단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는 증상이라고만 알고 있던 나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내 몸의 가장 앞자리에서 보고 냄새 맡고 먹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단지 몇 주 아니 몇 개월 동안 생활이 불편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니, 회복이 힘들다니, 비뚤어진 얼굴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의사의 진단은 서늘한 바람이 되어 가슴에 덜컥 내려앉아 오도 가도 못하고 걸려 있는 듯 마음을 울렸다. 더 이상의 처방도 약도 효과가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는 의사 앞에 한참 동안을 오도카니 앉아 있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다. 내 자신을 돌볼 새도 없이...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아 정신없이 살아 온지 벌써 이십년... 고요하던 내 시간이 결혼과 함께 쏜살같이 지나가고 그 속엔 늘 나를 힘들게 재촉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 정신없는 일과들 속에서 나는 만족을 하지 못했고 늘 혼자이기를 꿈꿨다. 어쩌면 하고 싶은 것, 꿈꾸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시기에 결혼의 족쇄에 묶여 십년을 매달려 살아온 나로서는 당연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닌 듯한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나를 내버려두지 않았던 내 가족을 원망했다. 치료에 대한 절망감으로 우울한 날들을 보낼수록 더욱 혼자이기를 갈망했다.

그 겨울, 혼자의 시간을 몹시도 갖고 싶어 하던 내게 가족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내게 선물로 주기로 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할머니댁으로 남편은 필리핀 출장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린 잘 갔다 올테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 밥 잘 먹고 잘 있어야 돼. 우리 생각날 때마다 뜨개질 하면 되겠네. 우리 오면 이만큼이나 길어져 있는 거 아냐? 에이, 우리 안보고 싶다고 뜨개질도 하나도 안하면 어떡하지?”

되려 나를 위로하고 가는 아이들을 보내고 난 후 한참을 골목에 섰다가 휘적휘적 집으로 들어왔다. 갑자기 밀려드는 고요함..... 아이들이 떠나 버리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맞닥뜨린 고요함이 나를 더 우울하게 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 주위로 눈물이 물려들어 마음을 울린다. 아이들이 주고 간 실과 대바늘을 들고 벽에 기대앉았다. 대바늘을 기울이고 실

을 걸어 코를 만들어 한땀 빼내는 사이에 요동치던 마음이 금세 편안해졌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 끝으로 모아져 한단이 완성되면 순식간에 증발하듯 사라져 버린다. 계속 머릿속에 머물러 나를 놓아줄 것 같지 않던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암울한 고민마저 대바늘이 마지막 고를 걸어서 고리 끝으로 빼내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지하철 역 입구에서 다시 켜 핸드폰에 ‘너무 슬퍼하지마. 내가 있잖아.’ 라는 남편의 문자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찬바람 뽕뽕 부는 추운날 나는 지하철 위에서 남편의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이나 반쪽 얼굴로 울었다. 뭔가 마음속에 이는 욕심들을 채우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혼자이고 싶어했던 내 모든 이기심들이 남편과 가족의 사랑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반쪽밖에 감정표현을 못하는 못난 얼굴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늘 혼자이기를 갈망하는 반쪽 인생이었던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날에 나는 그토록 갈망하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뜨개질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다.

그러나 그 겨울 나를 어두운 절망에서 끌어올린 것은 혼자여서 좋았던 채워도 채워도 차지 않는 내 욕심들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반을 차지하는 가족의 사랑이었다.

내게 절망과 좌절을 준 안면신경마비의 상처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를 떠났다.

때로 나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찾기 힘든 네 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세 잎 클로버를 밟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늘 내 곁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가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새삼 다시 보게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소중하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늘 내 곁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모든 것들은 더욱...



수상 소감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인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 직접 글을 쓰고 수상을 한 건 아마 초등학교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글 쓰는데 소질도 없고 평소에 글을 써본 적도 없어서 수상 소식에 좀 당황 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이후 현재까지 생활해 오면서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들을 메모해 두었던 것이 모티브가 되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글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운 좋게도 수상의 영광이 따른 것 같습니다.

작품이라기 보단 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일기와도 같은 글이라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글로 구체화해서 정리해 보았던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의 제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절망이 찾아준 또 다른 이름, 희망

긴 잠에서 깨어나듯 힘겹게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희미하게 기억되는 몇 가지 장면만이 끊어진 필름처럼 지나갈 뿐이었다. 대체 몇 시간이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수술시간이 꽤 길었던 것으로 봐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직감했지만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여유가 내겐 없었다. 마취가 서서히 깨면서 수술 부위의 통증은 극심해졌고, 허리 아래쪽의 익숙지 않은 묵직한 통증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중환자실 도처에서 밤낮없이 들려오는 환자들의 비명소리와 이따금씩 느껴지는 사망 환자들의 싸늘한 기운은 내 심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아침, 저녁으로 10 여분 정도 허락되었던 면회 시간만이 나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마치 지옥과도 흡사했던 그 방에서 나는 일주일 여 만에 탈출 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도 잊지 못할 그 과정들을 3번이나 더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다시 두발로 걸을 수도, 하반신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도 없는 지체장애 1급,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힘겹게 붙잡고 있던 희망이 절망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2008년 1월, 재직 중이었던 회사 소속팀의 동계워크숍이 모 스키장에서 있었다. 나는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주 스

키장을 찾던 보드 마니아였다. 마침 워크숍 일정의 일부로 스키 및 스노 보드 강습 시간이 있었고, 신규 직원들을 강습하느라 나는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다. 평소처럼 슬로프를 내려가고 있었고 킥커(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프대)를 마주했다. 매번 뛰던 것과 같이 점프를 했고 그와 동시에 의식은 페이드아웃 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기 전까지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것만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맴돌 뿐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하다. 킥커에서 부주의하게 점프한 것이 불안정한 착지로 이어졌고, 매우 높게 점프한 상태에서 나는 등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척추(T11, T12)가 크게 골절되었고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주위의 많은 분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다. 동계워크숍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요양 및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이라는 단어로 위안을 삼기엔 나의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었다.

2008년 2009년, 이 두 해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렇기에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30 여 년간 병원과는 전혀 친하지 않았던 내가 일 년 반 가까이를 병원에서 지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병원과 계속 인연을 맺어야 할 것 같았던 끔찍한 예감은 지금껏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

네 차례의 수술로 인한 육체적 고통, 고통 뒤에 찾아온 좌절과 무기력증, 끝이 보이지 않는 재활의 힘겨움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었지만 나아지는 건 별로 보이지 않았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절망감, 대소변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참함,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통증은 내 심신을 한없이 지치게 만들었고 모든 걸 포기해 버리고 싶었다.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큰 시련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대가이냐고 하늘에 따져 묻기도 했다. 남몰래 눈물지으며 간절히 기도도 해보았지만 남는 건 쓰라린 마음과 허탈감 밖에 없었다. 아팠다. 힘이 들었다. 그리고 죽고 싶었다.

나는 평범한 집안의 2남 중 막내로 자랐다. 운동과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고교졸업 후에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 덕분에 학업은 물론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운동을 하며 대학 시절을 지냈다.

평소 음악 감상과 악기연주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대학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주자로 활동하며 각종 연주회에도 참여했다. 오케스트라가 갖춰야 할 조화와 협동, 단결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선후배 및 동기들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많은 노하우를 쌓은 것도 동아리 활동의 빼놓을 수 없는 수확 중의 하나였다.

또한 재학 중에는 ROTC에 지원했고, ROTC 장교로 임관하여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다. 군이 보유한 각종 무기, 장비, 차량의 정비 및 보급업무를 주로 하는 병기장교로서, 전공과 연계된 군 업무를 통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경험들을 쌓았다. 장교로 복무한 2년여의 경험이 나에게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과 통솔력 뿐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충성과 신의, 하급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 기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인화단결 방법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 소중한 경험이 훗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유독 자동차나 비행기 등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개발하는 테스트 엔지니어란 직업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운 좋게 현대기아 대졸 공채로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였고 꿈에 그리던 테스트 엔지니어가 되었다.

현대기아 연구개발본부 시험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실차 소음진동(NVH)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중한 업무가 힘겹기도 했지만,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열정과 의욕이 넘쳤던 시기였던 것 같다.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했기에 각종 차량을 평가, 분해, 연구하는 그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 있고 즐거웠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나는 다양한 운동을 즐겼었다. 뛰어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입사 후 5년 가까이 받았던 수영 강습과 퇴근 후에 빠짐없이 했던 웨이트트레이닝을 비롯해 야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노보드 등 거의 대부분의 운동을 즐겼다. 이렇듯 나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그러나 자신감이 넘치는 밝은 성격의 평범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서른한 살이 되던 해, 예기치 못했던 사고는 내 인생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골절된 척추를 고정하기 위한 수술 뿐 아니라 재활도중 발생한 대퇴부 골절, 척수손상 합병증으로 인한 이소성골화증, 욕창 등 심심하면 찾아오는 수술은 힘을 내려는 나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버렸고 그때마다 난 큰 좌절을 겪어야 했다. 내 곁을 지키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심정을 알기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인내 또한 한계에 다다르기도 했었고, 한동안

은 불필요한 잡념들, 무기력증과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끔찍하리만큼 고통스러웠고 처절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내 자신을 수도 없이 격려했다. 이대로 포기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했고 의지를 다졌다.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는 가족, 친지, 친구, 선후배, 회사동료……. 나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 계셨기에 나는 더욱 힘을 내야만 했다.

이를 악물고 재활을 했다.

타이트하게 이어지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뿐 아니라 매트 위, 헬스장, 수영장에서 뜬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홀로 운동을 했다. 그러나 노력의 정도에 비해 몸이 호전되는 속도는 너무도 느렸고, 그 상황은 고스란히 좌절과 고통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 그렇게 미련할 만큼 내가 재활에 매진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순간의 좌절과 절망은 나를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밀어냈다. 너무 힘들어 남몰래 눈물지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과 막막함에 수 없는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우기도 했다. 그러나 힘겨움, 좌절, 절망들이 에워싼 나의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며 나는 그것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얻은 장애에 대해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 생활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무작정 회복되길 기다리며 미련하게 하는 재활보다 휠체어를 탄 채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재활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휠체어에서 침대, 변기, 바닥으로 트랜스퍼 하는 연습과 차에 오르고 운전을 시작하는 등의 실질적인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장애에 적응해 갔다.

자신감도 회복했다. 절망적이기만 했던 병원생활이 다시 한 번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자존의 시작점으로 변했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환자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장애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애로 인해 잃은 것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 시간이었다.

젊은 날 불의의 사고가 인생을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 버렸다. 그러나 다소 불편한 몸을 얻은 대신, 나는 더욱 강해졌고 넓어졌고 깊어질 수 있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절망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 삶 속에서 발견하는 그들의 행복과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기적, 이 두 글자를 절실하게 원했던 적이 있었다. 나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였기에 더더욱 간절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생각했다. 무작정 기적을 바라기보단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토록 원하던 기적도 어느 순간 내 옆에서 만들어져가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다시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고 사실 잘 해낼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또 한 번 용기를 내야 했다. 다시는 두발로 운전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나에게 자동차 회사로의 복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회사로의 복귀만을 생각하며 재화에 전념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돌아간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떨쳐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회가 내겐 너무도 낯설고 두려웠다.

자신감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내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원 직장 복직을 준비하며 우연히 응시했던 모공공기관 공채시험에서 8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사실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던 시절, 내 자신감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휠체어를 타고 처음 경험하는 서류·면접전형, 필기시험은 너무도 힘들었던 순간의 연속이었다. 모두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불안감과 동물원 원숭이가 된 듯한 수치심이 전형 과정 내내 나를 괴롭혔다. 그럴수록 나는 더더욱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 그 인내는 마침내 나에게 최종합격이라는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2년여의 길고 긴 병원생활과 재할 끝에 찾아온 첫 합격 소식은 반가움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처음 도전한 것이었기에 나에게 그 의미는 더욱 컸다. 그러나 동시에 휠체어를 탄 채로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익숙지 않은 업무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다시 한 번 굳게 마음을 다져야만 했다. 기나긴 절망 끝에 찾아온 희망의 그림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기에.

일 년여의 공단 근무는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면서 회복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비록 휠체어에 의지한 중증장애인이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며 내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물론 나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새로운 직장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는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힘이 되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했고, 그것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나의 장애만을 보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 주는 것만이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나도 남들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나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버텨내었고 서서히 그들과 하나가 되어갈 수 있었다.

사실 그 시기엔 장애를 입고 처음 맞이하는 사회복귀라는 부담감도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 아마 그 첫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먼 길을, 어렵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랬다면 아마 조용히 묻혀 지내거나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좋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려 노력했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었으리라.

이렇게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더 빛나게 해 주는 것이 사

회가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일 것이고, 나는 운 좋게도 그런 배려를 받는 소수의 장애인들 중의 한명이었던 것 같다.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적, 나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비장애인들과 소통 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의 관점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글자로 나를 규정해버리는 “장애”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야 했다.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장애·비장애를 떠나 일상에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배려가 장애인이 된 내가 비장애인과 더불어 자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공단에서의 근무는 나쁘지 않았다. 따뜻한 동료들이 있었고, 새롭게 배우는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마음 한구석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존재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휠체어를 탄 장애라는 제약이 있지만 내가 더 잘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물론 그 고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나는 지금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단순한 직업적 도전의 의미를 넘어, 인생의 새로운 2막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간의 다양한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전이라 생각되기에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인 것 같다.

요즘엔 직업공무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개선센터의 인식 개선 강사로, 초중고교의 학생들에게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등 장애를 입기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가며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다. 다소 불편해진 몸으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중증장애인인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같은 장애인들에게는 조그만 희망으로 다가가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남아 있는 내 삶이 그 무엇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될 수 있을 것 같다.

사고가 난지 벌써 7년이 지났다.

그리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내 인생을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버린 순간의 실수였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힘겹게 시작한 내 인생의 2막은 이제 조금씩 희망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 물론 지금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함께 웃고 울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나처럼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 에겐 매일의 일상이 감사함의 하루하루다.

한때는 죽음을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살아있어야 희망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비록 두 다리를 쓸 수 없지만 비장애인들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느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도.

고통으로 가득했던 절망의 순간,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던 암흑 같은 긴 터널을 지나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비로소 웃음 짓는다. 물론 가끔씩은 속상하고 괴롭고 슬픈 감정들이 불쑥 솟아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적응이 되어 어느새 안정을 찾곤 한다. 극복했다고 하기엔 내가 겪은 일들이 너무도 크기에 감히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욱 적응해 나갈 내 자신을 생각하며 힘을 내곤 한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보려 한다.

장애를 입기 전의 다양한 경험들과 장애를 입고 난 후의 소중한 경험을 더하여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고 싶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짧게나마 전한 나의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면의 진심보다는 표면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라는 요건에 의해 미리 판단되어지고 정의 내려지는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에 나는 오늘 또 한 번 용기를 내어 다가가려고 한다. 나의 짧은 이야기가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울림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는 더욱 힘차게 휠체어를 밀 것이다.

수상 소감

심창초등학교
진 병 국



‘어제 내가 눈을 감았던 것은 그 몽클하고 아련했던 시간들을 추억함이
있고, 오늘 내가 눈을 감는 것은 그 시간들이 더 없는 찬란한 눈부심으로 다
가왔기 때문이었고, 내일 내가 눈을 뜨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희망들
과 마주하려함이다.’

저는 그저 이야기를 하었을 뿐입니다.

보잘 것 없고, 서툰 글이지만, 그 속에 있는 진정성을 들여다 봐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언젠고 나의 편이 되어 주는 어여쁜 각시와 영
광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소리는 희망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말한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눈물로 얼룩질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선택을 했으면 그에 책임감이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 책임감의 그림자는 최선의 노력일 것입니다. 끊임없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다보면 나의 C(Choice)의 결과는 분명 희망일 것입니다. 딸아이의 심장질환이 있음에도 출산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딸아이가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발버둥질이 있어, 지금 아내와 제가 웃음 지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선택한 길에 대한 한 치의 아쉬움도 없습니다.

“두근두근”

2010년 12월 아내가 임신여부를 알기 위해 임신테스트기를 갖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그토록 길게 느껴지는 것은 웬지 모를 낯선 설레임이 나를 감싸서 그럴 것입니다. 아내가 두 줄로 표시된 테스트기를 보여 주는 순간, 그 때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살갓을 파고드는 매서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잔뜩 움크렸던 마음에 따뜻한 봄기운을 전하듯 했고, 바

깁에 뒤덮고 있던 눈조차 따뜻한 숨이불처럼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그 이후로 개인병원을 다녔고, 그러던 중 임신 30주경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진료 중 왼쪽 신장에 물혹이 보인다 하여, 지방대학병원을 거쳐 서울유명병원에서 받은 주진단은 심장 삼첨 판폐쇄와 함께 심방중격결손, 동맥관개존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종 진단을 받은 그 순간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서 있는 아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두 달 정도만 있으면 이 세상에 나올텐데, 이렇게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과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심장이 뛰고, 손발도 다 있고, 모든 신체 장기가 있는 아이를 어떻게 포기 수가 있냐며 꼭 낳아서 치료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말에 한 순간이나마 아이를 포기할 생각을 했던 제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최고의 병원에서 낳아서 최선의 치료로 조금이나마 덜 아프게 수술시키고 싶은 마음에 멀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11년 8월 출산과 함께 심장수술이 필요하다하여 어쩔 수 없이 가족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낳은 아이를 바로 가슴에 품지 못하고 수술대 위에 올려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세상에 나올 때, 울음소리가 우렁차기는커녕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움직임이 활발치 않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애정 어린 눈빛이 아닌 수술대 조명을 받아야 할 것이 아이의 운명이라고 직감했을까요? 못내 안쓰럽더군요.

출산 후 아내는 산후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여 매일 엄마의 얼굴을 보여 주면 아이가 안정이 되고, 회복에 도움이 될까 해서 2달간 핏덩이 딸아이의 중환자실 면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차와 지하철로 매일 10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산후우울증을 달래고 멎든 마음을 치유 했습니다. 면회시간은 한 점의 바람처럼 찰나적이라 허전해하고 서운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회복하여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리고 집으로 오긴 했지만, 만일의 상황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딸아이의 상태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4번의 크고 작은 시술과 수술을 받고, 그 이듬해 3월 7시간에 걸쳐 심장 관련된 대수술이 의료진들의 긴장과 신중함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우심실이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혈액이 우심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BCPS, 폐동맥 판막이 많이 좁아져 있다고 해서 Pul.valve repair, 그전에 심장을 뛰게 도와주었던 B-T shunt 제거, 비대해져 있는 우심실 근육 제거 등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의 수술로 교정해 주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의 수술로 교정을 한다는 말에는 여러 번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감사하다가도 여러 부분을 손대는 만큼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거라는 의료진의 설명에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역시나 수술 후 딸아이는 많이 힘들어했고 수술 다음날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견디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수술을 바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수술로 힘들었을 딸아이가 다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니…… 부모로서 해 줄 수 없는 아픔에 너무 미안하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장하게도 딸아이는 병원 측에서 ‘고비’라고 말하는 3일 동안의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 3일 동안은 아내와 저에게는 잠 못 이루며 뜯 눈으로 지새다시피 하게 했던 숨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더 깊은 고통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 급기야는 외로움이 점차 깊어지기도 했다가, 절망의 끝으로 내몰린 듯한 아픔에 괴로워했습니다. 세상은 무겁고 어두웠고, 슬픔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마음에 무심하게 활취고 지나간 고통의 상처는 아물기도 전에 덧나 씬 없이 쓰라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희생하는 촛불이 되고자 했던 어머니들의 마음을 알게 하기도 했고,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딸아이의 몸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끝을 알 수 없는 수술대 위에 언제고 올려야 하는지, 그게 정말 딸아이를 위하는 길인지, 그리고 그것이 부모로서 책임을 조금이나마 면하고자 하는 비겁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딸아이는 우리 부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응당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딸아이는 그 후 중환자실에서 2주간 더 치료를 받고 일반병실로 내려오게 되었지만 큰 수술 후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이는 폐에 물이 차서 옆구리에 마취도 없이 관을 꼽는 고통을 견뎌야 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검사와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두근두근”

심장박동측정기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있고, 시간이 가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딸아이 스스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움켜쥐는 모습이 그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후로도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안 되었다가를 반복했었는데, 2012년 3월에 있었던 대수술의 여러 후유증으로 1년간은 1달에 1번씩, 그 이듬해는 3개월에 1번씩, 또 그 이듬해는 6개월에 1번씩 서울유명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장거리를 다녀야만 했고, 또 술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각종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를 하여 소위 말하는 catch-up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오늘 이 순간이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느리지만 눈앞에서 조금씩 발을 딛는 모습은 어떤 화가가 그려낼 수 없는 풍경화였고, 연신 입에 한 움큼 담아내는 ‘엄마, 아빠’ 소리와 까르르 날리는 웃음소리는 어떤 지휘자도 연출할 수 없는 독창곡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만들어낸 최고 예술의 감흥은 쉬이 식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 내면의 굳은 살이 생길 즈음에, 딸아이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입학했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키와 덩치가 가장 작은 딸아이지만, 지금까지 성장해 준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밥을 먹으려고 하고, 혼자서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사소한 행동과 언어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제 것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나누어 줍니다. 아이의 손과 발을 만지작거리고 있노라면, 지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었던 시간이라는 사실이 순간순간 머릿속에 섬광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시간들이 더 없이 소중한합니다.

살다보면 위기도 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

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기 내면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깨우치기도 했습니다. 그 깨우침 뒤에는 예기치 않게 다가온 슬픔을 비켜서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항상 빛나는 북극성이 되고,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딸아이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삶은 주어진 것이지만 인생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시련의 시간들이 분명, 우리 가족의 삶의 물결에 희망의 노가 되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요즘은 더욱 믿습니다.

한 때는 공기가 칙칙하였는데, 이제는 향기롭기 시작합니다.

광활한 몽골의 초원을 마음껏 달려도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아이의 심장이 튼튼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에서 삶을 긍정하고 서로를 위하고 바로 앞의 가족을 아끼면서 안아줄 것입니다.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신고식을 호되게 했던 터라, 청초한 수선화처럼 순수한 아이에게 세상은 굴곡지지 않고 시골의 쇠등만큼이나 완만하고 편안하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믿음직한 웃음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할 시간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딸아이가 아내와 제가 부모가 되어 쫓음하는 바람이 딸아이 몸의 수술자국에 고스란히 담겨있기에 오늘도 역시 아련한 감동이 묻어나고, 마음 속으로는 미세한 울림이 입니다. 겨울이 지났기에 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겠죠? 딸아이라는 희망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두근두근”

수상 소감

강원도 인제군

손미정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딱히 하고 싶은 일도 별로 없는 제가 그나마 오랜 시간 꾸준히 해왔던 일은 독서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제겐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글쓰기에 대한 절실함과 열정이 턱없이 부족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꼭 한번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을 두드린 공무원 문예대전 입상은 제게 뜻밖의 크나큰 기쁨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즐겁게 책 읽으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형님

지난 초파일 날 파주에 사는 큰 형님댁에 다녀왔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마당 넓은 기와집 한 쪽에 법당을 모셔놓고 혼자 사는 큰 형님은 무당이다. 초파일 날이면 여느 절과 마찬가지로 대문과 마당에 연등을 매단다. 절간처럼 나물 비빔밥과 된장국에 가지가지 음식을 장만해 놓으면, 평소에 형님 집을 드나들던 단골손님들은 식구들과 함께 찾아와서 법당에 쌀과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그러면 형님은 차례로 재수를 빌어주고 공수를 주는데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예전에는 새벽에 시작하면 한밤중이나 되어야 모두 끝이 났다.

내가 결혼할 무렵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터라 남편의 가장 큰 누나인 큰형님이 상견례에 참석하고 예물이며 예단에 이바지 음식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내겐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였다. 시누이 될 사람이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별로 놀라거나 꺼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철없게도 신기해하기까지 했다. 우리와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어머니는 아니니 별 상관있겠나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속 편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고향인 큰 형님은 동네 뒷산에 전용(?) 서낭당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정성을 들이러 내려오셨고 그때마다 우리 집에 머무르셨다.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이고 서낭당에 올릴 음식도 파주에서 모두 장만해 오셨기 때문에 내게 따로 뭘 시키지는 않았지만 시도 때도 없는 형님 일행(종종 박수무당이나 신딸, 부엌일을 봐주는 사람 등과 동행하셨다.)의 방문은 내겐 부담이자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악삼재니 들삼재니 날삼재니 해가며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성이라는 게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수준이 아니라 통돼지 한 마리는 기본이고 온갖 과일에 떡에 음식값만 최소 2~3백만 원은 들여야 하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니 안 할 방법이 없었다. 처음부터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한 나는 ‘다 우리 식구 잘되라고 하는 건데 뭐! 그리고 남도 아니고 형님한테 드리는 거니까.’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때마다 목돈을 들여 곶을 하게 되었지만 내 마음엔 이래저래 불만이 쌓여갔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15년 가까이 살던 고향을 떠나 군 소재지인 인제읍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한동네에 살며 아이를 도맡아 봐주시던 친정어머니가 그해에 돌아가시고 나자 꼭 고향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우리는 출퇴근 시간도 줄일 겸 조금이라도 교육환경이 나은 인제읍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때 딸아이는 중학생이었는데 1학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전학을 시켰

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반이 바뀌게 되면 전학생인 딸이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에서였다. 하지만 이 또한 나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군 소재지라고 해야 인구 9천여 명의 소읍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이미 친하게 어울리는 무리가 완벽하게 짜여 있었고 상급학교를 진학한다든지 반이 바뀐다고 해서 그 무리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자리에서 옆 짝과 도시락을 먹던 세대인 내가 절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곳 아이들의 급식문화였다. 반이 다르더라도 점심은 무조건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먹어야 하고 그 무리에 다른 아이를 끼워주려면 같은 무리의 아이들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제(?)라는 것이다

전학생인 딸아이를 배려하기엔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고 외동으로 할머니 손에 자란 딸아이 역시 숫기가 없어 급식소로 가는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하고 교실에 혼자 남게 되었다. 급식소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것은 ‘나는 왕따다!’라고 전교생에게 공표하는 꼴이니 차라리 점심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아이가 점심을 못 먹는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부랴부랴 담임선생님을 찾아가고 같은 반 아이 엄마에게 도움도 청했지만, 점심을 못 먹는 날이 하루 이틀 계속되자 아침마다 간식을 챙겨 넣어주는 내 마음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애가 닳았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로 며칠을 보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큰 형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들인 정성이 있으니 어떻게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큰 형님은 대뜸 “거봐라. 내

가 구정 전에 이사하라고 했잖니. 구정 지나고 이사를 하니 그런 사단이 난 거 아니냐. 내 지금 당장 음식장만 해서 내일 새벽같이 내려 갈 테니까 너는 밤에 조리를 잡아놔다가 내일 아침 일찍 서낭당으로 가지고 와라.”

“네! 조라요?” 형님의 설명이 이어진다. 조, 수수, 팔, 콩, 좁쌀 다섯 가지 곡식을 한 줍씩 섞어 새키망게 볶아놓고 통복어 입에 돼지고기 살코기를 물려 놓고 양재기에 쌀을 반쯤 담아서 달걀 세 개를 쫓아놓고 그 위에 미나리 한 단과 딸애 입던 속옷을 비닐에 싸서 올려놓으라고 하신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곡식을 태우면서 나는 이게 잘하는 일인가 싶었지만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 다음 날 큰 형님은 밤새 장만한 음식을 파주에서 대절한 택시에 바리바리 싣고 새벽같이 내려 오셨다. 다른 때 같았으면 시키는 대로 절 몇 번 하고는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는데 그날은 온종일 이미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산신령님! 조상님! 삼신 할머니! 을 열심히 찾았다.

다음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출근해서도 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점심시간쯤 혼자 교실에 남아 ‘엄마 뭐해?’ 라며 보내오던 아이의 문자가 그날은 오지 않았다. 혹시 하는 기대가 차올랐다. 하교 시간에 맞춰 전화하니 아이의 목소리가 밝다. 물어보기도 전에 종알댄다.

“엄마 나 오늘 예지네랑 같이 점심 먹었어. 예지가 저번부터 나랑 점심 먹자고 하고 싶었는데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느라 시간이 걸렸대. 앞으로 예지네 애들이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 내 마음을 짓누르던 집채만한 바윗덩이가 일시에 사라졌다.

이제 형님이 늘 얘기하던 조상님 공덕인가 싶기도 했으나 곧이어 ‘아~

참는 김에 며칠만 더 참아볼 걸 그랬나. 내 돈~~~'하는 생각에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큰 형님은 조상신을 받고 무당이 되어서 그런지 굿을 할 때마다 조상님을 꼭 모신다. 신딸의 북소리에 맞춰 ‘내가 왔지. 내가 왔어. 썩은 손 마주 잡고 내가 왔지~~~’로 시작하면 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버지의 할아버지대 조상님부터 시집 쪽 조상님들까지 줄줄이 불러 오셔서 새 옷 한 벌씩 얻어 입으시고 배불리 드시고는 ‘내가 다 잘 돌봐줄 테니 아무 걱정 마라.’며 덕담 한마디씩 해 주고 가신다.

하루는 저녁 늦게 굿이 끝나고 서둘러 파주로 돌아가시는 형님 일행을 배웅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내가 “그 많은 조상님 몇 년에 한 번씩 용돈이나 드리는 셈 치면 굿하는 돈도 아주 아까운 것만도 아니지 뭐.” 하니 옆에서 운전하던 남편이 “웬일로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하셨나?” 한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니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셀 수도 없이 까마득한 조상님으로부터 피와 살과 유전자를 물려받아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 존재에 대한 무게가 느껴지고 적어도 조상님들께 부끄럽게 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상 소감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이영표



가족과 함께 의정부시에 있는 극장에서 어벤저스 영화를 보는 도중 핸드폰 진동을 느꼈다. 알 수 없는 전화번호이기도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재중 전화로 남겨버렸다. 오후, 3번째 전화통화에서 입선소식을 듣고 나서야 황급히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대상부문에서 가장 거리가 먼 입선부문에 이름이 있었다. 매우 기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울컥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늘 죄스러워 자기변명과 자기위안을 찾기 위해 그냥 썼다. 큰형과 작은형, 사촌형들께 나의 마음을 보여 주고 싶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저만 어머니를 기억하면 되니까요.

아가, 넌 누구다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사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다.

큰형과 나는 화순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인근에 있는 개장국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에게는 맑은 탕을, 큰형과 나는 여러 가지 양념과 채소를 함께 끓인 보통의 개장국을 시켰다.

“아따, 국물이 술창히 맛있다야. 뭘 괴기국이다냐?”

“소고기 국이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큰형이 대답하며 따로 준비한 맑은 국물을 국그릇에 계속 들이붓고 있었다. 연세 드시고 몸이 노쇠한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음식이 없다고 큰형은 반복해서 말했다. 식당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수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가수를 알고 있는 듯했지만 그 표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였다. 나는 저 분도 어머니 나이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연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가 이미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큰형도 묵묵부답이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시기 전에 무척 좋아 하셨던 가수였다. 어머니는 거의 칠십 평생 절실한 불교 신자였기에 그동안 이 고깃국을 드시질 않으셨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절대적으로 금기시 되는 음식물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야 먹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원하신 이후로는 더욱더 맵거나 짠 자극

성 있는 음식을 못 드셨다.

아버지는 사십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 겨우 서른여덟이었으며 칠십일 년생인 나는 육 개월이 조금 지난 간난 아기였다. 돌아가시기 전 경찰생활을 잠시 하였으나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었다. 어머니는 서른여덟 이후로 근 사십여 년을 홀로 사남매를 키웠으니 그 고생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일찍이 큰형이 도회지로 나가 공장에 취직하면서 작은형을 불러들여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게 하였다. 따라서 고향에는 나와 어머니 단둘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때 어머니는 생활악화로 십오만 원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 빚은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면서 청산을 하게 되었지만 그간 내내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물론 어디 빚뿐이었겠으며 남편 없는 설움은 오죽 심했었을까?

나의 고향 해남에는 대홍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해마다 사월에서 오월 사이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아낙들은 취나물, 두릅, 개두릅, 고비, 고사리 등 봄 산나물을 채취하여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았다. 간혹 그날 팔다 남는 산나물은 인근 식당에 헐값으로 넘겨주곤 하였다. 당일 채취한 산나물을 마루에 펼쳐놓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가마솥에 한소끔 끓여 어른 주먹만큼의 크기로 모양을 만들었다. 음력 사월 초파일의 종점으로 남도의 산나물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마을이라 논이 귀해 이 시기에 산나물은 보릿고개를 탈 없이 지내게 해주거나 혹은 자녀들 학용품이나 자습서 등을 구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개구리 소리와 함께 어스름이 짙게 젖어 들어오는 초여름 무렵이었다. 모내기철이면 어머니는 이웃집 품앗이를 마치고 그 집에서 저녁을 드시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으레 나를 데려가곤 하였다. 집에 밥도 없었거니와 그 시간에 밥을 지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이유에서였다. 스텐 그릇의 밥그릇에 하얀 쌀밥이 수북이 쌓인 고봉밥과 함께 말린 갈치 감자 조림, 꽃게 미역국, 톱밥에 노랑게 물든 단무지 등이 전부였지만 참으로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다. 성장하면서 나는 동네에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을 일으켰었다. 첫 번째 사건은 무더운 여름에 동네친구들과 저수지에서 먹을 감는 중에 수문을 가지고 장난하다 고장이 나 저수지 물을 몽땅 흘려보내는 일이 있었다. 그 덕으로 동네사람들은 물고기와 민물 새우를 잡아 몇 끼의 훌륭한 반찬으로 식사를 했었다. 그날 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회관 앞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자정이 넘는 시간에야 들어갔었다.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지 않았지만 몇 마디의 꾸중과 함께 깊은 한숨을 푹 푹 내쉬었다. 다행이 이틀 후에 큰 비가 내려 저수지의 물은 원래 상태로 채워졌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회초리를 든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이었다. 논두렁 불을 피우다 인근 야산을 홀러덩 태워버린 사건이었다. 모든 동네사람들이 동원되고 면에서는 면장과 직원들도 출동하였다. 시절이 시절인지라 면장님의 순화말씀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별 책임 없이 지나갔다.

지금은 구경하고 싶어도 없지만 그때 논에 농약을 치던 기계는 순전히 인력으로 작동하는 펌프였다. 농약을 하려면 긴 줄이 필요하므로 압력통을 따로 분리하여 어머니는 머리 위에 이고 나는 압력대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어머니가 농약대를 잡으면서 줄을 끌면 나는 압력대를 앞뒤로 밀었다. 마치 노를 젓듯이 계속 압력을 가해 주어야 농약대 끝에서 약이 분

사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 힘든 농약살포가 끝난 후 집 근처 언덕 아래 있는 샘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길러와 삶은 국수와 물과 설탕을 넣어 후루룩 먹었다. 농약을 하면은 농약기운이 몸에 배어 이럴 때면 반드시 시원한 국수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런 국수를 무슨 맛으로 먹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머니하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억이 있다. 읍내 장은 오일장이라 장에 가려면 십리를 걸어서 아랫동네에 도착하여 다시 버스를 타거나 혹은 대흥사 가는 길의 오두재라는 고개를 넘어서 버스로 삼십여 분을 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후자의 길을 자주 애용하였다. 장에서 어머니는 공산품과 갈치와 수박 등을 사가지고 오곤 하였는데 동네사람들이 다 오고 나서도 어머니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땅거미가 지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고샅길에서 장거리 일부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연유로 동네사람들은 어머니를 두고 완행택 혹은 완행열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장거리로 구입한 갈치에 호박과 고춧가루, 대파를 송송 썰어 넣은 국물이 흥덩흥덩한 갈치국이 지금도 선명하니 생각한다.

밤송이가 드문드문 벌어지고 감이 노랗게 익어가는 추석이 가까워지는 가을 무렵이면 어머니는 산밭에서 빨갛게 잘 익은 고추를 따서 마당 한가운데 널었다. 참깨를 털다 밤늦게 집에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번은 운동회 연습기간이라 산밭을 올라가니 달이 휘영청 밝은 밭 한가운데서 홀로 참깨를 털고 있었다. “엄마 안 무섭소?”하면 밭 한가운데 있는 할아버지 산소를 가리키시며 “저기 느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무엇이 무섭다냐.”하시곤 하였었다. 이 산밭은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밭으로 고추를 시작으로 감자, 고구마, 참깨, 배추, 무와 함께 사이사이 오이, 옥수수, 들깨를 심었다. 사시사철 농작물 수확이 끊이질 않았다.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이면 이십 여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에서 김을 하는 외삼촌댁에서 일을 하셨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작은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작은집에서 기숙하는 동안 동네아낙들이 배추 푸성귀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곧잘 이렇게 말하였다. “야, 이놈아 너만 없었어도 너희 엄마는 풀썩 판 데로 시집갔을 텐데.”하면 나는 큰 소리로 대거리하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누런 코로 윤이 반질반질한 소매에 눈물을 훔치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나이 서른여덟이면 한창때라 생각하며 옆에 있는 집사람을 보며 실실 눈웃음을 보내본다. 중간에 김장철이면 집에 와서 속이 채 차지 않은 푸른 배추를 절여 멸치액젓과 새우젓, 마늘, 고춧가루, 파, 갓 등 속으로 양념을 버무려 맛깔스러운 김장을 담그셨다.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일거리가 있었다. 연탄과 기름이 없는 시골동네라 겨울철이면 늘 땀감이 부족하였는데 싸리나무, 물푸레나무, 진달래 등의 물거리를 하여 마당 돌담 옆에 일 년을 사용할 수 있는 땀감을 마련하였다. 나도 근처 산에 가서 자귀나무나 소나무, 참나무 등을 베어 지게에 짊어지고 장작을 만들어 일조를 하였다. 다시 한해가 가고 몇 해가 흘렀어도 생활의 여유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 삼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올 무렵 드디어 외삼촌의 도움으로 그동안 짊어지고 온 빚 십오만을 갚고 도회지로 오시게 되었다. 내 뒷바라지와 조카를 보살피기 위한 삶의 연장이었다.

어느덧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막내인 나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

형제들 모두가 각자의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자 어머니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어온 모든 것을 시나브로 놓으면

서 급기야는 정신까지도 놓게 되었다. 증상이 오기 전까지 어머니 봉양 문제로 형제간에 여러 차례의 다툼이 있었다. 결국 모두가 죄인이 되는 심정으로 고향의 생활환경과 유사한 이곳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따 이젠 더 이상 못 묵겠다야. 참말로 잘 묵었다야.”

온전한 정신으로 절대시 급기 했던 그 음식을 지금 어머니는 아기 같은 모습으로 아주 맛있게 드셨던 것이다. 그릇을 말끔히 비우고, 당신이 좋아하는 얼린 홍시와 참외를 드시며 그동안 당신 앞에서 묵묵히 손가락 질만 하던 나를 보고 불쑥 말했다.

“아가, 너는 누구다냐?”

한동안 서로의 눈치를 살피다가 큰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아들이요, 막둥이요.”

어머니는 정말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오메, 그래야. 나는 잘 모르겠는디야. 그란디 도청에 다니는 우리 아들은 왜 안 왔다냐?”

작은형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져 손가락을 놓고 식당을 나왔다. 요양원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큰형이 내게 물었다.

“서운하지 않지? 그래도 어머니가 너와 제일 많이 생활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니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네.”

“서운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되어 제 갈 길들을 가고 있으니 형 입장에서는 고맙구나.”

“형님도 장남이라는 명예를 벗어던지고 울고 싶으면 소리 내서 펄펄 울어요, 다 같은 자식인데 그 어느 누가 어머니한테 소홀하겠습니까?”

요양원 주변은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그 주위로 꿀벌이 왕왕거리며 하

얇은 나비, 노란 나비가 맴돌고 있다. 오늘 같은 날은 산나물을 뜯으러 가기
 참으로 좋은 날이다. 독특한 향이 배어 있는 취나물을 먹고 싶다. 살짝 데
 친 취나물을 된장에 버무려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나의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그 취나물을. 국물이 흥건히 배어 있는 갈치국과 데친 고구마 순
 에 된장을 버무리고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린 고구마 순 요리를 먹고 싶다.
 밥을 한소끔 끓인 후 부삽에 남은 숯불 위에 다 찌그러진 냄비에 명태 내
 장을 듬뿍 넣은 그 고소한 음식들은 이제는 영원히 추억 속의 음식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위한 그 고귀한 사
 랑, 그 소중한 정신을 잃어버렸다. 일 년에 두 번 남짓 찾아가는 나, 그 무
 슌 변명이 필요하며 그 누구를 탓하랴. 자주 찾자, 자주 찾자! 살아생전에
 자주 찾자를 연신 외쳐 대며 오늘도 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
 이다.

제 1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시조

심 사 평

시조의 3장 6구 형식을 미처 소화하지 못한 작품들은 먼저 배제했다. 형식은 갖추었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소재나 시상을 다룬 시들도 뒤로 제쳤다. 설부른 관념이나 상투적인 언어유희, 제목을 설명하는 듯한 진부한 접근방식도 시조를 쓰고자 하는 이들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현대시조가 갖춰야 할 시대성과 시인의 진지한 내면세계, 독창적인 상상력이 융화된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심사위원: 한분순, 백이운

아름다운 접점(接點)

충청북도 이승우

● 금상

중년, 폐달을 밟다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홍순열

● 은상

글자에 색을 입히며 - 형광 펜

전)경주초등학교 윤상근

● 동상

심해(深海) 새우

경기도 고양시 정광우

지구촌 삽화1 - 우간다 오누이

경북고등학교 고윤석

연필을 꺾다가

전)강원도 평창군 이우식

● 입선

수상 소감

충청북도

이승우



세상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고맙고 그 시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증평의 보강천변 미루나무 숲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의 작품 '아름다운 접점'이란 시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뿐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메마른 시대로 변해가는 요즘, 작은 소망이나마 앞서가는 이들과 뒤에 오는 이들의 사이에서 결과보다 더 큰 과정의 기쁨을 알게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멀어져가는 세대 간의 소통이 대화를 통해 활기찬 세상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접점(接點)

저녁을 걷는 노인과 아침을 걷는 소녀

한여름 산책로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아득한 천변을 따라 휘어지고 있었네.

걸어오던 지팡이와 걸어가던 이어폰이

미루나무 아래서 눈인사를 나누었네.

노인과 소녀가 일순, 부딪치나 싶었네.

두 개의 길이 만난 우연의 접점에서

마주선 시간 앞에 무릎 꿇은 소녀가

노인의 운동화 끈을 매어 주고 있었네.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평화

현대

수상 소감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홍 순 열



공직을 떠나기 전 새로운 인생설계를 하며 틈틈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것을 적어 출품한 것이 영광스런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느끼며 공직마감 선물로 생각되어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이 전개될 것 같은 예감에 기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무심코 달려가다 애기똥풀이 내 자전거에 밟혀 그 상처에 굴색의 젖 같은 피를 보며 내 곁의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을까 뒤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공직 35년 시들지 않은 꽃으로 작은 나를 높은 마루처럼 넓은 아래처럼 믿고 내 곁에 곁게 피어준 아내와 파릇파릇 윤이 나게 자라 준 아들 찬표와 오늘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2의 시작을 힘차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으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심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중년, 페달을 밟다

길썬의 스크린이 끊임없이 돌아간다.
금계국 나비 떼가 팔랑팔랑 날아들고
살갗에 스치는 바람 그대 따순 손길인가.

엇각으로 빛나가는 자전거와 바닥 사이
대립 각 뿔죽해져 타이어 구멍 날 때
돌 대신 던지는 시선 소실점 흐릿하다.

중년의 바퀴살엔 생채기가 많아진다.
무심코 달려가다 꽃잎 몇 장 멍이 들고
찢기고 살 허무는 일 이 땅 어디 나뿐이라.

버지니아 울프처럼 강가를 기웃대던
숨결이 두근대는 허기를 등 뒤로 밀며
힘차게 페달 밟는다, 환한 아침 가른다.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평론

한국

수상 소감

전)경주초등학교

윤상근



시조를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시조를 읽고 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조를 읽다 이따금 마음 속에 있던 생각을 글자로 옮겨적려 보지만 글이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읽어도 대개는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상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떨리던 가슴이 진정되니 잠시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시조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 글쓰기에 힘을 작정입니다. 좀 더 열심히 삭막한 감성을 갈고 닦아서 황폐한 마음밭을 일구어 보겠습니다.

부족한 글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북돋아 준 가족에게도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자에 색을 입히며 - 형광 펜

흠집을 가리려고 글자에 색을 입히면
밑줄을 그은 듯,
돋보기 가져다 댄 듯
더욱더 도드라져서 눈빛 오래 붙잡는다.

네 밝은 색깔과 빛은 덧칠하면 잘 보이고
감쌀수록 오히려 오롯이 살아나서
들차게 일떠나는 문장
도무지 숨길 수 없다.

자신을 지켜줄 빛과 색이 없어서
먼저 한 발 물리서며 감추려 한 내 허물들
아무리 치장을 해도
더 잘 보인다, 네 앞에서는.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만화

한국

수상 소감

경기도 고양시

정광우



서울역 지하철도는 좁고 어둡다. 신문지 한 장이 겨울잠을 덮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굵은 등이 마디마디 드러나고 옅크린 가슴이 환하게 보이는 노숙자.

심해보다 깊고 추운 지하도가 아름다운 서울 한복판에 있고 새우보다 작고 초라한 삶이 우리 발 아래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허리를 낮추었는지, 좁고 어두운 바다 속을 뒤적여 보았는지 스스로 물어본다.

심해(深海) 새우

서울역 지하도는 깊고 깊은 해저의 끝
천적에 내몰리고 조류에 떠밀려 온
빛조차 닿지 못하는 난파선의 묘박지(錨泊地)

두꺼운 수압으로 활처럼 등이 휘고
차가운 수온으로 뼈마디 얼어붙어
가슴 속 환히 보이는 얼음 같은 새우잠

말라붙은 땀국물과 절어진 지린내에
상처의 껍질들은 갈수록 단단해져
희망을 심을 수 없는 불모의 소금밭

굽어진 척추 따라 꿈도 함께 휘었는지
웅크린 잠 속에서 자꾸만 출렁이며
꿈속에 좌표를 찍어 짚어보는 고향역

수상 소감

경복고등학교

고윤석



늘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어찌지 못하고 동동거리다 노곤함이 안개처럼 스며드는 아침햇살을 맞이하곤 한다. 한 점 아쉬움을 가슴에 남긴 채…….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순 없는 걸까? 행복이 재화처럼 나눌 수록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온 천지를 핏빛보다 더 선명하게 채색했던 꽃세상이 물러오더니 이어 결혼기념일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늘 말없이 나의 길을 응원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로 전하고 싶다.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마음이 선한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삼아 더욱 정진하리라 마음을 다잡는다.

지구촌 삽화1 - 우간다 오누이

젖가슴도 말라버린 아프리카 강촌마을
말간 콧물 쏟아내는 여섯 살 큰누이가
가분수 동생을 업고 햇살을 움켜쥔다.

메마른 흙바람이 거미줄에 걸려 떨어
파리 떼 물려드는 고름 핀 얼굴 한쪽
깊숙이 널린 그늘이 말없이 훑고 있다.

고뿔 든 한여름의 양칼진 기침소리
희미한 눈빛 따라 시간마저 바래가고
표정을 잃어버린 얼굴 공포만 허기지다.

물수제비 밟고 가듯 뒤뚱대는 하루하루
주렁주렁 목에 걸린 까닭모를 천형 껴안고
꼬막손 휘저어 간다, 촛농으로 엮어 간다.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만화

한국

수상 소감

전강원도 평창군

이우식



제18회 공무원 문예대전 時調 부문에 입선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작 漢詩 한 수로써 수상 소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春江(춘강)

江邊繫泊久(강변계박구)
今日待君來(금일대군래)
鬱念吟哦步(울념음아보)
成詩與舉杯(성시여거배)

봄날의 江

강가에 배를 매어 둔 지 오래인데
오늘도 그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네
답답하고 우울해 읊조리며 걷자니
더불어 舉杯하는 詩가 이루어진다.

〈時調로 改譯〉

배를 오래 매어 둔 채 그대를 기다리네
답답하고 또 우울해 읊조리며 걸자니
더불어 잔을 드는 詩, 저절로 이뤄진다.

연필을 깎다가

향나무 몽당연필 무심하게 깎다가
강바람 넘실대는 푸른 숲을 만났다.
땅속에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를 만났다.

예리한 칼날 위로 성큼 베이는 살점
창백한 파도 자락 손끝에 아리더니
바다를 뒤엎는 폭풍, 온몸 휘감는 전율

새끼들 끝내 지켜 낸 어미 종달새 닮은
다 주고 빼만 남은 아비 가시고기 닮은
한 가닥 실핏줄이 파르르 숨어 흐르고 있다.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평론

한국

제 1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동시

심사평

제18회 공무원 문예대전 동시부문 응모작은 모두 359편이었다.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응모되어서 ‘동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응모 작품은 전반적으로 기본기는 잘 갖추고 있었으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는 동심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봐야 참다운 동시를 쓸 수 있다. 또한 산문적인 표현이 많아서 시의 느낌을 떨어뜨리는 작품과 너무 평범한 소재나 생각들을 담아서 참신한 작품이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웠다.

응모작 전체 작품을 두 심사위원이 자세히 읽고 교원 작품에서 5편, 비교원 작품에서 10편을 뽑았다. 모두 15편을 놓고 장시간에 걸쳐 의논한 결과 〈반구대 암각화〉, 〈3월 4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꼬마와 우체통〉, 〈외할머니 계산법〉, 〈항아리〉, 〈강아지도 공부가 하고 싶을까?〉, 〈암탉은 괴로워〉를 입상작으로 뽑았다. 이 가운데 소재와 표현의 참신성, 이미지의 명확성, 시적 감성 그리고 완성도를 고려해 순위를 결정하게 되었다. 동시도 시(詩)이기 때문에 일반 시가 갖추어야 될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에, 거기다 동심(童心)을 하나 더 올려놓아야 비로소 동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 노원호, 이해영

반구대 암각화 ● 금상
전)옥현초등학교 송명숙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 은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채나연

항아리
대전체육고등학교 김계석

3월 4일
진성초등학교 김애영

꼬마와 우체통 ● 동상
미래창조과학부 순천우체국 김수미

강아지도 공부가 하고 싶을까?
전라북도 장수군 김현호

외할머니의 계산법
전라남도 신안군 이병언

암탉은 괴로워 ● 입선
수락고등학교 이용호

수상 소감

전옥현초등학교

송명숙



연녹색 어린 잎이 초록으로 가는 5월의 문턱에서 한 다발의 선물을 안겨 준 심사위원과 담당자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명퇴를 하고 '뭐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저 잘 놀지요.'하고 대답했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서 얼마쯤 자유로워진 지금!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읽는 동시를 쓰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의 풍경을 다시 바라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배우고 있지만 강 저쪽에 있는, 물속에 잠겨 있기도 하는 암각화는 우리에게 손 잡혀 지지 않는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반구대 암각화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자랑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온 기쁨이 오랜 세월을 건너온 반구대 암각화에게 작은 선물이 되고,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는 저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 한 장씩 마음속에 그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반구대 암각화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말없는
절벽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는
바위에는
먼 옛날 풍경이
숨을 쉬고 있어요.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이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그림 속에는
다양한 고래와 사람이 함께 꿈을 꾸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새기던
그 옛날, 그 사람들의 기도가

세월을 넘고 또 넘어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한국화

현대

우리들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들의 내일을 노래하고 있어요.

바위도 마음이 있다고 믿으며
속삭이듯 그려 놓은 그 날의 일기,
그 이야기들이
박물관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고래가 바다를 헤엄치듯
아득한 세월을 건너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수상 소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채나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마감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아이 둘 재우고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자판을 타각타각 두드리는 까닭은 ‘팔자 소관’이라는 한 단어면 설명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장관상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바라던 일이라서 더 기쁩니다.

살림에 재능이 없는 저를 타박하는 대신 책 읽고 글 쓰는 와이프를 응원해 주고 인정해 주는 - 나의 에너지- 남편 민경대씨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 서영, 채원과 이 행복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와! 햄이다!”

살찌면 키 안 큰다고, 몸에 해로운 거라서 안 된다고

잔소리하던 엄마가

웬일로 아침에 햄 반찬을 해 주셨어요.

밥 한 그릇 푹딱 먹고

“내일 또 햄 반찬 해 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웃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친구 만나고 올 테니 간식 먹고 학원가래요.

학원가기 싫은데, 나도 엄마처럼 친구랑 놀고 싶은데

엄마만 놀러 간다고 투덜댔더니

엄마가 웃었어요.

나도 엄마처럼 놀고 싶어서

학원에 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엄마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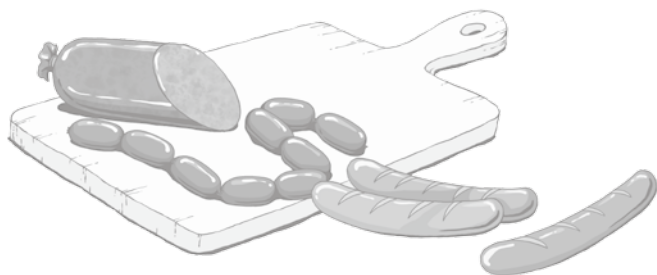
한참 놀았더니 배가 고파서 친구들이랑 마트에 갔어요.

시식 코너에서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엄마가 있었어요.

앞치마 두르고 머리에 수건 쓰고
 햄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햄 먹자고 하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놀라 그냥 서 있었어요.
 엄마도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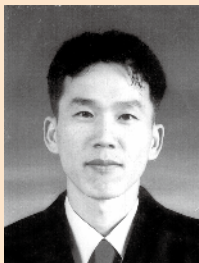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수상 소감

대전체육고등학교

김 계 석



고향집 뒷마당에는 오래된 향아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간장이며 된장, 고추장을 담가 두시고 사랑과 정성을 나누어 주던 보물단지입니다. 또 대추, 감 등 먹을 것을 품고 있던 제 어릴 적 군것질 창고였습니다. 그 향아리는 아직도 뒷마당을 지키고 있는데 어머니의 손길을 이제는 영영 느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시골집에 갔다가 텅그러니 남아있는 향아리를 보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흔다섯 살 어린아이가 되어 보았습니다.

부족한 작품을 선하여 주신 심사위원님과 아동문학의 재미와 맛을 알게 해 주신 해암 최춘해 선생님, 안영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아리

할머니 집 뒷마당에
 뚥보 항아리
 된장 간장 고추장
 가득 먹고 배불리 있네.
 삼촌 오면 한 바가지
 이모 오면 한 바가지
 “옛다 많이 먹어라”
 우리 가면 식구 많다
 더 한 바가지

겨울밤
 할머니 옛날이야기처럼
 끝이 없고 구수한 보물단지
 뚜껑 살짝 열고 보니
 바람이 햇살이
 할머니 맛 보글보글
 키우고 있네.



수상 소감

진성초등학교

김애영



음악이 좋아 몇 달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는 데 워낙 재주가 없다보니 스승이 가르칠 수도, 내가 배울 수도 없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레슨비는 가르침의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형편없는 나의 피아노 연주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어 고마워서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다. 글치인 나의 형편없는 작품을 귀한 시간을 내어 읽어 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분에 넘치는 큰상을 주다니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덧붙여 따스한 어느 봄날, 작품 속의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눈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3월 4일

시

아직

귀도 꿈꿈

손도 꿈꿈

소설

목도리에

장갑 두르고

나서는데

수필

시조

‘안녕?’

마침

내게 인사 건네는

라일락 새눈

동시

하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모른 3월

어떻게 봤을까?

우리 집 달력

동시



동시

수상 소감

미래창조과학부 순천우체국

김수미



문학과 삶,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꿈과 현실 늘 이것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균형을 맞추려 애써왔다.

평균대 위를 걷듯 조심조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이제
후자 쪽으로 추가 기울 때 쯤 들려온 수상소식. 다시 평균대 위를 걸어가도
좋겠다.

나를 응원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행복한 밤이다.

꼬마와 우체통

면민이 천 명이 안 되는 외서라는
시골마을에 작은 우체국이 있다.
그 앞에 서 있는 빨간 우체통

이 우체통은 이 마을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한 꼬마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다시 선생님이 될 때까지

어릴 적 꼬마는 축구공으로 우체통을 차
아프게도 하였고
한 번은 돌맹이로
우체통의 입술부분을 맞히는
내기를 하기도 하였다.

중학교 때는 담임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고
토라진 짝꿍에게 사과편지를 썼으며
김완선이라는 가수에게
팬레터를 보내기도 했다.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시화

한국

고등학교 이후로 외지에 나가
잠시 우체통과 연락이 끊었는데
언제부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이 마을로 돌아왔다.

선생님이 된 꼬마는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방법과
우편번호 쓰는 방법들을 알려주며
빨간 우체통에 관한 추억을
들려 준다.

빨간 우체통은
또 크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면장님이 될 때까지
이 마을을 우두커니 지킬 것이다.



수상 소감

전라북도 장수군

김현호



수풀과 새들, 동물과, 어린 친구들과 가까이 하며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 열정과 호기심을 갖고 주변의 일들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말아야지... 그동안 눈 한번 주지 않았던 작고 어린 꽃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봐야지.

이젠 아빠보다 훌쩍 커버린 기연·경제! 너의 예닐곱 살 나이 때처럼 온종일 세상을 놀이터 삼아 구르며 뛰며 함성을 지르며, 어느 것 하나 걸림이 없이 천진하게 하듯, 너의 큰 꿈을 맘껏 펼치렴.

벌들이 꽃을 찾아 산과 들을 날아다니며 쉼 없이 꿀을 찾아 나서듯 주변에 손나팔을 붙여 노래도 해 주고, 말동무도 해 주어야지...

강아지도 공부가 하고 싶을까?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서면

나보다

강아지가

먼저 나선다.

“가!

가가!

어서 가!”

손짓하면

가는 척하다

돌아보면

어느새

달음박질하며

앞장

선다.

학교에 와
공부하는데

창밖을
바라보니

강아지가
집에 가지 않고
교실을
뚱뚱히 들여다보고 있다.
나보다
강아지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걸까?

가만
묻고 싶다.



수상 소감

전라남도 신안군

이병언



피약벌이 내리찍는 들판에서 평생을 다 보내신 어머니는 농부의 아내로서 알뜰살뜰함의 표본이셨다. 굳이 경제논리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타작마당에서 구석구석 텅겨져 나간 곡식 낱알 한 톨까지 주어 담는 일은 바쁜 농번기에는 시간만 낭비하는 헛수고로 비쳐졌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곡식을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는 농부들만의 독특한 계산법이라는 것을 비로소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뜻밖에 날아온 입상소식은 서남해안 끄트머리 외딴 섬마을의 어두컴컴한 단칸방에서 남몰래 숨죽이며 열토당토 않는 꿈을 키워온 나에게 잠시 한 눈을 판 번덕쟁이 봄바람이 통 크게 한 톨 쏜 것이라 여기고 팔순의 고개턱에도 호미자루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으시고 팔공산 동편 자락에서 고향집을 지키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방파제로 달려 나가 갈매기를 벗 삼아 걸쭉한 축배라도 들고 싶습니다.

외할머니의 계산법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외할머니
칠순을 눈앞에 둔 연세인데
추수가 다 끝난 타작마당에서
곡식 낱알 하나하나 일일이 줌고 있다.

시간은 금이라고 배웠는데
금쪽같은 그 시간에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일에 눈을 돌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꾸역꾸역 매달리신다.

기껏해야 몇 폰 되지도 않을 것을
정성껏 줌는 것을 보노라면
어린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농부인 외할머니만의 계산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도 몰라.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한국화

한국화

수상 소감

수락고등학교

이용호



초등학생인 딸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이 바라본 세상에 대해 투명하고도 맑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 묻지 않은 아이의 눈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동시를 쓰라는 엄한 가르침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탉은 괴로워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한국화

한국화

꼬꼬꼬

줄 좀 맞춰 봐.

그 벌레는 먹으면 안 돼.

꼬꼬꼬

막내는 또 어디 갔니?

엄마 잘 따라오라고 했잖아.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집 앞 언덕으로 소풍을 가나 봅니다.

폴짝폴짝 꺾당

뭐가 그리 신기한지 두리번두리번

병아리들은 엄마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되겠구나.

자, 엄마 따라해 봐.

꼬꼬

삐약삐약

꼬꼬

삐약삐약

휴,

암탉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 1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동화

심 사 평

전체 응모작 138편에는 사실동화와 판타지동화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소재로는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이산가족 등의 애환과 환경문제, 동식물을 의인화한 작품 등 매우 다양했다. 그 중에는 동화에서 지양하고 있는 교훈적이거나 진부한 이야기가 많아 안타까웠다.

33편의 예심 통과 작품 중 최종심에 오른 9편을 놓고, 심사자들은 동화의 독자가 어린이와 순수한 동심을 향유하려는 어른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신선한 소재, 개연성을 확보한 탄탄한 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학성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최종심에 오른 작품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소소한 일상보다는 큰 울림이 있는 작품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심사위원: 이성자, 박숙희

칸 이야기

완도여자중학교 정재학

● 금상

바위의 창(窓)

전)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권재록

● 은상

얼토당토 있는 토요일

옥동초등학교 심진규

● 동상

파보는 내 친구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이정희

돌아온 망구아저씨

통영두룡초등학교 강우성

기특이

미래창조과학부 천안우체국 박지희

● 입선

숨은 별자리 찾기

국세청 익산세무서 최현선

수상 소감

완도여자중학교

정재학



해마다 3월이면, 우리 선생님들은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 어디서 나서 자라고, 누구의 품에서 꿈을 꾸고, 어여쁜 사랑을 배우며 살아온 아이들이지, 우리 선생님들은 도무지 알 수 없다.

다만 곱고 파랗고, 해맑은 웃음과 푸르도록 행복해 하는 그 연초록빛 얼굴들을 보면서 나비를 생각할 뿐이다. 여리고 아름다운 연초록 바다에서 자라온 우리 아이들과 바다를 건너는 나비.

나의 동화는 우리 완도여중 어여쁜 꼬마아가씨들로부터 왔다고 믿는다. 행복은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나는 그 짙푸른 눈망을 속에서 아름다운 동화를 그려본다는 것.

우리 완도여자중학교에서는 교실마다 원고지 칸처럼 네모진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 나이 열세 살부터 열다섯까지, 완도여중 파이란 아가씨들은 청해진의 그 잔잔한 바다로부터 왔을 것이다.

칸 이야기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한국

현대

산막에서는 저 아래로 끝없는 나무의 숲들이 보입니다.

눈이 닿는 저 벌판 끝에서 다시 끝으로, 끝으로 한없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의 바다, 수해(樹海)라고 부르는 곳. 넓은 숲이 있는 만주 홍안령 산맥입니다.

칸은 요즘 며칠째 산 아래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포수가 산을 내려갔기 때문이지요. 곧 봄이 늦기 전에 사냥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 와야 한다고 하면서, 홍포수는 며칠 전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칸은 산막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루하지만 산은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슴도 자그마한 고라니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칸은 놀라자빠질 지경이었지만, 모두들 일부러는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그들하고도 친숙해졌습니다.

봄빛이 그윽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산막 앞 나도밤나무숲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칸은 귀를 쫓긋거립니다. 평소 같으면 다람쥐나 청설모, 아니면 작은 들짐승이겠지만 오늘은 소리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인데?”

잠시 귀를 기울이던 칸은 곧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약간은 시큼한, 그리고 소금기가 실려 있는 그 땀냄새는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짐

승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 칸은 곧 결정을 내립니다.

‘싸워야겠구나.’

우선 숲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곤 얼른 그들로 몸을 숨기고 살펴봅니다. 이윽고 숲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 차림을 한 그들은 모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칸은 곧 알아차립니다.

‘비적들이구나.’

비적(匪賊)은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을 하는 못된 도둑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칸은 그걸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구요? 사냥꾼이라면 평소엔 총을 어깨에 메고 다니지 절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냥을 할 때만 총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산막을 향해 총을 겨누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훔치려는 뜻이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비적들이 다가오자, 칸이 그들에서 튀어나와 용감하게 으르렁거리며 비적들을 막아섭니다.

“싸 버리자.”

그 중 하나가 총을 들고 칸을 겨눕니다. 낄새를 알아챈 칸은 산막 옆 바위 쪽으로 얼른 숨어버립니다. 그리곤 나무와 바위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몸을 숨기면서 지켜봤습니다. 비적들은 칸을 쫓다가 잡지 못하자, 아무데나 총을 쏘며 분풀이를 합니다.

“집주인이 올 것 같은데, 그만 싸!”

그리고는 비적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니, 집안을 살펴보고 곧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지요. 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안엔 짐승 털가죽 같은 흠
쳐갈 값나가는 것이 없고 하니, 잠복해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 주인
을 해치고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으려는 생각 같았습니다.

칸은 홍포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홍포수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돌아
오고 있을 것입니다. 칸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가만있을 수가 없었
습니다. 곧바로 홍포수가 내려갔던 길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산막을 떠난 지 몇 날이 지나간 지금 홍포수는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
다. 산막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야트막한 산을 넘고, 야생딸기밭을 지나,
개울을 건널 때, 칸은 반가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칸 아니냐?”

홍포수는 나귀에 많은 짐을 싣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냥으
로 잡은 짐승가죽과 약초를 팔아 사냥에 쓸 총알이며 화약, 봄 내내 먹을
밀가루며 식용유 같은 음식을 잔뜩 사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칸은 개
울 물살을 헤치며 홍포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홍포수도 칸을 마주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칸은 홍포수의 손을 핥으
면서 숨을 고릅니다.

“너, 무슨 일이 있구나. 집을 안 지키고 온 것을 보니.”

칸은 홍포수의 손에 발을 올리며, 그렇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홍포수는
사태를 알아채고 칸을 앞세우고 갑니다. 산막이 보이는 언덕 근처 은밀한
곳에 나귀를 숨겨놓고, 칸과 홍포수는 비적들이 숨어있는 숲 뒤쪽으로 갔
습니다.

숲 언덕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바위 뒤에 비적들이 숨어있는 것이 보였
습니다. 홍포수는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손들어!”

깜짝 놀란 비적들이 손을 들다가, 홍포수 혼자라는 것을 알고는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칸이 맨 앞의 비적을 물었습니다.

“앗, 이놈의 개가!”

칸에게 물린 비적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나머지 비적은 홍포수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칸은 비적의 팔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칸, 놔줘라.”

칸은 물었던 팔을 놓아 주었습니다. 비적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좋다. 너는 살려줄 테니, 가거라. 그러나 더 이상 나쁜 짓은 하지 말아라.”

비적은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칸,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홍포수는 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칸이 홍포수를 만난 것은 지난 해 늦가을의 일입니다. 홍포수가 일을 보러 만주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목이 말라 주막에서 물을 한 잔 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나직한 신음소리를 들었지요. 이상하게 생각하여 신음소리를 따라가 본 홍포수는 뒤 곁 우물가에 여러 마리의 개 시체가 있고, 그 중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홍포수는 주막집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웬 개들인가요?”

“아, 그 개들이요? 마을 왕부잣집 개들이지요. 어젯밤 도둑이 들었는데, 개들이 싸우다 모두 죽었고, 이 개가 마지막까지 도둑과 싸우다가, 도둑을 물리치고 도둑의 총에 맞았나 봐요. 죽게 생겨서 버린 것을 개고기 로라도 팔까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개는 칸이라고 부르지요.”

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홍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홍포수는 칸의 슬

픈 눈빛을 보고 결심하였습니다.

“이 개, 내가 사겠소.”

홍포수는 지극한 정성으로 칸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산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총탄은 배를 뚫고 갈비뼈 사이를 지나간 것이어서, 칸은 점차 회복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겨울 내내 움직이지 못하고 칸은 산막에 누워 지냈습니다. 드디어 봄이 되고, 칸은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이지요.

“칸, 곧 사냥이 시작되면 바빠질 거야.”

홍포수는 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칸은 따뜻한 홍포수의 품에서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칸이 태어난 날도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미개는 유명한 만주개로 늑대개라고도 불리는 개였습니다. 아빠도 훌륭한 늑대개였지요.

“오, 대장의 후예로구나.”

주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모두 다섯 마리가 태어났고, 칸은 그 중 맏이입니다. 칸은 어미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2주가 지나 눈을 떴고, 한 달이 되어서 젖을 땀습니다. 칸이 젖을 떼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헤어질 거야.”

“왜요, 엄마?”

“주인이 너희를 웅덩이에 집어넣을 거야.”

엄마는 슬픈 듯이 강아지들의 몸을 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주인이 개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웅덩이로 보내야겠군.”

칸은 주인의 손에 잡혀 형제들과 함께 깊은 땅 속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살아남은 놈만 기르는 거야.”

십여 평 웅덩이엔 칸과 나머지 네 마리 형제들, 그리고 어디서 온 지 알 수 없는 강아지 십여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들도 젖을 떼자마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칸은 모두 스무 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웅덩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칸이 곱게 생긴 얼룩점박이 강아지에게 물었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왔어.”

강 건너 마을에서 왔다는 강아지는 곧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나 아무도 달래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엄마 곁을 떠나왔기 때문이죠. 얼룩강아지가 울자, 강 건너 마을에서 온 강아지들이 모두 꺽꺽 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칸은 울지 않았습니다.

“너는 강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울지 말고, 알았지 응? 엄마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칸은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는 울음이 나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자, 먹어라.”

해가 저물자, 웅덩이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고깃덩어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먼저야.”

“아냐, 내가 먼저야.”

모두들 앞 다투어 고깃덩어리를 향해 달려들 때, 칸도 다른 강아지들을 물리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 놈 참 힘이 좋구나.”

주인이 웅덩이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민첩하고 다른 강아지들보다 힘도 좋아.”

칸은 차지한 먹이를 먹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만큼에서 다른 마을에서 온 강아지가 칸의 형제들을 물리치고 먹이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도 먹이를 먹으면서 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칸은 주저 없이 그 강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리 내놔!”

칸은 달려가 온몸으로 강아지를 부딪쳐 쓰러뜨린 뒤, 앞발로 누르고 목 줄기를 물었습니다. 물린 강아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졌어. 항복이야 항복!”

칸은 의기양양하게 다른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 누가 나하고 싸워볼 테냐?”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와, 우리 큰형이 대장이다!”

칸의 형제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미소를 띠었습니다.

“됐어, 저 놈이 바로 대장이야. 칸이라 부르자.”

칸은 ‘왕’이란 뜻의 몽골어입니다. 칸은 그렇게 해서 웅덩이 속 강아지

들의 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맨 먼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무리에게 벌을 내리거나 통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잠자리도 가장 높고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칸이 자리를 정하자 형제들이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마을에서 온 강아지들은 춥고 축축한 낮은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별빛에 희미하게 엄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 엄마가 보고 싶어.”

막내가 칸의 몸에 기대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그렇지만 참아야지 어떡해. 엄마가 절대 약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칸은 온몸에 묻은 서리를 털고 일어나 웅덩이 안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다들 아무 일도 없었으나, 어제 강 건너 마을에서 왔다는 예쁜 얼룩강아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아픈 거니?”

칸이 혀로 핥아주자, 얼룩강아지는 살며시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주인은 절대로 풍족하게 먹이를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강아지들은 먹을 것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얼룩강아지도 힘이 약한 까닭으로,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칸은 얼룩강아지를 일으켜 자기 잠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쉬고 있어.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올게.”

잠시 후 웅덩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위

로 주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들 잘 잤느냐.”

‘멍멍’, 칸이 주인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주인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네 이름은 칸이다. 칸! 짖어봐라.”

칸은 주인이 부르자, 더욱 힘차게 짖었습니다.

“됐어, 자 먹을 것이다.”

먹이가 던져지자, 칸은 가장 맛있는 곳을 골라서 물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형제들이, 나머지는 강 건너 마을에서 온 강아지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개들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힘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까닭이죠. 이윽고 서열이 정해지자, 힘센 강아지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한 강아지들은 비실거리며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강아지들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밀려난 강아지들은 웅덩이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약한 것은 죽는 것이 웅덩이 속 강아지들의 운명이거든요.

“자, 먹어.”

칸은 얼룩강아지에게 가져온 먹을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얼룩강아지는 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칸, 고마워.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칸은 축스러웠지만, 예쁜 얼룩강아지가 어서 기운을 차리기 바랐습니다.

“난 너를 ‘알(二)’이라고 부르고 싶어. 넌 나 다음 두 번째거든.”

늑대나 개들 세계에서는 대장이 서열 1위고, 그 다음은 대장의 아내가 서열 2위를 차지합니다. ‘알’은 둘(二)이라는 숫자의 중국 발음입니다. 칸은 얼룩강아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얼룩강아지에게 사

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얼룩강아지는 칸의 고백을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약한 강아지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죽는 날은 주인이 그것을 보고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형제 강아지를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무도 싫었지만 칸은 배고픔에 죽은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주인은 칸의 그런 모습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칸은 같은 동족도 먹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날이 지나가고 칸과 알, 형제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주인은 하루에 두 번 찾아와서 먹이를 던져주고 가고, 다른 사람은 일체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칸과 그 무리들은 오직 주인만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먹을 것을 주는 분이며, 그런 주인이 나타나면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것으로 주인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칸의 무리들은 ‘모든 먹을 것의 주인’으로서 주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웅덩이 안에서 올려보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주인은 절대적인 신(神)이었습니다. 칸은 맹세하였지요. 그런 주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고, 목숨을 바쳐서 주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동안에 서열이 낮은 힘 약한 강아지들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칸과 알, 네 마리 형제들과, 강 건너 마을에서 온 5마리, 모두 11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7월 모기떼가 극성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웅덩이 밖이 소란해지고 불이 밝혀지려는가 싶더니, 고함소리와 함께 쿵쿵,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산한 사람들의 발소리며 말발굽소

리가 들리고 이윽고 아침이 왔습니다.

“자, 먹어라.”

주인은 변함없이 먹을 것을 던져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일까요. 던져준 먹이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에 쳐들어온 도둑들이다. 칸, 먹어라. 너희는 앞으로 이런 도둑들을 잡아야 한다.”

칸은 먹이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주인과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주인이 아니면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칸과 무리들은 모두 시체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병들어 죽은 시체가 던져졌습니다. 그때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에, 칸과 형제들은 오히려 사람 시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칸은 오직 주인만을 알게 되었고, 주인만을 믿으며, 주인의 명령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닌 그 무엇일지라도 먹이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푸른 하늘이 높게 높게 솟는 날, 칸과 형제들은 웅덩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조그만 강아지였는데, 어느덧 크고 무서운, 눈에는 살기가 흐르는 커다란 만주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11마리 만주개의 목에 일일이 목줄을 채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이 집을 지키다.”

목에 쇠줄이 채워지자, 칸은 그 옛날 엄마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칸은 그리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

다. 아마도 어디론가 갔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칸과 무리들은 목줄이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사는 안채와 하인들이 사는 숙소 사이에는 담으로 된 회랑처럼 긴 통로가 둘러있었고, 칸과 형제들은 그 속에 넣어졌습니다. 그곳은 개 우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도둑이 안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로를 지나야 하고, 칸과 형제들이 지키는 곳을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칸은 그날부터 밤이면 집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는 여전히 오직 주인만이 주고 있었고, 칸과 그 무리들은 주인이 나타날 때마다 환호의 울음소리를 지어댔습니다. 먹이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확기가 되어 집안은 날로 분주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에 동원된 듯, 하루 종일 식량을 실은 우마차가 들락거리고, 집안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인은 엄청난 땅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는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만도 수십 채가 되었고,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 중에서 다리를 저는 이가 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네가 칸이구나.”

미소를 짓고 다가오는 절름발이 하인은 아무도 모르게 칸에게 고깃덩이리 하나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평소 칸은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칸의 눈치를 보며 먹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을 보며 칸이 화를 냈지만, 형제들이 워낙 배고픈 것을 알기에 나중에는 모른 척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절름발이 하인은 칸을 찾아왔고, 모르게 고깃덩이리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나 칸은 여전히 입에 대지도 않았고, 그 고깃

덩어리들은 다른 형제들 차이가 되었습니다.

“고집이 센 녀석이군.”

그때마다 절름발이 하인은 기분 나쁘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가을 수확이 끝났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들판엔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만주는 10월이면 눈이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눈은 끝없는 광야를 가득 채우고, 바람은 저편 들판 머나먼 시베리아 산맥에서 무너질 것처럼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횡행, 나뭇가지는 부러질 듯 구부러졌고, 세상은 바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혹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칸과 무리들은 담과 담 사이를 오가며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칸을 부르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칸… 카안.”

절름발이 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와 냄새에 칸과 무리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커다란 고깃덩어리들이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고깃덩어리에 달려들었습니다. 칸은 이상했습니다. 평소 낮에 찾아오던 절름발이 하인이 왜 이 밤에 나타나 고깃덩어리를 던져주는가?

“먹지 마!”

칸은 큰소리로 형제들에게 외쳤습니다. 알과 네 마리 형제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이미 고기를 삼킨 뒤였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독약을 넣은 게 분명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강 건너 마을에서 온 형제들이었습니다.

‘아, 큰일났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커다란 불꽃이 일고, 사방에서 쿵쿵거리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칸은 알과 살아남은 형제들을 데리고 힘차게 찾아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 무너지고, 이어 담벼락이 넘어졌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과 칼을 든 도둑들과 안채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칸은 도둑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도둑들과 하인들과 칸의 무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안채에서 주인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칸은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은 칼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두 명의 도둑이 주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절름발이 하인이었습니다. 그 하인이 도둑과 내통하여 일을 벌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칸은 지체 없이 주인을 공격하는 맨 앞의 도둑을 덮쳤습니다. 어깨 위에 올라타고 물자, 도둑은 칼을 놓치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뒤에 있던 절름발이 하인이 칸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주인은 집안으로 도망치고, 눈앞에 알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은 칸을 향해 총을 쏘려는 하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총을 놓고 알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해, 알!”

그러나 도둑이 휘두른 칼은 알의 몸을 베고 있었습니다. 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칸은 몸을 솟구쳐 절름발이 하인의 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칸이 목을 물고 흔들고 있을 때,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칸은 옆구리가 불에 덴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름발이 하인이 쓰러지

자, 칸도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을 바라보았습니다.

“알, 괜찮아?”

칸은 드러누운 채, 곁에 누워있는 알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알은 고개를 끄덕이며 칸을 바라보았습니다.

“칸, 그동안 고마웠어요.”

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알은 칸 쪽으로 다리를 뻗으려다 힘이 부치는 듯 조용히 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알. 죽지 마.”

그러나 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통에 전열을 가다듬고 하인들을 몰아 도둑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둑들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횃불을 들고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칸을 보았습니다.

“살릴 수가 없겠구나. 치워라.”

주인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도둑들의 시체와 더불어 칸도 치워졌습니다. 주인은 목숨을 바쳐 지켜준 칸을 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들도 용감히 싸우다 모두 죽었습니다. 11마리 형제들이 주검이 되어 모두 한 곳 쓰레기장에 모여졌습니다.

날이 새자, 주막집 주인이 수레를 몰고 와서 칸과 형제들의 시체를 모아서 고기로 팔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칸은 홍포수를 만난 것입니다.

“칸, 자유란 이런 것이지.”

저녁을 먹고, 홍포수는 사냥총을 손질하면서 칸에게 말했습니다.

“칸, 너는 더 이상 목줄에 묶이지 않아도 돼. 이것이 자유라는 거야.”

장작불이 타고 있는 고쿨(아궁이)에서 향긋한 자작나무 냄새가 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는 웅덩이에서 주인만을 알도록 길러진 것이야. 그러나 너의 참된 주인은 오직 너일 뿐이지.”

멀리서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을씨년스러운 소리는 아주 먼 들판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사슴을 습격하는가 보라며 홍포수는 고쿨에 장작을 몇 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칸도 곁에 누었습니다.

“앞으로 칸, 너는 도둑을 지키는 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개는 사냥을 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너는 집을 지키는 개가 된 것이지. 그건 자유를 잃은 개의 모습이야. 칸, 앞으로 너는 자유로운 몸으로 너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될 거야.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거야.”

칸은 홍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염이 덩수룩한 홍포수는 저번 주인과는 달리 너무도 자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가두지도 않았고, 음식도 썩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칸은 홍포수와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칸, 너는 누구의 노예가 아니야. 우린 한 가족이란단다.”

그날 비적들로부터 홍포수를 지킨 칸은 홍포수의 곁에서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홍포수의 얼굴을 훑어주고는 밖으로 나가, 산막 근처에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칸은 산과 들만이 펼쳐져 있는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싱그러운 숲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물을 마시

는 고라니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몸짓과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칸은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아, 여기는 웅덩이가 아니야, 갇힌 곳이 아니고 썩은 오물 냄새도 없어. 열려 있고 싱그러운 냄새가 풍겨오는 숲.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은 고라니가 물을 마시고 있는 저쪽 샘터야.”

칸은 샘터로 발을 옮겼습니다. 물을 마시는 고라니떼가 보입니다. 드넓은 만주 홍안령 산맥 숲속에서 칸은 넓은 하늘과 넓은 벌판을 바라보며 자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칸은 기뻐했습니다. 칸은 넓은 벌판을 향해 소리높이 자기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칸이야, 칸이야아, 칸이야아아아아!”

칸의 목소리는 멀리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저어기 산 아래로 새벽안개가 구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맥을 넘어 저 먼 곳,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그곳을 향해, 칸은 보고 싶은 얼굴들을 불러보았습니다.

“형제들아, 어디 있니! 알, 어디 있어어어!”

수상 소감

전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권재록



신록이 더없이 푸르른 오월입니다.
 그 속에서 들뜬 하루가 꿈결같이 흘러갑니다.
 당선이라구요? 호오, 정말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났군요.
 이 기쁨을 사랑하는 아들(유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바위의 창(窓)

바람이 부는군.

이 수다쟁이는 우리 모두에게 보고 들은 것을 쉽 없이 속삭이지. 언제 부턴가 철넝쿨이 내게 기댄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어. 도토리 이파리, 다래 나무 줄기도 모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멀리서 종달새 한 마리가 날아와 잠시 머물다 가는군. 한낮의 무료함에 아기 멧돼지 서너 마리가 내 품에서 단잠을 자. 그 위로 산 꿩이 짝을 찾아 바빠 지나가고, 구름은 또 먼발치로 흩어져.

내가 언제 적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 어느 날 문득 내 생각의 언저리에서 나의 몸뚱이가 튕겨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는 존재하게 되었지. 계절은 끊임없이 오가지만, 나는 항상 변함없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어.

바람에 찬 기운이 가득하면 눈발이 휘날렸고, 바람에 따스한 햇살이 묻어오면 어김없이 개나리,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트렸지. 바람에게 세상일을 듣는 것은 더없는 즐거움이야. 때때로 노루와 토끼는 물론이고 느릅나무 소나무 같은 산천초목도 나에게 말을 걸어.

그들이 토해내는 모든 언어와 행동들은 내 몸에 촘촘하게 얹혀 있는 작은 창을 통해 나의 언어로 변해. 그래서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

바람이 또다시 불어오는군. 그들에게서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마도 남쪽 어디에서 오는 모양이야. 그 향기에 이끌린 멧새 서너 마리가 이쪽으로 날아오는군. 아직 순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은 없어. 그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친구가 내게로 왔다가 갔지. 나는 항상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들을 맞이했어.

그런데 최근에는 좀 다른 친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 바로 인간들이야. 숲 속 친구들은 그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인간들은 숲 속 친구들과는 다른 테가 많아. 그들이 내뿜는 언어의 참 뜻을 알기란 정말 어렵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사실 그들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야.

먼 옛적 그들의 선조가 이 골짜기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 그들은 별거벗은 몸으로 골짜기 초입에 있는 동굴에서 살았지. 그때만 해도 그들의 소리나 행동은 숲 속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은 동굴에서 벗어나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면서부터 점점 무섭게 변해갔지. 몸에는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그들이 그렇게 불렀음.)을 걸친 채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하는 도구를 가지고 다녔어. 그들은 호랑이나 곰보다 힘이 약하고 토끼보다 걸음이 느렸지만, 숲 속의 다른 친구들을 모두 굴복시켰어. 그들이 나타나면 숲 속 친구들은 숨거나 도망가기에 바빴지.

그들에겐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어. 바람에게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과학이나 기술 등으로 부른대. 물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이 기묘한 능력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지. 지혜롭고 아는 게 많은 산들바람조차도 그들의 그러한 능력을 부러워하며 찬탄할 정도야.

그렇지만 그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그들은 우리처럼 숲 속의 이야기를 알지 못해. 다른 친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나 봐. 바람의 이야기도, 다람쥐나 나뭇잎의 몸짓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불행한 일이야.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잎사귀가 내뿜는 즐거운 탄성, 그 옆으로 흘러가며 추임새를 넣는 산들바람의 흥얼거림,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도요새의 한가로운 시선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 하지만 그들 중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바로 어린이라 불리는 작은 인간들이지. 이들을 만나는 일은 아주 경이로운 일이야.

인간들은 최근에 골짜기 어귀에 캠핑장이란 걸 만들었어.

바람의 말에 의하면 캠핑장은 인간들이 잠시 와서 먹고 놀다 가기 위해 만든 것이라. 그렇지만 그들이 캠핑장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곳 골짜기의 친구들은 하나 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인간들은 밤에도 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 놓고 쉼 새 없이 떠들어대. 숲속 친구 중 일부는 견디다 못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했지. 눈망울이 큰 사슴가족은 그들에게서 나는 역한 냄새를 제일 싫어해. 바람에 따르면 그 냄새는 인간들이 요리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지만 어린애들은 달라. 애들은 숲속 친구들과 곧장 어울려 놀기도 해. 최근엔 얼굴이 뽀얗고 눈웃음이 예쁜 친구 하나가 내게로 왔어. 엄마 아빠와 함께 왔는데 이름은 기현이라고 해. 기현이는 이곳에 와서 한참동안 나와 함께 놀았지. 기현이는 로봇이 변신하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었어.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주기에 나도 모르게 몰었어.

“너 로봇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로봇이 뭐야?”

“응. 자동차로 변신도 하는데 내 친구야. 근데 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모두들 바위라고 불러.”

“아 그렇구나. 근데 바위야 너는 나한테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구나. 나는 조용조용 말하는 네가 좋아.”

그런데 어른들은 기현이에 대한 걱정이 대단했어. 기현이 엄마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어.

“여보, 우리 기현이 정말 저 상태로 계속 두어도 괜찮을까요? 어제 담당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택적 함묵증’이래.”

아빠가 대답했어.

“선택적 함묵증?”

“지가 마음을 연 사람에게만 말을 하는 거래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유치원에서도 한만디도 안 한대요. 그러니 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마다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저렇게 똑똑한데 유치원만 가면 입을 닫는다고? 이유가 뭐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현이 같은 경우는 낯선 상황에 대한 공포감이 그 이유 같대요. 기현이 같은 아이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음 정말 큰일이군.”

나는 큰 인간 즉 어른들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서 바람에게 물었어.

바람이 말했어. 기현이가 어디가 아픈 모양이야. 유치원만 가면 입을 닫고 엄청 힘들어 한대. 나는 내게 귀를 대고 있는 기현이를 살짝 불러보았어.

“기현아.”

“응.”

“너는 어디에서 왔니?”

“응, 나는 로봇나라에서 왔어.”

“그곳은 어떤 곳이야.”

“응, 변신로봇들이 아주 많아. 그리고 사탕과 초콜릿도 아주 많지.”

“근데 너, 말을 아주 잘하는구나.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 왜 말을 하지 않니?”

“응, 사실은 나도 말을 하고 싶은데, 모두들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를 않아.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항상 나보다 먼저 말을 해버려. 바위, 너처럼 기다려 주지를 않아.”

“아하,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거구나.”

“응. 유치원에서 집처럼 큰 소리로 울거나 억지를 부릴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때 아빠가 기현이에게로 다가오며 소리쳤어.

“야, 기현아 거기서 뭐해? 그러다가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응. 아빠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야, 임마 조그만 게 바쁘긴 뭐가 바빠. 이리로 와봐. 이 바위에 얹힌 이야기 해 줄게. 이 바위는 ‘구암바위’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왕바위’로도 불렸대. 옛날 이 곳 왕골에 어떤 왕이 전쟁을 하다가 잠시 피난을 왔는데 그 때 이 바위에서 쉬곤 했다는 거야. 저 아래 표지판에 적혀 있는 글 봤지? 그게 바로 지금 아빠가 말한 내용이야.”

“에이, 아빠는 지금 바쁜데. 자꾸 험~!”

“너 이 녀석, 험! 험! 하는 거 보니 또 땡깡 나오겠구나.”

“아이 참내, 아빠는... 아아앙... 아아앙!”

갑자기 기현이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 바람이 내게로 불어오며 속삭였지. 봐봐 어른들은 아이의 마음을 전혀 모르잖아. 저러니 아이가 울지 않고 어찌겠어. 그날 기현이의 울음은 나를 무척 슬프게 했어. 모처럼 나와 말이 통하는 인간을 만났는데 그렇게 끝나고 말았지.

인간들은 언제부턴가 이 골짜기를 왕골이라 부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옛날 어떤 왕이 전쟁을 피하여 이곳에 숨어 살았는데, 그 이후로 이곳을 왕골이라 불렀다는 거지. 인간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가 아니야. 그때 커다란 거북바위에 살고 있던 호랑이 한 마리가 매일 먹잇감을 구해와 그 왕을 섬겼다는 거야. 그래서 훗날 왕이 커다란 바위에는 ‘구암(거북바위)’이란 이름을 붙이고, 골짜기 입구에는 호랑이를 기리는 사찰을 지었대.

실제로 바람의 말에 의하면 골짜기 초입에는 ‘호왕사’라는 사찰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들이 말하는 ‘구암(거북바위)’이 ‘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기겁을 할 뻔했어. 나의 창에 녹아 있는 모든 기억을 다 더듬었지만, 그들이 말한 그런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던 거지.

굳이 비슷한 이야기를 골라내자면, 어느 날 한 무리의 인간들이 골짜기로 들어와 내 옆에서 며칠 묵었던 적은 있었어. 그들은 내 주변에 천막을 치고 누워 자며 며칠을 보냈지. 그때 골짜기에 있던 많은 숲 속 친구들이 그들에게 목숨을 빼앗겼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골짜기에 터줏대감적인 호랑이 가족이 그들을 습격했어.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쳐버렸어. 그들이 떠나고 골짜기에는 못된 인간들이 호랑이에게 쫓

겨 내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그중 대장인 인간이 그들의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역시 호랑이에 게 혼쭐이 나서 줄행랑을 놓았거든. 그는 내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똥을 싸고 있었는데, 마침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똥을 줄줄 흘리며 도망을 갔지. 그에게 호랑이가 매일 먹잇감을 구해다 바쳤다는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가. 그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노는 꼴은 별로 탐탁치가 않았어. 그들의 행동은 숲 속의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가득했지. 특히나 숲 속 친구들을 닥치는 대로 죽인 다음에 불에 구워 먹는 짓거리는 정말 꼴볼견이었어. 별 감정이 없는 두꺼비 가족까지 그들을 비난하며 먼 곳으로 가버렸거든. 호랑이가 그들을 내칠 때는 나까지 기분이 좋았어.

인간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군.

얼마 전부터 그들이 이곳에 나타나는 횡수가 아주 많아졌어. 그들은 대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헤치거나 언덕을 밀어내고 나무나 바위를 없애버렸지. 바람에게 들은 바로는 그들이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큰 길을 만든다고 해.

그들은 아주 기분 나쁜 울림이 있는 작은 물건을 귀에 대고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곤 해. 바람이 말했어. 저건 휴대폰이란 것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야. 기분이 우울한 바람이 녹녹한 습기를 머금은 채 내 주변을 서성거렸지.

휴대폰에서는 썩— 하는 무언가가 쉴 새 없이 퍼져 나왔지. 소리라고 하기엔 미미한 그것은 일종의 흔들림 같은 것이야. 바람이 말했어. 인간들은 저 흔들림을 전자파라고 불러. 전자파의 흔들림은 여러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 싸리나무에 등지를 틀고 있던 종달새 가족이 머리를 흔

들며 다른 곳으로 날아갔지. 내 몸에 붙어살던 바다는 전자파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 하더군.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말했어. 실제로 땅 끝 반대편에서는 꿀벌들이 전자파 때문에 꿀을 만들지 못해.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모르나 봐. 바람도 역시 인간들을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들이 둘러쳐 놓은 노란 끈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어. 저녁이 되자 오늘 낮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방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알거냥하기 좋아하는 찌르레기들은 정말 인간들은 싫다고 소리를 높였지. 갈댓잎은 그 소리에 몸을 흔들어 맛장구를 쳤고 잠을 잊은 아기 다람쥐도 귀를 쫓긋거리더군. 하지만 내가 말했어. 작은 인간 즉 어린이 중에는 우리와 말이 통하는 친구도 있다고 말이야. 종달새가 박수를 치며 노래했어. ‘이곳에는 큰 인간들 말고 작은 어린이만 왔으면 좋겠네’라고 말이야.

밤하늘에 보름달이 매우 아름다운 밤이야. 하지만 캠핑장의 불빛과 소음 때문에 고즈넉한 이 밤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 애석한 일이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날아오는 풀벌레 소리와 이 밤을 적시는 촉촉한 이슬방울들이 만들어 내는 그 멋진 광경을 큰 인간들은 절대로 모를 거야.

해마다 이맘때면 남동쪽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있지. 그들은 비구름을 몰고 와서 골짜기의 묵은 찌꺼기들을 일순간에 날려버리지. 길고 긴 순례의 길에서 그들은 간혹 숲 속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 그렇지만 그들의 여정은 숭고한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어. 바람이 말했어. 만약에 그들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너무 더러워서 생명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인간들은 이 성스런 순례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군. 인간들은 이 순례자들에게 ‘사이클론’, ‘윌리윌리’, ‘태풍’과

같은 이름을 붙여 놓고 그들이 오는 길목을 예민하게 관찰한다고 했어.

순례자들은 오늘도 오지 않을 것 같아. 대신 새벽의 여명이 맑은 동쪽 하늘을 채우고 있어.

태양이 머리 위에 왔을 때 기현이가 가족들과 함께 왔어.

다른 가족도 섞여있었지. 기현이 엄마가 나를 만지며 말했어.

“헤리 엄마. 우리 기현이는 이곳 왕바위가 제일 좋은가 봐요. 자꾸 여기만 오자고 하더라고요.”

“좋은데요. 앞에 전망이 시원하게 트인 데다 주변에 숲이 우거져서 햇빛도 가려지고.”

어른들은 내 앞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며 잡담을 시작했어. 기현이는 헤리를 데리고 와 나에게 소개를 하더군. 헤리도 신기해하며 내 몸עד 귀를 댔어. 우리는 서로 이야기가 통했어. 어른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이들은 정말 좋아. 산들바람이 내 마음을 알았는지 지나가며 말했어. 어른들도 저 아이들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뒤를 따르던 남풍이 비릿한 바다 내음을 풍기며 새로운 소식을 알려왔어.

“이제 머지않아 순례자들이 도착할 거야.”

희뿌연 하늘가로 새들이 낮게 날고 있었어. 기현이 아빠가 헤리 아빠에게 말을 하는군.

“근데 일기예보는 들어 봤나? 태풍이 오지는 않겠지?”

“태풍 온다는 얘기는 없던데, 태풍이 온다면 관리실에서 사람들을 전부 철거시키겠지.”

나는 그들이 말하는 태풍이 순례자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어. 저들은 순례자가 곧 온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 이대로 있다간 저들이 낭패를 볼

거야. 하지만 저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건 불가능하지. 나는 내 몸에 귀를 대고 있는 기현이와 헤리에게 말했어.

“부모님을 모시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 조만간 무서운 비바람이 올 거야.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칠 거야. 여기 계속 있으면 정말 무서울 거야.”

기현이와 헤리는 눈이 동그래지며 울상을 지었어. 헤리가 먼저 말했어.

“엄마, 나 집에 갈거야. 여기 싫어!” 기현이도 집에 간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 부모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은 데리고 내려갔어. 아마 기현이와 헤리는 계속해서 집에 가자며 고집을 부리겠지. 부모들이 아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을 텐데.

마침내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엄청난 비바람이 휘몰아치더군.

드디어 순례자들이 도착한 거였어. 엄청난 폭우가 한참 동안 쏟아졌어. 잠시 후, 골짜기가 크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거대한 흙덩이가 산위에서 쏟아져 내려왔어. 순식간에 앞이 캄캄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인간들의 아우성이 잔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아련하게 들렸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방이 캄캄하고 고요해. 이제 순례자들은 모두 떠났나봐. 산들바람이 나를 부르고 있군. 온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 나의 창을 흙더미가 덮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선가 인간들의 소리도 들려왔어.

“상전벽해라더니, 왕골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산사태로 골짜기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네. 이번 돌풍은 우리 관리소도 전혀 예상치 못했었어.”

“그래도 이런 난리에 인명피해가 적어서 천만다행이야.”

“산사태가 덮친 곳은 마침 전날 꼬마들이 열이 나고 아파서 갑자기 철거한 곳이라. 정말 운이 좋았지. 그 옆에 있던 대학생 두 명만 다쳤다고

하더라고.”

“멀쪼한 산을 길 낸다고 그렇게도 후벼댔으니 산사태가 안 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그런 일이 있었군. 그래도 애들이 무사했다니 다행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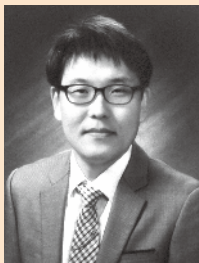
이봐, 개개비 친구. 북쪽에서 오는가? 그쪽 마을은 어떤가? 산들바람의 수다가 흙더미 위로 들리는군.



수상 소감

옥동초등학교

심진규



휴일을 맞아 텃밭에 가 보았다. 한참 전에 씨앗을 뿌렸는데 아직 싹이 나지 않았다. 잡초만 무성한 밭을 보니 한숨이 나왔다. 그 때 문자메시지가 왔다. 응모자 모두에게 보낸 것 같은 메시지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접속을 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내 동화가 입상작에 있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에 힘을 얻어 잡초를 뽑고 밭아가 안 된 작물은 다시 씨를 뿌렸다.

아직 밭아가 되지 못하고 땅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씨앗을 다시 뿌리는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글쓰기를 꾸준히 해야겠다.

얼토당토 있는 토요일

“어, 저게 뭐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며 채원이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뭐가?”

내가 더 물을 사이도 없이 채원이는 내 손을 잡고 뛰었다. 영문도 모른 채 난 채원이 손에 이끌려 분리수거장 옆으로 갔다. 짧은 거리였지만 급하게 달려와서인지 숨이 찼다.

“이… 이거 봐. 이거 토끼장 맞지?”

채원이는 평소에도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채원이 엄마는 동물이라면 질색을 하셨고 절대 안 된다고 못 키우게 했다.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다.

“난 동물들 돌보는 수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그냥 의사가 되래. 우리 엄마는 뭐든 자기 맘대로야.”

언젠가 채원이가 놀이터에서 내게 한 말이다. 채원이와 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같이 다니고 있는 단짝이다. 2학년 때 이후로 같은 반이 된 적이 없다가 올 해 5학년이 되면서 드디어 같은 반이 되었다. 3월 첫날 같은 반이 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폴짝 폴짝 뛰었다. 그 덕분에 첫날부터 교실 청소하는 벌을 받긴 했지만 말이

다. 같은 반에 같은 아파트에 사니 우리는 예전보다 더 붙어 다녔다. 그리고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우리 엄마도 그래. 난 공부보다 운동하는 게 더 좋은데…….”

“엄마들은 왜 그러냐?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채원이가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듯 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어른들은 모두 여자애가 무슨 축구선수냐며 뭐라고 하지만 내가 축구선수가 되는 데 여자인 것은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부도 그럭저럭 이고 얼굴도 평범한 내가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때는 축구를 할 때이다. 남자 애들하고 해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어? 이게 언제 생겼지? 와, 정말 귀엽다.”

채원이가 토끼장의 창살을 쓰다듬었다. 창살을 토끼로 착각이라도 한 듯이. 토끼장 안에는 흰 색 토끼 한 마리와 검은 색과 흰 색이 반 반 섞인 토끼 한 마리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마 새 집이 어색해서 그런 모양이다.

“너무 그렇게 오래 보고 있으면 토끼가 스트레스 받는다.”

어느새 경비원 할아버지가 우리 뒤에 서 계셨다. 우리는 뒤를 돌아 꾸벅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애들은 어디서 났어요? 애들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키우는 거예요?”

“허허, 이 녀석아. 좀 천천히, 하나씩 물어라. 맨 처음, 처음 질문이 뭐였지?”

할아버지는 채원이 머리카락을 흘트리며 웃으셨다.

“토끼장 언제 만들었어요?”

“아, 그거. 어제 나무로 뼈대만 세웠다가 오늘 낮에 내가 만들었다.”

“그럼 이제 애들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었지.”

“그럼 저희 여기 와서 애들하고 놀아도 돼요?”

“만날 시키면 아스팔트랑 높다란 시멘트 건물만 보는 너희들 위해 만든 것이니 그래도 되지. 암 그래도 되고말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녀석들은 스트레스에 약하거든.”

채원이와 난 토끼장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할아버지 말씀처럼 토끼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조용히 앉아서 구경만 했다. 다리가 저려오는 줄도 모르고, 토끼들은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지 할아버지가 넣어 둔 풀을 갉아 먹기 시작했다. 작은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풀을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채원이는 입을 내밀고 토끼가 풀 먹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났다.

“푸하핫!”

“야, 시끄러워. 토끼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채원이가 어깨로 날 툭 쳤다. 다른 애들이 쳤다면 금세 화를 냈을 텐데 이상하게 채원이가 그러면 화를 낼 수가 없다.

“알았어. 너 입모양이 웃겨서 그랬어.”

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채원이가 쿡쿡 웃으며 물었다.

“내가 왜?”

“토끼가 풀 먹을 때 너도 같이 먹는 것 같아. 입 모양을 요렇게 해서 오물오물.”

나는 입술을 모아 앞으로 쭉욱 내밀어보였다. 채원이는 자기가 언제 그

랬냐며 우긴다. 우리 둘은 어둑어둑 해져서야 집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아빠와 운동을 하러 밖에 나오며 토끼장을 보니 작은 전구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밤에 깜깜해서 토끼들이 무서울까봐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두신 것 같았다.

“아빠, 내가 말 한 토끼장이예요.”

내가 토끼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파트에 새 식구가 생겼네. 하지만 너무 자주 가지는 마라.”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아빠와 둘이 마주보고 웃었다. 아빠는 토끼들을 ‘새 식구’라고 했다. 엄마였으면 “저런 걸 왜 만들었대? 냄새나게.”라고 했을지 모른다.

다음 날부터 채원리와 나는 토끼장에 뺑질나게 드나들었다.

학교 가기 전에 들러서 “학교 다녀올게.”하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잘 있었어?”하며 가끔 학교 텃밭에서 뜯어 온 배춧잎을 넣어 주기도 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과학실험을 할 때 당근 관찰을 했는데 실험이 끝나고 난 당근을 모두 모아서 토끼에게 가져다 주었다. 토끼들은 당근을 엄청 잘 먹었다. 채원리는 주말이면 토끼장 앞에서 살다시피 했다. 토끼랑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기도 했다. 난 토요일에 축구교실에 가야 해서 함께하지 못했다.

일요일 아침이다. 어제 운동을 하고 와서 그런지 늦잠을 잤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예상대로 채원리다. 아마 토끼 보러 가자고 그러는 것 같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채원리는 숨이 넘어갈 듯했다.

“토… 토끼장을 없앤대.”

“으… 응? 왜?”

채원이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 아파트 부녀회 아줌마들이 경비원 할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어.”

눈곱을 뽐 사이도 없이 머리만 질끈 묶고 채원이를 따라 토끼장으로 갔다. 아줌마들 여럿이 경비원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니, 엄연히 이 공간도 아파트 주민들 건데. 아저씨 마음대로 여기다 이런 걸 설치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 아줌마가 토끼장에 대고 샷대질을 해가며 이야기 했다.

“그... 그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니,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거 똥 싸고, 먹이랍시고 풀 넣어준 거 다 썩어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요.”

“그래요. 애들이 토끼 보러 다니느라 학원도 빼먹는단 말이에요. 당장 치워 주세요.”

아줌마들이 한바탕 이야기 하고 돌아가고 할아버지만 혼자 토끼장 앞에 서 있었다. 우리 둘은 그런 할아버지를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인지 채원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진짜 토끼장 없애실 거예요?”

“글쎄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말했다.

“할아버지, 그럼 애들 어디로 보내요? 제발 토끼장 그냥 두면 안 돼요?”

채원이는 할아버지 팔을 잡고 매달렸다. 아무리 그러고 싶다고 해도 부녀회 아줌마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안다. 아마 채원이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어쩔 수가.....”

“그럼 재들 저희가 키울게요.”

저희가? 채원이가 나랑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불쑥 그렇게 말을 했다. 나는 채원이를 쳐다봤다. 하지만 채원이는 토끼와 할아버지만 번갈아 볼 뿐이었다. 내 생각은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엄마에게 토끼를 키우겠다고 했다가는 집안이 발각 뒤집힐 것이다.

“야, 안채원! 난 토끼 키울 수…….”

“효림아, 미안한데 재들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가 키우자. 응?”

“야, 그래도 어떻게. 어디서 키워?”

나도 모르게 어디서 키울 것인지 묻고 있다. 이상하게 채원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채원이 뜻대로 된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되고 있지만 크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일단 오늘 당장 토끼장을 없애는 건 아닐 거잖아. 그 동안 우리가 재들이 살 집을 마련해 보면 될 거야.”

“그래도, 지금 집을 어디서 구해?”

“그럼 저희가 이따가 애들 데리러 올게요. 효림아, 가자.”

채원이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더니 내 손을 잡아끌었다. 평소의 채원이와 너무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상가 슈퍼마켓에 가서 튼튼한 종이상자를 하나 가져왔다. 경비원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의류 함에 버려진 옷을 바닥에 깔아 주고 상자의 중간 중간 구멍을 내어 토끼가 숨 쉴 수 있게 해 주었다.

“우와, 이렇게 하니까 이동식 토끼집이네. 좋다. 그치?”

채원이는 환하게 웃었다.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는 채원이가 부러울 따름이다.

“이제 애들은 온전히 우리 거니까 이름도 지어 줘야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엄마는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내가 물었다. 토끼들이 불쌍해서 채원이 뜻에 따르긴 했지만 집에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아마 그건 채원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채원이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듣고도 모른 채 하는 건지 토끼들만 보고 있었다.

“효림아, 애는 얼룩이 있으니까 얼토, 그리고 애는 당근을 좋아하니까 당토. 어때? 멋지지? 합치면 얼토당토!”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지금 이 상황에 한가하게 이름이나 짓고 있다니.

“안채원!”

난 뻑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채원이가 날 돌아보았다. 좀 놀란 것 같다. 소리 지른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보다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애들 어떻게 키울 거야? 어디서 키울 거냐고?”

“그... 글썸. 어디서 키우지?”

“뭐야? 아무 대책도 없이 덩석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나? 아휴!”

채원이는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똑부러졌다. 공부도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다. 성격도 좋아 인기도 많았다. 그런데 토끼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사가 풀린 바퀴처럼 빠져덕거렸다. 공부시간에도 토끼 그림만 그렸다. 그러다가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다.

“안채원, 요즘 무슨 일 있니? 수업 태도가 많이 안 좋아졌어.”

그럴 때마다 채원이는 특유의 웃음으로 넘기곤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해졌다.

“학교!”

채원이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학교에서 키우자. 선생님께 이야기해서 실과 실습을 위해 학교에서 키우자고 하자.”

“뭐? 학교? 그게 말이 되냐?”

“왜? 우리 선생님이라면 가능할 거야. 학급회의를 하면 되지. 언제든 안전이 생기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좀……”

“할아버지, 할아버지!”

채원이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얼토당토를 오늘만 경비실에서 재우면 안 돼요? 내일은 저희가 학교로 데려갈게요.”

“얼토당토?”

“제가 좀 전에 지어 준 이름이에요. 요 얼룩이가 얼토구요. 재는 당토예요. 당근 좋아해서.”

다음 날, 우리는 얼토당토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얼토당토는 인기 최고였다. 아이들이 종이상자 주변에 몰려들었다. 얼토당토는 무서운지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다. 그때 마침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무슨 일이야? 왜들 모여 있어?”

“선생님, 채원이가 토끼를 가져왔어요.”

반장인 도영이가 이야기했다.

“토끼? 채원아, 어떻게 된 거야?”

“그게요. 저희 아파트에 토끼장이 있었는데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키우면 안 될까 하고 가져온 거예요.”

“토끼를 교실에서?”

“네, 학급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안돼요? 실과 실습도 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까봐 채원이는 실습 이야기를 했다. 학급회의를 통해 교실에서 토끼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상자에서 키우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 내일 새로운 토끼집을 사오시기로 했다. 대신 토끼집 청소와 먹이는 나와 채원이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이 얼토당토를 좋아했다. 쉬는 시간이면 우리 반 창문에는 다른 반 아이들까지 모여들었다. 창문틀에 손을 올리고 교실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빨랫줄에 걸린 빨래들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토당토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서서히 시들해졌다. 쉬는 시간마다 모여들던 아이들도 저희들끼리 노는 데 더 집중했다. 아이들이야 어떻든 채원이만은 얼토당토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 금요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먹을 먹이까지 챙겨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난 금요일이었다. 채원이가 학교에 오지 못했다. 장염이라고 했다. 매일 둘이 같이 오던 등굣길에 혼자 오려니 이상했다. 학교 오는 길에 메시지가 왔다.

‘효림아, 얼토당토 밥 잘 챙겨 줘.’

아파서 밤새 설사하고 토했다면서도 얼토당토 걱정이다.

채원이의 얼토당토 사랑은 정말 못 말린다.

‘걱정 마. 이따가 학교 끝나고 문병 갈게.’

“오늘 너희 누나 못 온대. 많이 아픈가 봐.”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얼토당토에게 채원이 소식을 전했다. 얼토당토는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 넣어 준 당근을 갉아 먹고 있었다. 채원이의 관심이 온통 얼토당토에게 있어서 서운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살짝 얼토당토가 밉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 참 귀엽다. 게다가 오늘 하루는 내가 녀석들 보호자라고 생각하니 책임감도 생겼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얼토당토에게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이야기도 해주었다.

수업을 마치고 얼토당토에게 인사를 하고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채원이네 집으로 갔다. 채원이는 방에서 죽을 먹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볼살이 쏙 빠졌다.

“많이 아팠어?”

“어, 나 죽는 줄 알았어. 물만 먹어도 화장실에 갔다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은 좀 나아졌어. 그런데 얼토당토는 잘 있어?”

“그럼 당근이지. 너 없으니까 더 잘 놀더라.”

“애들 밥은?”

밥? 아, 맞다. 아침에 당근 갉아먹고 있던 얼토당토의 모습이 떠올랐다. 밥을 주고 오는 것을 깜빡했다.

“그… 그게. 어떡하지?”

“뭐야? 밥 안 준거야?”

나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채원이는 먹던 죽을 밀어놓고 옷을 입기 시작했다.

“어디 가려고?”

“학교 가야지. 애들 밥 안주면 죽을 거야.”

“지금? 다섯 시 넘어서 학교 문 잠겼을 텐데.”

내가 말릴 새도 없이 채원이는 방문을 열고 나섰다. 나도 뒤를 따랐다.

“채원아, 어디 가? 애, 안채원!”

채원이 엄마가 불렀지만 채원이 귀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았다.

“효림아, 너희 어디 가니? 응?”

“저... 학교예요. 잠깐 다녀올게요.”

“이 시간에 학교에는 왜?”

“그... 그냥요.”

나는 고개만 꾸벅 하고 나왔다. 채원이는 아픈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걸음이 빨랐다.

“채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를 했지만 채원이는 말이 없었다. 미안한 마음이 점점 서운함으로 변해갔다. 친구보다 그깟 토끼가 더 소중한단 말이야? 채원이와 멀찍이 떨어져 걸었다. 예상대로 학교 문은 잠겨 있었다. 채원이는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듯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며 두리번거렸다.

“문 잠겼나 봐.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밥 주면 안 될까?”

토요일에도 방과후학교가 있어 학교는 문을 연다. 그때 와서 주면 될 것 같아서 물었다.

“안 돼. 열토랑 당토가 죽을지도 몰라.”

“하루쯤 안 먹는다고…….”

“열렸다. 여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채원이가 1층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청소하다가 창문이 안 잠긴다는 것을 알았단다. 하지만 창문을 넘어가기에

는 높기도 했지만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면 경비업체에 알려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안될 텐데.”

“얼토랑 당토를 죽게 둘 순 없잖아.”

“지금 들어가면 경비업체에서 사람이 올 거야. 그러다 잡혀가면 어쩌려고?”

“밥만 주고 나오면 돼. 무서우면 나만 들어갈게. 네가 밑에서 좀 받쳐줄래?”

“응? 으... 응.”

나도 모르게 채원이 말을 순순히 따르고 있었다. 채원이는 아픈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내 등을 밟고 창문을 넘으려고 버둥거렸다. 하지만 아픈 몸으로, 운동신경도 부족한 채원이가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 내려 와.”

“응?”

“내가 들어갈게. 넌 몸도 안 좋잖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건물 한쪽 구석에 고장 난 자전거가 있었다. 벽에 기대어 놓으면 사다리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전거를 끌어 와 벽에 기대어 놓고 올라섰다. 창문에 올라 아래로 뛰어 내리려는데 생각보다 높았다. 게다가 사방이 캄캄해서 무서웠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학교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3층으로 뛰었다. 캄캄한 건물에서 어떻게 그렇게 뿔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불을 켜려다 그만 두었다. 지금 불을 켜면 “나 여기 있어요.”하고 알리는 꼴이었다. 당근을 한 움큼 집어 토끼장 안에 넣었다.

“맛있게 먹어라. 늦어서 미안.”

교실을 나왔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 뛰었다. 아까보다 주변이 잘 보였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창문 위에 올라섰다. 아래에 채원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채원아, 비켜.”

채원이가 재빨리 비켜서고 난 아래로 뛰어내렸다. 건물을 돌아 교문 옆 화단으로 갔다. 학교 건물에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주차장에는 경찰차처럼 생긴 자동차가 두 대나 와 있었다. 순간 겁이 났다.

“가자.”

이번에는 내가 채원이 손을 잡고 뛰었다. 교문을 빠져나와 한참이나 달렸다. 아파트 입구에 거의 다 와서야 멈추었다.

“헉... 헉, 얼토당토는?”

이 상황에서도 채원이는 토끼 걱정이다. 자기를 대신해서 교실까지 뛰어갔다 왔는데 말이다.

“응, 잘 있어. 당근도 잘 먹고.”

우리 둘은 땀범벅이 되어 각자 집으로 갔다. 엄마와 아빠에게는 축구 연습 하고 왔다고 둘러댔다.

평소에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던 시간이 느낌보 거북이처럼 흘러갔다. 거북이 걸음이었지만 월요일 아침은 왔다. 채원이와 나는 함께 학교에 가면서도 말이 없었다. 교실에 들어갔지만 얼토와 당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채원이는 얼토, 당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우리 둘을 부르셨다.

“안채원, 권효림. 나 좀 볼까?”

내 예상이 들어맞는 순간이다. 누군가 우리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본

모양이다.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로 갔다. 교무실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앉아 계셨다. 우리를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CCTV이었다. 우리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넘어간 그 창문이 있는 곳에 CCTV가 있었다. 어둡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것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오빠들이 자꾸 담배를 피우러 와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CCTV에는 우리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너희들 맞아?”

교감선생님이 물으셨다. 우리 둘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시간에 학교에 왜 들어왔니?”

“엘토랑 당토 밥 주려고요.”

“엘토랑 당토가 누군데?”

“아, 그게 저희 반에서 키우는 토끼들 이름입니다.”

우리 반 선생님이 대답했다.

“뭐요? 박 선생, 교실에서 토끼를 키운다고요?”

“저… 그게. 실과 실습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실에서 동물을 키웁니까?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다 합니까?”

우리 선생님은 교장, 교감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고, 우리는 반성문을 써야했다. 토끼를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쓰고서야 우리는 교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녀석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 시간에 몰래 학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엄한 얼굴로 우리 둘을 보고 계셨다.

“죄송합니다.”

우리 둘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교실에서 못 키우니 당분간은 선생님이 맡아서 데리고 있을게.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그렇게 얼토와 당토는 교실을 떠나 선생님 집으로 갔다. 아이들도 아쉬워했다. 물론 채원이가 가장 아쉬워했다. 어차피 곧 방학이라 학교에서 돌볼 수 없는데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선생님이 가끔 얼토, 당토를 학교에 데리고 오실 때도 있었지만 항상 같이 있을 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아쉽지만 학교에서는 키울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방학은 끝났다.

아침인데도 교실은 후텁지근하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기분이 좋다. 아이들과 모여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애들아, 방학 잘 보냈어?”

“네!”

“선생님, 얼토, 당토는요?”

채원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물었다.

“하하, 네가 궁금해 할 줄 알았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뭐부터 말해 줄까?”

“.....”

좋은 소식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쁜 소식이라는 말에 아이들 모두 당황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으니 나쁜 소식부터 전하마. 이제 얼토와 당토를 선생님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됐다.”

“네? 왜요?”

채원이다. 채원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채원, 네가 그렇게 놀랄 줄 알았다. 실은 방학동안 얼토와 당토가
엄마, 아빠가 되었던단다.”

“네? 와!”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서로 바라보며 웅성거리기도
했다.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식구가 너무 많으
니까.”

“그럼 얼토, 당토와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그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키우기로 했다.”

이제 무슨 소리지? 학교에서 못 키워 쫓겨난 건데 학교에서 키운다니
말이다.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사육장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다. 물론, 사육
장 관리는 우리 5학년 3반이 맡는다.”

아이들의 함성으로 교실이 떠나갈 듯 했다.

채원이와 나는 마주보고 손바닥을 마주쳤다. 이제 매일 얼토와 당토
그리고 아기 토끼들도 볼 수 있다.

“효림아, 내일 얼토, 당토 보러 갈래?”

학교 끝나고 교실 문을 나서며 채원이가 물었다.

“어디로? 선생님 댁에? 곧 있음 볼 텐데 뭐하러?”

“아기들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토요일이잖아.”

“나 토요일에 축구교실 가야 되잖아.”

“넌 축구 잘하니까 연습 그만 해도 괜찮아.”

“칫!”

같이 가고 싶으니까 별 칭찬을 다한다.

“토요일이 왜 토요일이겠니? 토끼 보라고 토요일이야.”

채원이의 얼토당토않은 말에 웃음이 났다. 며칠 뒤, 학교에는 정말 사육장이 생겼다. 얼토와 당토가 새끼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선생님 집에 갈 때는 아직 아기였는데 벌써 어른 티가 짙아졌다. 얼토, 당토처럼 채원이와 나도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상 소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이정희



세상을 떠다니며 훑날리던 미세먼지의 습격에 몸서리칠 무렵, 답답한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화라는 아이가 제 뱃속에 자리를 잡아 착상을 하여 팔다리를 만들고는 태어났습니다. 뒤이은 누런 먼지가 제 눈을 따갑도록 비빌 때 아이는 제 품을 떠났습니다. 엄마 품을 떠났던 그 아이는 송홧가루와 꽃가루가 회오리처럼 휘날리던 오늘, 옷에 노란 가루를 잔뜩 묻혀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방랑하는 온갖 티끌에도 쑥쑥 자라는 돌쟁이 아이처럼 더 이상 눈을 비비지 않아도,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파보는 내 친구

꼬끼오!

건전지 없이도 충실한 알람 시계 역할을 하는 아침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6시 15분이었다. 아빠는 벌써 나가고 없었다. 활기차게 ‘꼬끼오!’하던 닭 울음소리가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도둑처럼 갑자기 무언가에 쫓기는 듯 ‘꼬꼬 꼬꼬’하며 푸드득 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높고 큰 목청으로 보아 잠에서 깬 장닭 장군이 기상나팔을 불고는 제 몸보다 절반이나 작은 여자 닭들을 그 날카로운 부리로 괴롭히고 있는 중인 거 같았다. 나쁜 장군이 같으니라고! 암탉을 괴롭히는 장면이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싸리 빗자루로 혼을 내줄 테다.

아 참! 이렇게 한가하게 닭 울음소리를 감상할 때가 아니었다.

이불을 곱게 접어 방 한구석에 밀어두고 어제저녁에 아빠가 끓여 놓은 소고기 미역국에 따뜻한 밥을 반 공기 말아서 조심조심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밥을 헛디더 맛있는 미역국을 쏟기라도 할까 봐 식은땀이 다 났다.

현관문을 열어 엄마 귀에 달린 귀고리처럼 찰랑찰랑 앞사귀를 흔들며 서 있는 귀목나무 아래 미니를 향해 “안녕! 잘 잤어?”라며 인사를 하고는 미니의 상태를 살폈다. 미니의 배는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여전히 부풀어 있었다. 미니의 밥그릇에 미역국을 부어주었다.

요새 미니가 통 밥을 먹지 않아서 걱정이다.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밥

을 잘 안 먹는다는데 얼른 미니가 새끼를 낳아서 터질까 봐 위태위태한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고 밥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미니야, 언니 밭에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미역국이랑 밥 맛있게 먹고 있어. 알았지?”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버린 잔뜩 뿔난 고슴도치 모양을 한 여주가 가시 같은 털을 바짝 세워 교도소 녀쿨 담을 넘으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죄수들이 탈출하기 전에 웅기종기 매달려있는 여주의 꼭지를 가위로 잘라 바구니에 넣고는 빨강고 파란 옷을 입은 매끈한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고추밭으로 달려갔다.

“올해 고추농사는 망쳤다, 우리 먹을 거나 나오겠나 이거.”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아빠 곁으로 다가가 가까워서 보니 조롱조롱 달려있던 고추가 병에 걸린 듯 갈색으로 변해 시들시들 말라 가고 있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탄저병이라는 불치병에 올해는 더 많이 걸린 것 같았다. 불치병에 걸린 고추도 안됐지만 봄부터 고생한 아빠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고 속상할까 싶어 걱정이 되었다.

고추를 쳐다보며 울상을 짓고 있는데 키 큰 고춧대 사이에서 티니가 서에 붙처럼 생긴 봉긋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다. 별 모양의 갈색 털이 나있는 이마를 한 번 쓰다듬어 주었더니 티니는 앞다리를 쪽 뻗어 기지개를 켜고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새벽부터 밭을 어정어정 돌아다니면서 털에 묻힌 이슬을 나한테 다 털고는 뒷다리를 들어 배를 득득 굴어댔다.

배가 산만한 미니는 밥도 못 먹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남편이 되가지고서는 혼자서 밭에 놀러나 다니고, 쫓쫓, 갑자기 그런 티니가 얄미워졌다.

키 큰 고춧대를 손보느라 엉덩이만 치켜들고 일을 하던 아빠가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모기 물릴라 펄쩍 들어가라 얼른.” 하시며 손을 휘이휘이 내저었다.

다시 마당으로 돌아와서 평상 위에 파란색 천막을 짜악 펼치고 그 위에 며칠째 강렬한 햇볕에 새우등처럼 허리가 휘어 쪼그라든 토란을 자르르 부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출렁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는 천막 귀퉁이에 커다란 돌을 하나 더 올려놓고는 고구마 밭을 다 헤집어 놓는 두더지가 오늘은 잡혔나 보러 가려는데 미니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절부절못하며 개 집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미니는 새로 깔아 준 깨끗한 천을 발로 들어서 한쪽으로 치우고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뱅뱅 돌더니 또다시 킁킁대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 미니가 새끼를 낳으려나 봐!”

아빠가 고추밭에서 헐레벌떡 달려왔고 새끼를 낳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어미가 예민해져서 제 새끼를 위협하게 할 수도 있다며 아빠는 나에게 잠시 미니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

‘미니가 새끼 낳는 거 보고 싶은데…….’

조심조심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집 앞을 지키는 고양이 때문에 쥐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생쥐처럼 베란다 틈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미니를 내려다봤다. 고통으로 계속 킁킁대는 미니가 안쓰러웠다. 미니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은 아빠는 탄저병 때문에 검게 변한 고추를 종이 인형 오려내듯이 가위질을 하면서 신경 안 쓰는 척 힐끔힐끔 미니를 쳐다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새파란 하늘에는 솜털이 비눗방울처럼 몽글몽글

뭉쳐있는 통실통실한 양떼가 미풍을 따라 하늘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다.

그날 오후, 꺽꺽대던 미니는 쌍둥이의 엄마가 되었다. 첫 출산인데도 스스로 탯줄을 자르고 새끼들 몸에 붙은 태도 훑아주고 제법 잘 하더라며 아빠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도 아빠가 저렇게 칭찬하고 기뻐했겠지? 미니가 대견하고 기뻐했다. 쌍둥이가 정말 보고 싶었지만 미니가 물 수도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밥을 줄 때 처음 보았다.

쌍둥이의 털색은 얼룩덜룩했다. 검은색 미니핀과 갈색의 시츨가 결혼해 혼혈아가 태어났다.

‘너도 나처럼 잡종이구나…….’

쌍둥이의 눈은 감겨있고 귀도 접혀 있는데 귀신같이 엄마 젖을 찾아 쪽 쪽 빨아댔다. 그 모습이 정말 귀엽고 웃겼다.

눈을 뜨고 접혀있던 귀가 펴진 쌍둥이는 갓 나기 시작한 이가 가려운지 아빠가 마당에 벗어놓은 장화를 물어뜯고 제 엄마 몸을 이리저리 넘어 다니는 장난꾸러기가 되었다. 장난을 치다가 배가 고프면 엄마 품에 안겨 찌찌를 쪽쪽 빨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고 미니는 그런 새끼들의 얼굴이며 등을 사랑스럽게 훑아 주었다.

쌍둥이처럼 나도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싶었다. 그런 엄마는 이제 우리 집에 없었다. 쌍둥이는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살이 올랐고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날도 고깃국에 찬밥을 말아 미니와 티니에게 가져갔는데 미니가 첫째하고만 다정스럽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옆

에 누워 있는 동생은 숨을 쉬지 않았다. 몸이 차가웠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잘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민들레 흙씨처럼 푹푹 흩날렸다. 며칠이 지나자 쌍둥이 중 나머지 한 마리도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엄마 젖도 먹지 않고 축 처져 누워만 있었다. 제 동생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버릴 것만 같아 가슴이 너무 쓰라렸다.

그날 오후, 아빠가 시내에 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조그만 상자에 강아지를 넣고 뒷좌석에 탔다.

“어디 가려고? 강아지는 왜 데리고 타?”

“동물병원에 좀 가보려고…….”

“똥개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눈을 흘기며 아빠를 쬔려했다. 아빠가 차에서 내리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수의사 선생님은 강아지가 파보 장염에 걸렸다고 했다. 치료를 안 하면 살 가능성이 5퍼센트도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선택로 눈물을 펄펄 흘리며 엉엉 울었다. 치료를 하면 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아빠가 병원비를 물었다.

“파보 장염의 경우 며칠 입원을 해야 해서 병원비가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입원요? 저런 똥개를 입원까지……, 주사나 한 대 맞출까 해서 왔더니만…….”

곤란해하는 아빠에게 황급히 내가 말을 했다.

“아빠, 종묘상 문 닫겠다.”

“아차차, 내 정신 좀 보라. 얼른 다녀 오마. 동물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선생님, 강아지 주사나 한 대 놔주소. 입원까진 못하고요.”

아빠가 나가고 의사 선생님께 강아지를 입원시켜 달라고 졸랐다. 대신 병원비는 아빠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아빠에게 비밀로 할 순 없다, 애야.”

“걱정 마세요, 선생님, 병원비 낼 돈 있어요. 제발 치료해 주세요.”

베트남에서 열다섯 살이나 많은 아빠에게 시집온 엄마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능숙하게 잘하고 농사일도 척척해낼 무렵, 아빠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논을 사고 트랙터를 사는 데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다. 내가 본 트랙터 영수증에는 숫자 0이 8개나 붙어있었다. 내가 만져본 돈이라고는 숫자 0이 세 개만 있는 천원 아니면 오천 원밖에 없어서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가지고 온다던 트랙터는 계속 오지 않았다.

벼는 익을 대로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빠 친구는 돈만 들고 도망을 간지 이미 오래였다. 그때부터 아빠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엔 혼자 조용히 술만 마시더니 어느 날부터 햇볕에 얼굴 그을려가며 열심히 일만 한 엄마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 곁을 지켜 주었던 엄마는 아빠가 손찌검을 시작하자 집을 나가버렸다. 엄마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것이다. 차라리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가버려서 다행이었다.

돈을 벌어서 꼭 데리러 오겠다는 말과 함께 엄마는 집을 나가면서 아빠

몰래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을 주고 가셨다. 아빠한테 들키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라며 꼭꼭 숨겨놓으라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정말 필요한 날이 될 줄이야.

“강아지를 생각하는 네 마음은 알겠지만 어른들 허락 없이 내 맘대로 치료를 시작하기는 좀 곤란하구나…….”

“선생님,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나와 같은 혼혈 강아지를 살리고 싶었다. 백만 원이나 하는 비싼 강아지처럼 똑같이 짖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애교 부리고 똑같이 똥 누는 데 잡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나 당하고 똥개 취급이나 받는 그 강아지를 꼭 살리고 싶었다.

동물병원밖에 있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몇 달 만에 눌러본 엄마 휴대폰 번호여서 가슴이 떨렸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나한테만 알려준 번호였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 처음이라 혹시 안 받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달각’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내 목소리를 들은 엄마는 정말 반가워했다. 나도 그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떨 듯이 기뻐다.

통화를 끝내고 동물병원으로 다시 들어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다. 통화를 끝낸 선생님께서 웃으며 다가오시더니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치료를 시작해보자고 하셨다.

“강아지 이름하고 종류가 뭐지?”

차트를 작성하던 선생님이 물으셨다.

“미니핀과 시츄가 섞인 잡종이고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음, 믹스견이구나. 이름이 아직 없다고? 음, 그러면 이 이름은 어떨까? 파보바이러스를 이겨낸 강아지란 뜻으로 파보 어때?”

‘파보? 뭔가 독특하면서도 멋진 이름 같았다.’

상자 없이 빈손으로 차에 올라탄 나를 보고 아빠는 강아지는 어쨌냐고 물었다.

“3일만 입원시키기로 했어. 3일만 입원하면 병원비 얼마 안 한데.”

아빠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아빠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다.

다음 날 이메일을 열어 의사사 선생님이 보내 준 파보의 사진을 보았다. 철창으로 둘러싸인 입원실에서 발에 링거를 매단 채 앉아있는 파보의 아픈 얼굴이 컴퓨터 화면에 가득 찼다. 그런 파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얼른 낫기를 바랐다.

3일 만에 만난 파보는 몸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털은 말라비틀어져 제멋대로 뒤죽박죽 엉켜있고 눈 밑엔 눈물자국이 뒤편까지 지저분했지만, 파보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마당에서 자라던 파보를 내 방에 데려와 작은 상자에 넣어 시간 맞춰 약을 먹이고 발에 연결된 링거를 수시로 확인했다. 밤에 자다가 날카로운 비명을 수시로 지르는 파보를 정성껏 보살폈다. 방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여전히 많이 아픈지 파보는 계속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내질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코밀이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의사선생님께서 강아지 코밀이 축축해지면 건강이 회복된 거라고 했

다. 파보가 이제 건강해지려는 것 같아 기뻐다.

그다음 날 파보가 상자 밖으로 나와 내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밟고 올라가서는 먹구름보다 더 진한 회색 물똥을 시원하게 이 세상으로 내뿜었고 그 시원함은 내 이불까지 튀었다.

‘어, 내 동화책!’

동화책은 다시 볼 수 없어졌지만 그래도 파보가 밟지 않았다. 건강해진 신호로 똥을 눈 거라 생각하니 설사 똥도 예쁘게 보였다. 기뻐다.

파보를 제 어머니가 있는 마당으로 보내 주었다. 미니는 며칠 동안 못 본 제 새끼를 보고 몸에서 약 냄새가 나서 이상했는지 처음엔 경계하는 듯하다가 제 새끼 냄새를 맡았는지 폴짝폴짝 뛰면서 장난을 쳤다. 제 새끼가 안 보여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고 걱정했을까. 도시에 나가 돈을 벌고 있는 엄마도 나를 못 봐서 밤마다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내 가슴속에 파보의 물똥보다 더 진한 색의 먹구름이 텐트를 쳤다.

여름은 너무 더웠다.

일 년 내내 더운 나라에서 온 엄마가 낳은 아이인데도 나는 더위를 잘 참지 못했다. 그럴 때면 내 눈물방울 보다 큰 물방울을 우산으로 받쳐 든 토란 밭으로 갔다. 토란 밭 한가운데에는 조그만 평상이 있다. 그 위에 모기장을 설치해 오늘같이 무더운 날 안에 들어가 누워있으면 정말 시원했다.

가끔은 파보를 배 위에 올려놓고 같이 잠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 애교 많고 샘 많은 미니가 와서 자기도 배 위에 같이 올려달라고 앞발을 들고 토끼처럼 짹짹 뛰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도 토란 모기장 아래 기어들어가 훌쩍거리곤 했다. 베트남은 토란이 무척 싼데 한국은 비싼 편이어서, 잘 키워서 엄마 허벅지만 해진 토란을 시장에 내다 팔면 제법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엄마는 이 토란 밭을 참 좋아했다.

토란을 볼 때마다 고향이 생각난다는 엄마를 위해 아빠가 이 아지트를 만들어 줄 땐 엄마와 아빠도 자주 웃고 행복했었는데……. 엄마가 어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아지트에 짬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름방학이 아쉽게도 저물어 가고 있었다.

방학이 끝나는 게 아쉽진 않았지만 방학이 끝나기 전에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서 슬펐다. 그리고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라희파이한’이라고 놀리는 말을 또 듣는 게 싫었다. 원래는 라이파이한인데 내 이름인 라희를 붙여 그렇게들 놀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호호 불어 입안에 넣고 아삭한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한입 베어 무는데 아빠가 물었다.

“라희야, 방학 끝나기 전에 아빠랑 잠깐 어디 구경이라도 다녀올까?”

“어디? 여름이라 아빠 한창 바쁘잖아.”

“어디든, 라희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이웃집에 며칠 부탁하고 가면 돼.”

“…… 그럼 나 베트남.”

“어?”

“나 베트남 가고 싶어.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아빠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가 아빠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자기를 때린 남편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도 나 때린 친구는 꼴도 보기 싫은데.”

“.....”

“아빠.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하지 왜 죄 없는 엄마를 괴롭혀.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아빠 같은 늙다리 아저씨한테 돌아오겠어. 나 같아도 안 오겠단!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싹싹 빌어.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다시는 엄마 때리지 마! 또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해 버릴 거야.”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나. 아빠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저번에 파보 입원할 때 네 엄마가 전화했었어. 파보 입원시킬 거니까 너한테 암말 하지 말라고. 그때 온 전화번호로 전화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 네 엄마 이 아빠가 이젠 정말 싫은가 보다.”

엄마가 집을 나가게 만든 장본인이 아빠라서 그동안 아빠가 너무 미웠다. 그런데 저렇게 고구마 밭에 몰래 숨겨놓은 쥐뿔에 걸린 두더지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이야기하는 아빠를 보니 고소하기도 했지만 아주 조금은 불쌍하기도 했다. ‘있을 때 잘하지 어이구.’

“아빠! 우리 엄마 찾아서 베트남 가자!”

“뭐?”

“나 엄마 주소 알아. 그리고 휴대전화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물에 빠뜨렸는데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전화비도 아낄 겸 아예 없애버렸데. 그리고 이거.”

〈아빠의 약속〉

첫째. 나 서정도는 성실하고 충실한 가장이 될 것이며 다시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둘째.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라희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며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판사님께 이야기할 것이다.

셋째. 이 년에 한 번은 방학 때 베트남에 꼭 간다.

서 정 도 (서명)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못 미더운 불량 아빠를 위해 내가 준비한 사랑의 증서랄까. 여기에 지장 안 찍으면 엄마 찾으러 안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전날 밤부터 챙긴 짐가방을 아빠 차로 옮기기 시작했다. 아빠의 커다란 엄지손가락 지장이 꼭 찍힌 사랑의 증서와 엄마가 집 나갈 때 주고 간 통장을 가방 제일 밑에 소중하게 넣었다.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남겨 준 통장이 또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엔 베트남 가는 비행기 표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미운 아버지지만 엄마가 그동안 마음이 많이 풀려 아빠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파보야, 언니 집에 올 땐 엄마랑 같이 올게. 그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옆집 할머니가 주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어. 알았지?”

얼룩무늬 혼혈 잡종인 파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차 시동을 건 아빠가 물었다.

“근데 라희야 그때 파보 치료비 얼마나 들었니? 아빠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

“진찰비하고 입원비 등등 다 합해서 70만 원 정도 들었어.”

“뭐? 70만 원! 그 돈이면 파보 같은 개 수십 마리는 샀겠다!”

“파보 같은 개? 잡종? 나 같은 혼혈? ‘개 위에 개 없고 개 아래 개 없다.’라는 말도 몰라 아빤?”

“어? 하하, 아빠가 무식해서 몰랐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를 따라 나도 웃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차는 엄마를 향해 달려갔다.



수상 소감

통영두룡초등학교

강우성



우연히 공무원문예대전 공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낸 글이 뽑혔다니 놀랍고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글감들을 찾아 동화로 풀어낸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소재로 쓴 글인데 단편동화의 분량 안에 모든 걸 넣으려고 하니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심사위원들께서 좋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곁에서 행복한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온 망구아저씨

이 학교에 전학 온 지 일주일이지났다.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애들도 금방 친해졌다. 전에 다녔던 학교와 별달리 차이도 나지 않는다. 늘 배우던 교과서에 선생님, 친구들도 고만 고만했다. 다만 이상한 것은 망구아저씨였다. 왜 망구아저씨 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이들이 다 그렇게 불렀다.

아침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허름한 남색 잠바에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이상한 아저씨가 서 있는 것이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횡단보도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서 있었다. 아이들은 별 거리낌 없이 다녔지만 전학 온 나에게는 늘 똑같은 옷만 입고 서 있는 아저씨가 유독 눈에 띄었다. 흰 운동화는 검은 운동화라고 해도 될 만큼 때가 젖어서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겠다. 서로 엉켜 떡진 머리는 교통도우미 아저씨의 깃발마냥 하늘로 치솟아 있었다. 축지 않은 날씨에도 남색 점퍼차림으로 횡단보도에 서서 히죽히죽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 아무리 보아도 이상하다. 파란불이 되어도 건너지 않고 신호등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가끔씩 우리들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이내 돌아서서 다음 파란불을 기다리며 서 있다. 가끔씩 파란불일 때 큰 트럭이 지나갈 때면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며 팔을 내젓는다. 그런 아저씨를 보고 말리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횡단보도에 늘 서 있는

가로수마냥 이 아저씨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고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저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아?”

“몰라. 그냥 저렇게 한지 오래 되었어.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는데 따로 해코지도 않고 어른들도 그냥 놔두는 눈치라 지금은 아무 신경도 안 써. 나한테만 안 오면 되지 뭐.”

같은 반 친구에게 물어봐도 무신경이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가 생겼다.

쉬는 시간, 준수가 나무 뒤에 살며시 숨는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이리마냥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눈망울로 한쪽을 바라본다. 수업시간에 늘 하품만 하던 준수가 이렇게 생기 있는 얼굴은 처음이다. 한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준수가 순식간에 바위를 뛰어넘으며 달려간다.

“망구.”

“나도 망구.”

같이 있던 승민이도 아저씨 팔을 친다. 꼭 달리기 시합에서 1등한 것 같다.

“너, 내 내가 잡는다?”

“나도 망구, 잡아 보시롱. 헤헤”

“잡으면 용치. 잡아 보시롱? 잡아 보시롱.”

다른 녀석들도 하나 둘 망구아저씨의 등과 팔, 옷을 치며 혀를 빼죽 내민다. 망구아저씨는 허공을 연신 감싸며 잡는 시늉을 하지만 배시시 웃는 모습이 싫진 않은 표정이다.

“야, 무슨 짓이다. 어른한테.”

“헤헤. 너도 해 봐 망구놀이 아주 재미있다고.”

언제부터가 아이들 사이에서는 망구놀이가 유행이 되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우리반 개구쟁이 녀석들은 너도나도 교문 밖에 있는 망구아저씨를 찾아다니면서 망구놀이라는 것을 한다. 망구아저씨 몰래 가서 아저씨의 몸이나 옷을 만지고 망구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이 놀이는 내가 하기는 겁이 나도 보기에는 꽤 재미있다. 더구나 늘 한 박자씩 늦게 아이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모습이 마치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웃기고 웃기다. 아직 선생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더 스릴 있는 것 같다.

“근데 왜 망구놀이야? 아저씨 이름이 망구인가?”

“너 몰라? 체육시간에 배운 전통놀이 ‘다방구’ 있잖아. 그거야 그거.”

“그래, 다방구. 아저씨 이름은 아무도 몰라. 그냥 애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다방구? 그게 뭔데?”

“다방구 몰라? 전에 학교에서 안 배웠어? 다방구는 팀으로 공격과 수비를 정해서 전봇대나 벽을 치는 놀이야. 그것처럼 망구아저씨를 치면서 도망가는 놀이가 바로 망구놀이야.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더 재미있다. 따로 술래가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애들끼리 다방구 하자고 하다가 다방구, 다방구, 다망구, 망구, 망구. 그렇게 된 거야.”

“아저씨 놀리려고 하던 놀이인데. 다방구와 비슷해서 그냥 망구놀이 라구.”

“그래서 아저씨 이름이 망구야. 망구. 헤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여지없이 당하기만 하는 아저씨가 안쓰러웠지만, 당하면서도 히히거리며 웃는 모습이 그래

도 싫지 않은 것 같다.

망구아저씨가 언제부터 우리학교 주위를 돌아다녔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망구아저씨는 우리가 학교 오는 아침부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우리가 집에 갈 때쯤 사라진다. 처음에는 누구 아빤 줄 알았는데 어느 누구도 망구아저씨와 함께 가는 걸 보지 못했다. 1, 2학년 아이들은 아저씨 앞을 그냥 지나쳤지만 3, 4학년 정도만 되면 주변엘 얼씬거리지도 않고 피해 다닌다. 망구아저씨만 나타나면 우리같이 용감한 5, 6학년들은 아저씨의 눈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아저씨 등을 치고 도망가는 것이다.

수업을 하다가 가끔씩 창밖을 보면 아저씨가 가끔씩 운동장을 어슬렁거린다. 그냥 운동장을 거닐기도 하고 쓰레기를 줍거나 나무그늘에 앉아 체육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하릴없이 바라보면서 씩줄썰죽 웃는다. 그런 아저씨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이시은, 어딜 보는 거야? 수업시간에 딴 짓 할래?”

선생님께 가끔씩 지적을 받지만 선생님 몰래 아저씨를 보는 것이 어느덧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저씨의 모습이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였다. 과연 아저씨는 어떤 사람일까? 왜 일도 안 나가고 아침부터 횡단보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가끔씩 운동장을 돌고, 학교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우리들이 집에 가는 시간에 맞춰 가는 걸까? 순간 망구아저씨가 궁금해 졌다.

“엄마, 망구아저씨라고 알아?”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밥을 먹다가 던지시 물어봤다.

“망구아저씨? 그게 누구야? 옆집 아저씨 이름인가? 이름도 참 이상

하다.”

엄마는 처음 듣는다는 듯 연신 김치찌개에 숟가락을 넣는다.

“그게 아니라. 아, 왜 있잖아. 우리 학교에 어슬렁거리는 남색 잠바 입은 아저씨 말야.”

“아, 그 정신 나간 아저씨? 그 아저씨 이름이 망구야? 이름도 참 이상하다. 왜? 너한테 해코지 하니?”

엄마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별 관심 없이 반찬을 집는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정신이 이상한거야? 왜?”

“몰라, 엄마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지만 아줌마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런데 그 아저씨가 참 불쌍하더라. 너도 잘해줘.”

“왜? 뭐가 불쌍해?”

“아줌마들한테 들으니까 그 아저씨가 원래는 멀쩡한 사람이었대. 직장도 잘 다니고, 딸도 있고, 부인도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아니 애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자꾸만 신경 쓰여서. 애들도 아저씨한테 막 놀리고 하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저씨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다네. 그것도 너희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침에 딸 태우고 가다가 신호위반하고 갑자기 들어오는 트럭에 부딪혔는데 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아저씨는 며칠 사경을 헤매다가 머리를 다쳐서 그만 저렇게 되었다지 뭐야. 그 애가 4학년 때 그랬다니까 지금 너만 하겠다.”

“정말, 어떡해.”

“그러게 말야. 더구나 병원에서 퇴원하고 정신이 저러니 다니던 회사

에서도 쫓겨나고 같이 살던 부인도 도망가고 애는 죽고 해서 지금은 혼자 산다나봐.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활비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지, 아마. 직장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깐 딸이 다니던 학교를 어슬렁거리는 거라고. 워낙 딸을 애지중지 했던 딸바보였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애들한테 해코지 할 까봐 학교나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은 안 보이고 또 사정도 안타깝고 해서 그냥 하릴없이 놔두는 모양이더라고.”

이제야 망구아저씨가 왜 아침에 나와서 횡단보도를 지키고 있는지,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지나가는 트럭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들이 장난을 쳐도 웃으며 바라보던 눈망울도 이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철없는 남자아이들처럼 아저씨 놀리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근데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아끼던 딸까지 잃고 부인도 떠나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밥이나 드세요. 아가씨? 특히 찾길 조심하고.”

그날 저녁을 먹는 동안 망구아저씨 생각에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모르겠다. 그저 횡단보도에서 손 흔들며 웃던 망구아저씨 모습만 아른거렸다.

다음날 아침에도 망구아저씨는 여전히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 전에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더니 오늘은 괜스레 측은해 보이고 싫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뭐라고 말을 걸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다 교문을 들어섰다. 뒤돌아보니 아저씨는 여전히 횡단보도에 서서 교통지킴이 아저씨들과 등교하는 아이들에 섞여 웃고 있었다. 언제 감았는지 모를 머리는 한데 뭉쳐 하늘로 치솟아 있었다. 유독 망구아저씨의 녹색 잠바가 깜박이는 파란불과 함께 눈에 띄었다.

준수와 승민이는 오늘도 쉬지 않고 망구놀이를 한다.

이 녀석들은 수업시간에 쉬고 쉬는 시간에 움직이는 휴식형 인간이다. 쉬는 시간에는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다지 친하지 않아 뭐라고 말도 못하겠다. 하루 내내 망구아저씨 생각에 정신이 없다.

‘부인도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을까? 잠은 잘 잘까? 씻기는 씻는 건가?’

멍하니 있다 보니 수업시간에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것도 몇 번이나 된다. 그러다가 체육시간에 그만 땀틀을 뛰어넘다 다리를 접질려 넘어졌다. 너무 아파 눈물이 찝끔 났다. 정신을 딴 데 두더니 결국 사고가 난 것이다.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 괜찮은지 물어봤다. 쪽팔려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선생님이 오시더니 보건실로 가 보라고 하셨다. 애들이 부축해 준다고 했지만 부끄러워 그냥 혼자서 절뚝거리며 보건실로 갔다. 보건실은 학교 뒤쪽에 있어 앞 건물을 돌아서 가야한다. 마침 모퉁이를 도는데 망구아저씨가 보여 순간 멈춰 섰다. 망구아저씨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쪼그리고 앉아 화단을 보며 웃고 있었다. 화단에는 개망초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망구아저씨는 개망초꽃 위에 앉아있는 하얀 나비를 보고 있었다. 나비는 망구아저씨를 봤는지 못 봤는지 날개를 접었다 펴며 열심히 노란 꽃가루를 묻히고 있었다. 꼭 나비와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한동안 망구아저씨를 보며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망구아저씨도 나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돌리며 일어섰다. 하얀나비는 나풀나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너 다쳤구나. 다쳤어. 어떡하지? 그래 병원가자 병원.”

망구아저씨는 어느새 내 옆에 와 있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리를 접질렸어요. 보건실 가면 돼요.”

깜짝 놀랐다. 망구아저씨와의 첫 대화였다. 긴장해서인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이 나왔다. 헛기침을 조금 하고는 눈길을 어디에다 뒤편할지 헛갈렸다.

“그래 보건실, 보건실 가자. 어서 가자.”

망구아저씨는 나를 부축해 주려고 팔을 잡았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어제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오늘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망구아저씨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다지 냄새도 나지 않았다. 순순히 아저씨에게 팔을 맡기고 보건실로 발길을 돌렸다.

“너 많이 아프구나. 괜찮아? 내가 업어줄까? 안아 줄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늘 조심해야 돼. 다쳐. 다치면 아파. 아프면 슬퍼. 어떡하지 어떡하지?”

망구아저씨는 옆에서 연신 안절부절못했다. 그런 아저씨를 옆에서 쳐다보니 우습기도 하고 아픈 것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웃는 나를 보며 같이 따라 웃었다. 아저씨의 웃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잘 생겨 보였다.

“웃는다. 웃는다. 다 나았다. 웃으니까 좋다. 다치면 안된다.”

“근데 아저씨는 아까 화단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응? 아아. 아까 꽃밭? 거기서 나비 봤다. 하얀 나비. 작고 앙징맞은 하얀 꽃이 눈 사탕처럼 뿌려져 있는데 하얀 나비가 와서 앉았다. 그래서 힘든 거 같아 말 걸었다. 쉬어가라고 아프지 말라고. 나비도 쉬어간다고 했다. 고맙다고 나한테 말했다. 아프면 안된다.”

망구아저씨는 정말 나비와 이야기 나누었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내 얼굴 한번 다친 다리 한번을 번갈아 보며 나와 발걸음을 맞추어 주었다. 조금 불안한 표정이었다. 연신 입에서는 ‘어떡하지? 어떡하지?’를 중얼거렸지만 내 팔을 부축하는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보건실에 가까이 와서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수업시간이라 아무도 없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놀릴 것도 같고 또 망구아저씨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저씨. 이제 혼자 갈게요. 고마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 하는데. 그래야 고쳐주는데.”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정 아프면 나중에 병원에 갈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혼자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나는 아저씨를 남겨둔 채 절뚝거리며 보건실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아저씨가 나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제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또 조금가다 뒤돌아보니 아직도 아저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계속 제자리걸음이었다.

“참. 아저씨. 제 이름은 지수예요. 손지수.”

“손지수? 참 이쁜 이름이네. 우리 딸 만큼 이쁜 이름이네. 손지수.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슬퍼.”

망구아저씨와의 우연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쨌든 속은 후련하였다. 아니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망구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비밀도 생겼다. 보건실에서 망구아저씨와의 일을 떠올리니 웃음이 나왔

다. 보건 선생님은 부어있는 발목에 파스와 얼음찜질을 해 주시면서 그런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셨다.

“아니 애가. 아플 텐데. 많이 부었어. 안 아파? 왜 실실 웃고 그래?”

“아니예요. 아파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웃어?”

“그냥요. 아까보다 안 아파서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붓기가 안 빠지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 봐. 혹시 인대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건 선생님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의심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봤다. 망구아저씨와 이야기 나눈 사실은 꿈에도 모를 거다. 이 일은 모두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다. 엄마한테도, 짝지인 소연이한테도 비밀이다. 내 나이 쯤 되면 이제 비밀이 생길 때다. 밖에 나오니 종이 쳤다. 망구아저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눈 걸 떠올리며 교실로 바로 들어갔다. 친구들이 괜챦냐고 물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발목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괜챦았다. 컵속에서 망구아저씨의 ‘아프지 마, 아프지 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문에 망구아저씨가 서 있었다. 망구아저씨 주위에는 준수와 승민이가 망구놀이를 하고 있었다. 다른 반 아이들도 몇몇 둘러서서 망구놀이 할 틈을 엿보았다. 저 녀석들도 아저씨의 속사정을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내일이라도 망구아저씨 이야기를 해 줘야겠다. 망구아저씨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의 망구놀이에 연신 허공에 팔을 휘두르며 웃고 있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은 한번 휙 돌아볼 뿐 바빠 학원 차에 옮겨 타거나 문방구로 들어갔다. 준수와 승민이도 이내 시간이 되었는지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다. 망구아저씨는 무

얼 찾는지 이리저리 까치발을 하고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절뚝거리며 교문 앞을 지나는데 망구아저씨가 나를 보고 이내 아는 척을 하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모른 척 하며 집으로 향했다. 아저씨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뒤따라 걸어왔다. 아이들이 힐끔힐끔 보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데 창피했다. 방금까지 들었던 생각은 모두 하늘위로 날아가 버렸다. 빨리 걷고 싶는데 발목이 아파 그러지 못했다. 마음은 뛰어가고 싶는데 절뚝거리기만 할 뿐 생각만큼 빨리 가지는 못했다. 망구아저씨는 연신 내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을 헤치고 뒤따라 왔다. 마침 횡단보도에 와서 망구아저씨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

“지수야. 지수야.”

“왜요? 왜 자꾸 따라와요?”

나는 양갈지게 아저씨를 쏘아보았다. 함께 서 있던 아이들이 나와 망구아저씨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그제. 괜찮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업어줄까? 병원 안가?”

망구아저씨는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괜찮아요. 신경 쓰세요.”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양갈지게 말했다.

“나 나는, 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아프지 마.”

망구아저씨는 내가 걱정되어 학교마칠 때까지 학교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아이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아저씨도 아저씨 집에 가세요. 네?”

“그 그래도. 병원 안가도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프면 슬퍼. 그러면

안돼. 내가 집에 같이 가 주께. 책가방 줘. 아프면 슬퍼.”

“괜찮다니까요! 그냥 가세요. 제발.”

책가방을 들어주려던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고 신호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파란불로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는 옆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를 중얼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아이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자기들끼리 웅성거렸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신호등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지수야. 괜찮아? 아프면 안 돼.”

“괜찮다니까 정말. 가세요!”

마침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나는 서둘러 아픈 발을 질질 끌며 뛰었다. 곧장 앞만 바라보고 아저씨가 제발 쫓아오지 않기를 빌었다. 집까지 가야 할 길이 먼데 아저씨가 쫓아오면 보는 눈도 많고 걱정이 되었다. 아까 화단에서 말을 건넌 게 후회가 되었다. 괜히 다리는 다쳐가지고……. 발목이 시큰거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달려오는 하얀색 승용차가 보였다.

“끼이익!”

그때 ‘탁’ 하면서 뭔가가 나를 밀쳐냈다. 순간 나는 공중으로 ‘뿜’ 뿔었다. 아니 하늘을 날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느낌도 없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으, 여기는 어디지? …….”

“지수야, 정신이 드니? 응? 지수야!”

반 친구인 채빈이가 나를 흔들며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얼굴을 찌

푸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흰색 차가 급히 서 있었고 그 앞에 망구아저씨가 쓰러져 있었다. 운전자가 급히 나와 하얀 얼굴이 되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다. 망구아저씨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신호등 앞 가게에 있던 아저씨가 급히 응급차를 불렀다. 망구아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이다. 나를 밀쳐내고 대신 차와 부딪힌 것이다.

“아, 아저씨. 괜찮아요?”

아픈 발목도 피가 난 무릎도 상관없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나왔다. 내가 급하게 뛰어가다 차를 못 본 바람에 아저씨가 대신 다친 것이다. 쓰러져 있던 아저씨가 나를 보며 싱긋이 웃었다.

“괜찮아? 아프지 마. 아프면 슬퍼. 울지도 마. 우, 울면 슬퍼.”

아저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서 자꾸만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내가 모른 척 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나 때문이었다.

“빠용 빠용 빠용…….”

망구아저씨는 급하게 응급차에 실려 갔다. 혹시 다쳤을지 모른다면 나도 같이 응급차에 탔다. 망구아저씨는 누워서 눈을 감은 채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마다 찡그린 얼굴을 타고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응급구조대원 아저씨들이 응급처치를 하였다.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혹시 망구아저씨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저씨, 망구아저씨. 영영.”

나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손톱을 물어뜯은 건 3학년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아저씨가 제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다. 그때 망구아저씨가 내 손을 슬며시 잡았다. 망구아저씨가 눈을 살며시 뜨며 나를 보고 웃었다. 조금씩 아파서 이맛살을 찡그렸지만 자꾸만 웃음을 보여 주려고 애썼다.

“괘, 괜찮아? 아프지 않지? 울지 마. 울면 슬퍼.”

아저씨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네. 전 괜찮아요. 안 울게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죽으면 안돼요. 알겠죠? 제가 잘못했어요. 아저씨가 창피해서 피한다는 게 그만…….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는 내 걱정해서 따라온 건데. 내, 내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앉았어도…….”

나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다. 눈물을 감추고 또 감춰도 눈물이 났다. 그래도 망구아저씨의 손을 놓지는 않았다. 망구아저씨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눈을 살며시 감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망구아저씨는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고 나는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았다. 뒤늦게 선생님과 엄마가 함께 들어왔다. 엄마는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엄마 품에 꼭 안겼다.

“엄마 망구아저씨는? 망구아저씨 어떡해. 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 나 대신 차에 치였는데 어떡해. 흑흑.”

“망구아저씨는 괜찮데.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고 수술도 잘 되고 있네. 너무 걱정하지 마. 많이 놀랐겠구나.”

선생님이 내 등을 토닥여 주며 대신 상황을 엄마에게 전해주었다. 엄마는 나를 더욱 끌어안으며 같이 눈물을 흘렸다.

망구아저씨의 수술은 오래 걸렸다.

나도 혹시 몰라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다. 검사를 하

는 내내 망구아저씨가 마음에 걸렸다. 다행히 나는 무릎과 손바닥이 조금 까졌을 뿐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망구아저씨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동사무소 동장님, 경찰서장님, 시 의원까지 망구아저씨 병문안을 오고 사진을 찍고 난리였다. 위험을 무릎쓰고 아이를 구했다며 신문에도 나오고 기자들이 인터뷰도 해 갔다. 덕분에 나도 사진이 기사에 함께 실렸다. 망구아저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손잡아주고 칭찬해 주었다. 나도 망구아저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날마다 찾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잘은 못 그리지만 아저씨 그림도 그려 주었다. 처음에는 혹시 상태가 나빠질지 몰라 걱정되었는데 아저씨는 예전과 같았다. 다만 ‘어떡하지 어떡하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고 망구아저씨도 무사히 퇴원하였다. 몇몇 아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친구들에게 망구아저씨 이야기를 해 주었고 이제 망구놀이를 하는 친구들도 없어졌다. 대신에 망구아저씨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새로운 놀이가 새로 생겼다.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건 아침마다 횡단보도에서 망구아저씨를 만난다는 것이다. 그것도 동사무소와 시에서 교통지킴이로 일자리를 구해줘서 오랜 녹색 잠바 위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 교통지시봉을 들고서 호루라기를 힘차게 분다.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없이 치솟아 있던 머리도 깔끔하게 물 칠을 해서 2대 8 가르마를 한 모습이 우습기도 하다. 그리고 가끔씩 차가 정지선을 어길 때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여전하다. 아침햇살을 받으며 호루라기를 신나게 부를 아저씨의 모습이 멋지기도 하다. 나를 보면 늘 인사를 한다.

머리를 다쳐서 혹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예전의 망구아저씨로 있어도 아저씨는 나의 좋은 친구다. 그리고 아이들도 점점 아저씨의 친구가 되었다.

“영미야, 안녕. 지영이도 안녕. 창수도 잘 잤지? 밥은 먹었어? 어. 지수 왔구나. 아픈 데는 없어?”

“네. 없어요. 아저씨도 잘 잤죠? 나중에 봐요. 파이팅”

“그, 그래 화이팅!”

망구아저씨의 불끈 쥔 주먹을 보며 횡단보도를 지나는 이 길이 즐겁다. 더 이상 망구놀이는 없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망구아저씨라고 부른다. 우리가 다방구 놀이를 하듯이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망구아저씨는 늘 그 자리에 서서 하이파이브를 한다. 망구아저씨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학교 가는 길이 늘 즐겁다.

입선

수상 소감

미래창조과학부 천안우체국

박지희



저는 제 안에 아이가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가슴을 두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다가 만난 이 아이. 앞으로도 기쁘게 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아이들도 즐겁게 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스트리드 린 드그렌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결에서 늘 응원해 주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동화에 눈을 뜨게 해 주신 신현수 선생님과 글벗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특이

나는 특별해요.

승리를 뜻하는 V자 모양 행운목이거든요. 꽃집 식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파란 잎사귀에 더 힘을 주곤 했어요.

어느 날 꽃집 아줌마는 내게 분홍색 띠를 둘러주셨어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식구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는 파란색 꽃집 트럭에 탔어요.

‘새 집은 어떤 곳일까?’

좋은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는 곳에 도착했어요. 크게 차려진 상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와! 이 행운목 모양 좀 봐! V자 모양이야! 이렇게 멋진 집들이 선물은 처음 봐!”

어떤 사람이 날 보며 기분 좋게 웃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줌마는 앞치마를 하고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고, 아저씨는 흐뭇하게 나를 쳐다보며 다가왔어요.

“잘 지내보자!”

아저씨는 손으로 내 잎사귀를 살며시 잡고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상을 치우던 아줌마가 날 힐끗 봤어요.

“난 식물이 싫는데! 선물이 왜 하필 화분이야? 난 화분 싫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외치듯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난 특별한 행운목이에요!’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아줌마는 내가 싫은가 봐요.

아저씨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좋은데 왜 그래. 우리한테 행운을 선물해 줄 거야. 물은 내가 줄테니 걱정 마.”

아저씨 말에 아줌마는 다짐을 놓았어요.

“정말이지? 난 애한테 신경 못써. 당신이 물 주고 관리하기!”

“알았어. 걱정 마.”

아저씨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를 쓰다듬었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로 엄청 수선스러웠어요. 집 문이 꽁하고 닫히면 그 때부터는 완전히 나 혼자였지요.

거실 창문 너머로 해님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모양이 바뀌는 걸 보았어요. 아저씨는 내가 햇별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해가 잘 들어오는 거실 한 쪽에 나를 놔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었어요. 아줌마는 여전히 나한테 관심이 없었고요. 아저씨는 나한테 물주는 걸 자주 잊어버렸어요. 물을 축이고 싶고, 배가 무지 고프는데 말예요.

어느 날부터 아줌마의 배가 점점 나왔어요.

아줌마는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 버리곤 했어요. 아저씨도 직장일로 바빠서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날 챙기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꾸 물

을 주다 말다 하는 걸 보면요.

첫 눈이 오는 어느 새벽이었어요. 아저씨가 아줌마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서둘렀어요. 아줌마는 어디가 정말 많이 아파보였어요. 아저씨가 아줌마를 부축해서 집을 나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줌마는 작은 이불에 그 보다 더 작은 아기를 데려왔어요.

“기쁨이랑 이쪽으로 누워. 여기는 따뜻하다.”

아저씨는 오랫동안 나한테 물주는 걸 잊어 미안하다면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물을 듬뿍 주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꿀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정말 달콤하다.’

어느새 기쁨이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줌마 배가 또 불러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 번째 아기가 생기나 봐요.

배가 불러 모습이 좀 뒤통거리 보였지만, 난 그 모습이 정말 예쁘게 보였어요. 아기를 몸에 담고 있는 아줌마가 정말 소중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나도 뭔가 소중한 것을 내 몸에 담고 있을지 몰라.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새로운 아기가 집으로 왔어요.

“기쁨아, 네 동생 축복이 잘 돌봐줘야 해.”

기쁨이는 눈을 깜빡이며 아기를 살며시 들여다봤어요. 축복이를 바라보는 기쁨이 눈이 초롱초롱 빛났어요.

축복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기쁨이가 작은 손으로 내 앞사귀를 만져보고 있을 때였어요. 축복이도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형이 만지고 있는 걸 보더니 자기도 따라하고 싶었나 봐요. 내 화분 끝을 잡고 일어서려고 해서 화분이 약간 흔들거렸어요.

‘아가, 조심해!’

바로 그 때 기쁨이가 축복이를 확 밀쳐버렸어요.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더니 그만 축복이가 내 화분을 꼭 잡고 쓰러졌어요. 기쁨이도 덩달아 넘어졌어요.

‘쿵’하고 집안을 울리는 커다란 소리가 났어요. 나도 소리쳤어요.

‘으악!’

“으앙~~”

기쁨이와 축복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바닥에 나뒹굴었고요. 화분흙이 바닥에 여기저기 튀어 있었어요. 아줌마와 아저씨는 눈이 휘둥그레져 뛰어나왔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아줌마는 흙을 얼굴에 묻히고 울고 있는 축복이를 얼른 안았어요. 아저씨는 기쁨이를 들어 안고 얼굴에 붙은 내 잎사귀를 떼어 냈어요.

“그러게, 내가 이거 싫다고 했잖아. 행운은 무슨! 이거 확 버려버리자!”

나는 화들짝 놀랐어요. 거실 바닥에 잎사귀가 짓눌리고, 가지가 꺾어져서 너무 아픈데 그런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니깐요.

‘날 버린다고?’

목이 마르긴했지만 그래도 이 집이 맘에 들었거든요. 아저씨 눈빛이 참 따뜻했고, 기쁨이와 축복이가 커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아줌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흠이지만, 그래도 나는 아줌마가 좋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큰일을 해냈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버린다니 머리가 아찔했어요.

울고 있는 기쁨이를 토닥거리던 아저씨가 잘라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애도 생명인데, 버릴 수는 없어!”

“애들이 위험하잖아. 버리는 게 싫으면 바깥 베란다에 내놓던가. 어휴, 속상해.”

나는 거실에 쫓겨나 바깥 베란다로 갔어요. 거실 커튼을 치기라도 하면 나는 거실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거실에 있을 때는 내가 눈에 보이니 아저씨가 그나마 가끔이라도 물을 주었는데, 이곳에 있으니까 그전보다 더 자주 물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나는 메말라 갔어요. 어떻게 변해가는 잎사귀들을 지켜봐야 했어요. 잎 끝은 말라서 꼬부라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는 지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얼음 꼬챙이가 내 껍질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춥고 배고프게는 오래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난 특별하니까요.

그래도 아저씨는 가끔씩 물을 듬뿍 주었어요. 어떻게 된 잎사귀를 보면서 걱정된다며 영양제도 꽃아주었지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내 몸에는 힘이 없었어요.

괜히 아줌마가 미워졌어요.

‘아줌마는 어떻게 손톱만큼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들한테 주는 관심을 조금만 나에게 나눠주면 좀 어때서!’

잎을 마구 흔들어 보기도 했어요. 혹시 내게 물을 좀 줄까 싶어서요. 아줌마는 바람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더라고요.

나는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만약 지금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 된다면, 무언가를 꼭 해야겠어.’

내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을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겨울엔 추워서 내가 죽겠다며 나를 거실로 옮겨놨어요. 아줌마도 내가 조금 걱정이 되었는지 그러라고 했어요. 다행이 기쁨이와 축복이가 이젠 내 곁으로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는 동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줄곧 힘을 쏟아 부었어요. 드디어 이 일을 해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사날짜가 정해져 내게 신경 쓸 겨를이 없나 봐요.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나를 휙 한번 쳐다봤어요.

“이거 그냥 여기다 두고 갈까? 여기 이사 오는 사람보고 키우던지 버리던지 하게 말아야.”

아줌마는 내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말을 참 잘해요. 가뜩이나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데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이삿집센터 아줌마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아줌마한테 손짓을 했어요.

“어머머, 행운목 꽃이 피었네요! 세상에, 이거 아주 보기 어려운 꽃이에요!”

이삿집센터 아줌마는 내가 피워낸 연한 노란빛 꽃망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다가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어디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요, 여기. 민들레꽃잎에 흰 코트를 하나하나 입혀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삿집센터 아줌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아줌마는 그제야 내 꽃을
알아봤어요.

“어머, 세상에. 행운목도 꽃이 피는구나. 제가 관심이 없어요, 물도 잘
안줬는데 어떻게 꽃을 피웠을까요?”

이삿집센터 아줌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이 꽃은 관리를 잘 해야만 볼 수 있는 꽃인데.”

아줌마가 처음으로 내 잎사귀를 쓰다듬었어요. 지금은 누렇게 되어서
볼품이 없는데, 아줌마는 나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았어요.

짐정리를 모두 마쳤을 때였어요. 아줌마가 내 잎사귀를 어루만지면서,

“나 이제부터 이 행운목 잘 키워볼 거야. 물도 잘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아저씨도 놀랐나 봐요.

“정말이야? 애가 듣고 웬일인가 하겠다.”

아줌마는 피식 웃었어요.

“그렇지? 내가 이런 얘기 하고 말이야. 날마다 갖다 버린다고나 했지.”

아줌마가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
어요.

“애가 너무 기특해. 내가 돌보지 않아서 힘들었을 텐데……. 그리 보기
힘들다는 꽃을 피워냈으니 말이야.”

아줌마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나를 살포시 만졌어요.

“앞으로 너를 ‘기특이’라고 부를 거야.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신경 못
써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 할게.”

아줌마의 손이 내 몸에 닿으니까 정말 따뜻했어요.

나는 아줌마의 마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잠시 고민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요.

하지만 나는 꽃망울을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 기특아! 이 향기 날 받아준다는 뜻이지?”

아줌마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날 살며시 껴안았어요.

새 집 거실에는 부드럽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어요.

화분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장미허브가 나에게 물었어요.

“반가워, 넌 이름이 뭐야?”

“기특이!”

나는 푸릇푸릇 반짝이는 내 잎사귀를 깨끗하게 세웠어요.

수상 소감

국세청 익산세무서

최현선



삼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엉뚱한 시선과 기발한 발상들에 많이 놀라고 웃었습니다.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동화의 재미에 빠지게 되었고 잠들기 전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재미를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별의별 놀이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화'라는 장르에 매력을 느꼈고 '동화작가'라는 거창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전에 이렇게 제 이름과 동화가 멋진 작품들과 함께 한다니 영광입니다. 이번 상이 동화작가로 시작하는 길이 초라하지 않게 길을 열어 주는 상이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동화를 쓰고 싶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사랑스러운 동화들요.

숨은 별자리 찾기

「2월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만 원권의 수명은 2013년 기준 평균 8년 4개월이다.」

내가 살고 있는 1만 원권은 여덟 살이다. 신문기사대로라면 1만 원권과 함께 나의 목숨은 4개월 남짓 남은 거다. 나는 혼천의라는 본래의 이름이 있지만 지금은 너털해진 1만 원권 돈의 뒷면 그림일 뿐이다. 태어나서 세 종대왕님을 모시는 일도 중요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별자리로 엮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는 것이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이 1만 원권이라는 돈이 그래서 내게는 딱 어울렸다.

어제 저녁, 1만 원권의 주인은 아줌마가 되었다. 아줌마는 시장에서 통닭집을 한다. 아줌마는 피곤한지 마지막 손님이 건네 준 1만 원권을 아무렇게나 바지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 온 아줌마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잠들었다. 아줌마 주머니에서는 아직도 닭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났다. 어느새 새벽이 온 듯 했지만 나는 기름 냄새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음아, 일어나!”

아줌마가 힘겹게 누군가를 불렀다. 아직도 피곤한지 잔뜩 잠에 취한 목소리였다.

“정음이 자니? 학교 가야지.”

분명히 아줌마는 ‘정음’이라고 다시 불렀다. ‘정음’이라면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이름이었다.

“대왕님, 대왕님!”

나는 다급하게 세종대왕님을 불렀다. 그 바람에 내 몸의 톱니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서질 듯 빠격거렸다. 하필 1만 원권은 세종대왕님이 있는 쪽이 안쪽으로 깊이 접혀 있었다.

“방정맞게 웬 수선이나? 가만히 있지 못 할까?”

세종대왕님이 호통을 쳤다. 기껏 세종대왕님을 생각해서 힘들게 몸을 움직여 주었는데…….

“알았다고요. 죽은 듯이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심통이 나서 뽀로통하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자꾸 가슴이 아프고 쓰렸다. 바로 내 입으로 뱉은 ‘죽은 듯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뽀족한 업적도 없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찢었다. 세종대왕님은 틈만 나면 나에게 말했다. 언젠가는 내가 크게 쓰일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고 있는 1만 원권이 크게 쓰인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나도 크게 쓰인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저런저런, 쫓쫓쫓!”

세종대왕님이 혀를 끌끌 찼다. 보나마나 얼굴을 잔뜩 찡그려 눈썹을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다. 세종대왕님도 요즈음에는 걸핏하면 화를 냈다. 나처럼 포기를 하고 그러려니 해 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말이다.

“정음이라잖아요. 대왕님이 그렇게 찾으시던 이름 아닌가요? 그런데 그 정음이가 아닌 것 같네요. 늦잠꾸러기 게으름뱅이가 바른 소리, ‘정음’이라는 이름을 가질리 없잖아요. 흐흥!”

나는 어쩐지 통과했다. 그렇게 하자 맵고 독한 튀김 기름 냄새가 좀 열 어지는 것 같았다. 또 한 차례 세종대왕님의 호통이 떨어질 듯해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세종대왕님의 호통도 몇 차례 듣다 보니 이제는 들을만 했다. 공연히 엉뚱한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는 잔소리보다 나았다.

“아이고, 우리 정음이 생일!”

갑자기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 바람에 내 몸이 부서질 듯 일그러졌다. 1만 원권의 겹에 있는 내가 이런데 속에 접힌 세종대왕님의 얼굴은 아주 죽상이 되었을 것이었다. 나는 아줌마의 걸음걸이를 따라 몸에 힘을 주고 버텼다. 그래도 세종대왕님인데 지켜 줄 것은 지켜 주고 싶어서였다.

“난 괜찮다.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다가 몸이 부서지면 어찌려고.”

세종대왕님도 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세종대왕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어머, 어찌니? 엄마가 오늘 우리 정음이 생일인 것을 깜빡했네. 케이크라도 미리 사왔어야 되는데. 엄마가 얼른 미역국 끓여줄게.”

아줌마가 울음 섞인 목소리를 내며 동동거렸다.

“엄마, 괜찮아요. 피곤한데 좀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내가 밥 챙겨 먹고 학교가면 되는데.”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늦잠꾸러기, 게으름뱅이, 말썽쟁이라고 여겼던 생각들이 한순간 깨끗이 사라졌다. 마치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1만 원권 돈에서 나뉘는 잉크냄새처럼 풋풋했다. 세종대왕님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조심조심 찡그렸던 얼굴을 펴는 듯 했다. 내 몸에 전해지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신…….”

아줌마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불쑥 들어왔다. 그러더니 내가 살고 있는 1만 원권을 집어냈다. 내가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접힌 1만 원권이 반쯤 펼쳐졌다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오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에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오호라!”

세종대왕님이 감탄을 했다. 기다렸던 손님이 온 것처럼 반가움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오랜만에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숨결이 온 몸에 느껴졌다.

“이 돈으로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 사 먹어. 저녁에 엄마가 케이크 사 가지고 올게. 정말 미안해.”

아줌마가 1만 원권을 아이에게 주었다.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가 깜짝 놀라며 1만 원권을 밀어냈다. 큰돈이라는 아이의 말에 나는 눈을 살그머니 떴다. 1만 원권이 아줌마의 손에서 옆으로 세워져 있어 아이의 얼굴 반쪽만 보였다. 나머지 반쪽은 세종대왕님이 보고 있을 것이었다.

“내가 기다리던 정음이가 맞는 것 같구나. 바른 소리를 내려면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암 그렇고 말고.”

세종대왕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나는 아직 거기까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아끼지 말고 다 쓰고 와. 친구들은 생일잔치도 할 텐데.”

아줌마가 다시 1만 원권을 아이에게 주려고 했다. 아이가 또 1만 원권을 밀어냈다. 그렇게 한동안 나의 몸이 오락가락 흔들렸다. 서로 뺏어갈

듯 아니면 뺨길 듯 나는 8년 동안 사람들 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았다. 사람들은 1만 원권을 당연히 주고 당연히 받으려 했다. 이렇게 주려는데 사양을 하고 사양을 하는데 주려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면 엄마가 정말 슬퍼!”

곧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 아줌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 고마워요. 잘 쓰겠습니다.”

아이가 인사를 하며 두 손으로 공손히 1만 원권을 받았다. 마침 내가 자리 잡고 있는 1만 원권의 뒷면이 위로 올라갔다. 그때서야 나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 볼 수 있었다.

“아!”

나는 참지 못하고 감탄을 했다. ‘오호라!’하고 감탄을 하던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아이의 두 눈은 이제껏 내가 밤하늘에서 발견한 그 어느 별보다 반짝거렸다. 아이가 고운 손으로 내 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찌그러졌던 나의 몸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고 내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망원경의 유리가 말갭게 닦였다. 구겨졌던 1만 원권이 다림질을 한 듯 펴평해졌다.

“아구구, 시원하다.”

밑에 있는 세종대왕님의 찡그린 얼굴도 활짝 펴진 듯했다. 더불어 세종대왕님의 목소리에서도 행복함이 묻어났다.

“학교 늦겠다. 얼른 씻어. 엄마가 아침밥 차려 줄게.”

아줌마가 안심을 하고 주방으로 갔다. 그래도 아이는 씻을 생각도 안하고 내 몸을 자꾸자꾸 쓰다듬었다.

“돈 아끼지 말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 사 먹어. 알았지?”

주방 쪽에서 아줌마가 다시 말했다. 아줌마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네, 그럴게요.”

아이가 냉큼 대답을 했다. 나는 몸을 흠칫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이라야 과자나 분식일 것이다. 과자를 산다면 편의점 금고에 들어갈 것이고 분식집에 간다면 앞치마 주머니 속일 것이었다. 기름 냄새가 나는 아 줌마의 주머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공연한 걱정이구나. 정음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밑에 있는 세종대왕님이 위로를 해 주었다. 그래도 나는 안심이 안 되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통닭을 튀겨야 했을까?’

아이가 나비의 날갯짓처럼 사분사분 입술을 움직이며 혼잣소리로 중얼 거렸다. 그런 아이의 두 눈에 소리 없이 눈물이 고였다. 갑자기 아이의 눈 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 바로 나의 톱니바퀴 위였다. 아이가 깜 짝 놀라 손가락으로 떨어진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물은 이미 나의 톱니바퀴 속으로 스며든 후였다.

“빠이걱!”

녹이 슬어 오랫동안 멈춰 있던 나의 톱니바퀴가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아이가 그런 나를 도와주려는지 책상 위에 1만 원권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줌마가 밥상을 차리는 주방으로 갔다. 이번에는 내가 밑으 로 들어가고 세종대왕님이 위로 올라왔다. 몸이 본래대로 돌아와서인지 위에 모시고 있는 세종대왕님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다.

“어떠냐, 별자리를 엮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세종대왕님이 물었다. 그 물음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나의 몸이 톱니바퀴에 무게를 싣고 빙글 돌았다. 내 몸의 배경이 되던 하늘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닳고 닳아서 아주 사라진 줄 알았는데

말이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늘지도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원래 1,467개의 별들이 있었다. 그 별들을 이리저리 엮어 시간에 따라 별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래 나의 일이었다.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속이 상해 울먹거렸다. 별자리는 별이 있어야 만들 수 있었다.

“허허허!”

갑자기 세종대왕님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세종대왕님의 웃음이 더 나를 속상하게 했다. 남의 속도 모르고 그토록 기다리던 정음이를 만나서 혼자만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좀 기다려 보거라.”

세종대왕님이 말했다. 세종대왕님이 무슨 방법을 알려 줄 것 같아 나는 일단 참아 보기로 했다.

“엄마, 저 돈 우리 반 친구 도와주면 안 돼요?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없대요.”

주방 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구, 우리 정음이 예쁘기도 해라.”

아줌마가 아이의 엉덩이라도 두드려 주는지 토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보아라,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저렇게 사람들도 별이 될 수 있단다. 이제 별자리를 만들 수 있겠지?”

세종대왕님이 오랜만에 상냥하게 물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머리를 끄덕였다. 먼저 아이의 별과 아줌마의 별을 이어 숨은 별자리를 찾을 것이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참 많으니까.

내게 남은 목숨이 4개 월뿐이라 해도 이제는 400년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제 1 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희곡

심 사 평

출품된 응모작들은 세대 풍자부터 노인문제, 역사청산 문제, 인생의 애환, 사랑이야기, 직장이야기 등 내용과 형식이 비교적 다양했다. 이처럼 표현하려는 욕구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해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작품은 날카로운 비판보다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었다.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각박해도 문학과 예술이 갖는 치료와 위로의 힘의 믿음 때문일 것이다.

몇 편의 작품은 소재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희곡과 시나리오의 특성을 혼동하고 있었다. 희곡의 특성을 조금만 더 연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작품도 여러 편 보여 안타까웠다.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마지막 부분에서 용두사미로 만들 수 없지 않은가.

심사위원: 오테영, 김대현

WHO여? Me랑께! 누구여? 나랑께!

서울 남명초등학교 류호선

● 금상

담장 밖 인성교육

법무부 목포교도소 김현중

● 은상

성공남녀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진선

● 동상

수상 소감

서울 남명초등학교

류 호 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입이 안 다물어질 만큼 재미있는 일들이 뽁뽁 터지기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 늘 글을 쓰는 마음으로 교실에 선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떤 점이 고쳐져야 하며, 어떤 점이 없어져야 하는지를. 하지만 내가 교단에 서면서 피부로 느끼는 점은 우리 교육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

글이 있기까지 교실 안에서 나를 만나준 아이들, 지금 근무하는 남명초등학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장선생님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 사랑하는 가족 덕분에 완성할 수 있는 희곡이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자랑거리 하나가 생겨 정말 기분 좋은 어린이날이다.

WHO여? Me랑께! 누구여? 나랑께!

등장인물

나이든 봉순 60대 후반의 치매 노인, 치매로 인해 단기 기억 상실 및 유년시절의 기억으로 퇴행하고 있다.

언어적 혼란과 시공간적 혼란을 가진 노인이다.

어린 봉순 만 8세의 어린아이 봉순 입양. 당시 현실의 봉순의 심리와 감정 상태를 보여 준다. 갑자기 바뀐 문화적 충격으로 몽유병, 실어증 증상을 겪은 뒤 그 뒤로 모국어에 대한 기억을 잊는다.

여수택 요양원 직원 40대 중반여자로 요양원으로 오게 된 봉순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주청자의 역할

어린 시절 봉순의 모 나이든 봉순과 같은 배우가 약간의 의상 차이로 엄마 역할을 함께한다.

봉순의 양부모 미국인 둘

간호사

무대

가운데 문이 가로로 놓여 있고, 가로로 놓인 문을 기준으로 한쪽은 병원 요양원의 실내 모습을 하고 있다.

침대 한 개 놓여 있고, 그 앞에 휠체어 있다.

다른 한쪽 요양원과 대칭 되는 구조로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가 어지럽게 붙어 있는 요란스러운 어린이 침대가 한쪽에 있다.

어린이 침대 옆으로 커다란 쓰레기통과 검은 벽이 답답하게 막혀 있다.

막이 열리면 여수택이 요양원 실내 휠체어 접고 침대 정리를 하고 있다.

간호사 무대 중앙으로 등장 문을 열고 들어온다.

간호사 안녕하세요! 일찍 출근 하셨네요? 안 그래도 오늘 신환 오신다고 했는데 저번엔 쌍년이 할머니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여수택 인자사 말을 함 뭐더것소 김간호사?
요요요 좀 봐보랑께! (팔뚝을 걷어 부친다.)
고 토끼가 할마씨한테 물어뜯긴 상처가 아직도 안 아물었구만!
앞 이빨 힘이 그렇게 센 양반이 그리 일찍 가부릴 줄 누가 알았것소.

(손등으로 눈물을 짫는다.)

나가 고 할머니 덕에 인자 누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자신감이 치솟는구먼

(한숨 쉬며) 그 할마씨 마즈막 감서 정 띄려고 그랬쥘는지 징하게 징글맞게 굴더니만 짐 생각함 마음이 거시기 하요.

김간호사 쌍년 할머니는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만 두고 싶더라구요!

여수택 맞지라! 맞지라! 나도 고때는 하도 애를 먹여서 내 일을 완전히 접어 불라고 했는디 (피하는 동작을 한다.)

나가 짹째 피하지 않았음 고 할마씨 똥귀저기에 면상을 마자
불뻔 한 거이 어디 한두 번이당가!

김간호사 (살짝 찌려보며) 제가 대신 맞았잖아요!

여수댁 워째 그 토갱이 할마씨가 미안혀해야 하는 것이
나가 미안시렵소 아! 요 반사신경이 좋아부러서 미안스런디 우
짜까 잉!

간호사 (차트를 찾아보며) 여기 차트에는
이름이 레이첼 리 베이커라고 되었네요.
미국서 오시는 할머니래요.

쌍년 할머니처럼 지저귀나 안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여수댁 무신 헐리우드 배우 맨키로 이름이 거시기 하불고 그러요.
레이첼 베이커 아파 이름에 빵집도 들어 있구만
설마 요리콤포시롱 이름도 거시기한 양반이, 미국서 오신다는 데,
머리 꼬댕이 잡아 불고 욱허고 똥덩어리 던지고 그러짓는가!
그래 뽈면 내 이참에 확 그만뒀 버릴팅께.

김간호사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여수댁 참말이여! 참말이랑께.

전화벨 울리고 간호사 데스크에서 전화 받는다.

간호사 네 오셨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여수댁 쳐다보면서) 오셨나봐요!

전화 수화기 내려놓고 무대 밖 퇴장

여수택

(관객석쪽으로 머리 빠진 부분 내밀면서) 할머니가 죽기 전에
어찌나 양탈을 부리던지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다 죽어 가는 할
마씨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후다닥 관객석 쪽으로 다가가 관객 한명의 머리를 잡을 듯한
포즈를 취한다.)

머리채를 잡고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함서 잡아 채는디,
요기는 아직도 머리가 민둥산이여!(머리 매만지면서)
하모 스파일이가 안잡혀 버리는구먼
내 나이가 황신혜보다 딱 한 살 윈디
누가 보면 한 살이 아니라 10년은 위로 볼것이랑께.
(깜짝 놀라며) 움마! 맞다고라!
어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좀 보소!
(관객중 하나 가리키며) 피차일반이요!
황신혜 가는 비니키 입고 미국도 다녀오고, 화와이도 가고 고
러고 있는디
나는 여기 시골구석에서 노망난 할망구들이랑 머리 털 뜯겨 감
서 이려고 있으니
아참! 내 이름도 황신해구먼
아이 하는 ‘해’ 황신해 이름 한 곳 차이가 좀 큰 것 같소?

무대 중안 문으로 간호사와 잘 차려 입은 깔끔한 할머니 등장한다.

간호사

할머니 인사하세요!

봉순 뭔가 두려운 듯 주춤주춤 들어온다.

간호사 오늘부터 할머니 돌봐주실 황신해 도우미 아주머니세요.

여기 명찰 보이시죠? (명찰에 작은 이름 가리킨다.)

여수택 아이구메 뭘 할머니가 이리도 곱소?

반갑구먼이라 자알 부탁드립니다요! 잉!

봉순 (불안한 듯이 주위를 살피며 매우 더듬더듬 입을 떼다.)

마이 네임

(크게 쉽 호흡하고 유창한 영어로) 이즈 레이첼 리 베이커

간호사와 마주 보고 놀란 듯이

여수택 (김간호사 보고 속삭이듯이) 요고 요고 큰일 나 부렀으라!

어찌야쓰까 요분이 꼬부랑말밖에 못하는 것 갑소?

봉순 (좀 더 능숙하게) 마이 네임 이즈 레이첼 리 베이커

여수택 음마! 나가 헐 줄 아는 꼬부랑 말이 딱 두 마디 밖에 읊는디

하나는 좋을 때 땡큐! 겁나게 고바워 부려.

또 하나는 기분 안 좋을 때 뽀큐 이 잡 것을 확

요로코롬 밖에 읊는데 이를 어찌야쓰까 잉

간호사 저도 할머니 영어만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치매 증세 있다는 것 밖에 차트에는 없는데…….

내일 담당 선생님 나오시면 자세히 한 번 여쭙어 볼게요.

여수택 인자 지대루 영어 공부 쪼까 하게 생겼어라.

영어만 잘해두 시상 살기가 편해쁘다고 함서

우리 딸이 조석으로 영어 책 끼고 땀기더니
나가 팔자에도 없는 영어 공부로 헛바닥에 기름칠을 하게 생겨
부렸어라 잉
(봉순의 짐 끌면서) 할머니까 새색시 만키럼 얌전허고

봉순 갑자기 가방 끌어안더니 소리친다.

봉순 Don't touch NO! NO!

달려들어 여수댁 머리를 잡아 뜯는다.

여수댁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내 머리! 황신해 쓰파일이가 다 망가져
뿌네!

얌전

가로로 놓였던 문이 세로로 놓여 있다. 그 문 앞에 어린 봉순과 젊은 엄
마(나이든 봉순의 좀 더 젊은 모습이다.)

봉순의 손잡고 서 있다.

봉순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흰 고무신 신고 보파리 하나 가슴에 끌
어 앉고 있다.

봉순 모 머릿수건에 남루한 치만 저고리를 입고 있다.

어린 봉순 엄니! 참말이여!

정말 나가 저 짝 문안 들어가블면 핵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 주고 고런다는 것이 참말이여라?

엄마 그랴! 어디 엄니가 쪼맨헌 널 두고 거짓부렁을 해 쓰겠냐?
저 짝(길게)으로 가문 니는 더 이상 배 안끓고 배 터질때까지
밥도 주고, 너 그렇게 가고 잡다던 핵교도 보내 주고, 공부도
다 시켜 준다더라. (한숨)

봉순 손 꼭 잡았던 것 매몰차게 뿌리 치며 문안으로 아이 떠밀어 넣는다.

엄마 (눈 부릅뜨고 강경하게) 네 아버지 와서 노름 빚으로다가 팔래
미 식모로 팔아 뺄기 전에 어여 드가라!

어린 봉순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엄니! 나 요리 보내고 아버지 와서 또 때려 뺄고 함 엄니는 우
짖라고

나가 엄니랑 봉수 쪼까 걱정 되부려서 못가것서라!

엄마 (더 큰 목소리로 단호하게) 시끄럽다! 이 문딩이 자숙아!
너 하나 없음 입도 하나 줄어 뺄고 니 묵을거 봉수랑 나랑 갈라
먹음서 있을 것잉께.

울 걱정은 하딜 말고 너 하나 잘하고 있음 되는 것잉께.

자꾸 이 엄니 입 아프게 말시키 덜 말고 어여 가랑께.

어린 봉순 나는 가기 싫타니께 엄니가 말한 대로 그리 좋음 봉수 보내뺄지
왜 나를 보낸다고요?

엄마 (애써 눈물 참고 봉순이 얼굴 마주 쳐다보며)
네 아버지가 너 식모로 팔아 뺄까 나가 겁나서 너를 보내는 거

시지

나가 밤새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너를 저 쪽으로 보내는 거시
백번 나따 싶을께.

넘의 집에서 (눈앞에 손등 내밀며)

이 에미처럼 손등 터져감서, 눈칫밥도 지대로 못 얻어 먹어볼
고 뼈빠지게 일하는 거시 좋으냐?

(부드럽게) 고리치 앓음 핵교도 보내줌서 밥도 실컷 묵여 주는
(문을 가리킨다) 저쪽이 좋으냐?

봉순 머뭇머뭇 거린다.

발을 살짝살짝 이쪽저쪽 갈팡질팡하고 있다.

엄마 (봉순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단단히 알아드러라!

이 엄니가 봉수가 아덜이라고 너를 보내는 거시 아니랑께!

어린 봉순 (힘없이) 알았어라! (엄마 봉순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힘없
이 서있다.)

(힘없어 하는 엄마 쳐다보며 밝게)

엄니 나가 가서 잘하고 있을 텅께 아버지가 술 고만 묵고 정신
차리문 꼭 나릴 다시 텔러 와야하는구먼

나가 공부도 켈로 잘하고 뭐든 켈로 잘하고 있을랑께

난중에 꼭 꼭 찾으러 와야 햐! (콧물이 나오는지 흘쩍인다.)

봉순 엄마가 밀어 넣는 문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뒤돌아 본다.

어린 봉순 어머니! 나릴 있어 뿌리면 안 되는구먼!

봉순이 꼭 찾으러 와! 나가 맛난거 거 나옴 어머니랑 봉수꺼 꼬
불쳐 놓고 있을 랑께!

엄마 (목이 맨다.) 나랑 봉수는 걱정 하덜 말고 너나 배불리 먹고 잘
있어라!

엄마 달려들어 봉순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끌어 다가 앞에 세운다.
얼굴을 손으로 한 번 닦아 주고 코도 풀어 준다.

엄마 기지배가 면상이 이게 뭐다냐?
인자 되어따. 어여 가!

엄마 봉순 얼굴 보다가 울음 나오려 하자 문으로 우악스럽게 떠다민다.
봉순 발길이 안 떨어지듯이 문에 반만 들어가 있다.

봉순 어머니! 나 안 갈 것이구먼!
아부지가 아무리 때려싸코 하늘이 노랗게 배 고파도 암씨롱토
안어라.
넌덜 다니는 핵교 못땡기고 손가락질 혀도 그려도 그냥 어머니랑
봉수랑 살것이구먼.

엄마 못들은 척하며 봉순을 확 밀어 넣고 뒤돌아선다.

봉순 어머니! 어머니!

엄마 뒤돌아서 뛰어나간다. 엄마 퇴장과 동시에 봉순 앞에 미국인 양부모 무대로 걸어온다.

과장스러운 몸짓으로 봉순에게 다가와 끌어 앉고 양 볼에 뽀뽀하려고 한다.

봉순 매우 당황스럽다. 두리번거리며 불안해 한다.

양부모 Oh Welcome! Welcome my daughter!

어린 봉순 (혼자말로) 나가 강낭콩 까만콩 메주콩은 알아도 월콩은 모르
는디!

(크게 쉽 호흡하더니 천천히 어색하게 말한다.)

하 우 아 유?

파이 땡큐 앤जू?

양부모 Good good Great! great!

Fine fine.

어린 봉순 (라디오에서 반복하듯 어색하게 기계적으로)

하 우 아 유?

파이 땡큐 앤जू?

아이 엠 어 보이

유 알 어 거 얼

봉순 고무신 벗어서 조용히 문밖에 내어 놓는다.

양부모 Oh no! NO! (크고 무섭게 말한다.)

양부모 봉순의 신발 봉순이 입었던 옷을 모두 마구 벗겨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 넣는다.

봉순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한 듯 서 있다.

무슨 말인가 할 듯하나 아무 말도 못한다.

어린 봉순에게 억지로 유리 구두 신발 신기고 요란하게 레이스 달린 원
피스와 머리띠 해 준다. 봉순 양쪽에서 위협적으로 잡아서 침대로 데려다
눕힌다.

양부모 퇴장 조명 어두워지고 어린 봉순 일어나서 쓰레기통 뒤져 입었
던 옷과 신발 다시 신는다. 신발은 다시 벗어서 문 밖에 내어 놓고 온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다가 불편한지 머리띠 빼고 이불 가지고 내려와
바닥에 눕는다.

다시 일어나서 몸을 작게 말아 앉아 까만 벽을 바라보고 대사 시작한다.

어린 봉순 어머니! 여기는 이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구먼!

사람들이 목욕을 하루 한 번은 다들 하더라고

그러도 노린내가 소울솔 나는데,

일 년에 딱 두 번만 목욕해도 우리는 노린내 안나지라 어머니!

몰것어 어머니!

인자 여기서는 다들 날보고 더럽고 냄새 나쁘다고 하는 갑소.

더럽기는 즈그들이 훨씬 더 더러우면서

신발짝을 신어불고 방안을 휘휘 암치롱도 안케 돌아다닌 다
닌께.

변소간도 밥 먹는 데 바로 옆에 붙어 있소.

엄니가 요기 외블른 놀라 자빠질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구먼

여기서는 개 팔자가 상팔자여!

개랑 한 상에서 밥도 묵고 개가 따로 묵는 과자 쪼가리도 따로 있어라!

나가 처음에는 사람 먹는 거 맹치로 생겨서 주워 먹었스라!
짹짹 혀고 맛나는 거시 우리 고향서 먹던 젓갈맛이 나는데
그러서 나가 묵지 말라고 허는데도 몰래 먹어 부렸소.

-잠시 사이-

어린 봉순 (씨익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그랬더니 요기 나 맡아 준 베이커가

베이커 요것이 요기 나 아버지 이름이여 엄니!

나를 요 방에다 가둬 버렸서라!

요방이 말이요 엄니! 나 허는 말이 방이지 우리 살던 집보다 넓은 갑소.

엄니! 걱정마려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맛았구먼

요서는 올 아버지처럼 아덜 때리면 순사가 잡아가고 그런다요.

그란디 엄니! 때리는 아버지도 시방은 보고 갑소!

내 쪼까 더 참고 맞아 불겔 허는 생각도 들고 허는거 보니

엄니! 나는 인자 잠도 요런 평상에다 폭썬한 이불 피고, 등 따스하게 자고 있어라. 아침에 인나서 평생 이불 개키지 않아도
올아버지처럼 때리는 사람도 읊고

새벽 참에 일어나서 물 길으러 안 나가도 집안에서 물이 팔팔
쏟아져라. 뜨신물도 계속 나온당께요.

참말이여 어머니!

어머니랑 나랑 한 겨울에 물길다가 얼음판서 미끄러지는 강아지
새끼 쳐다보고 웃던거 생각 나지라 잉.

(옛 생각이 나는지 얼굴이 환해진다.)

고 강아지 새끼맨치럼 둘이 어프러져부린거 다 생각 나지라?

오돌오돌 떨면서 어머니랑 나랑 꼭 끌어안고 집에 갔더니

어서 인자 기어들어 오냐구 울 아버지가 아궁이 부지깽이로 때
렸던 것까지 인자는 그림소. 그때 어머니가 나 막아 주느라고 머
리통 깨져볼면서 아버지 붙잡아 준 것도 나 다 기억하고 있는디
어머니! 나 넌 그냥 어머니랑 봉수랑 있을 걸 하는구먼.

어머니 말대로 배도 부르고 꼬부랑 말로 공부도 시켜주는디

요상스럽게도 매일매일 속이 헛헛하구 चु꾸먼.

아무리 묵고 묵고 또 묵어두 헛헛한게 가시질 않는다니께

겁나게 허전하구 흥한게

— 잠깐 사이—

어린 봉순 어머니! 요기서는 나 이름이 레이첼이여. 무신 이름이 요상도 하
지라.

‘래디오’ 할 때 ‘래’ 생각함서 단단히 외고 있어야지 안그름
나를 부르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것어라!

어머니! 지금 듣고 있는가?!

어머니 보고 잡소.

어린 봉순 잠이 든다.

갑자기 환하게 조명 들어오고 양부모 들어와서 봉순을 정신없이 깨운다.

양부모 Wake up! 레이첼 Wake up!

어린 봉순 아직 잠이 덜 깬 듯 일어난다.

양부모 침대 밑에서 봉순의 보파리 푼다.

양부모 It is food NO! NO!

코를 움켜 쥐며 봉순이 보파리 안의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마구 집어 넣는다.

어린 봉순 양부모에게 달려들어 말린다.

어린 봉순 이거 나뭇우라고 새엄니랑 새아부지가 준 것이잖소?

우째 이런데요? 줬던 것을 다씨 빼음서

안돼요! 안돼! 요것일랑 우리 엄니, 우리 봉수 줄 것인디 버림
안 되지라우.

(봉순 양부모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한다.)

나가 앞으로 조금만 먹을 텅게 다시 좀 주소.

이리 주소.

어린 봉순 애원하나 양부모 사정없이 쓰레기통에 버린다.

봉순 달려들어 양부모 팔을 물어뜯는다. 양부모 봉순 뺨을 때리고 어린

봉순 쓰러진다.

양부모 봉순의 귀에 대고 위압적으로 소리 지른다.

양부모 I said No! No! Don't do that! Don't do that!

어린 봉순 뺨을 쥐고 힘없이 일어난다.

양부모 봉순을 내버려 두고 퇴장한다.

봉순 혼자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봉순 다시 까만 벽을 바라보고 갑자기 웃으면서 즐거운 듯이 말한다.

어린 봉순 (밝은 얼굴로) 어머니! 나는 아주 잘 있소.

때 되면 뜨끈뜨끈한 고기도 실컷 먹고

달디단 사탕도 쪽쪽 빨아 먹음서 등 따습게 잘있소!

(봉순 표정 조금 어두워진다.)

어머니! 인자는 어머니 얼굴도 봉순 얼굴도 생각이 안나는구먼.

자꾸만 자꾸만 뿌여지는데 어머니 얼굴이 인자 안 보여.

(억지로 억지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손을 앞으로 뻗으며)

울 어머니 얼굴도 인자 못 알아먹게 생겼소.

어머니! 그라고 나가 인자는 말도 생각이 잘 안나요.

어머니가 나더러 물에 빠지면 조동아리만 동동 뜰년이라고 했는데

나가 말을 나가 말이 내 말이 …….

-잠깐 사이-

(유창한 영어) Hi mom!

How are You?

I am fine. Are you fine?

-잠깐 사이-

I am sorry mom

I don't remember you any more.

My name is 레이첼 리 베이커

어린 봉순쪽 조명 점점 어두워지고 요양원쪽 조명 밝아진다.

나이든 봉순 침대 밑에 아까 어린 봉순이 누워 있던 자세로 쪼그리고 누워 있다.

조명 서서히 밝아지고 여수댁 들어온다. 커다란 문이 병실문처럼 다시 가로로 되어 있다.

여수댁 아이고 할머니 왜 바닥에 이리 누워 있소!

미국서 왔답서 침대가 편할 꺼인디 요상도 하게 요리 자고 있소!

찬 바닥서 주무시다가 입돌아붙면 어쩔라고라.

레이첼 할머니! (발음 조금 우스꽝스럽게 굴린다.)

나가 요새 영어 공부 좀 허고 있소.

햇바닥에 기름칠한 것 맵기로 잘 굴러 가야 쓰는디

(잠시 입 푸는 소리 종이에 적은 무엇인가를 앞치마에서 꺼낸다.)

레이첼 그라드 마 스탠드 플리스

나이든 봉순 (눈비벼 일어난다.)

여수댁 음마! 나가 시방 영어로 말을 험게 통했는가 보네.
(다시 뺨뺨하게 읽는다) 굿 모닝!

나이든 봉순 (뻘히 쳐다보고 천천히 말한다.) 배고파.

여수댁 (혀를 굴리며 영어처럼 ‘배고파’ 따라 한다.) 빼꼬푸아
요것이 내 컷구멍으로는 ‘배고파’로 들리는데 영어도 ‘배고
파’라는 말이 있는 갑소.
쏘리 아이 돈 노우

나이든 봉순 배고파!

여수댁 (좀더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야기한다.) 쏘리 아이 돈 노우
음마! 참말로 영어가 입에 짹짹 붙는거지 나가 영어에 소질이
쪼까 있는가 보소?

나이든 봉순 엄니 배고파!

여수댁 (깜짝 놀란다.) 아이구메 미국서 평생 살았다고 함서 으찌 우리
말을 이리 한다웁?

나이든 봉순 엄니!(여수댁을 끌어 앉는다.)

여수댁 나이든 봉순을 밀어내며 말한다.

여수댁 레이첼 할머니!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들으시웁?

나이든 봉순 엄니! 나 안 갈래!

엄니! 나 안 갈래!

아부지가 때리고 배 고파도 그냥 엄니랑 봉수랑 살 것이구먼
엄니! 엄니!

더욱 여수댁을 꼭 끌어 앉는다.

여수댁 시방 요것이 뭘 소리여?

레이첼 할머니! 어머니가 할머니 소시적에 미국으로 버려 버렸소?

나이든 봉순 (매몰차게 여수댁을 벌컥 밀어내며 화를 낸다.)

우리 어머니는 나 버린 거시 아녀! 아녀!

여수댁 (봉순이 화를 내자 머리를 또 잡아채는 줄 알고 노란 안전모를 꺼내 쓰면서)

음마! 알것소! 암전하던 할머니 화내니까 내 머리털이 먼저 놀라버리는 보소.

나가 그래서 요렇게 안전모를 준비혀고 안 다니오.

(모자에 안전제일 써 있다.)

갑가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봉순의 침대주변을 다니면서 냄새를 맡는다.

여수댁 근데 시방 무슨 냄새가 나는디

어서 썩는 냄새가 요로코롬 진동을 해 썩는게

여수댁이 침대 밑에서 봉순의 가방을 끌어 내서 열어 본다.

가방 안에 음식들이 가득하다.

여수댁 요것이 다 뭐란디?

아이고 웬 음식물 쓰레기를 여파 다 모다노셨소!

여수댁 썩은 음식들을 치우려고 하니까 어린 봉순이 달려든 것처럼 달려든다.

나이든 봉순 이거 나뭇우라고 새 어머니랑 새아버지가 준것이잖소?

우째 이런데요? 줬던 것을 다씨 빼음서

안돼요! 안돼! 요것일랑 우리 어머니, 우리 봉수 줄 것인디 버림
안 되지라우.

어린 봉순보다 더 심하게 여수댁의 다리를 잡고 애원한다.

나이든 봉순 나가 앞으로 조금만 먹을 텅게 다시 좀 주소.

이리 주소.

여수댁 깜짝 놀란다. 아무 말 없이 버리려고 들었던 음식들을 봉순에게 다시 준다.

봉순 좋아하면서 음식물 다시 가방 안에 채곡채곡 담는다.

눈물이 질금 났는지 눈가에 눈물 찍어내며 봉순 부축해서 침대에 앉힌다.

여수댁 나가 마음이 찢한게 눈물이 다 나불고 그러요.

할머니 진짜 이름은 뭐시요?

나이든 봉순 (다시 유창한 영어로) 마이 네임 이즈 레이첼 리 베이커

하우 아유 파인 땡큐 앤쥬

아이 엠 어 보이 유알 어 겔

여수댁 나이든 봉순 앉혀 주며 눈물 흘린다.

여수댁 저번 할머니 팔자도 기구하기가 쉼뿌리 엉킹거 맹치로 사납더니
 할머니 팔자는 그것보다 더 한갑소?

나이든 봉순 어머니!

여수댁을 붙들고 쳐다본다.

아기 달래듯 달래서 앉혀 준다.

나이든 봉순 어머니! 나가 가서 잘하고 있을 테니까 꼭 찾으러 와야 돼.

 나가 공부도 쫄로 잘하고 뭐든 잘하고 있을 테니까

 난중에 꼭 찾으러 와야 혀!

여수댁 걱정마라 아가야!

 엄니가 꼭 찾으러 갈팅께

 밥 잘묵고, 공부 잘혀고 있어라!

여수댁 봉순을 침대에 눕히고 요양원 정리하고 퇴장한다.

봉순 일어나서 침대 위에 아까 어린 봉순처럼 걸터앉는다.

나이든 봉순 (유창한 영어) Hi mom!

 How are You?

 I am fine. Are you fine?

 -잠깐 사이-

I am sorry mom.

I don't remember you any more.

My name is 레이첼 리 베이커

암전

요양원 침대 옆에 어린 봉순의 방에 있던 검은 벽 세워져 있다.

침대에 누군가 이불을 쓰고 누워 있다.

이불을 제치면서 어린 봉순 스르륵 일어난다.

좀 전 봉순의 자세로 침대에 걸터앉아 검은 벽을 쳐다본다.

어린 봉순 어머니도 나 보고 잡소?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보고 잡소.

한 분만 똑뿌러지게 보고 싶은디

어니! 나 이제는 어니 얼굴이 가물가물한 게 포이포이 기억이
안나부니

이를 우짜면 좋소?

나는 맨날 어니 꿈만 꾸는디

얼굴은 우째 하나투 안보이고 뿌연게

(괴로운 듯 가슴 앞에 손을 댄다.)

가심이 가심이 답답혀.

어니가 자꾸 부르면 도망가고 부르면 도망가고

이제는 나를 좀 데불고 가면 안 되겠소?

어니! 인자 내가 심이 좀 딸린갑소. 나를 좀 데불고 가소!

엄니! 엄니!

무대 반대편에서 나이든 봉순 들어온다. 무대 중앙에 어린 봉순 엄마와 헤어질 때 들어갔던 세로의 문 놓여 있다.

조명은 계속 어린 봉순쪽만 비추고 있어 어둡다.

나이든 봉순 거기 누구여?

who여? 더블류 에이치 오 영어로 후 누구냐 말이지?

우리 딸이여?

나가 잃어 버린 우리 딸이여?

어린 봉순 엄닌겨?

우리 엄닌겨?

나를 버린 우리 엄닌겨?

나이든 봉순과 어린 봉순 중간에 문을 두고 서로 양 볼을 대고 있다.

나이든 봉순 버린게 아니여.

지 아버가 팔아 뺐다고 하니까 나가 어쩔 수가 없었구먼.

그리 멀리 보내는지 나가 참말로 몰랐구먼.

어린 봉순 (문에서 약간 떨어지면 고개를 마구 흔든다.)

아녀! 우리 엄니가 꼭 찾으러 온다고 했어라.

나가 잘하고 있음 찾으러 온다고 했어라.

나이든 봉순 그러서 나가 인자 찾으러 왔으께

우리 딸이 맞는지 어디 쫓아 봤음 쓰겠구먼.

그 짝 이름이 뭐시여?

어린 봉순 (당황하면) 내가 잊어 뿌려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라? 미랑께! 영어로 엠이 미 나라고 나!

나이든 봉순 내가 누구여?(쌀쌀맞게) 그라문 우리 딸이 아닌갑소!

내가 요기서 요려고 있을 새가 읍소! 잊어뿐 우리 딸내미 찾으러 이만 가야겠구먼!(봉순 문에서 떨어진다.)

어린 봉순 (놀래며) 쪼매만 기돌리시오. 내가 누구냐 고거시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께.

나이든 봉순 우리 딸래미는 기억력이 얼마나 비상한지 하나를 알면 서이 너이는 가뿐이 기억했는데 우리 아가 아닌갑소.

어린 봉순 내가 누구였지? it's me mom me! me!

내 이름이, 내 이름이 뭐였냐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기억을 더듬는다.)

내 기억이 내가 (어린 봉순 매우 힘들게 한 자 한 자 기억해 낸다.)

이! 봉! 순!

나이든 봉순 숨죽여 듣고 있다.

나이든 봉순 어린 봉순 함께 천천히 이름을 부른다.

봉순 둘 이! 봉! 순!

나이든 봉순 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어린 봉순을 본다.

나이든 봉순 어디 보자 우리 아가! 우리 딸내미! 우리 봉순이!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우리 아가!

어린 봉순 어머니! 왜 인자 왔소!

나가 을매나 기돌렸는데

나가 어머니를 을매나 (봉순 울먹이며 오열한다.)

어머니 얼굴이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진짜로 죽고 싶을 땡
키로 힘들었당께. 어머니는 그 맘 알고 있소?

나이든 봉순 그러! 그러! 어머니가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하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부모가 죄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를 보낸
나라가 죄고, 모진 세월이 죄다.

이제 우리 아가 어머니가 꼭 잡고 데불고 갈 것임께

걱정하지 마라 아가야!

걱정마라 아가야!

어린 봉순을 끌어 앉고 얼굴을 이리 저리 살펴본다.

예전에 보낼 때처럼 웃고름으로 봉순의 얼굴을 닦아 준다.

나이든 봉순 봉순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잘못했따.

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한다.)

어린 봉순 아녀! 아녀! 어머니는 잘 못한 거 없소!

나가 어머니를 먼저 찾았어야 하는 건디 나가 잘못이요.

나가 이름도 잊어 뿔고 어머니 얼굴도 잊어 뿔고 나가 잘못된 것
이제, 어머니 잘못은 암것도 읊소.

나이든 봉순 인자 찾았으니 되어따!

엄니랑 가자! 우리 봉순이 인자 엄니랑 저기 멀리 좋은 데로 건너 가자! 휘어이 휘어이 가볼자!

어린 봉순 엄니!

꼭 내 꿈만 같어라!

매일 밤 내 꿈을 꾸는디 엄니랑 요리코롬 손잡고 강을 건넌당게.
인자 배가 부르요! 인자 안 춥소!

엄니!

엄니!

엄니!

무대 점점 어두워지면서 봉순은 봉순의 손을 잡고 퇴장한다.

다시 조명 들어오면 여수댁 들어와서 침대 위를 쳐다보고 깜짝 놀란다.

한동안 가슴을 부여쥐고 말이 없다가 조용히 봉순의 눈을 감긴 후 조용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준다.

여수댁 이 할마씨가 그렇게 한국와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더니 온 지 며칠을 못 넘기고 가버렸소 그마.

나는 돈 많은 미국 땅에서 꼬불랑말 하고 미제만 먹고 살면 으 찌 살던 행복한줄 알았더니 고거시 다가 아닌가 싶소.

한국 와서 죽으니 그리 좋소?

이리 웃으면서 누워 있는거 보니

그렇게 보고 잡다던 엄니를 만난거 맵기로 웃고 가니 내도 덜 슬프요.

나도 이제 이 일 고만 할랍니다.

잘 가시요! 휘어이 휘어이

막 내린다.



수상 소감

법무부 목포교도소

김현중



가끔 배우로 변신하여 연극무대 위에 올랐는데 사정이 생겨 한동안 무대 위에 나설 수 없어 그 아쉬움을 채우려고 쓴 대본이 기쁜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탓에 다른 주제를 정하지 못 하고 교도관인 내 경험에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해 보았습니다. 교도관은 수용자를 가둬놓고 감시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용자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도록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교도관의 본래의 역할입니다. 오들도 수용자들 마음 안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교도관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희곡을 쓰면서 극작가분들이 새삼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작품을 너그럽게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그녀 황선옥님, 예쁜공주 김은빈양, 멋진왕자 김선유군 모두 사랑합니다.

담장 밖 인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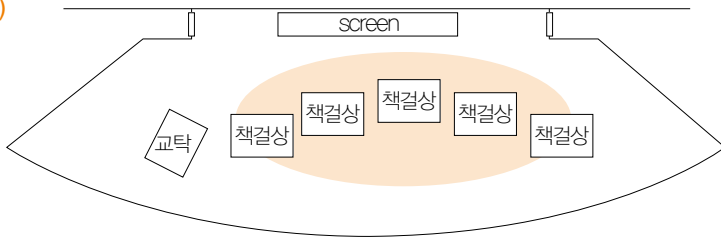
프롤로그 - 첫 출근

1막. 그녀들과의 만남

2막. 그녀들의 사연

3막. 담장 밖 인성교육

장소(무대)



무대는 교도소 인성교육실로 표현된다. 무대 뒤 벽면 중앙 상단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스크린 왼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교정’이란 글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다. 무대에는 5개의 책걸상과 교탁이 있고 교탁 위에는 노트북, 리모컨, 포인터가 있다. 2막 그녀들의 사연에서 무대는 사무실, 작은방, 공원, 마트사무실, 거실 등으로 표현되어 진다. 2막 무대는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책걸상을 이용하여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책걸상이 사무실 책상과 식탁, 제

사 탁자가 되고, 의자들이 식탁의자, 공원벤치가 되어 표현된다.

시간

현재.

등장인물

- 홍석준(남, 32세) 교도소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 예쁜이(여, 28세) 밤무대가수 - 성폭력 피해자 (죄명: 살인)
- 오투기(여, 47세) 가난과 빚 독촉으로 아들과 자살시도 - 혼자 살아남. (죄명: 살인)
- 딸그만(여, 63세) 아들을 대신 교도소 입소. 정신이상증상 (죄명: 살인)
- 최가면(여, 24세) 왕따의 충격으로 허언증 환자 (죄명: 상습사기)
- 똥똥이(여, 22세) 미혼모, 상습적으로 분유 등 절도 (죄명: 상습절도)
- 남 1, 2, 3 교도소장, 교도관, 두목, 뜰마니, 구매남, 남편, 민석, 현수, 보안요원, 승호 (1인 다역)

프롤로그

어두운 무대. Down center에 조명이 떨어지면 교도관 정복을 입은 홍석준의 모습이 보인다.

홍석준 (거수경례를 하고 우렁차게) 신고합니다. 교위 홍석준은 2015년 5월 15일부로 희망교도소 사회복귀과 근무를 명받아 이에 신고합니다.

(소리) 그래요. 반갑습니다. 홍석준 교위는 전공이 뭐라고 했죠?

홍석준 (큰소리로) 네 임상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소리) 그렇게 큰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군대 아닙니다. (웃음) 교도소라는 공간이 단순히 수용자를 가둬 놓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죠. 뭐! 전공자니까 잘 아실 겁니다.

홍석준 (큰소리로) 네! 알고 있습니다.

(소리) (웃음) 군대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홍석준 교위는 강의 경험이 있으세요?

홍석준 (큰소리) 네 자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긍정심리학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자들이 행복한 삶을 계획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리) (웃음) 역시. 전공자라 다르군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나가 보세요.

홍석준 거수경례 후 씩씩하게 퇴장. 압전 후 음악.

1막 - 그녀들과의 만남

음악 후 조명 밝아오면 여성수형자들이 들어온다. 딸그만, 최가면은 자리에 앉고 예쁜이, 오투기, 똥똥이는 주변에 서 있다.

예쁜이 얘기 들었니? 오늘 강사는 신입이래. 나이도 어리고 잘 생겼다고 하던데.

똥똥이 언니. 진짜예요?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남잔데. 잘 생겼으면 좋겠다.

예쁜이 애기 딸린 가시네가 무슨 관심이래? 잘 생겼으면 내꺼다. 모두들 알았지?

딸그만 (어린이이 말투) 애들아. 콩 한쪽도 나눠 먹는데 우리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래야 더 맛있지! 안 그래?

최가면 할매. 또 정신 나갔어요? 우리 할매 또 왜 이런데.

딸그만 배고파서 그래. 그 녀석 내가 먹어버릴까? (웃음)

최가면 할매! 그만 좀 하세요.

오투기 그런데 생전 교육도 안 하더니. 무슨 교육을 한다고 야단 이래.

똥똥이 이것이 다 최언니 때문이라니까요?

오투기 최가면 뭐 어쨌다고?

최가면 제가 법무부에 투서를 써냈죠! 남자수형자들은 날마다 교육이다 문화 프로그램이다 좋은 것은 다 해 주면서 우리 여자수형자들은 차별하잖아요.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거라고 했더니, 이번 달부터 교육 진행한다고 답변이 왔더라구요.

오투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년 때문에 여기 불러 왔단 말이야? 썩을 년아 이런 것은 차별해도 돼야~! 징역에서 뭘 교육이여. 교육은!

최가면 이모! 여성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동생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 덕에 남자 냄새도 맡아보고 좋잖아요. 거기 다 잘 생겼다고 하잖아요. 오랜만에 안구정화 좀 하자구요.

오투기 잘 생겼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데... 못 생겼으면 최가 니년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예쁜이 이년들이 내꺼 라니까. 무슨 관심이 이렇게 많아? 관심 꺼라~!

오투기 나이도 어린 게 맨날 반말하고 지랄이야. 야 이년아 혀가 왜 그렇

게 짧아? 내가 확 뽑아서 늘려 줄까?

예쁜이 아이고 무서워라~! 언니... 년아~! 징역에 나이가 어딴니? 징역
잠밥 얼마나 쳐 먹었다고 지랄이야. (예쁜이가 윗옷 팔을 걷으면
양쪽 팔에 용꼬리 문신이 보인다.) 언니... 년아~! 한 판 뜰까?

오투기 네가 오늘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구나.

오투기는 의자를 집어 들어 예쁜이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 한다. 예쁜이는 어이없다는 듯 오투기를 노려본다.

예쁜이 그래. 던져라. 오늘 구급차에 실려 나가 바깥 구경 좀 해 보자.

딸그만 (일어서서 어린이처럼) 애들아! 또 징벌실에 끌려가서 살아 봐야
정신 차릴래? 사이 좋게 지내야지! 교도관 언니들한테 이른다.

최가면 (딸그만을 의자에 앉히며) 할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이래~!

딸그만 언니는 나한테 왜 그래~ (오투기, 예쁜이를 가리키며) 재네들이
지금 싸울라고 하잖아. 재들 야단쳐야지.

똥똥이 우리 할머니 그분이 또 오셨네. 똥들해요? 의자를 던지려면 던지
고 주먹을 날리려면 날려서 결판을 내야죠?

딸그만 맞아, 맞아. 애들아 싸움은 선빵이야. 먼저 날려버려.

오투기 (딸그만을 쳐다보다 의자를 놓고 예쁜이의 시선을 피하며) 최가
야 니년 때문에 저 아픈 할매까지 된 고생이냐? 교육은 뭐 교육이
여! 나는 관구주임한테 얘기하고 이 교육 빠져야겠다.

오투기 나가려고 하는데 교도관과 홍석준이 함께 무대로 등장한다. (홍
석준도 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있다.) 여성수형자들은 재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 앉고 오투기도 교도관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는다. 여성수형자들은 무대 왼쪽부터 예쁜이, 딸그만, 최가면, 똥똥이, 오투기 순으로 앉는다.

딸그만 (최가면을 향해) 언니야! 맛있게 생겼다. 잘 생겼다.

최가면 (딸그만을 잡으며) 췌. 가만히 좀 있어요. 교육 시작했어요.

똥똥이 (오투기에게) 내가 보기에는 영화배우 원빈처럼 잘 생겼는데.

오투기 저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뭐? 원빈! 너는 눈에 무좀 걸렸냐?

교도관 음! 음! 여러분. 조용히 좀 하세요. 오늘부터 20주 동안 인성교육 진행을 맡아주실 홍석준 교위님입니다. 홍교위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해 주실 거니까 잘 듣고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홍교위님 부탁드립니다.

교도관 퇴장한다. 홍석준이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트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니 화면에 “나에게 떠나는 여행”이라는 타이틀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여성수형자들은 스크린을 보듯이 정면과 홍석준 얼굴을 번갈아 보며 기대에 찬 눈을 하고 있다.

홍석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20주 동안 인성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위 홍석준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홍석준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한다. 예쁜이와 똥똥이가 박수를 힘껏 치자 다른 여성수형자들 박수를 따라서 친다.)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박수를 칠 수 있는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 인성교육 주제는 나에게 떠나는 여행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미래에 어떤 모습을 그려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며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이 손에 든 포인터를 눌러 스크린을 다음 페이지로 넘긴다. 스크린에는 하얀 여백에 검은 점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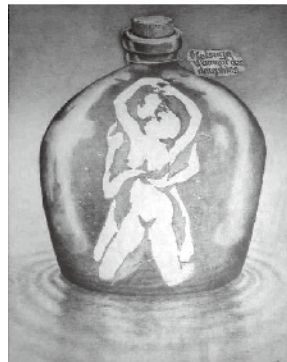
홍석준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여성수형자들은 화면을 쳐다보듯이 객석을 향해 정면을 본다.

최가면 저기요! 선생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검은 점 아닌가요?

홍석준 (웃음) 모두들 검은 점만 보이세요? (모두들 끄덕인다.) 아쉽군요. 저렇게 넓은 하얀 여백은 못 보고 작은 점만 보시다니. 그렇습니다. 우린 살면서 많은 것을 보지 못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인성교육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지나쳐 온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석준이 포인터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스크린에는 하얀 여백에 물병처럼 보이는 그림이 나타난다. (아래 참조) 여성수형자들은 무슨 그림을 쳐다보며 소곤거린다.



홍석준 이번에는 여러분의 동심을 테스트하는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예쁜이를 가르키며) 뭐가 보이세요?

예쁜이 부끄럽게 꼭 그걸 말해야 돼요?

최가면 언니 그게 뭔데?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오투기 아이고, 최가면이 또 연기 시작하고 있네. 딱 보면 모르겠냐? 거시기잖아. 거시기.

풍뎡이 거시기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딸그만 너희들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남자랑 여자랑… 그런거 있어! 애들은 몰라도 돼.

홍석준 여러분은 저 그림을 보며 모두들 그것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이 그림을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보여 주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 그림을 보며 ‘선생님 물병 안에 돌고래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투기를 가르키며) 왜 그럴까요?

여성수형자들, 그림 속에서 돌고래를 찾아보려 하지만 못 찾는다.

오투기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왔는데 별걸 다 물어보네. 아무리 봐도 나는 거시긴데.

홍석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리죠! 사람그림 안에서 검은색만 봐 보세요? 이젠 뭐가 보이세요?

풍뎡이 맞네. 돌고래 맞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총 아홉 마리가 있네.

다른 여성수형자들도 저마다 돌고래를 찾았다는 반응을 보여 준다.

홍석준 왜 우리는 돌고래를 먼저 찾지 못 했을까요?

모두들 (조용)

홍석준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 그림에 나오는 그것에 대한 시각적 경험이 있고, 어린 아이들은 돌고래에 대한 경험만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지배했던 나쁜 경험이나 생각을 버리고 이제부터 다른 경험을 통해 좋은 생각을 만들어야겠죠?

최가면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달라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홍석준 자신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룹니다. 읽고 있는 책을 바꿔야 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을 바꿔야 하고, 가는 길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정답은 저와 만나는 시간 속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시겠어요?

오투기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할까요?

홍석준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뭔지 알죠?

모두들 네.

홍석준 우리 뇌는 습관을 기억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습관을 기억하는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젓가락질을 다시 배워야 하겠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0주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책을 읽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매일 같이 책을 읽는 것을 10주 동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겠죠? 일주일 동안 내용도 모른 채 무작정 읽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단어가 보이고 4주가 지나면 문장이 들어오고 두 달이 지나면 책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쁜이 정말 10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홍석준 못 믿으시겠다면 바꾸고 싶은 좋은 습관을 정해서 10주 동안 반복해 보세요.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 각자의 별명과 그 이유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를 가르키며) 저기서부터 말씀해 보실래요?

오뚜기 또 나부터 시키네요. 이 자리가 안 좋은가 보네. (웃음)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어~ 제 별명은 오뚜기입니다. 시장서 야채장사 했는데 억척스럽다고 사람들이 오뚜기라고 불렀어요.

홍석준 참 좋은 별명이군요. 다음 분. (똥똥이를 가르킨다.)

딸그만 저 언니는 보면 생각나는 거 있는데? (최가면을 보며) 언니야! 나 배고프다니까.

똥똥이 미친 할마시가! (딸그만을 노려보다 홍석준을 보며 자세를 바로 잡는다.) 그래요. 제 별명 돼지 맞아요. 똥똥하다고 언니들이 똥똥이라고 불려요.

홍석준 아. 그러세요. 음. (무슨 말을 하려다 찾지 못 하고) 다음분은... (최가면을 가르킨다.)

최가면 제 별명은 최가면이에요. 때와 장소가 바뀔때 마다 분위기에 맞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죠. 친화력이 좋다고 할까요.

오뚜기 아이고 얼척이 없네. 재는 허언증 환자처럼 맨날 거짓말만 해서

최가면이라고 부른답니다.

최가면은 전혀 아니라는 표정이고 홍석준은 오푸기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손짓을 하고 딸그만을 가르킨다.

홍석준 자. 다음 분 별명을 말씀해 주실래요?

딸그만 오빠. 우리 집에 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내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딸 좀 그만 낳으라고 딸그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배고팠어요.

홍석준 (이상한 느낌이지만 웃으며) 장난을 좋아하신가 봐요. 그 다음 분. (예쁜이를 가르킨다.)

예쁜이 선생님! 저 첫인상 어때요? 예쁘게 생겼죠? 내 남자친구가 예쁜이라고 불렀는데. 화장 안 한 얼굴이 예쁘다고 자주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생얼이에요.

홍석준 아... 예... 예쁜신 것 같네요. 그런데 별명이 어떻게 되시죠?

딸그만 (일어서서 예쁜이를 흉내내며) 오빠. 나도 생얼인데...

최가면 할매. 그만~! (예쁜이를 잡아당겨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르키며 홍석준에게) 할머니 여기가 조금 아프세요! 이해 좀 해 주세요.

홍석준 (최가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예쁜이에게) 아직 별명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쁜이 조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제 별명 예쁜이라고 해요.

홍석준 (예쁜이에게)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번호로 부르기 불

편하니까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별명을 불러드릴게요.
저기서부터 오뚜기님, 똥똥이님, 최가면님, 딸그만님, 예쁜이님
맞죠?

딸그만 오빠! 나는 수업시간에 오빠가 내 별명 계속 부를 줄 몰랐어요.
내 별명은 안 예쁘니까 하나로 바꿀래요. 내 별명 하나로 바꿔주
세요.

똥똥이 할마시가 별명이 하나면 나는 부처로 바꿀래.

홍석준 (어색한 웃음) 하나님하고 부처님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건 조금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별명으로 불러 드릴게요.

홍석준이 포인터를 누르자 스크린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글이 나타
난다.

홍석준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홍석준이 눈을 감으라고 얘기하면 여성수형자들은 모두들 눈을 감는
다. 명상음악이 흐른다.

홍석준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편안했던 자리가 어딜까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사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 있
습니다. (사이) 아주 편안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앞
으로 내밉니다. (사이) 잠시 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소중한 그 사람이 여러분에

게 속삭이듯 얘기를 들려줍니다. (2분이상 천천히 진행하며 대사가 끝나면 20초 이상의 시간을 둔다. 이후 명상음악은 아주 조용하게 흐른다.)

홍석준 자 여러분!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쭙볼까요? 최가면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최가면 중학교 때 교실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내 손을 잡아주며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 했어요.

홍석준 똥똥이님은요?

똥똥이 돌이 지난 아들의 모습을 만났어요. 그냥 엄마라고만 했어요. 지금 4살이겠네요.

홍석준 예쁜이님은요?

예쁜이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냥 웃어주었어요.

홍석준 오투기님은요?

오투기 (울음을 참으며 한숨) 저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홍석준 예. 그렇게 하죠. 딸그만님은요?

딸그만 오빠! 저는요 남편이랑 소풍갔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김밥도 정말 맛있었다. 아~ 김밥먹고 싶다. (최가면에게) 언니야! 김밥~! 김~밥~! 참치치즈김밥!

홍석준 (홍석준은 딸그만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손짓하고 다시 진행) 우리는 잠시 잠깐. 과거의 소중했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소중한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이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줘야 될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 안에서 찾아보세요. 인성교육이 모두 끝나는 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암전)

암전 후 박기영의 ‘선물’이란 노래의 전주가 나온다. 편곡을 통해 전주 부분은 무대전환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둔다.

2막. 그녀들의 사연(그녀들의 과거)

예쁜이가 박기영의 ‘선물’을 부르기 시작하면 조명이 서서히 들어온다. 무대 중앙에 예쁜이가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옆 탁자에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앉아 노래를 감상하고 있다. 두목 뒤에는 톨마니 둘이 서 있다. 노래가 끝나면 두목은 일어나 박수를 치고 톨마니들도 따라서 박수를 친다.

두목 (박수를 치며) 와우~! 정말 아름다운 노래야.

톨마니1 말씀드렸잖습니까. 형님. 저 가시네가 이태원 보보스에서 용문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형님.

톨마니2 보보스 메인 보컬이었을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형님.

두목 근데, 왜 지금 저렇게 요조숙녀가 되어 나타나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한다고 면접보고 다닌다냐?

톨마니1 그게 말입니다. 형님. 저 가시네가 남자가 생겼습니다. 형님.

두목 기둥서방이 생겼는데... 왜 돈 벌러 나왔다냐? 취미생활?

톨마니2 기둥서방이 아니고 형님. 어떻게 하다가 대학생들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그 남자에게 약속했습니다. 형님. 과거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톨마니1 사랑이 무서워요. 형님. 보보스 용문신이 저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님.

두목 야~ 눈물 난다. 눈물 나. 나도 저런 여자 만나야 되는데. 근디 왜

보보스 용문신이다냐?

폴마니 저 가시네 양팔을 보면 형님. 양팔에 용꼬리가 시작해서 용두마리가 형님. 온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형님.

두목 그래. (예쁜이를 보며) 어이 아가씨. 이리 와 봐~! 거. 뭐시냐! 용문신 좀 봐 봅시다.

예쁜이는 망설이다가 양팔을 걷어 용의 꼬리만 보여 준다.

두목 말귀를 못 알아 듣네. 용꼬리부터 용의 머리통까지 용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다고. 응?

예쁜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요?

폴마니 야! 너 순진한척 하는 거냐? 순진해 진거냐? 좋은 말로 할 때 웃통 벗어보라고.

예쁜이 가수를 뽑는 건가요? 아니면 접대부를 뽑는 건가요? 저는 노래하러 왔는데요.

폴마니 와~! 많이 변했네. 비키니 입고 노래 부르던 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알면서 왜 그래.

두목 아가씨. 여기가 동네 찻집도 아니고 요즘 7080 라이브 카페도 많이 달라졌어요. 뭔지 알잖아. 우리는 매출을 올려 줄 섹시하고 화끈한 사람 찾는다고요. 용문신 한번 보여 줘 봐. 혹시 알아? 페이를 올려쳐 줄지?

폴마니2 형님. 나이트 가수 접고 새 인생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형님.

두목 (헛웃음을 지으며 폴마니2를 노려보다가 뺨을 때리며) 이 새끼가

하는 것이 귀엽다고 이뻐해 주니까. 인자 나를 가르칠라고 하네.

тол마니2 (두목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형님.

두목 보기 싫으니까. 나가 새끼야.

тол마니2 (다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형님. (예쁜이를 보며 무대 오른쪽으로 퇴장)

예쁜이 아무래도 제가 여기를 잘 못 찾아 온 것 같네요. (тол마니2를 향해) 태훈아 같이 가자.

тол마니1 (예쁜이를 막아서며) 어딜 가려고 아가씨. 우리 형님 말씀 아직 안 끝났는데. 형님이 용문신이 보고 싶다고 하시잖아. 좋은 말로 할 때 옷통 벗어라.

예쁜이 휴~! 나도 좋은 말로 부탁할게. 그냥 나가게 해 주라.

тол마니1 이 쌍년이 용문신 껌딱을 벗겨서 형님방에 걸어놔야 정신을 차릴 라나. 벗어 쌍년아.

예쁜이 거지 발바닥 같은 소리하지 말고 비켜 새끼.

예쁜이는 тол마니1을 밀치고 나가려 하는데 тол마니1이 예쁜이의 팔을 잡아 당겨 양팔을 뒤에서 붙잡고 예쁜이의 얼굴 방향을 두목에게 향하게 한다.

тол마니1 (예쁜이 귀에 대고) 쌍년이 좋은 말로 한다니까. 용문신 보여 주고 끝냈으면 됐잖아.

형님 이년 어떻게 할까요?

두목 훌쩍 벗고 노래 부르던 년이 이제 와서 새 인생을 산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대학생 놈은 너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고 너

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예쁜이 (두목에게 침을 뱉으며) 내가 내 인생 새롭게 살고 싶다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는데?

두목 (침을 닦고 예쁜이 뺨을 때리며) 이 쌍년아. 네가 어떤 여자인지 오늘 내가 확실히 알려 줄게. (똥마니에게) 야! 이년. 내 방으로 보내.

똥마니는 반항하는 이쁜이를 끌고 왼쪽으로 퇴장하고 두목은 뒤 따라간다. 똥마니는 다시 무대에 나와 뒷짐을 지며 두목방을 지키고 있다. 두목이 욕을 하며 이쁜이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이라는 절규에 가까운 이쁜이의 소리가 들리다가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피 묻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예쁜이.

예쁜이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데. 왜 자꾸 방해하냐구 이 거지같은 새끼들아!

예쁜이의 모습을 본 똥마니는 급히 두목방으로 뛰어 가고 압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소리) 본 법정은 피고 신미경에게 징년 4년을 선고한다. (음악)

음악 후 무대 왼쪽 조명 밝아 오면 최가면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마우스를 만지고 있다.

최가면 (노트북을 보는 것을 멈추고 객석을 보며) 저는 세상 밖이 제일 무서워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일 친했던 윤정이 마저도 친구들과 합세해서 저를 왕따를 시켰죠. 이유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중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는 늘 혼자였지요. 그러다가 많은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저의 소중한 친구들은 (노트북을 가르키며) 모두 이 안에 있어요. (다시 노트북을 쳐다보고 노트북을 만지며) 어머! 가시네. 또 영국 갔다 왔네. 히히. 사진 좀 빌릴게. (키보드를 치며) 런던의 버스 표지판을 볼 때마다 느껴져요. 참 런던스런 표지판. 타워브릿지 또 만나요. (객석을 쳐다보며) 방금 영국에 다녀왔어요. 냄새나는 똥물마저도 아름다웠던 템즈강 사진과 템즈강을 알리는 버스 표지판 사진을 올렸죠! (알림소리) 와우! 반응이 바로 오네. (키보드를 치며) 선희야 오랜만이야. 영국에 갔다가 3일전에 한국에 왔어. 낭만적인 템즈강 또 가고 싶다.

전화벨 소리

최가면 여보세요?

무대 오른쪽 조명이 들어오면 구매남이 책상 위의 노트북을 보며 최가면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구매남 여보세요. 최연희씨 핸드폰이죠?

최가면 맞는데요! 누구시죠?

구매남 맞으시구나. 얼굴도 예쁘시던데. 히히 중고나라에 태블릿 올리셨잖아요.

최가면 아! 그거요! 제가 몇 개월 사용 안 했는데 사촌오빠가 신상 태블릿을 선물해 주셔서... 태블릿이 두 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는 판매하려고요. 그거 새것이나 다름없다구요!

구매남 연희씨 만나서 얘기하죠. 물건값은 88만 원 맞죠? 조금 깎아 주시면...

최가면 네고는 절대 안돼요. 그거 중고나라 어디를 가도 구입하기 힘든 가격이라구요. 할머니 생신 때문에 천안에 가야 하는데 지금 입금하시면 편의점 택배로 바로 보내 드리고 영수증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칠순인데 꼭 사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거든요. 지금 구매하신다면 80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구매남 아~ 저는 연희씨 만나 물건 보면서 구매하고 싶은데... 함께 올린 사진 본인 맞죠. 진짜 예쁘시다.

최가면 할머니 만나러 천안에 갔다 와서 이번 주말에 만나죠. 제가 커피는 사 드릴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럼 지금 물건 구입하시는 거죠?

구매남 마음도 정말 착하시다. 할머니 생신 챙겨 드릴려구 아끼시는 물건도 파시고... 제가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우리 이번 주에 꼭 만나서 커피 한 잔 해야 해요.

최가면 어머~! 고마워요. 제가 토요일 오전에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매남 아니요. 연희씨. 제가 더 감사해요. 물건 잘 쓸게요. 그럼 천안 잘 다녀 오세요.

최가면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는다)

구매남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전화기에 뽀뽀한 후) 오~예쓰~!! 오~예쓰~!! (구매남 조명 아아웃)

최가면 남자들은 멍청하다니까. 착한 척 예쁜 척하면 안 통하는 게 없단니까. 이제 또 무슨 물건을 팔아볼까? DSLR 카메라도 팔아야 하고 자전거도 팔아야 하는데. 히히. 자동차도 한번 팔아 볼까? 뭐! 못 팔 거 없지! (일어나 퇴장하며) 멍청한 남자 한 명 찾아볼까?

암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

(소리) 본 범정은 피고 최연희에게 징년 2년을 선고한다. (음악)

음악 후 조명 밝아오면 무대는 병풍이 펼쳐져 있고 병풍 앞에는 제사탁자가 놓여 있고 제사탁자 위에 촛대가 놓여져 있다. 딸그만은 제사탁자를 닦고 있는데 남편이 무대에 등장한다.

딸그만 오늘 아버님 제삿날인데, 오늘 같은 날 어딜 다녀오시느라 이렇게 늦으세요.

남편 뭘 참견이야.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아직도 상 안 차리고 뭐해? 영수증은 받아 왔어?

딸그만 (앞치마에서 영수증을 꺼내 준다.) 여기요. 일부러 마트 안가고 동부시장에서 물건 사왔어요.

남편 뭘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 이딴 거 사는데 20만 원이나 들어? 당신 한 달이면 몇 번씩 하는 혈액투석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한 푼이라도 아낄 판에 쓸데 없는 데 펍펍 쓰고 다녀?

딸그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상한테 잘 해야 우리 민석이가 조상복을 받아 더 잘 되죠!

남편 여기서 민석이 얘기가 왜 나와~! 남의 새끼들은 지 애비들한테 손 한번 안 벌리고 잘만 사는데. 그 높은 정신 차릴려면 아직 멀었어.

딸그만 민석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당신도 민석이 믿고 이제 그만 그 가게도 물려 주시라구요. 우리 민석이기도 하면은 아주 잘 할거라구요.

남편 이 높은 함뭉이... 또 그 소리야.

민석이 무엇에 홀린 듯 한 멍한 눈빛으로 등장

민석 저 왔어요!

딸그만 어. 민석이 왔니? 무슨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민석 아뇨. 별일 없어요. 저 배고파요.

딸그만 그래. 배고프지. 기다려. 내가 먹을 것 좀 내 올게. (딸그만 퇴장)

민석 (딸그만이 퇴장하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남편 다짜고짜 뜯금없이 무슨 소리야?

민석 허과장에게 얘기 들었어요. 만나고 다니는 그 아줌마한테 돈 퍼다 준 것도 모자라서 가게까지 넘길 준비하고 있다구요?

남편 뭐가 어째! 무슨 헛소리야.

민석 아픈 엄마 외면하고 여시 같은 아줌마 꼬임에 넘어가 바람피고 다니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남편 이~! 미친새끼가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서 지랄이야.

딸그만은 부엌에서 나와 민석이의 팔을 잡아당기며 싸움을 말리려고 한다.

딸그만 민석아~! 왜 그래! 오랜만에 집에 찾아와 이게 무슨 일이니? 잠깐 방에 들어가 있자.

민석 이것 놓으세요. 엄마는 왜 맨날 가만히만 계세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딸그만 민석아. 그만해. 제삿날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민석 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엄마 아픈 거 이렇게 키울 필요까지 없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엄마 아픈 거 돌봐 주신 적 있어요? 해 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처자식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역겨운지 아세요?

남편 (아들의 뺨을 때리며) 이 자식이 어디서 큰소리야. 네가 뭘 알아? 밥을 굶고 다녔어? 옷을 벗고 다녔어? 이정도 하면 됐지? 뭘 더 바래!

딸그만 (남편을 말리며) 여보. 그만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석이 녀석 잘 챙기지 못 해서 그래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만하세요. 제발요.

남편 저리 비켜! (딸그만은 남편의 뿌리치는 팔에 쓰러진다. 쓰러진 딸그만을 발로 차며) 여편네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돈만 축내고 아들새끼를 저탄 식으로 키워 후~! 네가 저렇게 감싸고 도니까 애새끼가 병신처럼 다니지.

민석 (남편을 밀치며 쓰러뜨려 계속 주먹질을 하며) 이제 제발 엄마 좀 그만 때리라고.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돌아봐 준적 있어? 엄마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 한마디 건넨 적 있어. 그러고도 아버지야?

몸을 일으킨 딸그만은 민석을 밀치며 남편의 몸을 붙잡고 남편을 부른다.

딸그만 여보! 여보 민석 아버지.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딸그만은 남편의 호흡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일어난다. 민석에게 다가가) 민석아 일어나~! 너네 집으로 가~! 너 여기 없었던 거야. 어서 일어나서 너희 집으로 가. 어서 가라고. 가~~! (딸그만이 민석을 현관으로 밀치고 민석이는 딸그만을 쳐다보다 퇴장)

암전후 경찰 사이렌 소리

(소리) 본 법정은 피고 윤행란에게 징년 5년을 선고한다. (음악)

음악 후 무대 밝아오면 의자 2개가 공원 벤치처럼 놓여 있고 의자에는 똥똥이와 현수가 앉아있다.

똥똥이 (술에 취해 있다.) 현수야. 나 오늘 동아리 첫 모임이라 완전 기대했는데. 뒷 풀이할 때 네가 내 앞에 앉았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현수 (술에 취해 있다.) 소영아 나두. 너 만날려고 아침부터 가슴이 설
렸나 보다. 히~! 넌 날씬해서 너무 이뻐! (똥똥이는 똥똥하다.) 완
전 내 이상형이야.

똥똥이 현수야 우리 너무 잘 통한다. 나 이제부터 더 많이 행복해질 것만
같아.

현수 날씬해서 더 이쁜 소영아! 내가 행복하게 해 줄까?

똥똥이 그래. 나 행복하게 해 줘.

현수 이 세상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가르
쳐 줄까?

똥똥이 어? 그래.

현수 집에 가서 거울을 봐.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히히히.

똥똥이 그럼 나네.

현수 (현수 똥똥이 머리를 붙잡고 뽀뽀를 한다.) 소영아 사랑해. 완전
히 사랑해.

똥똥이 나도 사랑해.

현수와 똥똥이가 포옹을 하면 압전. 전화벨 소리. 어둠 속에서 통화.

현수 여보세요?

똥똥이 현수야 나 소영이.

현수 어? 그... 그래 오랜만이다. 근데 무슨일이야?

똥똥이 있잖아~ 저기~ 나 임신이래.

현수 뭐? 모... 몰라! 나 기억에 없어. 전화 끊어. (뚜~뚜~뚜~)

어둠속에서 애기 태어나는 울음소리 들리고 조명 밝아오면 똥똥이가 애기 포대기를 매고 보자기에 싼 물건을 옆구리에 숨기고 무대 앞을 지나는데 뒤에서 마트 보안요원이 부른다.

보안원 아줌마! 저랑 잠깐 저기 좀 가시죠?

똥똥이 저? 저요. 왜죠?

보안요원이 똥똥이를 끌고 무대 반대쪽으로 간다.

보안원 어이~! 아줌마 여기서 사실대로 말하시죠?

똥똥이 뭘요? 뭘 사실대로 얘기해요?

보안원 아줌마 그거 안에 숨긴 거 뭡니까? 사실대로 말하시죠!

똥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안원 아줌마 이리 와 봐요!

보안요원이 똥똥이의 보자기를 잡아 당기자 스틱분유박스와 치즈, 우유 등이 바닥에 떨어진다.

보안원 아~놔~! 이 도둑년아. 야 이년아 너 몇 번째야. 너 처음 아니지?

똥똥이 처... 처... 처음이에요. 아저씨 한 번만 봐 주세요. 애기가 며칠 굶어서 그랬어요.

보안원 능력이 안 되면 애를 싸 지르지 말았어야지. 요즘 물건이 많이 없어진다고 했더니. 다 네가 훔쳐 간 거지?

똥똥이 (소리치며) 야~! 누구는 싸 지르고 싶어서 싸 질렀냐. 애가 뱃속

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들어봤어?

보안원 이거 완전 톨아이구만. 긴말 할거 없고 경찰서 가자고!

똥똥이 (보안요원 바지를 붙들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에게는 세끼 밥 먹는 것도 힘든 세상이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보안원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너 같은 도둑들 때문에 지금까지 마트 손해액이 100만 원이 넘었거든. 100만 원만 주면 내가 경찰에 신고는 안 할게.

똥똥이는 붙잡고 있는 보안요원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일어난다.

똥똥이 (쓰러진 보안요원을 보며) 미친놈아! 내가 그 돈이 있으면 이 지랄하고 있겠니?

똥똥이는 도망치며 퇴장하고 보안원이 똥똥이를 쫓으며 퇴장한다.

보안원 너 거기 안 서!

무대 암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

(소리) 본 법정은 피고 신소영에게 징년 2년을 선고한다. (음악)

음악 후 조명 밝아오면 무대에 식탁이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물병과 유리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포함된 복합

중증장애를 겪어 몸이 많이 불편한 20대 중반 승호가 식탁 옆 휠체어에 앉아 혼자서 비행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

승호 적들이 나타났다. 내 미사일을 받아라 피웅~! 승~~~~웅! 평~! 뚜두두~ 뚜두두~! 어딜 도망가는 거냐? 초고속 로켓미사일 발사 피웅~!! 우하하하하. 모두 덤벼라.

오투기 (통닭 봉투를 들고 등장) 승호야. 안녕~. 엄마 왔다.

승호 와~! 엄마다. 엄마~. 엄마~.

오투기 (승호 휠체어를 식탁 앞으로 옮기며) 어이구 우리 새끼 잘 있었어? 엄마가 뭐 사왔나 볼래. 궁금하지? 짜~짤~!

승호 우~와~! 통닭이다. 맛있겠다. 통닭. ㅎㅎ 맛있겠다.

오투기 (식탁에 앉아 봉투 속에 통닭을 꺼내며) 우리 아들. 뭐하고 있었어? 심심했지?

승호 지구를 지키고 있었지! 오늘은 나쁜 놈들이 초강력 무기로 공격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오투기 어이구. 그래. 오늘도 우리 승호가 지구를 지켜줘서 엄마가 시장에서 편하게 장사하고 왔네.

승호 그렇지! 내일도 모레도. 맨날 맨날 내가 엄마 지켜 줄게요.

오투기 (닭다리를 승호에게 건내며) 우리 새끼 많이 먹어라.

승호 엄마도 많이 드세요. ㅎㅎ

오투기 (봉투에서 소주를 꺼내 소주를 유리컵에 가득 따라 단숨에 마신다.) 너도 한잔 할래. 너도 스무살 넘은 어른인데 오늘 우리 아들과 한잔 해 볼까? (승호에게 유리컵을 건내 소주를 가득 채우고 소주를 한 병 더 꺼내 자신의 잔에도 가득 채운다.)

- 승호** 나도 어른이다. 술 마실 줄 안다. 많이 마실 수 있다. 흐흐.
- 오투기** (유리컵을 아들 손에 쥐어주며) 아들 우리 원샷하는 거야. 원샷이 뭔지 알지? 이거 다 마시는 거야. 자~! 건배!
- 승호** 건배~! (승호와 오투기는 잔을 부딪친 다음 유리컵의 소주를 모두 마시고 오투기가 머리 위에 잔을 터니까 승호도 불편한 몸으로 따라서 한다.)
- 승호** 카~~~! 카~~! 근데 엄마! 소주가 많이 쓰다. 흐흐 맛이 별로 없다.
- 오투기** 올 아들 잘 마시네.
- 승호** 엄마! 내일부터 술 말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 오투기** 우리 아들이 별거 다 물어보네. 엄마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는지 잊어 버렸다.
- 승호** 엄마. 나중에 생각나면 꼭 말해. 내가 다 사 줄게. 정말로 다~ 사 줄 거야.
- 오투기** (살짝 술 기운) 그래 아들. 고맙다. (웃음) 엄마가 맛있는 거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근데 아들. 엄마는 여기서 말고 천국에서 맛있는 음식 사 주면 안될까? (웃음)
- 승호** 천국? 엄마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거야?
- 오투기** 그럼. 우리 승호는 엄마한테 효도 잘하는 착한아들이고 엄마도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웃음)
- 승호** 근데. 엄마.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어?
- 오투기** 천국에 가고 싶다고 소원 빌고 잠을 자면 갈 수 있을 거야. (웃음)
승호야. 오늘 잠 자기 전에 소원 빌고 잘까?

승호 오늘? 이제 기찬이 하고 못 놀아?

오투기 천국에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어.

승호 천국에 가도 사람들이 나 싫어할 텐데.

오투기 아니야. 우리 승호도 천국에 가면 다른 애들처럼 건강해 질 거야.

승호 우와~! 정말이야. 나도 다른 애들처럼 뛰어다닐 수 있어?

오투기 그렇다니까. 우리 승호 오늘 자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소원 빌면서 자자.

승호 영. 엄마도 천국 가고 싶다고 소원 꼭 빌어야 해요.

오투기 그래. 아들. 엄마랑 함께 천국에 꼭 가자.

승호 (하품) 엄마. 나 졸려. 갑자기 졸리네.

오투기 술 마셔서 그런가보다. 우리 소원 빌자.

오투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승호랑 저랑 천국에 보내 주세요.

승호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엄마랑 나랑 내일 꼭 천국에 보내 주세요. (하품)

승호가 두 손을 모은 채 휠체어에 기대어 서서히 잠이 든다.

오투기 (잠든 승호를 보며) 승호야.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다. 집주인은 나가라고 그러고 빚은 점점 늘어나 감당하기도 힘들고, 가게에는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다.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오투기는 승호를 바라보다 퇴장을 한다. 다시 입장하는 오투기는 빈 페인트통과 번개탄 묶음을 들고 들어와 식탁 앞에 놓는다.

오투기 (자는 승호를 보며) 승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를 용서 해줘.
(흐느낀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정말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엄마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게.

오투기는 울면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빈 페인트 통에 집어넣는다. 식탁
으로 돌아와 앉은 오투기는 소주잔에 소주를 채운 다음 한꺼번에 마신다.

오투기 (승호를 보며) 승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일 깨어난 곳이 천국이
면 좋겠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승호랑 저 꼭 천국에 보내 주세요.

오투기 의자에 기댄 채 서서히 잠이 들면 암전 후 앰블런스 사이렌 소리.

(소리) 본 법정은 피고 김선숙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음악)

3막. 담장 밖 인성교육

음악 후 조명 밝아오면 다시 인성교육실이다. 여성수형자들은 모두 자
리에 앉아 있고 홍석준 교위를 기다리고 있다.

예쁜이 (한숨) 오늘이 교육 마지막 날이네.

똥똥이 언니도 많이 서운하죠? 저도 많이 서운하네요.

최가면 시간 정말 빠르다. 20주가 벌써 다 지난거야?

딸그만 그 빌어먹을 놈은 맨날 김밥 사 온다면서 김밥 안 사와! 썩을 놈.

오투기 그동안 뜬 구름 잡는 것처럼 어렵기도 했는데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거 같아.

예쁜이 언니 말이 맞아요. 교육을 듣는 동안 달라져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가면 예쁜이 언니 많이 달라졌네. 오투기 언니한테 언니라고 하고, 이게 다 내덕인거 알지?

똥똥이 그래 언니! 고맙다 고마워. 교육기간 짧다고 투서 한 번 넣지 그래. (웃음)

딸그만 그 썩을 놈은 오늘도 김밥 안 사올 거야! 김밥 사 오라고 투서 넣어.

홍석준 (등장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홍석준 (노트북을 열며) 그래요. 안녕하세요.

딸그만 (조용히) 독한 놈. 김밥을 끝까지 안 사오네.

최가면 할매. 수업 시작했어요.

홍석준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누며 교육을 시작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음. 지난주에 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과거를 꺼내보는 시간이었죠?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투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내 욕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홍석준 아닙니다. 반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고 출발선에 다시 서보자는 뜻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딸그만 오빠. 그때 내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인거 알지? 배고파서 헛소리한 거야. 끝까지 김밥 안 사오고, 오빠 나쁘다.

홍석준 그럼요. 다 거짓말인거 알죠. 이 곳이 음식물 반입금지라서 김밥

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 좀 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수업 알차게 진행해 볼까요?

모두들 예.

홍석준이 프로젝트 리모콘을 누르니 스크린에는 ‘지금부터 10초 내로 슬퍼지세요. (감정)’, ‘지금부터 10초내로 슬픈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 ‘지금부터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행동)’이란 글이 세 줄로 나타나 있다.

홍석준 여러분과 저의 다른 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달라서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 있고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어찌면 저도 수의를 입고 가슴에 번호를 달고 인성교육을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탁 하나 드릴까요? 지금부터 10초 내로 슬퍼져 보세요.

여성수형자들 슬픈표정을 지어보이려 하지만 쉽지 않다. 10초가 지난다.

홍석준 그러면 지금부터 10초 내로 슬펐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성수형자들 슬픈기억을 떠올리려 한다. 10초가 지난다

홍석준 지금부터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여성수형자들은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인다.

홍석준 자! 저기 세 가지 중 뭐가 제일 쉬우세요.

모두들 오른손 드는 거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대답한다.)

홍석준 그렇죠! 오른손을 드는 게 가장 쉽죠. 오른손을 드는 게 행동이었고, 슬퍼지는 것과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감정과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정리한 다음 행동을 해야 하는데 행동부터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가면 저희들도 머리가 있는데 행동부터 하진 않죠? 다 생각하고 행동한다구요.

똥똥이 맞아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구요. 생각 끝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거라구요.

홍석준 맞습니다. 생각을 했다면 두 가지 결론을 두고 고민할 것입니다. 행동할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오투기 그렇기는 하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홍석준 행동할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이 순간 우리는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나 쉬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생각과 감정은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되고 쉽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선택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몇 년 전에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을 사랑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선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쁜이 그럴 것도 같네요. 제가 휘두른 방망이가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죽여 버려야 한다는 분노만이 남아있었거든요. 생각이라는 걸 깊게 했더라면 멈출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똥똥이 맞아요. 저도 제 아이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체면 따위는 버리고 보호시설에 들어 가서 아이를 굶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홍석준 그렇죠! 그래야 했었어요. 앞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멀리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해 볼까요? 행복을 자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석준이 포인터를 누르자 화면에는 ‘행복한 삶 만들기’라는 글이 나타난다.

최가면 글썄요.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해 지려나.

딸그만 참치치즈김밥.

똥똥이 아들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겠죠

예쁜이 큰소리로 노래 부르면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오투기 행복이 뭐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이죠!

홍석준 많은 분들이 정답에 가까우시네요. 우리가 행복을 자주 경험하려면 물질이 아닌 것에 행복을 찾아야 하고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만 원이 넘는 시계를 찰 필요가 없고, 출퇴근을 위해서 수입외제차가 필요 없는 법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명품시계, 명품백, 수입차가 남의 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지, 사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이 여러분을 위한 삶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느낄 수 있었던 기쁨을 찾아볼까요? 똥똥이님 대답해 보실래요?

똥똥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요. (웃음)

홍석준 이곳에서는 반강제적이지만 일과 시간표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니 나쁘지는 않네요. 다음은 딸그만님 말씀해 보실래요?

딸그만 오빠 저는 광복절날 특식으로 삼계탕 나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홍석준 그렇죠. 딸그만님은 과거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과거에는 사소한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이곳에 들어와서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겠네요. 그 다음 최가면님은?

최가면 이곳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느낀건데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구요.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 볼려구요.

홍석준 잘 하셨네요. 이곳에서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었네요. 꼭 대입검정고시까지 합격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예쁜이님은요?

예쁜이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홍석준 맞습니다. 함께 지낼 때는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 하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깐 그 소중함이 크게 다가오죠. 출소하시면 지금의 마음 잊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다음 오투기님.

오투기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운동장 구석에 핀 들꽃만 봐도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낙엽이 물들어 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자신을 많이 사랑할수록 자연의 변화가 더 자주 느껴진답니다. 우리는 방금 교도소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해 간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부탁 하나 드리죠. 우리 미친 사람처럼 30초간 크게 웃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홍석준이 먼저 크게 웃고 여성수형자들은 어색하게 웃다가 서로를 보며 점점 크게 웃는다.

홍석준 (웃음) 웃으니까 어떠세요?

최가면 처음에는 웃는 게 부끄럽고 어색했는데 막상 웃고 나니까 기분이 시원해 지는 것 같은데요.

이뿐이 오랜만에 크게 웃는 것 같네요. 아~ 배아퍼. (웃음)

홍석준 우리 몸에 웃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란 신경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물질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고 행복을 느끼게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란 신경물질은 바보 같아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가짜로 웃었을 때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

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되도록 크게 웃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시겠죠?

모두들 네.

홍석준이 포인터를 누르자 스크린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글이 나타난다.

홍석준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난 첫 시간에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모두들 네.

홍석준 오늘 그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 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줘야 할지 그 정답은 찾으셨겠죠? 모두 눈을 감아 보세요.

홍석준이 눈을 감으라고 얘기하면 여성수형자들은 모두들 눈을 감는다. 명상음악이 흐른다.

홍석준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편안했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사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 있습니다. (사이) 아주 편안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사이) 잠시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줍니다. (이후 명상 음악은 좀 더 조용히 흐른다.)

홍석준은 오투기에게 다가가 옆에서 오투기가 내민 손을 잡는다. 이 때부터 홍석준은 여성수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연기를 한다.

홍석준 (승호연기) 엄마! 나 승호야! 나는 천국에서 친구들과 뛰어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어!

오투기는 놀라서 몸이 굳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홍석준 오투기님, 승호가 찾아왔네요. 무슨 얘기를 들려주실래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소중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자! 오투기님.

오투기 (망설이다가) 승호야, 엄마를 용서해 줘. 해 줄 말이 그것 밖에 없다. (흐느낀다.)

홍석준 (승호연기) 엄마, 나는 괜찮아!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는 천천히 와.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아.

오투기 그래 승호야. 엄마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 가려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

홍석준 (승호연기) 그래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동안 잘 지내.

홍석준은 오투기의 손을 놓고 똥똥이에게 다가가 옆에서 똥똥이가 내민 손을 잡는다.

홍석준 (민수연기)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해요.

퐁퐁이 그래 민수야.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겠네. 엄마 얼굴도 기억 못 하겠다. 엄마 곧 나가니까. 이제 민수한테 좋은 엄마가 될게.

홍석준 (민수연기) 엄마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거지?

퐁퐁이 그럼. 엄마는 항상 니 곁에서 늘 함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홍석준 (민수연기) 고마워 엄마. 우리 곧 만나요.

홍석준은 퐁퐁이의 손을 놓고 최가면에게 다가가 옆에서 최가면이 내민 손을 잡는다.

홍석준 (친구연기) 친구야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했던 것 같아.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자.

최가면 아니야. 내가 나를 너무 감추고 너희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내 잘못이 컸던 것 같아. 이제부터 나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 줄게.

홍석준 (친구연기) 그래 친구야. 우리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최가면 그래. 고마워. 나의 좋은 친구들을 위해 더 이상 나를 거짓으로 꾸미지 않을게.

홍석준 (친구연기) 그래. 너는 예전의 원래 너의 모습이 좋았어.

홍석준은 최가면의 손을 놓고 딸그만에게 다가가 옆에서 딸그만이 내민 손을 잡는다.

홍석준 (남편연기) 여보. 이게 얼마만이야. 오랜만에 소풍 나오니까 좋지?

딸그만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홍석준 (남편연기) 잘 지내지. 그런 걸 왜 물어. 여보 내가 많이 미안한 거 알지?

딸그만 다 잊었어요. 저두 죄송하네요. 민석이 아버지. 죄송해요.

홍석준 (남편연기) 미안할 거 없어. 다 내 탓이니까.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구려.

홍석준은 딸그만이 내민 손을 놓고 예쁜이에게 다가가 예쁜이가 내민 손을 잡는다.

홍석준 그 동안 왜 연락이 없었어?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예쁜이 나는 오빠가 나를 잊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오빠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게 두려워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홍석준 너를 어떻게 잊니? 나에게 너는 어떤 존재인데.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잊어.

예쁜이 오빠가 그런 얘기 하니까 나 진짜 바보 같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홍석준 우리 끝난 적이 없는데 뭘 다시 시작해. 마음 편히 잘 지내고 이 곳에서 나오면 꼭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홍석준은 예쁜이의 손을 놓고 교탁으로 돌아온다.

홍석준 자. 여러분.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만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 소중한 사람과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약속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제 교육을 마칠 시간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잠깐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비는 곧 그칠 거구요. 비가 내린 다음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실패만 하는 사람은 ‘젠장, 땅이 질척거리서 내 구두가 더러워지겠군.’하면서 불평만 늘어놓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늘 밤하늘은 정말 맑을 거야, 총총하고 밝은 별들을 보게 되겠군.’하면서 희망을 갖게 된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출소를 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담장 밖에서는 더 많은 행복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자 여성수형자들을 박수를 힘껏 친다.
(서서히 압전)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배우들 퇴장한다.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면 여성수형자들의 출소 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최가면은 대학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모습과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똥똥이는 유치원복을 입은 아들과 남편 현수와 찍은 가족사진과 동물원에서 찍은 가족사진이다. 딸그

만은 출소날 아들 민석과 포옹하는 사진과 김밥집에서 찍은 사진이다. (딸그만은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고 아들은 주방 옷을 입고 있다.) 오후 기는 ‘사랑의 봉사단’ 조끼를 입고 재활원에서 지체장애자를 목욕시키는 사진과 휠체어를 끌어 주며 산책하는 사진이다. 예쁜이는 홍석준과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찍은 사진과 전통혼례 결혼사진이다. 암전.



수상 소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진선



언제나 제 일에 응원해 주는 남편에게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밖에서는 제 일의 어려움을, 집에서는 육아의 고단함을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함께 나누고자 노력한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 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제게 글 쓰는 이유를 묻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재상)이 태어남에 따라 달라 보이는 세상을 제 시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을 써보고 싶었다구요.

아직은 초보지만, 이 때 초심을 잃지 않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남녀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평어

희곡

등장인물

배정자 젊은 날의 친일행각으로 재판을 받는 노인, 회상에서는 젊다.

이완용 한때는 젊은 배정자와 반목하였으나, 후에 친일파로 변절

고종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이범진 이완용과 한 때 뜻을 같이 한 동료

하야시 일본 공사

판사 늙은 배정자를 재판하는 판사

변호사 늙은 배정자를 변호하는 변호인

무대

무대 공간은 세 등분으로 맨 왼쪽은 재판장, 가운데는 텅 빈 공간이다.

맨 오른쪽은 탁자가 놓여 있고, 벽에는 문이 있다.

재판장 무대만 밝고 해당 무대에는 판사와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다.

이 때 늙은 여자(배정자)가 애국가를 부르며 입장한다.

배정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배정자, 만세 삼창 후 변호사 옆에 앉는다.

판사 (인상 쓰며) 피고 배정자!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오늘 뭇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몰라서 그러나?

배정자 글쎄요... 전 평상시에 즐겨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구요, 해해. 기분 나쁘셨다면 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너그روی 용서해 주시구려.

판사 (한심하게 쳐다보며) 오늘 우리는 민족을 저버리고 친일에 앞장선 널 재판할 것이다.

배정자 (손사래치며) 아이고, 판사님, 보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국자라구요.

판사 애국자라고? 아직도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구만.

이 때부터, 배정자는 약간 짜증내기 시작한다.

배정자 판사님은 자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이 뭔지 모르겠소. (관객을 향해) 닥들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슈? 말이 안 통하는 판사같으니라고! 변호사 양반, 어서 날 좀 꺼내주시오.

변호사 (자리에 일어서며) 위대하신 판사님! 지난번 공판에도 밝혔듯이 우리 피고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시다. 해방된 이후로 조용히, 그리고 착실하게 살아 왔으니깐요. 백번 양보해서 판사님 말씀대로 피고가 죄를 지었다손 칩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죄를 따진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관객을 향해) 여러분, 여러분한테 십년 전에 무단횡단한 거, 담배 핀 거, 침 빨은 거, 지금 처벌한다면

황당하겠지요? 하물며 우리 피고는 십 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오십 년 전 일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사를 향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엄연히 공소시효란 게 있습니다.

배정자 맞아요, 맞아. 말 한번 잘 꺼냈수. 이 늙은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특별법인가 뭘갈 만들어서 오십 년 전 죄값을 물으라고 하다니.

배정자는 감정에 북받쳐 서럽게 운다.

배정자 (갑자기 판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네가 누구 땀에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네 월급을 누가 주는지 아냐고! 그게 다 내가 낸 세금인 거야... 그런데 나한테 이러면 안되지... (관객에게) 정말 난 억울해요. 여러분도 저 판사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소?

판사 피고는 정말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배정자 그래. 당신이 뭐라고 떠들던간에, 난 아무것도 생각 안나!

판사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똑같지. 생각이 안난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니... 좋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얘기하마. 기억도 안난다는 오십 년 전 그 때 그 일을 말아야.

배정자 (고개를 가우뚱하며) 오십 년 전?

배정자, 생각에 잠긴다.

밝아진 무대에 젊은 남자(하야시)와 양장차림을 한 젊은 배정자가 서 있다.

배정자는 양산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지다가 양산이 없자 신경질을 낸다.

배정자 하필 이럴 때 양산이 없을 게 뭐람.

하야시 (굽신거리며) 데이코님, 아까 제가 말한 건 잊지 않으셨죠? 이 나라에 들어와 성과가 없어서 회장님 볼 면목이 없었는데... 이젠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입니다.

배정자는 가방에서 부채를 찾아 부채질을 한다.

배정자 (혼잣말) 빌어먹을... 이놈의 날씨는 왜이리 습한지... 오늘 맘먹고 차려 입은 블라우스가 내 팔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이래가지곤 폐하를 만날 때쯤 땀에 젖어 있겠네.

하야시 (사정하듯이) 데이코님!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배정자 다 들었어! 그건 회장님께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다고! 도대체 널 뭘 믿고 일을 맡기신건지 원. 내가 엄비마마의 조카를 구워삶지 않았더라면 여기 흠이라도 밝아볼 수 있었겠어? 한심한 놈.

하야시 (풀이 죽어)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외교관인 저도 겨우 폐하를 만나는데요... 하물며 여자인 데이코님이 무슨 명목으로 만나...

배정자가 하야시를 노려보자 하야시는 말끝을 흐리며 입을 다문다.

배정자 회장님께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고할 테다.

하야시 (손을 싹싹 빌며) 데이코님, 회장님겐 제발 비밀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일을 똑바로 할게요.

배정자 (다 알만하단 표정을 지으며) 하긴... 여기서 잘해야 너도 내각에
한 몫 챙기겠지. 이런 코딱지만한 공사자리에 만족하진 않을 테
니까.

하야시 하이, 하이! 회장님 옆을 보필할 수 있게 데이코님이 도와주신다
면 이 한 목숨 다 바쳐 데이코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야시는 90도로 고개를 숙여 배정자에게 굽신거린다.

이 때, 이완용과 이범진이 입장한다.

배정자가 부채로 하야시의 어깨를 재빨리 치자, 하야시는 아무 일 없었
던 것처럼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이 모습을 보고 이완용과 이범진은 귓속말을 주고받는다.

이범진 저 남자가 이번 공사인 하야시라네.

이완용 옆에 여자는 누구랍니까?

이범진 아, 하야시가 말이 서툴러 고용한 통역이라더군.

이완용 역관을 여자로 쓰다니. 저 여자 능력이 뛰어난건지, 왜놈들 능력
이 부족한건지... 정말 희한하군요. 그건 그렇고... 초대도 안했는
데 재네들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범진 정확하게는 모르네만, 엄비마마께서 불렀다는군.

이완용이 위아래로 배정자를 훑어본다.

배정자는 기분 나빠 신경질적으로 부채질을 한다.

이완용 마마께서요?

이범진 재미난 신여성을 발견했다며 폐하께 말동무로 추천했다고 들었네.

이완용 허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놈도 모자라 천한 여자까지 궁에
들어오다니, 이 나라 운이 다했군요, 다했어.

이번엔 하야시가 배정자에게 귓속말을 한다.

하야시 데이코님, 저기 두 사람 보이죠?

배정자 (큰 목소리로) 아... 늙다리 둘?

이완용과 이범진이 놀라 쳐다본다.

하야시 (당황해하며) 아휴, 데이코님,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여기 온 목
적을 잊으신건 아니시죠? 전 더 이상 냄새나는 김치를 먹고 싶지
않다구요.

배정자 알겠어, 계속 말해 봐.

하야시 저 두 사람 중 늙은 쪽이 이범진이고, 젊은 쪽이 이완용이란 잔데
현재 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신들이랍니다.

배정자 아하, 그럼 저 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하야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배정자 그거야 상황에 따라, 누가 얘기를 꺼내느냐에 따라 다르지. 일단

안면이나 터보자. 얼른 앞장서거라.

하야시 하이, 하이!

하야시가 앞장서고 배정자는 뒤를 따르며 이범진과 이완용에게 다가간다.

하야시 (어설픔게) 안녕하시무니까? 오늘 날짜... 아니 날씨가 참 좋스무니다.

이완용 (하야시를 업신여기며 이범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명색이 조선 공사라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다니, 이번 공사는 걱정 안해도 되겠는걸요? 우리 대활 흙쳐들을 능력이 안되니깐요.

이범진 큰일날 소릴! 크기가 작다하여도 범새끼가 아니겠는가? 하물며 저 속이 시키면 일본이 보낸 공사일세. 그러니 얼른 피하세.

이범진과 이완용은 하야시와 배정자를 무시하고 퇴장한다.

인사도 못해 본 배정자는 화가 난다.

배정자 뭐 저런 무례한 놈들이 다 있어? 이완용 저자가 날 쳐다보는 모습이 꼭—

하야시 별레 보듯하지요.

배정자 맞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날 깔보다니...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보자. 언젠가 내 앞에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빌 날이 올테니.

맨 오른쪽 무대에서 배정자 혼자 차를 마시고 있고, 탁자 밑에는 하야시가 숨어 있다.

잠시 후 말쑥한 차림의 정장을 입은 고종이 들어오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고종 하야시가 있다고 했는데… (배정자를 경계하며) 하야시는 어디 갔느냐?

하야시가 관객들을 향해 씯! 손짓을 한다.

하야시 (관객에게) 비밀, 지켜줄거죠? 절대 폐하가 알아선 안됩니다, 여러분.

고종 하야시에게 할 말이 있는데 대체 어디 갔담.

배정자 제가 폐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공사관 나으리를 보냈사옵니다.

고종 그래? 그럼 얼른 얘기해 보거라. 난 바쁜 사람이니라.

배정자 아무렴요, 폐하가 얼마나 바쁘신지 잘 압니다. 그래도 저와 차 한잔 마실 시간은 있으시겠지요?

배정자가 주전자에 있는 차를 찻잔에 부어 고종에게 건넨다.

고종은 떨떠름해 하며 마시지 않는다.

고종 (혼잣말로) 설마 독이 있진 않겠지?

배정자는 주전자에 있는 차를 자기 찻잔에 따르고는 보란 듯이 다 마셔 버린다. 고종은 이 모습에 안심하고 차를 마신다.

고종 (경계심을 풀고) 넌, 조선인이라니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잘 이해하겠지.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다고 러시아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전해라. 이 전쟁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이다. 꼭 총칼을 들어야 전쟁이 아니듯, 일본의 침략을 피할 방도가 많다.

배정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우리 공사 나오리는 요양 온 거라 이 나라 정치엔 관심도 없는걸요.

고종 하야시가 요양을? 금시초문이로군.

배정자 이젠 폐하께만 알려 드리는 비밀인데... 공사 나오리는 얼마전까지만 폐병을 앓아 걷는 것도 숨쉬는 것도 벅차답니다.

고종 (안심한 표정으로) 그래? 그런 환자를 공사로 보낸거 보면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겠구나. 그건 그렇고 내게 할 말이 뭔가?

배정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는다.

고종이 깜짝 놀라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한다.

배정자 폐하, 부디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고종 그게 무슨 말이나, 상세히 말해 보거라.

배정자 대원군 시절, 제 아버가 역모죄로 처형당했지요. (눈물을 흘리며) 제 아버지는 역모가 아니라 누명을 쓴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일본

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한시도 제 아버와 이 땅을 잇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폐하를 만나 진실을 밝힐 이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고종 어허, 네게 그런 사정이... (회상에 빠져) 아버님께서 가혹하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당신 의견에 반대한다 싶으면 역모로 모셨으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런다고 네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지만.

배정자 폐하께서 이 소녀의 진심을 알아주시니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고종 아버가 그렇게 돼서 정말 고생이 많았겠구나. (애잔하게 쳐다보며) 널 보니 공주가 생각나 마음이 아프다.

배정자 천하를 다스리는 폐하에게도 슬픔이 있습니까?

고종 (쓸쓸한 표정으로) 내 딸이 살아만 있다면 너만한 나이일테지... 그리고, 나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겠지...

배정자 그럼, 제가 대신 딸이 되어 드릴게요.

고종 (기뻐하며) 딸?

배정자 네.

고종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부녀지간처럼 잘 지내보자꾸나.

고종은 배정자의 두 손을 잡으며, 기뻐한다.

무대 암전

밝아진 무대에서 고종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며, 뒤에는 이완용이 있다.

이완용은 손 안에 든 선물을 만지작거린다.

이완용 (혼잣말) 이걸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지?

이 때 배정자가 입장하고 이완용은 이 모습을 본다.

배정자, 구석에 서 있는 경비원에게 카드를 주자, 이완용은 인상을 쓰며 경비원에게 다가간다.

이완용 양반만 여기 올 수 있단 거 모르나?

경비원 그렇긴 하운데... 이분께서 옥새가 찍힌 초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완용 뭐라고?

이완용이 경비원에게서 초대장을 뺏어 살펴본다.

이완용 (어이없어 하며) 진짜네.

배정자 그럼 가짜줄 알았나요, 흥!

이완용 잠깐만, 이거 네가 위조한 거 아닌가? 폐하께서 널 초대할 리가 없다!

배정자 그럼, 폐하께 직접 확인해 보시던지요.

배정자, 이완용을 밀치고 고종에게 다가간다.

이에 질세라 이완용은 재빨리 그녀를 따라간다.

배정자 폐하!

고종 (반가워하며) 왜 이제야 오느냐! 공사관에서 여기가 뭐그리 멀다고...

배정자 저 같이 비천한 계집을 이런 귀한 파티에 초대해 주시니, 부담 돼서 쉬이 올 수가 있어야지요.

고종 엄비의 생일을 기념해 조출하게 연 거 뿐이니,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단다.

배정자, 거 봐란 표정으로 이완용에게 눈짓을 보낸다.

이완용은 기분이 상한다.

배정자 아닙니다, 폐하. 양반만 들어올 수 있다고 (손가락으로 이완용을 가리키자 이완용은 당황스럽다.) 저 분이 그랬는걸요. 폐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분이 글썽, 폐하의 초대장도 가짜가 아니냐며 옥새를 믿지 못하겠다고지 뭐니까!

고종 (기분상하여 이완용에게) 이 대감, 그게 사실인가? 초대장은 내가 손수 옥새에 인주를 문혀 찍은 것인데, 자네, 옥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겐가!

이완용 (어쩔줄 몰라하며) 아뇨, 아뇨. 폐하, 모든 게 오해이십니다. 제가 옥새를 모를 리가 있겠사옵니까! 소신이 잠시 착각을 하여서 그런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고종 흠, 그럼 그렇지. 앞으로 조심하게, 이 대감.

배정자, 고소하다는 뜻이 이완용을 본다.

이완용은 분함을 꼭 참는다.

고종 정자야, 다음부턴 내가 특별 출입증을 주던가 해야겠구나. 널 무

시 못하도록 말이다.

배정자 아닙니다, 폐하. 지금만으로 과분한걸요. 어쨌든 전 양반이 아닌 데도 이 곳에 초대를 받았으니 정말 황송하지요. 그래서 제가 보답으로 선물을 가져왔답니다.

배정자가 선물을 꺼내려는 순간, 이완용이 황급히 끼어든다.

이완용 폐하, 저도 준비했습니다. 제꺼부터 먼저 보세요.

배정자 아니, 왜 새치기를 하고 그래요? 제가 먼저입니다.

이완용 내가 먼저라니깐!

배정자 어머, 레이디 퍼스트도 몰라요?

이완용 (경멸스런 말투로) 레이디 퍼스트? 넌 양갓집 규수도 아닌데 그런 걸 바라면 안돼지!

배정자 뭐라구요?

고종 (당황하여) 진정하게... 둘 다 동시에 풀면 되잖는가?

이완용과 배정자는 상대방을 노려보며 선물 포장을 뜯다.

이완용이 먼저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진주목걸이가 있고, 이것을 관객에게 보여 준다.

이완용 (관객에게) 이런 목걸이는 아무나 차는 게 아니지요. 장담컨대 여자라면 다 보석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좋아하는 여자 나와보라지요!

이완용, 목걸이를 고종에게 건네준다.

반면, 배정자는 상자를 열지 않는다.

고종 (목걸이를 받고 심드렁하게) 엄비가 정말 좋아할만한 물건이구나. (혼잣말로) 이거까지 합치면 도대체 몇 개야...

이완용 (신나서) 이 진주목걸이로 말할 거 같으면, 제주도에서 해녀가 물질하여 건져 올린 조개를 장인이 한 땀 한 땀 채취해--

고종 (지겨워서 이완용의 말을 자르며) 정자야, 네 선물도 보자꾸나.

배정자 제 선물은... 저 목걸이에 비하면 정말 하찮습니다.

이완용 흥, 그럴테지. 이게 얼마짜런데. (배정자에게) 이리 줘봐. 내가 대신 뜯어 볼테니.

이완용이 배정자의 손에 든 상자를 낚아채고는 풀어본다.

상자를 연 이완용의 표정이 굳어진다.

배정자가 씩씩 웃으며 이완용의 손에서 상자를 뺏어 관객에게 보여 준다.

상자 안에는 지우개 달린 연필과 공책이 있다.

고종은 처음 보는 물건에 깜짝 놀란다.

고종 이걸...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건데? 설마... 그 물건?

배정자 네. 미국에서 발명한 그 물건요. (연필을 들고) 이렇게 공책에 쓰고는, (뭔가를 적기 시작한다.) 마음에 안들면 이렇게 찢을 수 있고...

배정자는 공책 한 장을 찢어 구겨 버린다.

고종 오, 정말 신기하도다. 목을 갈지 않아도 글을 쓸 수 있다니.

배정자 언젠가 영친왕 전하에게 드릴려고 미국에서 구해온 물건이랍니다.

고종 (놀라며) 미국에서 구해 온거라고? 우리 애가 은근히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개 맘에 쏙 드는 선물을 주다니, 어쩔 정자는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지... 정말 고맙구나.

고종 (배정자의 선물을 받고, 이완용에게 목걸이를 다시 돌려주며) 이 대감, 이 목걸이는 딴 데 맡겨놓고 가시게. 내가 지금 손이 부족해서 말이지. (배정자에게) 저기로 가져꾸나.

고종과 배정자가 퇴장하고, 이완용만 남는다.

이 상황이 어이없는 이완용은 배정자가 바닥에 버린 종이를 주워 펼쳐 본다.

이완용 어디보자... 언문이구만. 뭐라고 쓴거야? (천천히) 이-완-용 바-보. (화가 나) 이 여자가 보자보자 하니까! 두고봐라, 다음번엔 가만 안놔둘테다.

이완용이 종이를 바닥에 내팽개친다.

무대 암전

이범진과 이완용이 대화하고 있다.

이완용 러시아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

니까?

이범진 그렇다고 일본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 없으니, 폐하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지...

이완용 (자신감에 차)대감,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제 전문인 협상을 통해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자네만 믿겠네. 만에 하나 러시아가 진다면, 얼른 피해야 하니까.

이완용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잣말로) 지금이야말로 내 능력을 펼쳐 성공할 때다.

이 때 고종과 창이 넓은 모자를 쓴 배정자가 입장한다.

이완용 저기 좀 보세요. 폐하께서는 저 요망할 년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얼마전에 점을 봤더니 (창이 넓은 모자를 가리키며) 갓을 쓴 여자가 궁 대문을 넘으면 조선의 갓이 무너진다고 하더이다.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범진 (한심해하며) 찻찻... 유학을 숭상하는 양반이 점을 보다니, 부끄러운 줄 알게.

이범진이 고종에게 다가간다.

이범진 폐하, 이제 떠날 시간이옵니다.

고종 그래? (아쉬워하며) 정자야, 내일도 올 수 있지?

배정자 그럼요, 우리에겐 많은 날이 있으니, 잘 다녀오세요.

이범진과 고종이 함께 퇴장하자, 이완용이 배정자에게 다가온다.

배정자 (이완용 모습을 보고 가방에서 양산을 꺼내 펴며) 아, 햇볕이 너무 세네.

배정자는 이완용에게 등을 돌려 양산을 쓴다.

이완용 참 이상하군. 일본은 자기들을 태양이라고 선전하던데, 너 저 해를 일부러 피하다니, 일본이 얼른 저야 양산 쓸 필요가 없겠군.

배정자 흥, 대감은 왜 그렇게 앙칼진 고양이처럼 굴죠?

이완용 앙-칼-진 고양이?

배정자 고양이가 기분 나쁘다면 개는 어떠세요?

배정자가 이완용 앞을 지나가려 하자 이완용이 배정자의 팔을 잡는다.

배정자 이거 놔. 못놔?

이완용 똑똑히 들어라. 난 너와 달리 명문가에서 태어난 양반이야. 너같이 천한 계집이 시대를 잘 타고나 나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자체가 영광인게야. 그러니 그것만으로 감사해하며 빨리 이 땅에서 꺼져. 네 까짓게 아무리 애써봤자 결국에 폐하는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배정자 당신 뜻대로라... 내 귀에는 폐하를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걸로 들리네. 방금 네가 말한 거 폐하께 말해도 되겠지? (관객을 향해) 폐하, 여기 역적이 있습니다!

이완용이 화들짝 놀라며 잡은 팔을 놓는다.

이완용 역적이라니!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 이-완-용이야! 천하가 다 아는 애국충신 이완용 ! (관객을 가리키며) 저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 그러니 함부로 날 모함하지마.

배정자 (비웃으며) 그렇지, 나도 당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해, 나와 같은.

이완용 (버럭 화를 내며) 애국자면 애국자지, 내가 왜 너와 같은 부류야? 난 너와 질이 다른 사람이다.

배정자 아... 방금 말한 명문가 양반? 망해가는 나라 양반출신이 무에 자랑이라고... (갑자기 공손한 척하며) 대감님, 언제까지 콧대를 세울 수 있는지 두고 보겠어요. 그럼, 이 천한 계집은 이만... 호호호.

배정자가 웃으며 퇴장한다.

이완용 (분해서) 얼른 러시아가 이겨야 저 꼴을 안보지, 예휴.

무대 암전

맨 오른쪽 무대가 밝아온다.

고종이 앉아 있고 탁자 밑에 하야시가 숨어 있다.

이 때 배정자가 차를 가지고 입장하여 고종에게 차를 내민다.

배정자 오늘 구경이 좋으셨나요?

고 종 다 처음 보는 거라... 하지만 일본은 다 알테지. (한숨 쉬며) 옛날에는 우리가 통신사를 보내 선진문물을 전했는데... 이젠 거꾸로 됐구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됐을까...

배정자 점점 나아지겠지요. (눈치를 살피며) 조정에선 방도를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고 종 방도라... 있긴 하지.

배정자 (조바심을 내며)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고 종 (답을 꺼리며) 차나 마시자꾸나. (차를 마시다가) 일본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 패전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배정자 (깜짝 놀라며) 설마... 아무 것도 모르시나요?

고 종 그제 무슨 말이나...

배정자 (눈물을 글썽이며) 조만간 전쟁이 끝납니다, 일본의 승리ですよ. 폐하의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은 신하의 마음은 이해하나 이진 아니지요, 조금 있으면 들통날 일을 이렇게 숨기다니... 불쌍한 우리 폐하.

고 종 (충격받아) 허허... 아무리 허수아비 임금이라지만 날 바보로 만들다니...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역시 너뿐이구나...

배정자 제가 사정이 있어 일본을 위해 일하는 거지 전 엄연히 조선인입니다. 언제나 이 조선과, 폐하를 위하는 마음뿐이오니, 믿어 주세요.

고 종 그래, 그래. 내 너를 믿다마다. 혹시... 만약에 말이다. 내가 먼 곳으로 간다면 너도 따라갈테냐?

배정자 먼 곳이라니요? 폐하, 여길 떠나나요?

고 종 여기보다 안전한 곳이라는데... (아차 싶어) 아니다. 내 애긴 못들

은 걸로 하려무나.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 먼저 물러가겠다.

고종이 퇴장하자, 탁자 밑에서 하야시가 기어 나온다.

배정자 하야시, 감시를 붙이거라, 도망가는 걸 이대로 놓칠 수 없지.

하야시 하이, 하이!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무대조명은 벽에 있는 문만 비춘다.

고종과 이범진, 이완용이 주변을 살피며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반응이 없자, 다시 문을 두드린다.

이범진 (작은 목소리로) 폐하가 오셨소.

이완용 (아무 반응이 없자 다급하게) 문을 여시오! 약속대로 우리가 왔단
말입니다.

이 때 하야시와 배정자가 등불을 들고 반대편에서 등장한다.

하야시 모두 안녕하십니까! 밤 공기가 쌀쌀하군요.

하야시의 인사말에 모두 깜짝 놀라며 침묵한다.

하야시 왜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이완용 (이범진에게) 하야시 저 놈이 조선말을 왜저리 잘하죠?

이범진 (면박을 주며) 이 사람아, 지금 그게 문제냐? 저 놈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는지가 더 큰 일이세.

짧은 침묵.

하야시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하야시가 다가와 문을 두드린다.

하야시 문을 열어주시오, 대한제국의 황제폐하가 행차하셨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하야시 아차차, 제가 깜빡했네요, 미리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 문으로 말 할거 같으면 여러분한테 열릴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과 거래를 했거든요.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가지는데 있어 서로 눈감아주기로.

이범진 말도 안돼...

이완용 필시 저놈이 꾸며낸 말일겁니다.

하야시 믿든 안 믿든 닥들 자유지요. 폐하,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야시가 고종을 억지로 잡아끈다.

고종 (배정자의 옷을 붙들며) 정자야, 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배정자 (고종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불쌍한 폐하.

고종 그래, 너만은 날 이해할 수 있지?

배정자 아무렴요, 폐하. 그런데… 그냥 인형처럼 살고 계셨으면 우리 회장님이 손을 안썼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고종 회장님이라니… 회장이 누구길래 너까지 나한테 이러는 게냐?

배정자 이토 히로부미.

짧은 침묵.

이완용 (고개를 가우뚱하며) 내가 아는 그 사람 애긴가?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을 거야…

배정자 청나라와 러시아가 우리한테 진 마당에 굳이 우릴 적으로 돌릴 미국이 아니지요. 그러니 조선을 버린겁니다. 이런 진실을 말해주는 자, 역시 저밖에 없죠?

고종 (충격 받아) 내… 너를 그토록 믿었는데… 왜!

배정자 미국을 통해 러시아로 도망친다… 그런 정보는 절대 놓치지 않죠.

이범진 어떻게 이런 일이… 넌 대체 누구냐?

하야시 (배정자의 뒤에 서며) 우리 데이코님은 회장님의 양녀로, 스파이라면 본토 제일의 실력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고종이 기절한다.

이범진 (고종을 일으키며) 폐하! 정신 차리옵소서.

배정자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쓰러지시다니요, 호호!

배정자의 웃음소리만 무대를 맴돈다.

무대 암전

밝아진 무대에서는 이완용 혼자 불안해하며 무대 위를 왔다갔다 한다.

이완용 이제 어찌지?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

소리 어르신, 어떤 여자가 주인님을 뵙자는데요.

이완용 내가 아는 여자가 어딴느냐? 적당한 핑계를 대서 보내거라.

소리 하긴, 주인님이 양장 입은 여인을 알 턱이 없지요.

이완용 (깜짝 놀라며) 뭐? 양장 입은 여자?

소리 네.

이완용 얼른, 얼른 모시거라.

이완용은 급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이윽고, 배정자가 입장한다.

배정자는 아주 오만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훑어본다.

배정자 여기가 조선 제일의 명문가인 이대감의 집이군요.

이완용 (급신거리며) 하하... 명문가는 무슨, 아가씨에 비하면 저희 집은 새발의 피지요.

배정자 (답변에 흐뭇해하며) 그건 그렇죠. 이 대감은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를 알겠죠?

이완용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비굴하게 손으로 짹짹 빈다.

이완용 그동안 아가씨께 함부로 군 점, 이렇게 사죄드리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백골난망, 저승에서도 아가씨께 감사할 것입니다.

배정자 그거야 대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답니다.

이완용 무슨 얘기신지...

배정자 저와 동업할 생각 없나요?

이완용 일이라면 뭐든지 맡겨만 주세요. 그런데 무슨 일을...

이 때, 또 하나의 무대 조명이 맨 오른쪽의 무대를 비춘다.

해당 무대에는 고종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고, 탁자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다.

배정자와 이완용의 무대와, 고종의 독무대가 동시에 진행된다.

배정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감께 식은 죽 먹기죠. 제겐 이 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튼튼하게 엮어줄, 당신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양반이 아닌 대일본제국의 귀족으로 명명거리며 살게 해드린다고 약속하겠어요.

이완용 (기뻐하며) 협상이라면, 제 전문 아니겠습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고종은 울분을 삼키며 힘겹게 서류에 서명을 하려 한다.

배정자 이 대감이 맡는다면야,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지요.

이완용 제가 확실하게, 폐하를 설득하겠습니다.

이완용과 배정자가 즐겁게 웃고, 그들의 무대는 점점 어두워진다.

고종의 무대만 밝다.

고종 (서명을 끝낸 후) 허무하게 나라가 망하는구나... 난... 노력하면
해결될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씩 흐느끼며) 밖이 아니라
내 몸이 굽아 터지는 줄 모르고 있었다니... 흑흑.

고종은 펜을 내려놓은 다음, 탁자 위에 놓여진 차를 천천히 마신다.

무대조명이 서서히 꺼지며 장송곡이 구슬프게 울려 퍼진다.

장송곡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쾌한 왈츠곡이 장송곡과 섞여
들려온다.

왈츠곡이 점점 커지면서 배정자와 이완용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가운데 무대가 켜진다.

이완용과 배정자가 왈츠를 추다가 멈춘다.

배정자 오늘따라 더욱더 잘 추시네요.

이완용 어이쿠, 무슨 말씀일! 여기에서 데이코님만큼 잘 추는 아가씨 없
습니다. 과연 본토 제일의 미녀이십니다.

이 때 초췌한 모습의 이범진이 입장한다.

배정자 에구머니나, 저게 누구야?

이범진 (손가락질 하며) 이 역적들아!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완용 역적이라니! 난 약하디 약한 조선을 대일본제국의 보호 아래 뒀을 뿐이오. 안그렇습니까, 데이코님?

배정자 그렇구말구요. 천황폐하의 신민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모르고...

이완용이 이범진을 끌고 나가려한다.

이범진 이거 놓지 못할까!

이완용 아이고, 대감. 그리 융통성이 없으니 그모양 그꼴로 살지요. 지금 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감께서 부탁만 한다면 내 옛정을 생각해서 한 자리 마련하리다.

이범진 칼로 폐하를 협박해 뺏고선 뭣이 어째? 보호?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배정자 누가 우릴 단죄한단 말이오? 당신이? 지금 그꼴로?

이범진 지금이 아니라도, 훗날 후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배정자 우린 역사의 주인공... 우리 성공은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같이 일하자고 꼬셨는데도 거절하니 집안이 망하지. 충고 한 마디 할까요? 당신은 독립운동이랍시고 설치는데, 정작 백성들은 독립을 두려워합니다. 오백년간 조선의 독재에 익숙한 백성들이 예요. 자유를 얻어봤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매한 신민을 조선이 통치하나, 일본이 통치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하니 감사 인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범진은 기가 막힌다.

이완용과 배정자는 다시 왈츠를 춘다.

무대 암전

왈츠음악도 점점 사라지고 대신 왈츠 허밍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맨 처음의 재판장 무대가 밝아온다.

무대에는 늙은 배정자 혼자 눈을 감고 허밍하며 왈츠를 추고 있다.

판사가 신경질적으로 재판봉을 치자, 그녀는 정신 차린다.

배정자 아... 돌려줘, 돌려줘! 내 젊은 날을 돌려줘!

판사 조선인이면서도 나라를 팔아먹은 죄, 이로써 분명해졌다. (관객을 향해) 이제 이 여자 죄를 알겠지요? (배정자에게)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남은 건 처벌뿐이다.

배정자 (체념한 듯) 어떤 벌을 내리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일본이 이길 줄 알았다거나 민족을 위해 친일했다는 그런 변명 따위 하지 않을 거요, 그런데... 왜 이제와서 과거를 들추는거유? 이미 몇 십년 전에 끝난 일을... 그때 친일 안한 사람이 어딴소? 그 시대로 말할 거 같으면 엄연히 나도 피해자라오.

변호사 맞습니다. 그 시대 맨 혼란의 시기, 일본에 동조하지 않으면 패가 망신했으니, 이 점 정상 참작하여 피고를 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이범진이 나타나 판사 옆에 선다.

배정자 (이범진을 손가락질하며) 너, 너는... 아니야... 넌 분명히 죽었어.

판사 (배정자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 과거를 들추냐고 물었나?
잊혀진 과거를 반드시 밝혀 후손에게 너희 죄를 기억토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안하더라도 (관객을 가리키며) 여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야.

이범진이 무서운 표정으로 배정자를 가리킨다.

배정자는 변호사 뒤쪽으로 숨는다.

변호사는 서류 정리하느라 바쁘다.

배정자 (팔을 붙잡으며) 변호사 양반, 저... 저 놈이 안보이시요?

변호사 이제 실성까지 했습니까? 저는 이 다음 변호 때문에 바쁘니 이거
놓으세요.

변호사가 배정자를 귀찮다는 듯 내친다.

판사 다음 죄수는 누군가?

변호사 네, 아버지의 친일로 재산 몰수형을 선고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연좌제 금지 위반입니다.

판사 아버지가 민족을 쥐어짜서 만들어준 유산이니 당연히 몰수함이
마땅하다.

배정자 (기가 막혀하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겨우 친일한 거 가지
고 이러다니, 천벌 받아라, 이놈들아!

이범진이 판사 옆에서 점점 배정자에게 다가온다.

배정자, 무서워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판사와 변호사는 이런 배정자를 신경쓰지 않고 각자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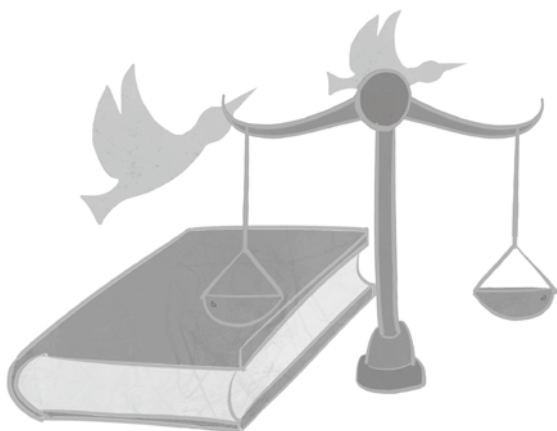
이범진, 배정자 가까이 와서 손으로 배정자를 만진다.

배정자 으악!

배정자,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진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재판장이 점점 어두워진다.



제 1 8 회

공	무	원
---	---	---

문	예	대	전
---	---	---	---

수	상	작	품	집
---	---	---	---	---

부 문 별 심 사 평

금상 어느 저녁 반찬

독특한 기법의 우수작

금상 수상작 「어느 저녁 반찬」은 꽤 긴 산문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적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이다. 독특한 기법으로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연민, 역사 의식 등을 잘 표현한 우수작이다. 저녁 반찬거리로 등장한 도마 위의 명태와 요양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외할머니를 오버랩시켜 시적화자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각자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시적 기법은 대단히 신선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슬프고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동자를 가진 할매와 닮은 명태 대신 소박한 시금치’로 저녁 반찬을 대신하는 결말 처리도 그 나름의 시적 설득력을 발휘한다.

은상 창

이 작품은 시적 발상이 좋고 이미지가 선명하다. 표현의 세련미 또한 수준급이다. 비행기 창문에 내리는 비를 ‘수목화 한 폭 처진다.’라고 표현하는 상상력은 신선하다. ‘허공을 지나는 비는/살얼음의 절편 같은 마디 짧은 대나무를 치고 간다.’라는 표현 역시 그렇다. 문명의 이기인 비행기와 대자연의 한 현상인 비와의 동행을 통한 비유와 상징이 기발하다. 슬쩍 비치는 신의 등장조차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은상 춤추는 남녀무늬 항아리

고대의 토기를 노래한 작품으로서 훌륭한 시구절을 적지 않게 거느리고 있는 시다. 시적 전개도 무리가 없다. 시적화자가 ‘흙이 되어 목이 긴 저 민무늬 대문을 열고 들어가/별빛보다 먼 여행을’ 하는 이 작품은 ‘전생 이전의 전생’에서 ‘여기까지 되짚어오는’ 긴 여정과 함께 ‘목이 긴 시대의 태평한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 흙의 변주가 낯은 낭만적 판타지이다.

은상 어미의 돌절구

시적화자와 어머니 사이에 돌절구를 매개체로 하여 삶의 연속성을 잘 형상화했다. 돌절구의 상징적 의미도 적절하다. 천둥소리와 아버지의 호통소리와 내가 울며불며 떼쓰는 소리가 ‘곱게 뺄어져 돌절구 속으로 들어간다.’는 일체적 합일의 이미지도 독특하다. 어머니의 돌절구가 나의 돌절구로 이어져서 자신의 한 생애를 돌리는 작업은 삶의 연속성에 대한 일종의 역사 의식이기도 하다.

동상 대화

‘급수대 배수구’라는 소재가 특이하다. 소재가 거느리고 있는 상징과 표현도 개성적이다. ‘급수대 배수구 가장자리에서 여린 새 잎이 세상 위에 도장을 찍고 있네.’라는 첫 표현은 신선하다. ‘관을 돌고 돌아 배수구로 나와 정적의 포효로 심장을 당기고 있어요. 별은 어두운 하늘에 두고 나왔어요. 여행이 시작되었어요.’라는 끝 연도 이 시의 격을 높여주고 있다.

동상 석쇠

석쇠와 어머니의 동일성(아이덴티티)을 표현, 제3자인 시적화자가 시각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모곡으로서의 소재 선택이 적절하다. ‘석쇠가 켜켜로 삭아 내리듯 툭 툭 불거진 어머니 손가락 마디마디/뼈마디 부서지도록 어머니 땀방울 먹고 자란 나는/아직 생각이 어린 짐승이다.’라는 표현이 ‘연기에 그을린 듯 깊은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내 가슴에 숯검정으로 일렁인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있다.

동상 일상

삶의 일상적 흐름에 대한 시적화자의 성찰과 해석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일상의 비밀상화이다. 말하자면 일상의 재해석이다. ‘떠난 사이 나는 길을 걷고,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마주하고, 깊은 바다에 들어간다.’ 일상을 떠났을 때의 비밀상은 ‘파도’이다. 일종의 역동적이고도 창조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이 시는 떠나고 찾아가는 일상, 그 의도적 리듬에 대한 보고서이다.

동상 양파

양파 속살 벗기기라는 흔한 상징적 소재를 무리없이 표현했다. 시적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셈이다. 형이하학에서 형이상학으로의 발전이 이 시의 격을 높여준다. ‘애초에 네 단정한 겉옷을 벗기면서/네 안에 가득 찬 너만의/비밀스런 꿈을 생각한다.’라는 첫 표현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원초적 본능과는 거리가 멀다. 언어 구사나 기교도 자연스럽고 세련돼 있다.

동상 온기를 좇아 뒷걸음치는 지우개의 순애보

사랑하는 이의 ‘업’을 지우고자 하는 애뜻한 순애보, 시적화자의 뜨거운 진정성이 돋보인다. ‘눈물 적신 낙엽으로 달집을 쌓아올려/내 몸을 보시하여 그대 업을 사르겠다.’는 화자

의 사랑과 결의는 치열하기까지 하다. 화자의 그 사랑과 의지는 '눈부신 백야를 그대 앞에 펼쳐 내어/빛의 세계에 그대를 유형 시키고/꿇주린 수리부엉이 떼 속에 내 허물을 던져주어/동트는 새벽을 그대에게 선물해야지.'라는 희생적 각오로 발전한다. 그 상황이 과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시의 장점이다.

동상 Her

인공지능을 다룬 색다른 작품이다. '소리'의 시적 변주가 이채롭다. 영어 제목은 고유명사(외국 영화)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대자연인 초록별과 문명의 소산인 모니터 사이의 그대, '붉은 달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소리 휘몰아치는 소리결 소리의 빛살 소리의 물결 소리의 몽차… 붉은 소리의 숲 푸른 소리의 숲 빨주노초파남보 소리의 오로라' 등 소리의 변주가 초월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상 뽕짝의 바다

수문으로 차단된 바다의 상징성과 어부들 삶의 애환이 조화롭게 펼쳐진다. 작품 속에 흐르는 페이스소스도 적절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육지가 된 섬은 멀리로 비틀거리고/타관 사람들 발소리만 흥얼거리는 그곳/보름달이 떠도 부풀지 않는 바다에/늙은 어부는 마지막 씨를 뿌린다.'와 '하얀 머릿수건처럼 물이랑을 떠다니는 여선에서/종일 뽕짝의 가락'의 대비는 오히려 치열하기까지 하다.

동상 편지 — 늙은 느티나무

경어체의 표현 형식이 시의 소재와 주제에 잘 어울린다. 시적 형상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늙은 느티나무'와 '방패연', '그 찢어진 종이 사이로 햇살', '꼭 그 세월만한 넓이의 세상' 등 추억의 세계에서 '썩어 들어가 텅 빈 공간으로 남은 그 나무의 중심 속에서 어찌면 또 다른 시간들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까지 그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사랑이 따뜻하다.

동상 어머니와 트로트를

시의 소재와 표현이 이채롭고 재치가 있다. 재미있는 작품이다. 시가 때로 이렇게 유쾌하게 읽히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시린 무릎에 이리저리 박자를 놓쳐도/봉지에 넣어둔 햇살들이 아직도 식탁에 가득해요./언제든 꺼내어 악보를 만들 수 있지요.'라는 구절이라든가 '머리에서 떨어지는 새치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어도/어머니./오늘은 반박자만 앞서 가세

요.'라는 구절들은 잘 여과된 좋은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입선 귀의 위치

말하자면 이 작품은 귀 위치의 해부학(?)으로서 시의 소재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점이 특이하다. 산문적 진술의 함정을 조심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먼 거리를 돌아 귀는 귀로부터 멀어진다./인디언과 인디언의 관계처럼/입술과 입술처럼/우리는 숨소리조차도 숨죽여/집중해야 해요.'가 '귀가 귀와 가까워지기 위해 귀로부터 멀어질 때'라는 반어적 진실에 다가가게 된다.

입선 나를 찾아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영혼 기행시다. 어쩌면 시도 영혼 탐색의 머나먼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둠과 빛이/서로 손을 잡는 시간에/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갔네.'에서 어둠과 빛의 대비는 평범한 듯 절묘하다. '갈매기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파도가 밤의 연주를 시작하고/배들이 어둠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면//내 곁으로 잃어버렸던 내가 와서/나와 함께 그들을 바라보네.'라는 표현도 결말로서 조금도 무리가 없다.

입선 난청

소재에 대한 집중력이 좋다. 시적 형상화에 무리가 없다. 마지막 연도 대단히 인상적이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들을 억지로 감옥에 가둔 것은/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언젠가 이것이 음모라고 밝혀질 거예요./소리들이 떠난 그곳에 가면 진실이 있을 거라고요.'라는 표현도 시적 설득력이 있다. '의사는 보청기를 권하고/나는 소리를 놓아주기로 한다.'는 반전의 묘미를 보여 준다.

소설부문 심사평

대상 옥중별곡(獄中別曲)

대상작품 - 별도 수록

은상 치매 시대

병든 부모를 둔 자식들 사이의 갈등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이런 소재의 경우 흔히 자식

들 가운데 누구 하나를 순교하듯 희생시킴으로써 아름답게 끝내거나, 갈등을 표출시켜 추한 광경을 만들어 비극적으로 끝내게 된다. 이 소설은 자식들의 갈등을 배경으로 처리하고, 등장한 화자가 병든 부모의 심경을 읽어내도록 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는 가운데 부모의 삶을 거꾸로 들여다 봄으로써 이해하기와 감싸안기를 하고 있다.

동상 빈 배

진실되고 성실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묻는 소설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만이 아닌 ‘그 이상의 힘’ 갈구하듯 여기저기에 깔아 놓았다. 어부 부부를 등장시켜 사람이 순수하게 지향하는 삶의 높이라 할지라도,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오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 높이에 눈금을 새겨 어느 부분에 오르면 경고등을 밝히는 장치이다. 단지 곳곳의 멋지게 쓰려는 억지스러운 묘사와 다소 상투적인 마무리가 작가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

동상 새가 앉은 동안

궁중 나인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중후한 주제와 유려한 문장이 맞물려 서사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산문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잘 농축된 문장이 돋보인다. 불교 진리에 기초한 사생관도 호감을 준다.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자칫 진부한 이야기로 흐를 수 있는 소재를 무리 없이 잘 다룸으로써 눈길을 끈다.

동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컴퓨터 세대의 부작용을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은 컴퓨터에 얽힌 담론을 독특한 안목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발상이 신선하다. 예나 지금이나 문명의 뒤편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게 마련이다. 컴퓨터는 문명의 이기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이 작품은 바로 컴퓨터와 관련된 담론을 보여 주고 있다.

동상 젊음이 없는 도시

현대 문명인의 정신사, 그 다양한 상징 의미로 읽히는 작품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범상치 않다. 주제를 부각하는 역량과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저력이 호감을 준다. 상상력도 뛰어난 편이다. 특히 늙지 않을 방법에 대한 과학의 허구성이 돋보인다. 문장이 세련돼 있고, 구성에도 큰 무리가 없다. 차라리 제목을 「영호르문」으로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입선 ▶ 숨사탕

소년 소녀에게 마음을 여는 어른의 정서가 돋보인다. 제목이 암시하듯 숨사탕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다. 청순한 주제, 깔끔한 문장이 호감을 준다. 구성에도 큰 무리가 없다. 잔잔하면서도 담담하게 이어지는 일상의 편린들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산뜻한 느낌을 준다. 어쩌면 상투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작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눈길을 끈다.

수필부문 심사평

금상 ▶ 봄날은 간다

꽃을 좋아했던 어머니였지만 인생은 꽃처럼 화사하지도 아름답지도, 녹록지도 않아 중풍 할아버지 병구완 십수년, 아버지 병구완 9년, 자식 뒷바라지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하기만 한다. 전력투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문득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을 봄이면 돌아보며 그리워한다. 어머니의 사랑과 죽음은 문학에서도 영원히 사랑받는 소재이다. 자칫 신파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진부하지 않게 하는 관점의 다양성과 구성의 힘도 중요하다.

은상 ▶ 회초리

어렸을 적 아버지는 회초리를 안방 입구 벽에 걸어두고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아버지의 방을 드나들 때마다 보이는 회초리는 무언의 질책이고 교육이었다. 자신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회초리를 썼다. 수필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 전형을 알고있지만 약간 구태의연한 소재와 교육적 가르침으로 마무리한 구성이 걸린다.

은상 ▶ 옥탑방의 겨울

아기와 추운 겨울을 옥탑방에서 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나가면서 그 시간동안 생각을 다져나간 삶이 훗날 결실을 맺게되는 글이다. 소설적 구성과 담론같은 담담한 자신의 이야기가 필력을 엿보이게 한다. 다만 어디선가 본 듯한 냉소적인 이미지차용 습관은 버려야 한다.

은상 꽃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꽃 아래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상춘객들 사이에서, 꽃을 통해 인생의 꽃갈던 시절을 연상한다. 또한 꽃은 결코 쉽게 피어나지않음을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다시 깨닫는다.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가장 역할을 하고 종갓집 종부로 살았던 시간이 꽃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미지와 의미화작업도 자연스럽고 필력이 보이는 글이다. 억눌려 있는 무엇을 털고 살아있는 작품시도를 권유한다.

동상 내 유년의 여름

전후의 궁핍 속에서 자란 세대들에게는 특별한 회한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유년시절이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고향이 한없이 내어주던 품들, 저녁답의 모닥불, 하천소리, 밤이 주는 온전한 사유의 시간들... 꿈결에서도 내 몸 안에 담겨있는 유년의 추억들을 유려하고 사색적인 문체로 표현했다. 표현의 과잉은 자제해야 한다.

동상 달챙이 손가락

어머니의 기일, 제사상에 올라온 어머니의 분신 달챙이 손가락을 통해 추억과 삶을 표현했다. 껍질을 굵거나 상한 곳을 파내기도 하고 어린시절 아이들의 주전부리로 감밥을 굶어주던 달챙이 손가락의 행로를 잔잔하게 그렸다. 그 향기와 울림속에 '유용함'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준다.

동상 첫사랑

첫사랑의 가슴 떨림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아프고 그리운 경험이다. 중학생 때 만난 첫사랑을 불혹에 재회하면서 느끼는 상념을 복사뼈의 통증으로 은유해 감칠맛 나는 전개를 하고 있다. 자기고백의 솔직함이 과장되지 않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수필의 정수를 보여 준다.

동상 겨우살이

참나무 가지 위에 연두색 옷을 입고 까치둥지처럼 달려있는 산정의 겨우살이가 더부살이인 것처럼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조카가 겨우살이처럼 자신에게 의지해 자라온 안타까움을 대비해서 표현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지구라는 생명체에 의탁해 살아가는 겨우살이임을 인식하는 생태학적 철학도 담겨있다.

동상 ▶ 일상예찬

얼굴마비의 시작인 귀의 통증을 가볍게 여기다가 신경마비로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일을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가고 있는 글이다. 침착하고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장엄하기까지하다. 그리고 문학 안에서 승화시키는 힘 또한 강하다.

동상 ▶ 절망이 찾아준 또 다른 이름, 희망

스키마니아가 훈련 도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극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장애인 공무원이 되기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잘 담겼다. 필력과 오랫동안 생각한 흔적이 보이는 글이다. 주변사람에게 희망 전도사역할도 충분히 하리라 믿는다.

동상 ▶ 두근두근 심장소리는 희망입니다

아기를 가진 몇 달 후 아기의 이상 징후-심장질환계통-로 출산을 고려해 보기를 권유받았지만 모성애로 버티고 출생 후에도 연이은 수술로 힘겨운 날들을 보냈지만 건강하게 키워내고 있다는 글이다. 수필이라기보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인간승리의 글이다.

입선 ▶ 큰 형님

결혼 후 겪는 시댁 큰 형님 무당과의 인연을 긍정적이면서 담담하게 풀어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샤머니즘과 현대식식의 갈등을 용기있게 보여 주며 소재가 빈곤한 공모에서 특이성으로 점수를 얻었다.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문학성을 얻었을 것이다.

입선 ▶ 아가, 넌 누구다냐?

막내로 자란 자신이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간병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형제들의 솔직한 마음까지 잘 표현하였다. 결코 간파할 수 없는 현대인의 고통이기도 하다.

시조부문 심사평

금상 ▶ 아름다운 접점(接點)

그림이 그려지는 시다. 영상이 전개되는 시다. 쉬운 언어로 서술되는 장면은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짜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 지팡이와 이어폰으로 상징되는 노

인과 소녀가 서로를 지나치는 한 순간, 세대 차이를 넘는 배려와 융화의 〈마주 선 시간〉을 앞에 하게 된다. 〈우연의 접점〉에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아름다운 접점〉을 보여 주는 가작(佳作)이다.

온상 ▶ 중년, 폐달을 밟다

이 작품은 시조의 장점이 잘 드러난 시다. 시조의 특성상, 4수짜리 연시조라 해도 한 수 한 수 단수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실작의 아픔 내지 인생의 여러 고비를 지나온 세대의 삶의 궤적을 따스한 눈길로 그려냈다.

동상 ▶ 글자에 색을 입히며 - 형광 펜

세 수로 이루어진 작품을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갔다.

‘흙집을 가리려고 글자에 색을 입히면/밑줄을 그은 듯/돋보기 가져다 댄 듯/더욱더 도드라져서 눈빛 오래 붙잡는다.’ 이처럼 시각적으로 도드라진 광경을 이 시는 독자에게 선사한다. ‘아무리 치장을 해도’ 감추려 한 허물들이 상대방 앞에서는 더 잘 드러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동상 ▶ 심해(深海) 새우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오랜 기간 습작을 해 온 듯한 저력이 엿보인다. ‘빛조차 닿지 못하는 난파선의 묘박지’, ‘가슴 속 환히 보이는 얼음 같은 새우잠’, ‘꿈속에 좌표를 찍어 짚어 보는 고향역’ 같은 종장에서 시인의 믿음직한 역량이 느껴지는 것이다. 다만 ‘절어진 지린내’ 같은 상투적 표현이 지적됐다.

동상 ▶ 지구촌 삼화 1 - 우간다 오누이

주제나 소재로서 가장 눈에 띄었던 작품이다. 지구 저편에서 고통어린 삶을 살아가는 어린 소녀들의 ‘고름 핀 얼굴’, ‘표정을 잃어버린 얼굴’, ‘꼬막손’을 거침없이 적나라하게 그렸기 때문이다. ‘물수제비 밟고 가듯 뒤뚱대는 하루하루/주렁주렁 목에 걸린 까닭 모를 천형 껌안고’ 같은 가구(佳句)로 이루어졌음에도, 묘사의 힘 뒤에 오는 시인의 내적 토로가 한 마디 필요했다.

입선 ▶ 연필을 꺾다가

그야말로 연필을 꺾다가 아차 하는 순간 예리한 칼날에 손을 베이면서 일어나는 심상을 그린 작품이다. 그런 아찔한 순간을 평이한 서술이 아니라 시인만의 심도 있는 상상력으로

로 역동성 있게 펼쳐 났다. 다만 이 작품에서도, 감정 과잉이 드러나 절제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시부문 심사평

금상 반구대 암각화

동시의 소재로는 다소 무거운 감이 있으나, 시적으로 잘 형상화시켜서 암각화 속에 담겨진 이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을 그림 그 자체로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렸던 사람들의 마음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잘 연결시킨 점이 시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시적 완성도가 높아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작품에 담겨진 이야기나 이미지의 연결이 기승전결로 잘 이어져 시적 감성을 높인 것도 칭찬할만하다. 다만, 여기서 동심을 조금만 더 녹여 놓았다면 더 좋은 동시가 되었을 것 같다.

은상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이 몰래 마트에서 일하는 엄마의 이야기다. 표현이 조금 산문적이지만 주제를 잘 살려서 읽을수록 가슴이 찡해 온다. 필요 없는 말을 좀 줄이고, 표현을 조금 더 다듬었다면 시적 감성이 더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은상 향아리

장독대를 가득 채운 된장, 간장, 고추장 향아리들, 자식들 오면 한 바가지씩 퍼준다. 삼촌이 와도 한 바가지, 이모가 와도 한 바가지, 끝없이 퍼 주는 된장 향아리지만 늘 똥보처럼 가득 차 있다. 자식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어서 일 것이다. 그게 우리네 부모님이다. 투박하지만 장맛을 지키는 향아리와 할머니의 넓은 마음이 잘 담겨있다.

은상 3월 4일

삼도 그렇듯, 변환의 시기엔 갈등과 혼란이 있다. 꽃샘추위를 보면 자연의 섭리 또한 그러함을 느낀다. 작품 3월 4일은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 비유가 알맞게 적용되었다. 마지막 연의 '어떻게 봤을까?/ 우리 집 달력'은 백미였다. 다만 제목을 3월 4일이라고 못 박은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다.

동상 꼬마와 우체통

이 작품은 스토리가 있는 짧고 따뜻한 동화시다. 우체통은 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함께 교감해 나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 놓았다. 즉 우리의 삶이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보게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산문적인 표현과 이미 많이 쓴 소재여서 신선함이 덜한 것이 조금 아쉽다.

동상 강아지도 공부가 하고 싶을까?

이 작품을 읽으면 아이를 쫓아오는 강아지가 떠오른다. 선명한 이미지,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장, 동시의 기본 요건을 잘 갖추었다. 그러나 '강아지도 공부가 하고 싶을까?'하는 너무 단순한 이미지만 담겨 있어서 주제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시적 감성을 살린 점은 돋보인다.

동상 외할머니의 계산법

시간이 금이라며 경제적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와 몇 푼 안 되는 곡식 낱알을 줌고 있는 할머니의 관계를 그려놓았다. 먹기 싫으면 하얀 쌀밥도 남겨 놓기 일쑤인 아이의 눈엔 하찮은 낱알을 줌고 있는 할머니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그러나 할머니만의 특별한 계산법이 있을 거라는 화자의 생각이 이 시를 살려주고 있다.

입선 암탉은 괴로워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소풍을 나와 겪은 일이다. 줄 좀 맞춰서 오라고 해도 금세 비뚤어지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해도, 엄마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 소풍 나온 즐거움에 엄마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미인 암탉은 힘이 든다. 우리네 부모도 암탉처럼 괴로운 일이 많을 것이다. 사물을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점이 시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다. 또한 병아리와 어미닭의 대화도 재미있게 나타내었다.

동화부문 심사평

금상 칸 이야기

고만고만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 원고더미에서 '칸 이야기'를 발견하고 심사자들은 화들짝 생기가 돌았다. 어른이 읽어도 시시하지 않고 어린이가 읽어도 어렵지 않은 신선하

고 흥미진진한 소재와 주제를 품은 동화였다. 우선 배경부터 매력적이었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흡인력 있는 문장도 좋았다. 옛 주인의 이기적인 의도대로 길러져 주인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너 자신이라는 새 주인 홍포수의 말에 자신의 정체성과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칸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유약한 독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끔찍한 장면과 심사규정에 넘는 원고 매수가 걸림돌로 지적되었으나 그럼에도(감점) 불구하고 타 작품에 비해 탁월한 솜씨를 보여준 작가적 역량을 높이 사 첫자리에 올린다.

은상 ▶ 바위의 창(窓)

한 편의 서사시를 읽는 듯 유려하고 시적인 문장이 심사자들을 신비의 동화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침착한 나레이터인 바위는 자연을 오염시키는 과학과 물질문명에 대해 냉소적이며 비판적이다. 그러나 주변인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말을 잃은 함묵증 어린이와의 만남을 계기로, 서로가 조금씩 가슴을 연다. 그러면서 무심한 바위에도 창이 있고, 지나가는 순례자 바람도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고 외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준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으며 생각하게 하는 동화다.

동상 ▶ 얼토당토 없는 토요일

제목이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아파트에 살던 토끼가 학교 사육장에서 자라게 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인데, 어린이들이 동물에게 쏟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건강하였다. 토끼에게 밥을 주기 위해 주인공이 아픈 몸으로 담을 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 갈등을 해결하는 솜씨나 막히지 않고 술술 써내려 간 문장으로 봐서 동화를 많이 써본 솜씨다. 그러나 소재의 신선도가 떨어져 아쉬움을 주었다.

동상 ▶ 파보는 내 친구

다문화가정이 늘어가는 시대적 현상을 리얼하게 반영한 작품이다. 학교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해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집에서는 부모의 불화와 폭력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라희'는 딱한 형편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간다. 훈혈강아지에게 동질감을 느껴 엄마가 요긴하게 쓰라며 주고 간 비상금을 털어 죽어가는 강아지를 살려내는 마음도 따스하고 건강하며, 아빠와 엄마를 화해시키는 과정 또한 잔잔한 울림을 준다. 군데군데 반짝이는 문장이 동화의 감칠맛을 더해 주는 점도 장점으로 보았다.

동상 ▶ 돌아온 망구아저씨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고 정신이 이상해진 망구아저씨 모습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동화의 요소 중 인물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을 다루는 솜씨나 심리묘사가 뛰어나고 구성도 탄탄하며, 주인공과 망구아저씨가 화해하는 결말처리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다. 감동적인 작품이었지만, 친숙한 소재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까웠다.

입선 ▶ 기특이

늘 자신감 넘치던 행운목이 새로 이사하는 집에서 구박을 받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견딘 끝에 귀한 꽃을 피워 다시 기특한 존재로 사랑받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난 행운목의 삶은 감동적이었다. 말라죽어가는 식물 한 그루에도 따뜻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마음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고 보아 손을 들어주었다.

입선 ▶ 숨은 별자리 찾기

아하! 소리가 나올 만큼 작품의 소재가 신선하여 심사자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읽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내용이었지만, 결말부분에서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완성했다면 높은 점수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화의 소재를 발굴해내는 안목과 소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내는 솜씨는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샀다.

회곡부문 심사평

금상 ▶ WHO여? Me랑께! 누구여? 나랑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는 치매노인과 요양원 얘기가 특별하지도 않다. 그런데 이 작품은 놀랍게도 해외에 입양되었던 입양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입양아는 우리 머릿속에 코 흘리게 어리개로만 각인되어 있으리라. 그런데 버려진 바로 그 아이들이 성장했고,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었다는 역사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놀라운 발상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눈물과 웃음을 교차시키는 연극적 재미 또한 만만치 않다. 다만 미국 양부모 밑에서 학대받는 부분이 상식선에 머물러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 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은상 ▶ 답장 밖 인성교육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여죄수들의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죄를 지은 과거가 있지만, 자신을 고쳐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자신을 개선시키는 의지를 넘어 사회를 고쳐보겠다는 원대한 희망까지 예시하고 있다. 그 희망의 목소리는 관객을 감동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동상 ▶ 성공남녀

이완용과 배정자라는 두 인물을 비교하며 친일청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물론 가상의 무대지만 배정자가 법정에서 행하는 뻔뻔함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용서도 좋지만 어찌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작품 후반부에 밀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조금 더 보강하면 탁월한 작품이 될 것이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760000-000009-10

제18회
공공
문화
대전
수상작품집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인사혁신처 www.mpm.go.kr